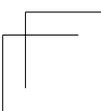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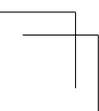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Suncheon Universal Design Master Plan



제 출 문

순천시 귀하
본 보고서를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개발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과업기간 2019년 11월 7일 - 2020년 9월 2일

제 출 일 2020년 9월

목차

Part 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개요

I. 개요

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개요

1.1 개요 및 필요성	8
1.2 목적 및 방향성	9
1.3 범위 및 체계	10

II.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및 원리

1.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11
1.2 유니버설디자인의 변화	13
1.3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리	14
1.4 유니버설디자인의 목표 및 필요성	15

2. 다양한 사용자의 이해 및 행태

2.1 다양한 사용자	17
2.2 사용자들의 차이	21
2.3 사용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고려사항	25

3.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3.1 유니버설디자인 국내 외 사례	26
3.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및 현황	30

III. 순천시 조사 및 분석

1. 순천시 현황

1.1 지역 특성	35
1.2 인구 특성	37

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

2.1 현장조사	41
2.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6
2.3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식조사	48

3. 종합분석

3.1 시사점 및 방향	53
--------------	----

Part 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I.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및 원칙

1. 기본방향 및 원칙

1.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56
1.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비전	57
1.3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7원칙	59

II.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1. 범위 및 구성

1.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위	60
1.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61

2. 가로

2.1 가로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64
2.2 적용지도	64
2.3 가이드라인	65
2.4 가이드라인 적용안	96

3. 공원

3.1 공원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102
3.2 적용지도	102
3.3 가이드라인	103
3.4 가이드라인 적용안	130

4. 공공건축물

3.1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134
3.2 적용지도	134
3.3 가이드라인	135
3.4 가이드라인 적용안	182

5. 관광지

3.1 관광지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186
3.2 적용지도	186
3.3 가이드라인	187
3.4 가이드라인 적용안	210

Part 3.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실천 및 활성화 전략

I.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방안

1. 최근 지자체 조례 분석

1.1 현황분석	218
1.2 시사점	225

2. 순천시 기존 법제도 분석

2.1 조례 분석	226
2.2 종합 분석 및 방향 설정	233

3.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안)

3.1 제정 방향	234
3.2 조례 내용	235
3.3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238

4.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담조직 구성

4.1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도입의 배경	240
4.2 기존 지자체 도입 사례	241
4.3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모델 정립	243

5.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체계 도입과 인센티브

5.1 타 지자체 운영 실태 및 평가	245
5.2 순천시의 특이사항	249
5.3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활성화를 위한 과제	251
5.4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체계 개발	254

II.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계획

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략 방향

1.1. 전략 방향 및 함의	262
-----------------	-----

2. 전략 방향별 추진과제

2.1 유니버설디자인 기획, 제작 인력 교육	263
2.2 주민참여형 유니버설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267
2.3 순천 유니버설 관광 홍보 플랫폼 구축	271
2.4 유니버설디자인 거버넌스 내실화	274

Part 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개요

I. 개요

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개요

- 1.1 개요 및 필요성
- 1.2 목적 및 방향성
- 1.3 범위 및 체계

II.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및 원리

- 1.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 1.2 유니버설디자인의 변화
- 1.3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리
- 1.4 유니버설디자인의 목표 및 필요성

2. 다양한 사용자의 이해 및 행태

- 2.1 다양한 사용자
- 2.2 사용자들의 차이
- 2.3 사용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고려사항

3.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 3.1 유니버설디자인 국내 외 사례
- 3.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및 현황

III. 순천시 조사 및 분석

1. 순천시 현황

- 1.1 지역 특성
- 1.2 인구 특성

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

- 2.1 현황조사
- 2.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 2.3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식조사

3. 종합분석

- 3.1 시사점 및 방향

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개요

1.1 개요 및 필요성

개요

순천시에 특화된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은 순천시의 비전 및 시정기조와 같이 “포용과 혁신의 생태도시 순천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특화된 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한다.

사람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순천시의 도시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중요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추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원칙 및 가이드라인, 법제화의 유기적 계획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은 그 방향과 원칙, 영역별 가이드라인, 실천방안 및 법제화를 함께 고민하여 각 단계별 도출 결과물이 유기적으로 연결, 계획과 적용에서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며, 순천시의 도시 디자인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실행체계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

필요성

- 순천시는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통하여 고부가가치적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 선암사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으로 생태도시로서의 순천의 브랜드가치는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순천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준비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도시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순천시의 필수적 과제임을 의미한다.
- 순천시는 타 광역 단체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자들을 배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유아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유아 및 가족단위의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시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하다.

1.2 목적 및 방향성

목적

순천시의 환경적 특성과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한 구체적이며 적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법제화와 홍보 및 교육, 시민 인식개선 방안을 도출, 도시 전반의 물리적 변화와 동시에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의 답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방향성

지역 특화된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순천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순천형 유니버설 디자인을 개발, 순천시의 생태환경과 더불어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다.

실제 활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수립

전문가, 일반인을 비롯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이미지로 작성하며, 추후 도시 사업이 진행될 시 활용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지침서로 계획한다.

심미적 가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제안

기존의 보편화된 유니버설디자인은 보다 안전, 편의 등 법규 및 기능적 요구에 주로 초점 맞추어져 있으며,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서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를 보완하여 기능적 만족도와 동시에 심미적 가치 실현을 함께 고려, 사용자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계획한다.

법제화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방안 및 시민 의식 개선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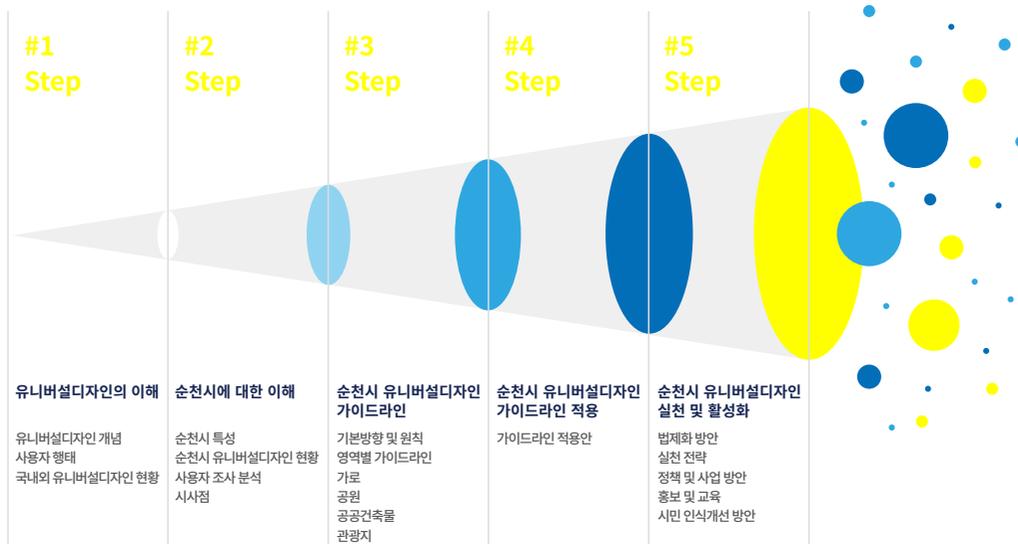
순천시 공공 및 민간시설물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관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과 함께 경험 중심 교육을 통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한다.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방향성

1.3 범위 및 체계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순천시의 환경적 지리적 인문적 특성 도출을 통하여,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 및 원칙을 도출한다.
- 도출된 방향 및 원칙을 기반으로 순천시의 대표적 공간적 범위들을 설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 및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의식계몽을 위해 순천시의 행정관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이미지 자산 구축 방법과 기존 주민자치회 및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연계 방안과 시민 공론화 방법을 제안한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범위 및 체계

II.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및 원리

1.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모두가 쉽게 접근하는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시초는 1950년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1970년에 로널드 메이스(Ronald L. Mace)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제안하며, 장애의 여부나 연령과 능력 및 삶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환경과 제품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¹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보편적인, 광범위한, 전체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즉, 연령, 성별, 장애, 신체조건, 능력, 국적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한 제품, 서비스, 공간, 환경의 사용성을 최대화 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도출한 산업디자이너 패트리샤 무어(Patricia Moore)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요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디자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 및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여 모두에게 유익함을 제공하는 디자인이다.



¹ "Ronald L. Mace on NC State University, College of Design". Design. ncsu.edu. Retrieved 2013-07-26.

모두를 위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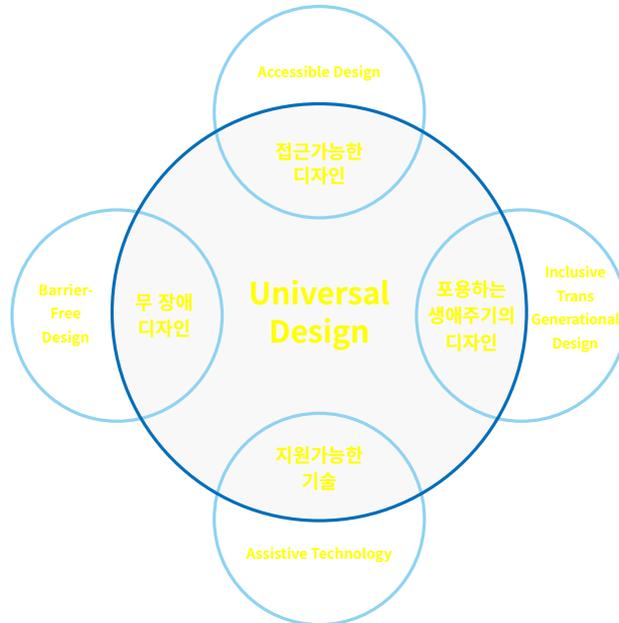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으로 정의하며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이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수의 사용자들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며, 미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최적의 요구를 수행하는 지속적인 디자인이다.

모두가 참여하는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은 누구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포함하며, 다양한 사용자의 참여에 의하여 실현되는 디자인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사람과 사회가 파트너 쉽을 만들어 사용자적 관점의 편의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디자인적 접근과, 법적 기준에 적합한 기술적 해결안 및 사용자 참여를 통해 정서적이며 세심한 디자인적 해결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물리적 환경부터 교육, 복지, 서비스, 정보의 기술까지 활용하는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 구성원의 물리적 서비스 뿐 아니라, 환경의 불편함의 해소까지 해결하는 사회 환경의 모든 분야를 개선하는 교육, 복지, 정보,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디자인 사고이다. 즉,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 조성 및 이를 이해하는 물리적 환경,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까지 포함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Aarhaug, Jgen. (2019). Universal Design as a Way of Thinking About Mobility: Challenges, Solutions and Collaborations. 10.1007/978-3-319-99756-8_6., 참고 후 재구성

1.2 유니버설디자인의 변화

- 유니버설디자인은 무 장애의 디자인(Barrier-free Design)으로부터 시작하여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으로 변화한다. 즉, 물리적 접근을 포함한 정보획득 등 비물리적 요소를 포함하고자 한다. 이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은 사용자의 요구의 다양성과 변화를 수용하는 적용 가능한 디자인(Adaptable Design)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그 이후 사용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생애디자인(Lifespan Design)의 개념을 포괄한다. 최종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은 초기의 무장애의 디자인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의미와 대상이 넓어지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개념으로 진화한다.
- 유니버설디자인은 행동을 넓히고, 적합하고 적절한 기술적 지원과 감성적이고 심미적인 접근이 결합된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준다.
- 배리어 프리 디자인은 고령자나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유니버설은 그보다 넓은 ‘모두’에게 유익한 디자인이다. 배리어 프리 디자인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개념이 진화하면서, 정서적인 개념이 보완된다.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진화

디자인 개념	내용
무 장애 디자인 Barrier-Free Design	환경에서 장애물을 제거한 디자인으로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쉽게 사용하도록 배려한 디자인이다.
접근 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단순한 물리적 접근을 넘어,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고려하여, 이용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구축하는 디자인 개념이다.
적용 가능한 디자인 Adaptable Design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는 디자인이다. 접근성에 대한 지표는 사용자마다 달라서, 각각의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향후 변화에도 대응하는 디자인이다.
생애 디자인 Lifespan Design	인간의 삶의 주기를 생각하는 디자인으로, 고령화 추세 및 시간의 변화에 대응한 환경의 개선과 관련한 디자인 개념이다.

유니버설디자인 흐름속의 디자인 개념

1.3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리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발전을 위하여 로널드 메이스(Ronald L. Mace)는 통합적 디자인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리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리

원칙1.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디자인은 다양한 요구와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유용하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사용 환경 및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의 규정을 제공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사용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원칙2. 사용의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사용자의 다양한 능력과 요구에 대하여 수용 가능하도록 충분히 사용자의 신체적 상황을 반영한다. 사용자의 취향 및 사용방법도 반영하여 디자인 한다.

원칙3. 단순하고 직관적 사용 (Simple and Intuitive Use)

환경이나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간단하고, 정확하고, 직관적인 정보의 사용성을 제공한다.

원칙4. 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주변 환경이나 사용자의 지각능력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정보와 주변 환경을 적절히 대조하고, 가독성을 극대화하고 지침이나 지시를 쉽게 제공한다.

원칙5.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사용자의 실수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실수에 대한 대비가 있도록 오류에 대하여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류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고 안전장치 기능을 제공한다.

원칙6. 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사용자의 피로감은 최소한으로 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제공되도록 한다. 사용자의 반복적 행동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사용성을 제공하여 힘들지 않은 조작이 되어야 한다.

원칙7.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 및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사용자의 신체 크기, 체형, 자세 및 이동과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접근하고, 도달하고, 조작하고, 사용하기 적당한 크기와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4 유니버설디자인의 목표 및 필요성

목표

유니버설디자인의 목표는 포괄적인 디자인과 환경적 접근의 센터(The Center for Inclusive Design and Environmental Access)에서 그 목표가 보다 명확히 정의되었다.² 4가지의 목표는 인체측정, 생체역학, 인식과 같은 인간을 향한 관심을 지향하고, 나머지는 사회적 참여 및 사회적 관심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 1 번째, 몸에 맞는 (Body Fit): 신체에 맞도록 한다.(Barrier-Free Design)
- 2 번째, 편안함 (Comfort): 편안하게 사용하게 한다.
- 3 번째, 인식 (Awareness): 쉽게 알게 한다.
- 4 번째, 이해 (Understanding): 누구나 쉽게 이해하게 한다.
- 5 번째, 웰빙 (Wellness): 건강하게 한다.
- 6 번째,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 사회를 통합한다.
- 7 번째, 개인화(Personalization): 개인화한다.
- 8 번째, 문화적 적절성(Cultural Appropriateness): 다양한 문화를 반영한다.

필요성

-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국제화 교류를 통한 외국인 여행자의 증가, 다문화 가정의 증가 및 저출산 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적 필요가 증가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유니버설디자인은 특별한 조정이나 개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용자 및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은 나이, 신체크기,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를 배려하고 이용하는 환경, 정보, 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편리성을 제공하며, 나아가 사회의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즐기는 기능과, 감성을 함께 고려한 공공의 디자인 공간 및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3,4}
- 유니버설디자인은 고비용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도시 전반에 걸쳐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은 다양한 잠재력의 디자인 개념이다. 미래 도시를 위해 기술, 교육, 서비스 및 기타 환경의 디자인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The Goals of Universal Design". Center for Inclusive Design and Environmental Access. April 10, 2012. Retrieved August 31, 2017.

3 Center for universal design (1997). Environments and products for all people. Raleigh: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Center for Universal Design.

4 Scott S. S., McGuire, J. M., & Shaw, S. F. (2003). Universal design for instruction: A new paradigm for adult instruction in postsecondary education.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4(6), 375-376.

- 유니버설 디자인은 20세기 산업 구조에서 등장한 제품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획일화된 기능주의 디자인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용자의 입장과 경험을 배려한 디자인으로, 선진 도시 구축에 필수적 요소이다.
- 유니버설 디자인은 도시의 환경, 제품, 서비스를 아우르는 행정개혁 및 도시 개발의 정비 사업에 적용되어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 문화와 같은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과 연계 가능하며,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2. 다양한 사용자의 이해 및 행태

2.1 다양한 사용자

- 유니버설디자인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및 일반인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이나 신체능력 및 정신건강이나 지적능력 등의 차이가 있는 이용자 누구라도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 유니버설디자인을 수행하는 기획자, 디자이너, 관리자의 경우, 사용자의 다양성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사용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신뢰를 두텁게 하는것이다. 두 번째,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실제로 따라 해보며, 환경에 의한 사용자의 기분이나 신체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A. 노약자

사용자의 특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시청각의 감각기관이 낮아진다.
변화의 반응속도가 느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
체력저하로 인한 반응속도의 감소로 낙상의 위험이 있다.
방향감각이 둔화된다.

사용자를 위한 고려사항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보행능력이 약화되어 적절한 거리마다 쉼의 시설을 만든다.
감각기관의 둔화로 낙상 등 위험의 장애요소를 최소화한다.
안전 난간 시설 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B. 어린이

사용자의 특성

환경 변화나 위험물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떨어져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호기심이 많아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
눈의 위치가 낮고 손잡이를 향한 가동범위가 낮다.
심리, 신체, 사회적 발달 및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사용자를 위한 고려사항

신체 치수 등을 고려한 시설물 높낮이 및 치수를 고려하여야한다.
이해속도가 낮아서 쉽고 흥미로운 표현으로 정보를 안내하여야한다.
신속한 판단과 속도가 느려 단차이 모서리 등의 위험물을 최소화하여야한다.
호기심으로 돌발행동이 있을 수 있어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야한다.
안전한 바닥재, 날카로움, 미끄러지지 않는 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관리한다.

C. 영유아 동반

사용자의 특성

유모차와 많은 짐을 동반하고, 항상 영유아를 보살피어야 한다.
이동 거리 및 이동에 제약이 많다.
영유아를 안거나 돌봄에 쉽게 피로하다.
일반인에 비해 이동속도가 느리며, 장시간 보행이 어렵다.
긴급상황의 판단에 대응이 느리다.

사용자를 위한 고려사항

영유아의 상황(모유수유, 기저귀 교체)등에 대체하기 위한 공간을 고려한다.
청결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유모차 등의 보조기구를 보관할 공간을 확보한다.
영유아를 장애물 없이 관찰 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한다.
영유아와 함께 활동이 가능한 시설, 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한다.

D. 임산부

사용자의 특성

신체적인 변화로 장시간 이동이 불편하고, 이동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느리다.
감각이 발달하여 청각과 후각이 예민하다.
행동에 제약이 많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다.
위험환경에 반응이 신속하지 못하며,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를 위한 고려사항

적절한 거리마다 쉬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벤치가 필요하다.
보행속도가 느리고 변화된 체형을 위한 동선의 폭을 확보한다.
계단의 턱을 낮추거나 엘리베이터 등 보조시설을 확충한다.
단차 및 넘어지기 쉬운 장애턱을 최소화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을 처치 가능한 인지가 쉬운 정보안내시스템을 만든다.

E. 외국인 및 관광객

사용자의 특성

정보의 부재로 공간을 찾거나 이동하는 데에 쉬운 정보가 필요하다.
언어적 이해를 위하여 다국적 언어 표시의 안내판을 찾는다.
보행이나 이동시에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언어 및 공간의 인지가 낮설기 때문에 정보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는다.
신체의 크기 및 높이의 차이로 이동 및 인프라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생활의 다름과 이질성을 느껴서 안내를 필요로 한다.

사용자를 위한 고려사항

안내정보가 알기 쉬운 문자나 픽토그램 및 다양한 언어의 정보를 제공한다.
시설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조작하기 쉬운 시설물을 설치한다.
공간 및 시설과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구 및 환경의 사용이 사용자에게 맞게 변화 및 구조적 변경이 용이하게 한다.
필수 정보들은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F. 장애인

1) 지체장애인

사용자의 특성 - 지체장애

신체의 사용이 부자연스럽거나, 보조기구(휠체어)의 이용으로 보행능력이 떨어진다.
계단 및 경사로의 수직이동이 어렵다.
이동과 회전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위험요소에 반응이 느리고 손이 닿는 범위가 좁아 물건 조작이 어렵다.

사용자를 위한 고려사항

보조기구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디자인을 제안한다.
경사로 설치 시 휠체어 이동에 용이한 기울기를 선정한다.
회전 반경을 고려한 충분한 폭을 확보한다.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계획을 진행한다.
공간에 대한 정보는 눈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긴급 상황에 대비 가능한 유도, 안내시설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2) 청각장애인

사용자의 특성 - 청각장애
정보의 인지나 이해가 떨어진다.
공간감이 떨어지며 외출 시 긴장을 한다.
촉각과 시각이 발달되어 있다.

사용자를 위한 고려사항

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림 등을 통해 공간과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의 인지 및 이해가 쉬운 디자인을 제공한다.
촉각을 활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간의 이동 및 쉬운 파악을 고려한다.

3) 시각장애인

사용자의 특성 - 시각장애
위치, 장애물, 방향등 정보인지가 부족하여 보행이 곤란하다.
시각적인 능력이 제한되어 위험요소를 그대로 흡수한다.

사용자를 위한 고려사항

시각을 대신하는 점자, 음성 안내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보행을 위하여 난간 등 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한다.
시각정보 외에 쉽게 파악하고 인지 가능한 청각, 촉각 등을 활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행 시 단차 및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쉽고 안전한 길을 제공한다.

4) 지적장애인

사용자의 특성 - 지적장애
언어공간 인지가 떨어지고,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이 곤란하다.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곤란하다.
복잡한 정보처리가 어렵다.

사용자를 위한 고려사항

안내정보를 알기 쉬운 문자 및 픽토그램을 제공한다.
시설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작이 쉬운 시설을 설치한다.

2.2. 사용자들의 차이

신체능력의 차이

이동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들은 단차가 있는 길에서 어려워하고, 임산부들은 중간에 쉬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은 안전한 보행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일정간격마다 쉼터를 제공하여야한다. 또한 누구에게나 안전한 보행 거리를 조성하여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디자인을 제공한다.



누구에게나 안전한 보행 안전한 보행을 위한 경사로 설치 보행 안전을 위한 신호등 보행 중 쉼터 제공

균형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은 사용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및 안전시스템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균형 잃기 쉬운곳 안내 화장실 안전 손잡이 보행을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보행 보조기

조작 및 도달범위

사용자별 신체적 조건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는 신체적 움직임의 높이가 낮을 수 있고, 노약자는 움직임에 제약이 있으며, 임산부 및 장애인은 조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조작의 능력, 힘의 정도, 모양 및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하다.



조작이 쉬운 공공시설 조작 및 인지가 쉬운 스마트 안전 손잡이 조작범위가 넓은 열림 버튼 열고 닫힘 쉬운 문

감각능력의 차이

언어 및 소통

언어를 활용한 정보의 소통이나 대화와 사회문화에 따른 소통의 전달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의사소통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각 정보

청각 정보는 소리에 반응하기 및 듣기 능력에 대한 정보로, 노화, 유전, 질병 및 다양한 요인으로 청력 손실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소리 외에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난청자 및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청음이 쉬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 정보

눈으로 보고 인지하는 감각으로, 사물의 형태와 색, 거리를 인지하는 정보를 말한다. 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노화, 장애, 임신 및 시력감퇴에 위한 시야 결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인지하기 쉬운 다양한 감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촉각 정보

피부에 닿는 촉각의 감각에 의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하여, 신체 지각 중 피부의 경험으로 세상을 소통하는 감각이다. 생물학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소통을 수행하고 치유와 치료에도 중요한 정보이다. 시정각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에도 촉각 정보가 중요하다.



촉각으로 식별하는 번호패드 촉각으로 표현한 디자인정보 촉각을 활용한 시계 벽을 활용한 안내

인지능력의 차이

지적 능력

지적능력은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장애, 노약자 및 후천적 환경과 선천적인 결함을 가진 경우 지적기능에 사회적 이해 및 적응기술에 제한이 따르므로, 복잡한 정보 및 공간일 경우 정보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외국인 이용자의 경우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이해가 쉽고, 간단한 동선과 알기쉬운 공간에 안내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바닥의 정보표현 쉬운 남녀화장실의 정보제공 보도의 이면도로의 쉬운 정보제시 시각 특성상 피로가 쉬운 사용자들을 위한 심터제공

인지

정보를 이해하고 인지하는 능력으로, 공간의 정보와 사물에 대한 이해 및 자기표현에 각각 개인별 차이를 지닌다. 이해가 쉽도록 정리된 일관된 정보와 규칙적인 시각정보의 제공등으로 이용자에게 편리한 정보습득과 공간에 대한 인지를 쉽게 할수 있도록 한다.



알기쉬운 출입구 디자인 공간의 이미지를 위한 체험장소제공 오감의 정원 심터 제공 인지가 쉬운 위험신호 제공

나이와 신체 및 문화의 차이

유니버설디자인은 영유아 및 노약자의 생애주기를 포함하고,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제공한다.

영유아 및 아동

아동은 신체가 작고 도달범위가 작으므로 그에 맞춘 디자인 및 안전을 고려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자 및 동반자와 함께 이동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인과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수유공간, 유아놀이방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영유아 동반의 경우 유모차 및 기저귀 교체, 아이의 청결유지를 위한 위생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아동 눈높이의 안전한 환경

아동 눈높이를 고려한 디자인

영유아 돌봄을 위한 환경

유모차를 위한 환경 제공

노약자

노약자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활동이 둔화되므로, 보행중 쉼을 위한 쉼터 조성 및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조기구 등의 다양한 물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을 대비한 환경조성을 통하여, 노약자에게 편리한 이동 및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노약자의 이동보조기구사용

근력 저하 및 체력의 감소변화

시력의 감퇴

움직임의 위험요소를 제거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

신체적, 체형적 차이로 나타나는 물리적 사용범주 및 조작에 대한 어려움의 차이를 고려한 시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 및 언어의 차이를 배려한 언어적 다양성 및 인지가 쉬운 안내시스템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양한 신체와 문화의 사람

언어의 다양한 정보 제공

연령, 체격에 맞게 다양한 장비

지각이 쉬운 정보 및 편의

2.3 사용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고려사항

유니버설디자인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고려할 사항들은 이동연계성, 정보 전달 체계, 안전관리, 생애주기 및 사용자 경험으로 종합하여 볼 수 있다.

이동 연계성 및 조작의 고려

보행의 동선, 폭, 기울기에 대한 고려, 쉬운 조작에 대한 고려

정보전달 체계의 고려

공간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쉽고 직관적인 시각, 촉각, 청각 정보전달

안전관리의 고려

사고의 예방 및 안전한 사용성의 고려

생애주기와 사용자 경험의 고려

생애주기를 이해하고 사용자의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경험을 고려

3.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3.1 유니버설디자인 국내외 사례

국내외 선진 도시들은 이전의 획일적인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각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본 사례조사는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중, 공공과 민간의 구분없이 순천시의 다양한 실내외 공간에 실제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우수 도시공간 및 건축물의 사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국가	도시	대표사례	이미지	특징
영국	버밍엄 Birmingham	Library of Birmingh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턱이 없는 동선 최대한 적용 자동문, 램프, 슬로프를 이용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층을 오르내리며 시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화장실
	브리스틀 Bristol	Bristol Legible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 종합적인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정보를 쉽게 인지하도록 디자인 브리스틀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가독성이 좋은 '브리스틀 트랜지트' 서체 적용, 컬러의 경우, 브리스틀이 항구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파란색을 주조색으로 선택
	체스터 Chester	Chester Z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게 체험형 전시 관람 기획 공원 전체의 화장실, 문턱 등 모든 공공 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편안한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자연 친화적 재료 및 색 적용
미국	시카고 Chicago	The Chicago Riverwal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성을 높인 경사로, 휠체어와 같은 높이의 벤치, 보행자 피로도를 낮춘 그늘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현대적 방식으로 적용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 재료 및 색 적용, 시각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유니버설 디자인 구현
	캘리포니아 California	Lighth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02년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복지기관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독립보행, 요리, 컴퓨터 및 점자보조기기 사용법, 자립 생활 등을 학습 공간전반에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보색 적용과 촉각적 경험을 제공,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구현
	포틀랜드 Portland	SW Moody A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와 대비가 강한 초록색의 자전거 도로를 적용하여 시각 장애인 또는 노약자의 안전을 위한 시인성 강화
		Portland L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과 노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처음 도입되어 기타 미국 도시들에 설치 중

일본	오사카 Osaka	오이즈미 녹지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최초의 유니버설 디자인 컨셉의 공원 •휠체어를 배려해 화단의 단을 낮추거나 약시를 위해 다양한 꽃의 색을 조합하는 등 장애인들도 색과 소리와 향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초를 접할 수 있도록 디자인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공원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 배치
	후쿠오카 Fukuoka	나나쿠마선 지하철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출입 홈의 단차를 없애고,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높이의 티켓판매기 설치 •개찰구에서 최단 거리 엘리베이터 설치 •출입구 번호를 쉽게 인지하도록 디자인 •발권기는 4개 국어를 표기해 외국인도 불편함 없이 이용
	시즈오카 Shizuoka	누마즈 버스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정류장의 낮은 단차와 차도 쪽으로 나오도록 디자인된 지붕 설치 •시인성 좋은 사인 정보 시스템 도입
		후지산 코도모노쿠니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도블럭, 음성유도안내, 촉지도, 가족용 화장실 설치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극 도입 •열차형 관람차에 휠체어를 탄채 승차 가능
싱가포르	싱가포르 Singapore	Enabling Village 장애인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학교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장애인에 대한 교육, 훈련,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첨단 보조기구 시연장, 장애인용 체육관, 의료클리닉, 장애인의 예술작품을 판매하는 아트숍 등을 갖춘 •식당과 카페는 장애인 직원들이 운영
		City Square Mall Playg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핑몰 외부 놀이터에 장애아동을 위한 회전놀이기구를 설치하여 BCA 수상 •가족 전용 자동차를 위한 패밀리 파킹스팟 제공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구비 •남녀화장실 모두 영유아용시트 설치
		Gardens by the B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작단계부터 장애인들과 협업하여 공원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대한 실험 진행 •장애물 없는 공간 및 편리한 정보시스템 구축 •어린이를 위한 샤워 구역과 같은 가족친화적인 위생 시설 배치 •휠체어를 타고 이용가능한 관광 관람차 제공

한국	화성 Hwaseong	나래울 종합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문을 연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화성시의 대표적인 건축물 •무 단차, 슬로프 설치, 넓은 통로 및 복도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 확보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1급 인증
	서울 Seoul	서울신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부터 'Barrier Free' 예비인증 최우수등급을 받아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공사 진행 •장애인복지과를 신관동 1층 서측 입구 바로 앞에 위치, 접근성 높임 •반구형 점자안내판(음성유도기, 직원호출버튼) 설치 등, 다양한 UD 편의시설 설치
		국립중앙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 및 엘리베이터, 수유실 등 마련 •수화통역 전시 해설과 영상해설기, 음성해설기 대여 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도입
		성동구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안내, 보행안전, 이용배려 등, 크게 3가지 관점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진행 •안내판을 눈높이에 맞춰 교체 및 지도 등을 선명하게 대비되는 색으로 교체 •화장실에 어린이 및 장애인 등을 배려한 다양한 시설 설치
	경기도 Gyeonggi-do	산성동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경기도의 첫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사례 •계단의 높이를 낮추고, 유모차를 끄는 어머니나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구축 •안전을 위한 주차장과 통행로 구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마련
	대전 Daejeon	대전 CT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최우수 등급 획득 •건물 내외부에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적용 및 친환경적인 요소 적용
		대전시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인증하는 '장애물 없는 건축물' 1호 선정 •장애물없는 공간 및 편리한 정보시스템 구축 •1층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강카페' 마련

3.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및 현황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 및 제도

국내에는 장애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환경 조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제화가 진행되어 왔다.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1981년도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의 시발점은 1981년에 제정된 국내 최초 장애인복지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목표로 두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와 그밖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한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는 목적을 포함하였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었으며, 실천 항목들의 설정이 구체적이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국내 최초로 장애인을 배려한 법을 제정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심신장애자복지법 (보건복지부): 1989년도

이전의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장애인에게 일상의 삶속에 편리한 사용의 제공과 사회적 참여 활동에 대한 더욱 쉬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전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정했던 장애의 대상이 지체부자유, 시각, 청각, 음성 및 언어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으로 제한되었다면, 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통하여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장애인등편의법 (보건복지부): 1997년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시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또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그 대상을 장애인에서 노인, 임산부까지 포함시킨 것을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시행령에는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들과 안내표시에 관한 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세부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하여,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교통약자법 (국토교통부): 2005년

2005년 국토교통부는 <장애인등편의법>서 교통시설, 도로에 대한 부분을 분리하여 <교통약자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리에 중점을 두어 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개선 및 확충 등 교통약자들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여 인간중심적 선진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를 수립하였다. 당시 교통약자법이 정한 대상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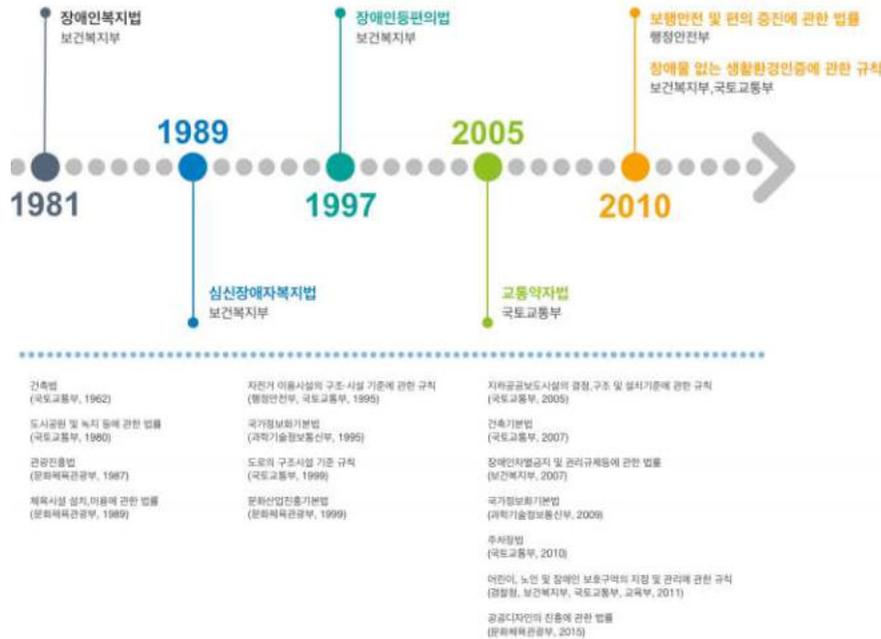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0년

사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보행자길의 통행과 이용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역사적 의미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등을 포함하여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정비하도록 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10년

국토교통부는 2010년 <교통약자법>의 하위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인증대상으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대상 시설(제7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1. 공원 2.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및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과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포함한다. 이를 통하여 단순한 시설물의 설치를 넘어, 시설물간에도 상호연계성을 높이며, 전체적인 이동 동선의 중요함을 제기,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 김남진, (2017) 좋은 장소 만들기 시범프로젝트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 연구 보고서, (사)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p.35 참고 후 재구성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사회 전 분야에 정부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 및 정책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에 관련 법령에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했었지만, 노약자가 많은 화성시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국내 최초로 제정, 뒤를 이어 많은 지자체들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권장 및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10곳 등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6곳이 수립된 상황이다.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경우,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는 경우도,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이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편적인 환경 등의 생활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주목적이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중 하나인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경우, 신체의 장애는 있어도 생활의 장애는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놀이시설 등의 다양한 공공시설물들에 적극 도입하고, 민간시설물에도 권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지역별 대표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

- 화성시: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12
- 경기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2013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2016
- 전라북도: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2015
- 천안시: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15
- 화성시: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2016
- 의정부시: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1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16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 2016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17
- 용인시: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17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1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18
- 과천시: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20

국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 관련 제도 법규 및 현황

독일

- 독일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에 ‘누구라도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기초로 건축물·주택분야에서 장애인 및 고령자를 배려한 정책을 실시함

장애인평등법

- 1994년 개정된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에 따라 2002년 4월 27일 연방차원의 장애인평등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어서 각 주정부별로 평등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장애인평등법에서는 장애인이 특별한 어려움, 또는 외부의 도움 없이 건축 등의 시설물, 교통수단, 기능적 도구, 정보처리체계, 청각 및 시각적 정보원, 의사소통수단 및 기타 그 이외의 생활시설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선언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의 책무로 규정(제4조)
- 이에 따라 신축건물, 대규모 재건축 및 증축에 독일공업규격(DIN 18040)에서 정한 기술규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민간을 포함한 국가가 관리하는 각종 건축물에도 적용

독일공업규격(DIN 18040)

- 공공건축, 주거, 교통시설 및 공공공간의 세 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택의 경우 신축되는 집합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은 단순 편의시설의 설치 이상의 무장애화된 주택 설치 의무화

일본

- 법령에 의한 수혜자가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 대상 시설이 시설 및 시설간의 경로로 확대(기존 이원화된 법체제로 점적 정비에 그친 것을 법률의 일체화를 통하여 도시공간차원의 무장애화로 추진)
- 중점정비구역의 설정과 이용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 보완

배리어프리 신법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건축물에 관련된 법률(하트빌딩법)과 교통배리어프리법을 통합하여 2006년 12월 시행하였으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목표화

미국

- 미국은 1961년 장애인 관련시설의 국가규격인 ANSI A117.1-2009 (Standard for Accessible and Usable Buildings and Facilities)를 제정하여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미국의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 국가 법령인 FHA(Fair Housing Act),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BA (Architectural Barriers Act) 등과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음(각 법령별로 법 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디자인지침을 두고 있음), 각 주(州) 및 정부부처별 선택적으로 사용

건축배리어법(1968)

- 연방정부의 자금을 이용하여 설계, 건축, 개축 등이 이루어지거나 연방 정부의 기관이 사용하는 건축물·시설을 접근가능한 디자인 방향으로 설치

재할법 제504조(1973)

- 연방의 자금제공을 받은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1990)

- 고용, 행정서비스, 교통, 공공건물, 전화서비스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영국

- 기존의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에서 모든 사회영역 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별 접근 및 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기준 수립 및 시행

장애인차별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DDA)(1995)

- 공공이용시설의 접근성에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 사항은 제3장에 재화와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제5장 대중교통에 관한 내용 포함

평등법 the Equality Act(2010)

- 기존의 고용,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차별금지법을 통합하여 단일 평등법으로 시행하여 연령, 성적 소수자, 종교와 인권까지 포함한 사회 전영역의 차별 금지
-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물에 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축기준 (Building Regulations 2010의 Part M, Approved Document M) 과 이와 관련된 상세 기준인 BS:8300 수록
- 정부차원에서 Planning Policy Statements and Guidance, the Building regulations 2000과 장애차별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물리적으로 제약 없는 환경 조성 제시
- 이러한 법률 아래 런던시의 경우에는 London Plan(런던 도시계획기준)과 ‘Equal Life Chance for All’이라는 비전 및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사람에게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한 환경 구축

스웨덴, 덴마크

- 장애인·비장애인이라는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살기 좋은 사회라는 이상을 가지고 정책 추진, 장애인을 배려한 특수 교통수단(STS 등)의 이용보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비

건축법(Building Act)

- 신축 및 개축시의 건축·주택에 대하여 건축허가 요건으로 무장애 의무 부여
- 주택 내 승강기 설치비의 50%까지 지원을 해주며,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이용 제고를 위한 주택개조 지원 실시

III. 순천시 조사 및 분석

1. 순천시 현황

1.1 지역 특성



위치 및 면적

- 순천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의 일부는 바다에 면하여 있다. 면적은 910.44km²로 동서 간 약 38km, 남북 간 약 39km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 여수시와 광양시에 진입하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거점이 되고 있다.

기후 및 지형

- 순천시 북부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남해안형 기후지역에 속한다. 지리적 위치상 남해에 면하고 있어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한월인 1월에도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 순천지역의 여름은 남동풍이 많이 불고 고온다습하며 강수량이 많다. 겨울은 강한 북서풍이 많이 불지만 삼한사온으로 크게 춥지는 않고, 봄과 가을 날씨는 맑고 온난한 편이다.
- 순천의 지형과 지세는 대체로 북쪽과 서쪽이 높고 기복이 심하여 시의 대부분이 산악에 중첩해있으며, 순천만과 광양만에 접해있는 남동쪽으로는 평야지대가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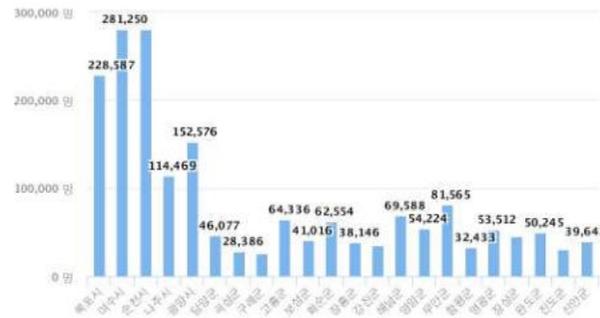
도심 환경적 특성

- 관광자원이 도시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는 순천시내(순천만 정원, 순천문학관, 갈대밭), 별량상사권역(상사호, 화포해변), 해룡권역(순천왜성, 검단산성), 승주권역(선암사, 송광사), 낙안권역(낙안읍성, 월평리구석기유적지) 등에 위치해있다.
- 자연재해가 많지 않고, 청정한 지역 특성으로 2018년 순천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살기 좋은 도시 10’(2007년부터 3년 연속 수상), 유엔환경계획(UNEP) 공인 ‘2010 리브컴 어워드’ 수상 등 도시공간의 우수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 순천시는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공식 선정됨에 따라, 국제적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동북아 네트워크 구축과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2023년에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유치될 예정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도시 전역에서 정원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심환경을 구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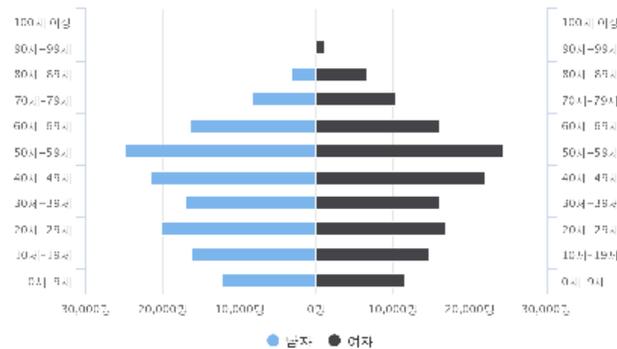
1.2 인구 특성

전체 인구수

- 순천의 인구수는 2020년 5월 기준 총 280천명(전라남도의 15.1%)으로, 전라남도에서 여수 다음으로 가장 인구수가 많다.
- 전년대비 인구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인구가 15천명(0.8%) 감소한 반면, 순천 인구는 0.5천명(0.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인구수는 50대가 1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15.6%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인구 현황 (2020년 5월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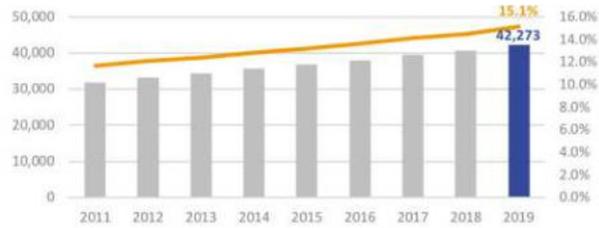
순천 연령대별 남녀 인구현황 (2020년 5월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고령인구

- 순천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5월 기준 43천명으로, 전년대비 2천명(5.2%)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순천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9년 15.1%로, 전라남도 평균 22.6%와 전국 평균 15.5%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 순천은 2017년에 고령인구 구성비 14.1%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 20.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2015~2035 전남 시군 장래인구추계」, 전라남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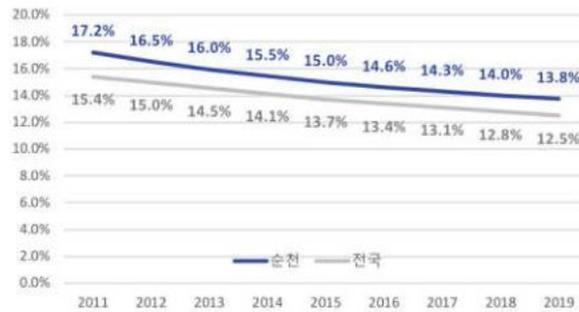
* 고령화사회: 고령인구 비율 7%이상 / 고령사회: 14%이상 / 초고령사회: 2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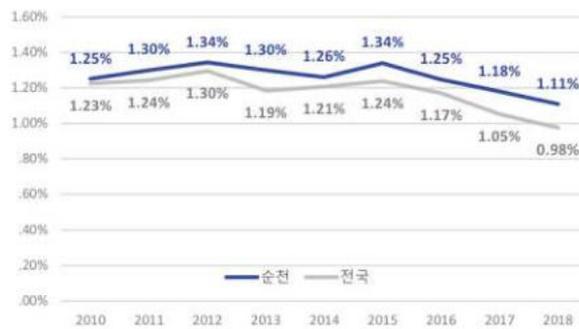
순천시 연도별 고령인구 현황 및 비율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영유아 및 어린이

- 순천의 영유아 및 어린이 인구(14세 이하)는 2020년 5월 기준 38천명(전라남도의 17.8%)으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순천의 영유아 및 어린이 구성비는 2019년 13.8%로, 전라남도 평균인 11.7%와 전국 평균 12.5% 대비 해당 연령비율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
- 단, 출산율 및 출산 인구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14세 미만 어린이의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 전년대비 0.5천명(1.4%)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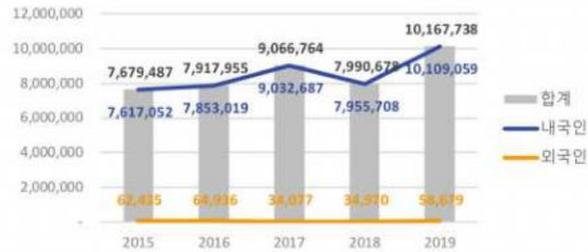
순천시 연도별 영유아 및 어린이 인구비율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순천시 연도별 출산율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국내·외 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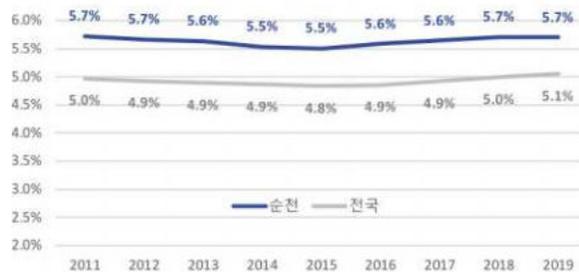
- 2019년 순천 국내·외 관광객 수는 1,017만 명으로 전년대비 27.2% 증가하였으며, 2015년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포함한 순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 수는 2015년 768만 명에서 2017년 90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8년에 800만 명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다.
- 순천 관광객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5.9만 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0.6% 수준이며, 2015년 6.2만 명(0.8%)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순천시 연도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출처: 순천시 시정주요통계)

장애인

- 순천의 장애인 인구수는 2019년 기준 16천명(전라남도의 11.2%)으로, 전라남도에서 여수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순천의 장애인 인구는 2019년 기준 도시 총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라남도 평균 7.6% 대비 낮은 편이나 전국 평균 5.1% 대비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장애인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그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연도별 장애인 인구 비율 (출처: 통계청 등록장애인수)

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

2.1 현장조사

개요

- 순천시에 적합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순천시의 주요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 관광지 등을 우선으로 그 조사대상으로 보았다.
- 현장조사는 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사용자의 행동 특성을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7원칙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 현장조사 결과는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간 분류체계인 가로, 공원, 공공건축물, 관광지로 분류하였으며, 분석현황 중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분석기준	세부내용
다양성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있어 능력, 연령, 인종에 따라 소외되지 않고 선택 가능한 디자인
편리성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디자인
공감성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다름이 존중되는 공감과 소통의 디자인
안정성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이 마련된 디자인
심미성	생태 도시 순천의 심미적 가치를 담은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디자인
지속성	친환경 자재 및 에너지 절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디자인
혁신성	사용이 쉽고 편리한 기술이 접목된 디자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7원칙

공간별 현장조사

구분	사진	내용	
가로	<p>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 진입부에 각종 시설물이 혼잡하게 배치되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 • 차량진출입구간에 과도한 볼라드 설치로 보행연속성 저해, 과도한 점자블럭 설치 	
	<p>자전거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미확보 • 자전거도로임을 나타내는 노면 표시 노후화 및 안내판 부재 	
	<p>버스승차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승차대 설치 구간 보행로 충분한 유효폭 미확보로 통행 방해 • 버스승차대 및 안내 사인의 과도한 색채 사용으로 직관적인 내용인식 어려움 	
	<p>볼라드</p> 	<p>맨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라드 과다설치로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동선 간섭 • 맨홀뚜껑과 보도간 단차발생으로 보행 이용에 불편

조사대상 : 순천시내 각 가로공간

구분	사진	내용
공원	<p>접근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출입구의 볼라드 간격 협소로 휠체어 이용자 접근이 어려움, 높이가 낮은 석재 볼라드는 보행자 안전사고 유발 • 접근로 단차 발생, 적절한 안내시설 또는 표지판 미설치
	<p>보행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내 보행로 단차 발생 • 보행로 진입구간 뚜껑이 없는 타입의 배수구 설치로 유모차 바퀴, 지팡이 등이 빠질 수 있는 구조
	<p>화장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 장애인 화장실이 내부에 위치. 출입문이 여닫이 형이고 통로 폭이 협소하여, 실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어려움
	<p>놀이터/휴게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이용 가능한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 부재 • 공원 내에 위치한 무대형 광장,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의 접근이 어려움
	<p>음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수대 접근로 단차 발생 및 바닥마감이 고르지 않음 • 음수대 주변 휠체어 등의 활동공간 부족, 성인 기준의 높이 적용으로 어린이, 노인 등의 이용에 불편
	<p>조사대상 : 조례호수공원, 버드내공원, 연향어린이공원</p>	

구분	사진	내용
공공 건축물	주차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주차장 내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의 색상 및 픽토그램, 디자인이 각각 상이함
	건물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로 진입하는 경사로에 난간이 없거나 높이기준 미달로 노약자 이용에 불편
	위생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통로에 휴지통 설치로 충분한 통로폭 미확보 •화장실 내 세면대의 높이가 성인 기준으로만 설치되어 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
	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이를 위한 높이가 낮은 창구가 없고, 짐이나 가방 등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없어 이용에 불편 •과도한 형태로 주변과 어우러지지 못한 자전거보관대 디자인
	공공정보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향표지판이 시야보다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하고, 글씨의 크기와 색상 등의 시인성이 떨어짐 •건물 출입부에 부착된 각종 안내판의 형태나 디자인에 통일성이 없어 미관을 저해

조사대상 :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삼산도서관, 기적의도서관

구분	사진	내용
관광지	<p>안내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이의 사용을 배려하지 않은 대표소 창구 높이 계획, 점자블록 미설치 • 종합안내도 외에 입구, 화장실, 관광지 소개 등 부분적으로 외국어 표기 누락
	<p>보행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 내 이동 및 접근동선에 난간이 없거나 높이기준 미달로 노약자 이용에 불편
	<p>화장실</p>  <p>관람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세면대 미설치 • 관광지 내 관람차에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할 수 있는 시설 부재
	<p>시설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 내 음료대 주변 충분한 활동공간 부족 및 경사진 지형, 성인기준의 높이 적용 • 유지관리가 어려운 소재 적용한 디자인으로 외관 손상, 휴지통의 기능별 안내서체가 작아서 직관적인 인식이 어려움
	<p>공공정보매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식되는 소재 사용으로 방향 안내판 손상 및 정보인식 어려움 • 서체의 종류, 크기, 색상 등의 통일성 및 위계가 없어 직관적인 인식이 어려움

조사대상 :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삼산도서관, 기적의도서관

2.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 순천시는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근린재생형 사업, 2018년 중심시가지형 및 일반근린형 사업, 2019년 역세권 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 이후부터 3년 연속으로 도시재생 평가 최고등급을 받았다.
- 도시재생선도사업 시행 이후 2016년 기준 원도심 중심가로 내 점포 수가 67.4%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매출액 11.2% 증가, 빈집은 8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창업 증가와 함께 2013년 10건에 그쳤던 건축허가가 2015년 20건으로 대폭 증가해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 순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드웨어 비중을 60%,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비중을 40% 수준으로 할애하여 지역사회의 교류 및 문화 복원에 힘써왔다.
- 주민주도형 마을기업, 협동조합 40개 설립, 원도심 빈집을 이용한 43개의 청년창업 챌린지숍/공연장/쉐어하우스 등 골목상점 25곳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대 187개의 빈집을 7동으로 감소시켰다.
-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중앙시장과 순천중앙지하상가를 중심으로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여, '씨내몰'로 브랜드 리포지셔닝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옥천 옆 옥리단길(저전동 일대)의 경우, 카페/전시공간/공방 등으로 바뀌었으며 소비자가 모이는 활성화된 상권으로 재구성 되었다.

경관거점 확보 및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 [2030년 순천도시기본계획]

- 순천시는 지역 내 녹지경관이 풍부한 편이나, 잇따른 개발 등으로 훼손된 구역도 상당수 존재하여 녹지 거점관리 및 수변공간 보전을 위한 경관 거점관리 정책을 계획하였다. 이외에도 공업지, 시가지 등을 중심으로 색채 및 각 공간 자원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관 거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순천시는 2020년 기준 유니버설디자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관련 부서		추진 사업명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순천시 스마트도시 계획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KT기반의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시스템 운영
	회계과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단차제거, 시설안내 등)
일자리경제국	도시재생과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사업화 사업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공사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조성사업 순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체육진흥과	신대 유/청소년 수영장 건립 신대 스포츠센터 건립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특화거리 조성 순천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식 설치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여성/아동 안심귀가길 조성사업
	도시과	UD기본계획 수립
	건축과	아파트 단지 내 속도방지턱 설치
	도로과	시민로 개선공사 장천 지하차도 개선공사 봉화터널 인도 분진, 소음 차단장치 설치공사 봉화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
	교통과	정류장 승객 알리미, 발광지명표지판 설치 교통약자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환경 개선 교통약자 주차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공사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공사
순천만관리센터	국가정원운영과	습지센터주변 관람동선 정비공사 습지센터 무대 경사로 설치공사 순천만 습지 조류 유리창 방지테이프 부착

표. 2020년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추진 사업 현황

2.3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식조사

- 실제 순천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순천시민 및 순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 인식평가, 각 분야 및 공간별 중요도 평가, 정책 및 시민참여활동 관련 인식평가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항목 중 주요 내용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설문개요

- 기간: 2020. 6. 4. - 7. 5. (1개월 간)
- 목적: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인식 및 중요도 조사
- 참여대상: 일반 시민 대상
- 설문방법: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 및 설문지 취합

일반사항

- 총 765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50대가 27%, 40대 23%, 30대 21% 순으로 분포하였다. 성별은 남자 48%, 여자 52%로 분포하였으며, 직업은 회사원 22%, 공공분야 20%, 가정주부 17% 순으로 집계되었다.

연령	응답자수(명)	비율
10대	31	4.1%
20대	103	13.5%
30대	161	21.0%
40대	176	23.0%
50대	204	26.7%
60~64대	49	6.4%
65세 이상	41	5.4%

성별	응답자수(명)	비율
남자	363	47.5%
여자	402	52.5%

기본 인식 평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 질문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잘 안다	105	13.7%
어느 정도 안다	151	19.7%
보통이다	100	13.1%
잘 모른다	206	26.9%
전혀 모른다	203	26.5%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시행에 대한 인식 질문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알고 있다	309	40.4%
잘 모른다	456	59.6%

순천시의 각종 공공 디자인 정책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여부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그렇다	339	44.3%
잘 모르겠다	115	15.0%
아니다	311	40.7%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 디자인과 기획에 있어서 잘 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공원(순천만 정원 등) 62%, 교통시설 14%, 관광지(선암사, 순천왜성 등) 13%, 각종 공공건축물(공공청사, 역사/문화시설 등) 11%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니다라고 대답한 경우, 디자인과 기획에 있어서 취약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교통시설 34%, 각종 공공건축물 32%, 공원(순천만 정원 등) 19%, 관광지 15% 순으로 대답하였다.

분야별 중요도 평가

유니버설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가로공간	295	38.6%
공원	198	25.9%
공공건축물	159	20.8%
관광지	113	14.8%

유니버설디자인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분야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가로공간	313	40.9%
공원	165	21.6%
공공건축물	147	19.2%
관광지	140	18.3%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안전 확보 미비(시설의 노후화, 설계상 문제 등) 33%, 기본 기능의 설명 및 안내 부족 20%, 이용 시 장애물이 많음 17%,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및 조화 부족 16%, 시선을 끌 수 있는 색상 및 시설물 디자인 미흡 14% 순으로 집계되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대상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주거제품 (생활가구, 용품 등)	83	10.8%
복지시설 제품 (요양관련 보조제품 등)	201	26.3%
개인 이동수단 제품 (휠체어 등 모빌리티 관련)	91	11.9%
대중교통 제품 (앱 개발, 정류장 사인 등)	226	29.5%
공공시설 관련 제품	164	21.4%

순천시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진행할 때 가장 고려해야할 사항

(매우 중요하다 응답자 수가 많은 순으로 집계)

순서	내용	매우 중요하다 응답자 수
1	사고를 예방 및 방지하는 안전한 기본 구조 적용	477
2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제공	446
3	쾌적한 환경 조성	424
4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는 디자인 적용	398
5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디자인 적용	387
6	심리적으로 차별감을 유발하지 않는 디자인 적용	383
7	주변 환경에 조화로운 심미적 디자인 적용	380
8	도시 전반으로 통일성 있는 디자인 적용	373
9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370
10	관광객 및 외부인을 배려한 디자인 적용	362
10	경제성과 내구성을 배려한 디자인 적용	362
12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 재료 적극 활용	361
13	시각을 넘어 오감 정보에 대한 배려와 활용	338
14	역사 및 문화를 담은 지역 특화 디자인 적용	333
15	사용자들의 상호작용 및 정보교류를 유도	329
16	최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디자인 제안	315

응답 결과,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인식이 안정성 및 공평성, 쾌적성 등 공간의 일차적인 기본 기능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심미성 및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요소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순천시 특성상 외부 관광객을 고려한 디자인에 대한 요구도 많은 편으로 보여진다.

오감 정보의 활용, 스마트 디자인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공공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나가야할 분야이며 지속적인 홍보 및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및 시민참여 관련 조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시행의 주안점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시민 의견 수렴	186	24.3%
전문가들의 폭넓고 깊은 참여	249	32.5%
시 차원의 교육 및 홍보	106	13.9%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	142	18.6%
정부, 전남도 정책과의 연결	82	10.7%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의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추진 분야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언론이나 광고 등 홍보	105	13.7%
공모전 및 시민 참여	127	16.6%
체험 프로그램(전시회 등)	107	14.0%
교육 및 교재 개발	79	10.3%
홍보대사	50	6.5%
실제 적용(거리조성 등)	297	38.8%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필요한 시민참여 활동

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불편한 경험에 대한 여론조사	230	30.1%
불편함이 있는 제품, 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	198	25.9%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제품, 시설을 이용하고 평가	212	27.7%
개선된 제품, 시설을 평가하고 홍보	125	16.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참석 의향

성별	응답자수(명)	비율
있다	397	51.9%
없다	368	48.1%

3. 종합 분석

3.1 시사점 및 방향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순천시 역시 멀지 않은 미래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인구에 적합한 전반적인 사회 환경적 변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 순천시는 전국대비 영유아 및 어린이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및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생활을 정서적으로 만족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체험형 놀이프로그램 및 스마트 디자인, 생태친화적 공간 등의 도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순천시는 2018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2019년 ‘순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1천만 명 관광객 유치 등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1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을 대비하여 관광지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로공간, 공공시설, 안내사인 시스템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국내 동향을 살펴보면 많은 지자체들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도시 환경을 실제 적용 및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안전이나 편의와 같은 1차적인 기능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통합적인 디자인 관점보다는 부분적인 문제점 해결 또는 특정 대상만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등에 머물고 있다.
- 유니버설디자인은 통합적인 디자인 개념이자 사회적 개념으로, 특정 분야가 아닌 사회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 제도적 법제화 방안 시행, 점진적인 시민 홍보 및 의식 개선이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Part 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I.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및 원칙

1. 기본방향 및 원칙

- 1.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1.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비전
- 1.3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7원칙

II.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1. 범위 및 구성

- 1.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위
- 1.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2. 가로

- 2.1 가로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2.2 적용지도
- 2.3 가이드라인
- 2.4 가이드라인 적용안

3. 공원

- 3.1 공원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3.2 적용지도
- 3.3 가이드라인
- 3.4 가이드라인 적용안

4. 공공건축물

- 4.1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4.2 적용지도
- 4.3 가이드라인
- 4.4 가이드라인 적용안

5. 관광지

- 5.1 관광지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5.2 적용지도
- 5.3 가이드라인
- 5.4 가이드라인 적용안

1. 기본방향 및 원칙

1.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순천시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설정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구도심, 신도심, 정원, 관광지 등 다양한 환경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순천시의 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누구나 사용가능한 가이드라인 설정

성별, 신체적 상황, 연령, 인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고 배려 가능한 도시환경 디자인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시민의 의견을 담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7원칙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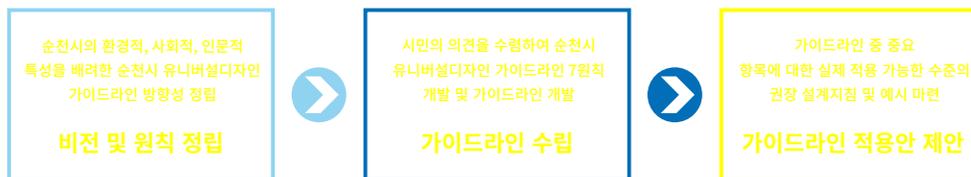
기존 순천시의 도출된 특성과 더불어 시민조사 수렴을 통하여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7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된 순천시 고유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

순천의 대표적 지역적 범위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범위 구성

본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순천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공디자인과 상호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도시환경 전반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구성에 용이하도록, 가이드라인의 공간적 범위를 순천의 대표적 지역 타입으로 구분,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적용 가능한 실행체계로서 쓰임새 있도록 작성한다.

상세 스펙을 포함한 실제 적용가능한 적용안 도출

단순히 가이드라인의 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범위별 보편적 항목에 대한 실제 적용 가능한 디자인 및 상세 스펙들을 을 함께 수록하여, 추후 가이드라인 적용 시 쉽게 이해 및 적용 가능한 예시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1.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비전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비전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7원칙을 설정하기 앞서, '포용'과 '혁신'이라는 순천의 시정 기조와 함께 지속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특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들을 담아 비전을 도출한다.

포용력 있는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순천시는 인구 28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생태도시이다. 영유아 비율이 높으며, 노인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관광자원이 특화된 도시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도시이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통하여 남녀노소, 장애인, 노인, 아동,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한 도시환경을 조성, 차별 없이 사용가능하며 안전하고 정서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순천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천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인 생태도시로서의 가치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원칙 수립과 연계하여 도시 곳곳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결과물은 먼 미래까지 활용 가능한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환경 친화적인 미학을 배려한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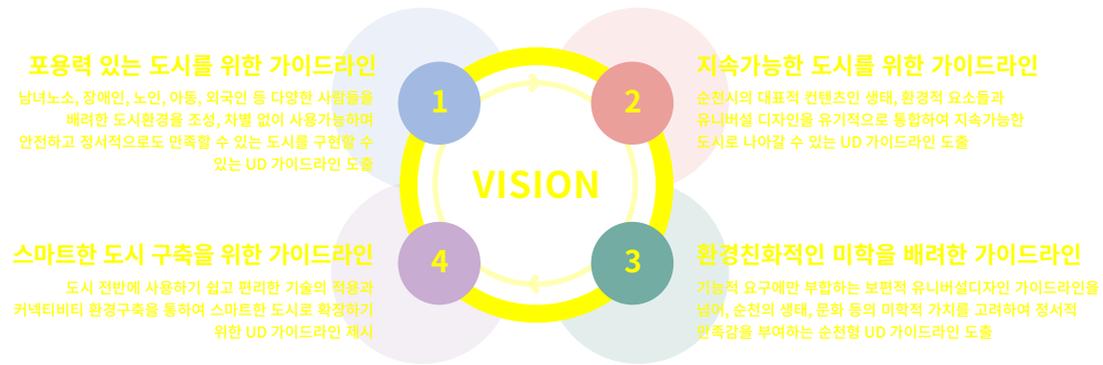
보편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주변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고려보다는 철저히 기능적 요구에만 부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보완하여 순천시의 환경 및 분위기와 어우러질 수 있는 미학적 가치를 담은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

스마트한 도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시 전반에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기술의 적용과 커넥티비티 환경구축을 통하여, 시민 삶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 및 정책 디자인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 이를 통하여 순천시를 이용하는 시민 및 방문자들의 편의를 향상시켜줄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공매체 및 시설물들에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비전을 기반으로 순천시의 생태 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발견 및 적용 할 때, 순천시만의 독자성·정체성을 갖춘 지역 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지역 문화의 탄생은 시민들에게 누림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람중심의 도시로서 순천시를 확장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은 순천시의 새로운 지역 문화를 발굴해 나가는 동시에 발전된 도시 형태를 구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필수적 기초자료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의 4가지 비전을 염두에 두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비전

1.3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7원칙

순천시의 가치탐구를 통한 순천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도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7원칙은 가이드라인 구현에 앞서 가장 근본적인 상위의 디자인 가치이다.

순천시는 생태도시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 축적된 환경적 철학과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문화적 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순천시가 지향하는 가치들에 대한 해석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유니버설디자인에서 지켜져야 할 필수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7가지 원칙을 수립한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7원칙

다양성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있어 능력, 연령, 인종에 따라 소외되지 않고 선택 가능한 디자인

편리성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

공감성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다름이 존중되는 공감과 소통의 디자인

안정성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이 마련된 디자인

심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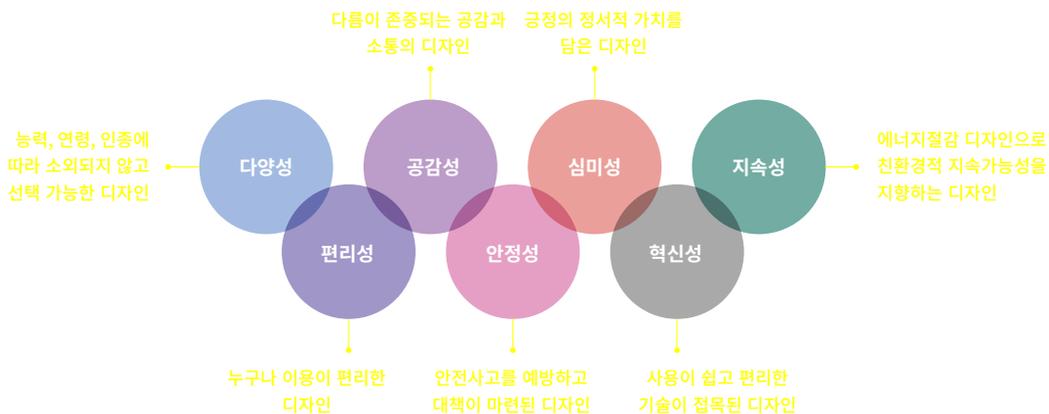
생태 도시 순천의 심미적 가치를 담은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디자인

지속성

친환경 자재의 적극적 활용 및 에너지 절감 디자인으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디자인

혁신성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기술이 접목된 디자인



1. 범위 및 구성

1.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위

공간적 범위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가로, 공원, 공공건축물, 관광지로 분류하고, 각 공간들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세부 항목들을 도출하여 가이드라인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위	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보행안전구역, 차량진출입구역, 자전거 도로, 보차도분리 • 교통시설물: 보도펜스, 블라드, 버스·택시 승차대, 신호기 • 공급시설물: 맨홀, 배전함 • 편의시설물: 음수대, 공공벤치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공간: 안내시설, 주차공간 • 이동공간: 보행로 • 서비스공간: 화장실, 놀이터, 휴게시설 • 편의시설물: 음수대, 공공벤치, 휴지통 • 공공정보매체: 안내시설물
	공공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공간: 로비, 주차공간, 건물출입구 • 이동공간: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보행접근로 • 위생공간: 화장실, 수유실, 샤워실 • 공용시설: 자전거보관소, 인포메이션센터 • 공공정보매체: 시각정보, 촉각·청각·후각정보, 안내시설물
	관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공간: 사전정보제공, 안내시설, 매표소, 주차공간 • 이동공간: 보행로 • 서비스공간: 화장실, 광장, 방법 및 안전시설 • 편의시설물: 음수대, 공공벤치, 휴지통 • 공공정보매체: 안내시설물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위

내용적 범위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적 범위는 “포용력있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스마트한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앞서 도출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을 기반으로 수립한 공간 영역별 가이드라인과 적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2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가이드라인의 구성

가이드라인 구성은 적용지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적용안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적용지도

적용지도를 통하여 각 공간 범위의 세부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공간 범위 별 적용되어야 할 모든 항목들을 가상의 공간안에 종합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제시, 보는 이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에서 다룰 세부 내용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하여야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개별적 요소가 아닌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적용지도에 포함되는 내용

- 공간의 범위 및 세부 항목 제시
- 가상 공간에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대표 항목 이미지 표현
- 공간 범위별 대표 지침에 대한 내용 명시



적용지도 예시

2단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파트의 경우, 각 공간범위의 세부항목들에 대한, 디자인,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원칙 및 지침들을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원칙들과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의 관점을 함께 고려, 구체화시켜 작성한 세부 설계지침 및 설명 이미지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이미지는 디자인 샘플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요 원칙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이미지이다.

페이지 구성의 경우, 각 영역의 세부 항목별 가이드라인은 기본지침과 세부내용으로 구성되며, 세부내용 중에서 순천시 특성에 특화된 차별화된 유니버설디자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호로 표기한다.

가이드라인 작성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특화 내용 표시

공간에 따라 필요한 세부 항목들

내용을 이미지로 보기쉽게 전달

법적 근거 각주 표시

기본지침

- 화장실은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 동시에 평소엔 잘 사용하지 않는 동작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노인, 장애인, 임신부, 영유아 및 동반자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이용패턴 을 이해하고 손잡고 원활한 사용성이 배려된 공간으로 계획해야 한다.
- 일반화장실에도 영유아 동반자나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며,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을 하도록 하며, 가능한 친환경 재료를 적극 적용하도록 한다. **☞**
- 화장실로 연결되는 통로와 출입구의 유효 폭은 0.85m 이상(법적치수 0.8m 이상)¹⁾으로 하며, 가급적 0.9m 이상을 권장한다. 출입문의 경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을 권장한다.

위치 및 접근

- 화장실은 인자가 쉽고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 장애인이나 가족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과의 통합적 배치를 고려하고, 주출입층 외에도 각 층마다 설치하여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보한다.
- 접근통로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 또는 유모차 동반자와 같은 부피가 있는 기구와 동행하는 사용자들을 배려하여 화장실의 유효폭의 경우 단차가 없고 1.5m 이상을 확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존 건축물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18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권장: 다목적 화장실의 설치 예

남성용 소변기 설치

비상호출버튼

자동세정장치

오스트메이트 설치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한 세면대 설치

바닥유효면적 2.0×2.0m 이상 권장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

유효폭 0.85m 이상 (0.9m 이상 권장)

단차없는 출입구 자동문 권장

문걸을 놓을수 있는 간이선반 설치

쓰레기통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 안내사인 표기 (픽토그램,점자표기,음성안내)

점이식 기저귀 교환대 또는 점이식 간이침대 설치

가이드라인 예시

62

3단계: 가이드라인 적용안

가이드라인 적용안은 실제 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참고 가능한 가상의 도면과 권장 재질 또는 설치기준 등의 구체화된 예시를 제시한다. 유니버설디자인에서 지켜져야 할 지침들을 반영하여 모범적 예시를 제시하며, 본 예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실제 디자인할 때에 활용 가능한 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반에 두고 작성한다.

적용안에 포함되는 내용

- 권장 지침: 디자인 지침, 권장 CMF, 설치 지침
- 권장 예시: 사이즈, 색상, 재료, 도면

대차안 지침	세부내용	상세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기능만 적용하여 디자인 하며, 과도한 형태 또는 장식적 요소는 지양한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유감한 상징을 포함한 형태적 사용은 금지한다. • 기능형식 구조와 부속품의 사용은 통일성으로 보편적인 형태를 유지한다. • 연결부드러움의 노출을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정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주변이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적용한다. • 유지관리에 용이한 형태 및 구조를 적용한다. 	색역조 W2050* D130* H2040 색상 Dark Warm Gray (R,20,15,A6, CM9) 재료 친환경소재, STEEL, AL-DC, 분체도장 도면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권장 사례</p>  <p>권역지정차량 / 통일되지 못한 배색 적용</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권장 사례</p>  <p>전체적으로 통일한 배색, 간결한 형태 적용</p> </div> </div>																						
권장 C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성 및 내구성, 유지관리에 무수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유지관리 비용을 지양하고, 최소한 속의 사용을 권장한다. 특히, 물, 열, 분해에 동일한 배색을 적용한다. 단, 비외형의 경우엔 물과 태양에 노출되는 배색을 적용한다. • 금속의 사용시, 적용하려는 주변 차량과 어울려 줄 수 있는 컬러웨이 (L1, L5a CMW) 또는 플그레의 (0,1,2,13,13CMW) 계열의 컬러를 권장한다. 또한, 내구성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산기공을 권장한다. • 관리를 위하여 재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양보기를 제외한 최대한 그래픽 요소의 설치는 지양한다. (재정액체, 관리주체 등의 표시 지양) • 그래픽 요소가 필요시에는 UV살균처리를 권장한다. (시트지 부착 지양) 																						
	<p>권장 색상</p> <table border="1"> <tr> <td>CM9</td> <td>CM10</td> <td>CM11</td> <td>CM12</td> </tr>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0%</td> <td>M 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0%</td> <td>Y 0%</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40%</td> <td>K 46%</td> </tr> </table>	CM9	CM10	CM11	CM12	C 1%	C 1%	C 0%	C 0%	M 1%	M 0%	M 0%	M 0%	Y 1%	Y 2%	Y 0%	Y 0%	K 54%	K 34%	K 40%	K 46%	<p>권장 재료 및 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으로 신체의 무리한 자정 사용 • 심미적으로 주변과 어울리는 재료 및 마감 권장 • 권장 재료: 친환경소재,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아연도장 등 • 권장 마감: 분체도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정면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측면도</p>  </div> </div>
CM9	CM10	CM11	CM12																				
C 1%	C 1%	C 0%	C 0%																				
M 1%	M 0%	M 0%	M 0%																				
Y 1%	Y 2%	Y 0%	Y 0%																				
K 54%	K 34%	K 40%	K 46%																				
설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주변에 고정 시, 불필요 노출을 최대한 지양하며, 가급적으로 자연 단으로 마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가이드라인 적용안 예시

2. 가로

2.1 가로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개요

앞 장에서 도출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방향과 7원칙을 반영하여, 실제 순천시의 가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시 활용 가능한 세부 지침들을 정립한다.

가로 가이드라인의 경우, 가로의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대표적 공간들을 선정하며, 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가 도심의 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보도공간, 보행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가로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시설물, 도심의 설비 및 전기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시설물, 가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물 등으로 분류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지정하는 가로는 차량 통행이 위주인 고속도로 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일반도로를 말하며,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

대상 공간 및 세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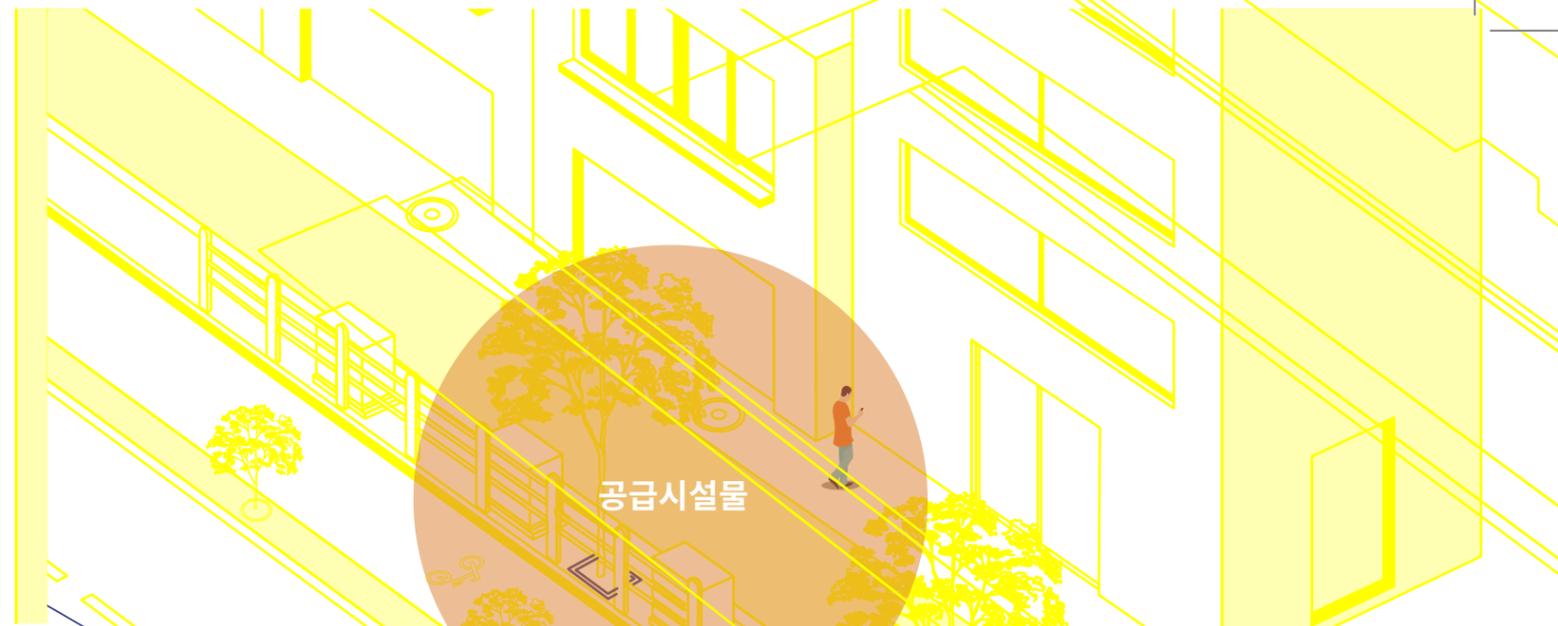
보도	교통시설물	공급시설물	편의시설물
보행안전구역	보도펜스	맨홀	음수대
차량진출입구역	블라드	배전함	공공벤치
보차도 분리	버스·택시 승차대		
횡단보도	신호기		
자전거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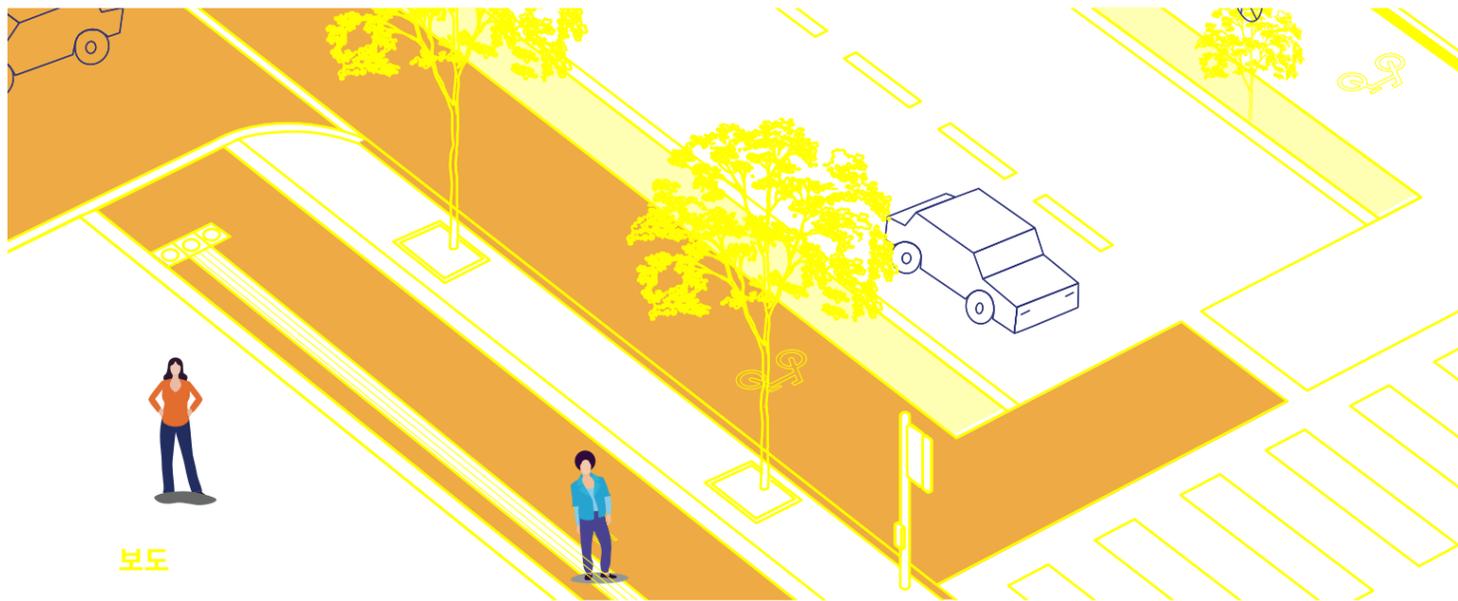
공급시설물

맨홀, 배전함

- 공급시설물은 보행자 및 자전거 사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위치를 결정한다.
- 복잡한 패턴이나 색상의 사용을 지양하고 시·지각적 혼돈을 최소화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보도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 맨홀은 보도의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마감하고, 단차나 틈새가 없도록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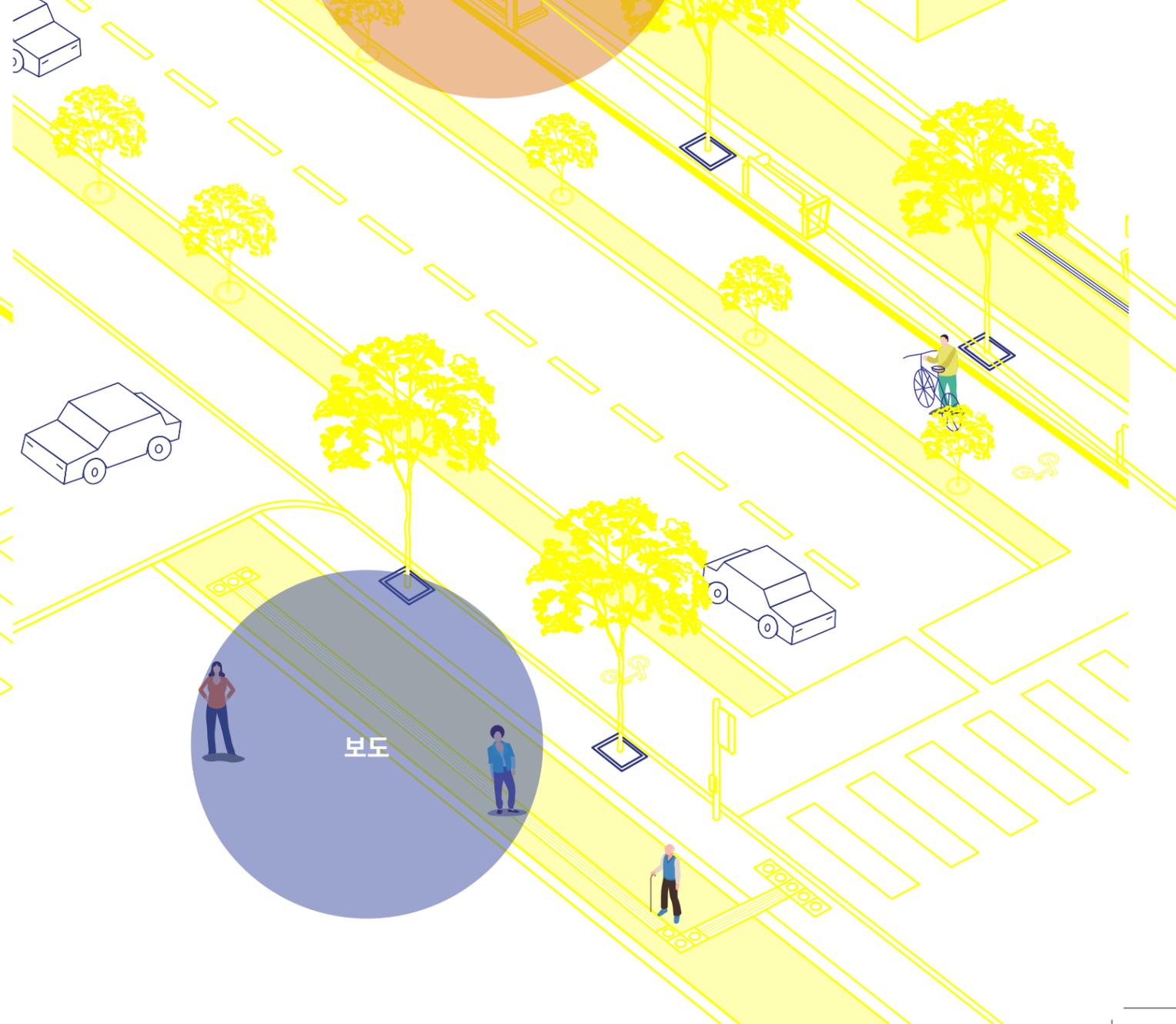
공급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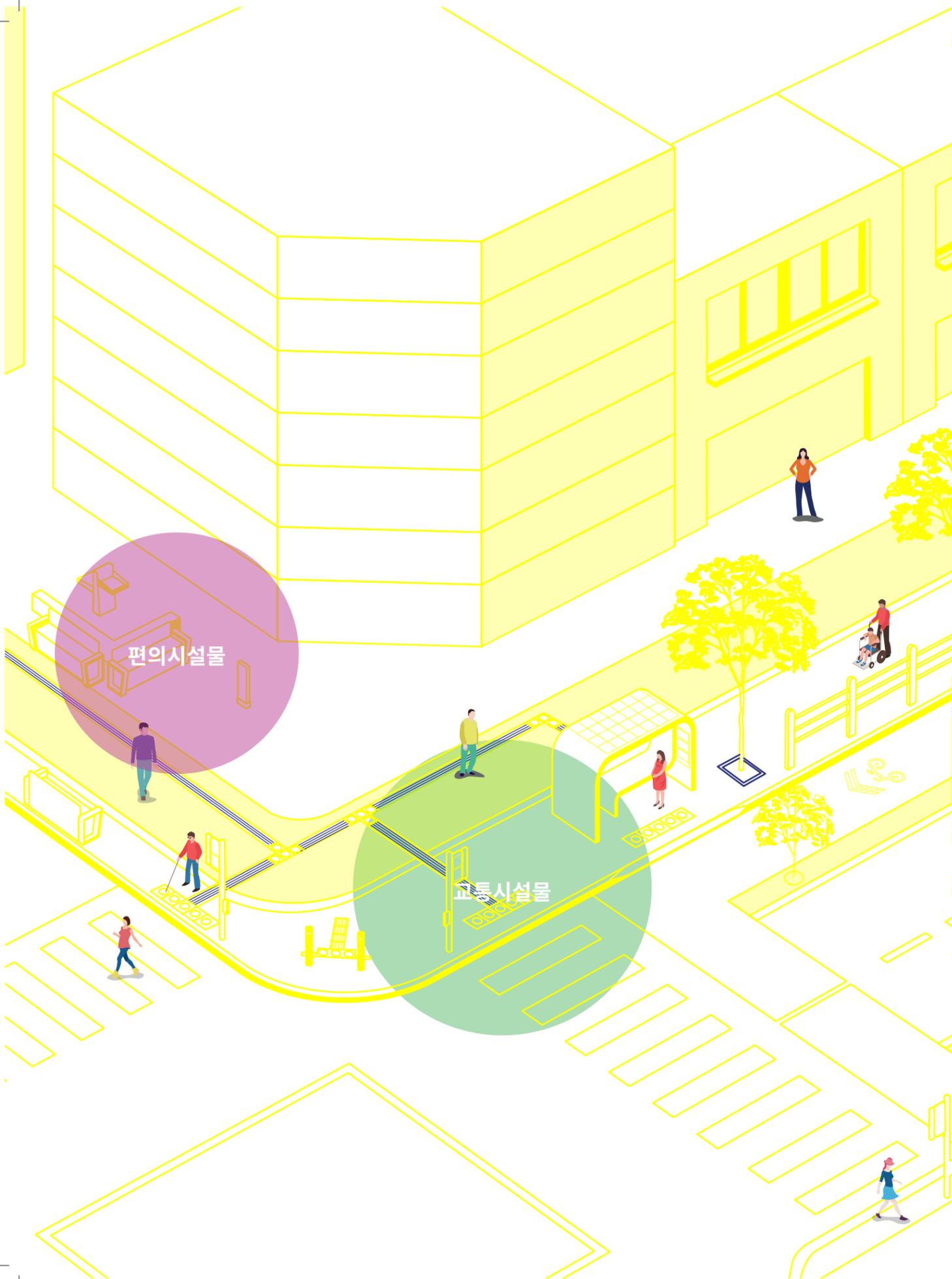
보도

보행안전구역, 차량진출입구역, 자전거 도로, 보차도분리

- 가로공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유모차 및 휠체어 사용자, 외국인 등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보행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며, 보행동선은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디자인으로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보행자와 상충되는 차량진출입구역은 보행안전구역이 진행방향으로 평탄하게 연속될 수 있도록 보행자의 영역을 최대한 확보한다.
- 자전거도로는 보행안전구역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보도



편의시설물

음수대, 공공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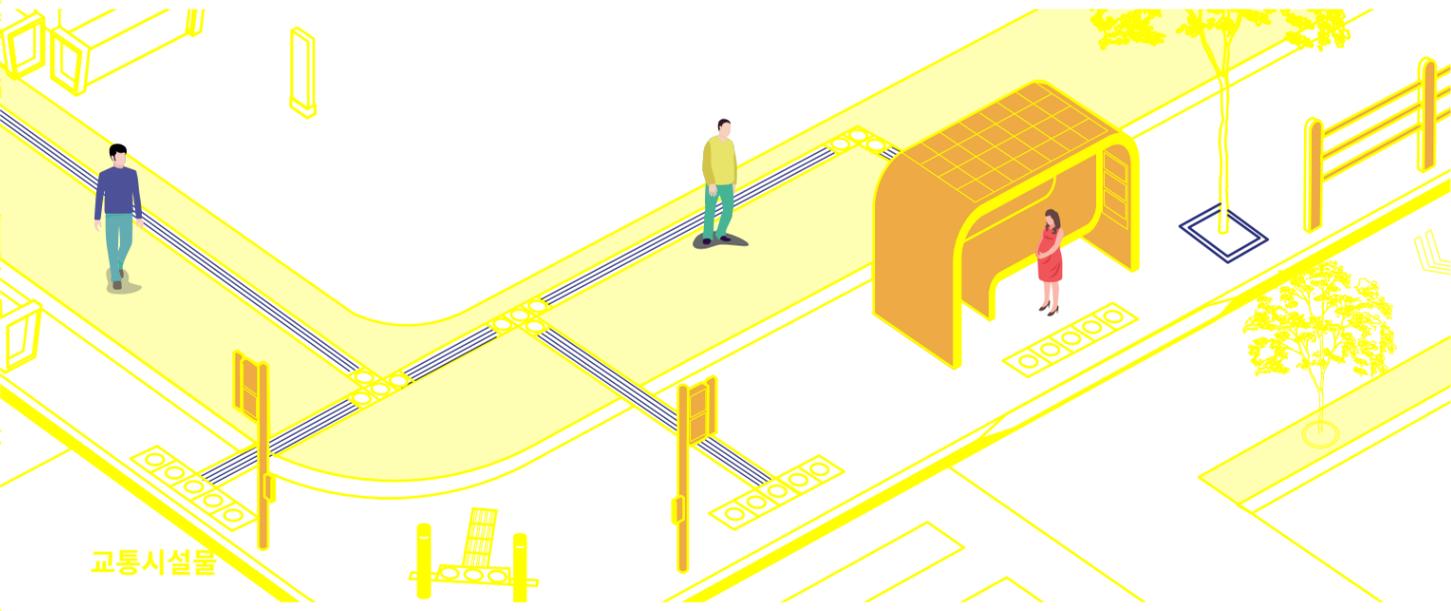
- 음수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가로나 공원 등 공공공간에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 벤치는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시선의 은폐와 차단이 생기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옆에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교통시설물

보도펜스, 블라드, 버스·택시 승차대, 신호기

- 블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 버스·택시 승차대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버스 및 택시를 기다리는 부담이 적은 장소로 조성하도록 한다.
- 횡단보도에는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며, 신호기의 설치로 인해 보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다른 가로시설물과 통합한 위치에 설치하되 식별이 잘 되도록 한다.



2.3 가이드라인 > 보도 > 보행안전구역¹

기본지침

- 가로공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유모차 및 휠체어 사용자, 외국인 등 어느 누구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보행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며, 보행동선은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디자인으로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보도의 안전보행로 확보를 위해 간판,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 보행 장애물이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보도는 단차가 없고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가급적 경사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 등의 출입구로부터 각종 대중교통수단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연결하며, 인근의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 우천, 폭염, 폭설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구조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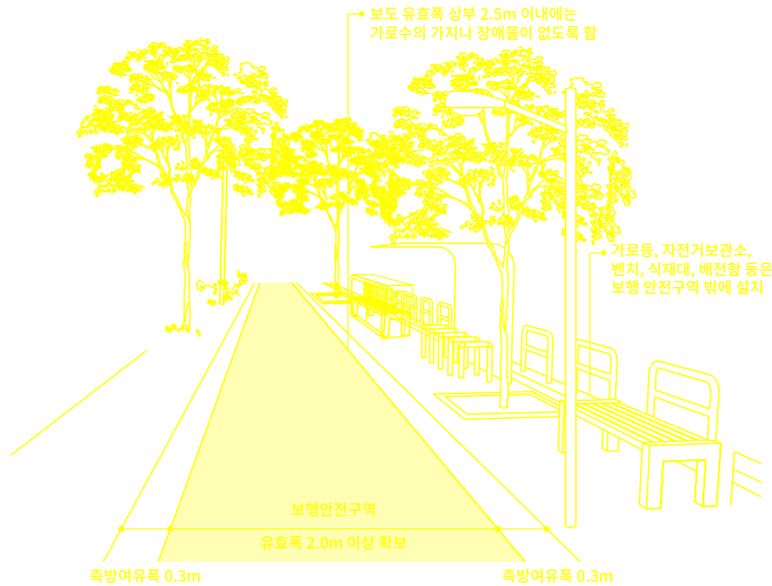
유효폭

- 보도는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 여행용 가방이나 짐을 운반하는 사람,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걷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태를 고려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通行 또는 교행할 수 있는 적정기준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通行량과 토지이용상황 등도 고려한다.
- 유모차 또는 휠체어 사용자가通行할 수 있도록 유효폭은 가로수 및 시설물을 제외하고 2.0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단,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¹
- 유효폭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30m 이내(법적치수 50m)마다 폭 1.5m x 길이 2.5m 이상(법적치수 1.5m x 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교행구역을 설치하도록 한다.¹
- 보도의 유효폭의 양측면에는 측방 여유폭을 0.3m 정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보도에 건물 간판, 가로등, 전신주, 소화전은 물론 편의를 제공하는 벤치, 자전거보관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通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행안전구역 밖에 설치하도록 한다.¹

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유효안전높이

- 전방의 장애물 여부를 주시하지 않고 보행할 때에도 안전에 위협이 없는 충분한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보도 유효폭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m 이내(법적치수 2.1m 이하)에는 가로수의 가지 및 장애물이 없는 유효높이를 확보하도록 한다.²
- 유효높이는 인접 구역(공개공지 및 시설물 설치구역)까지 적용한다.



기울기

-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마감한다.
-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할 시에는 진행방향 모따기 가공으로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종·횡단 기울기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인접 건축물의 출입구 바닥과 보행안전구역의 높이에서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하는 경우 인접 건축물의 전면부 영역에서 경사를 보완하도록 한다.
- 진행방향의 종단기울기는 1/20 이하(법적치수 1/18 이하)를 권장하며,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12 이하로 할 수 있다.²
- 진행방향의 횡단기울기는 1/50 이하(법적치수 1/25 이하)를 권장한다.²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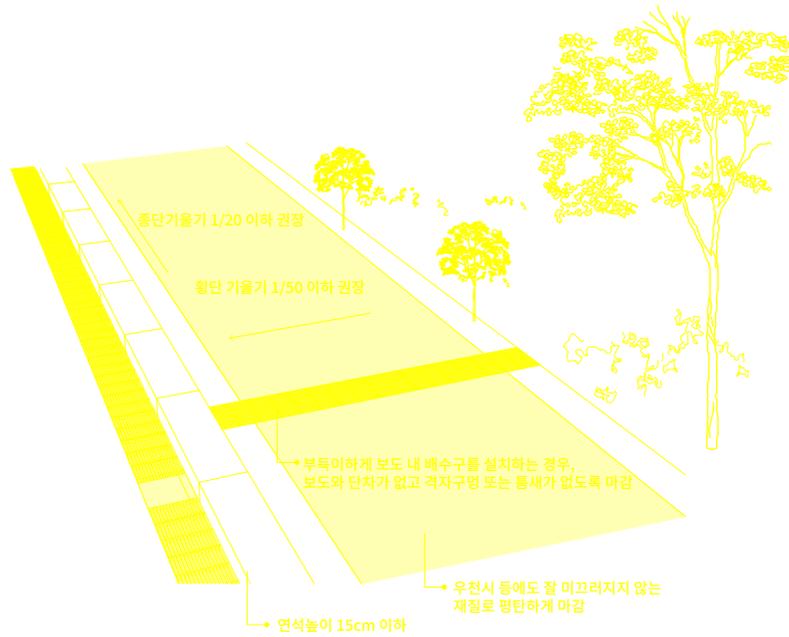
바닥마감

- 휠체어나 유모차 사용자, 하이힐을 신은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의 통행을 고려하여 바닥재의 종류 및 시공방법을 선택한다.
- 바닥은 우천 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³
-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³
- 바닥 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고, 0.5cm 이상의 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재료의 명도 및 질감 등을 활용하여 보행안전구역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조성하되, 너무 많은 패턴을 사용하는 등의 조잡함을 지양한다.
- 투수성 보도 등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SC
-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연석과 경계석은 모두 미끄럼 저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미끄럼사고를 예방한다.

배수

- 보행안전구역 내 배수구 설치는 가급적 지양한다.
- 보도에 보행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배수로 덮개를 설치하도록 한다.³
- 부득이하게 덮개에 격자구멍이나 틈새가 있는 경우 1cm 이하의 간격이 되도록 하고, 보행자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³
- 배수구 덮개는 보도 포장 마감재와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며, 이음새간격을 최대한 좁혀 통행해 불편이 없도록 한다. SC
- 우수 처리는 보행 진행방향이 아닌 식수대나 차도 쪽으로 배수한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되, 과도한 설치는 비시각장애인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설치하도록 한다.
-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보도,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교통시설, 버스승차대, 횡단보도 등에 중점적으로 설치한다.
- 점자블록 설치 시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감 및 다른 보행자와의 동선 마찰을 피하기 위해 보행안전구역의 대지 내 공지 쪽 기준선에서 0.6m 이격하여 설치한다.
- 지장물 등으로 인한 점자블록의 우회설치는 지양한다.
- 경고 및 주의환기용 블록은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유도과 경고가 필요한 지점 등에 반드시 음성이나 진동 등과 함께 복수의 정보를 제공한다.
- 원칙적으로 황색계열을 사용하되, 설치 장소의 주변 상황에 따라 조화를 잘 이루면서 명도나 채도의 차이가 큰 점자블록이나 질감이 다른 바닥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⁴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가로수

- 가로수는 보행자에게 그늘 제공 및 심리적 안정을 선사하며, 보기 좋은 경관 형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가로 유형별로 설계 및 설치 방법을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 보행자를 고려한 가로수를 조성하여 차도와 보도를 분히라고 이를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 및 시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최소 유효폭 1.5m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설치를 지양하고, 가능하면 인접건물 또는 옹벽등을 활용하여 입면 녹화를 하는 방향을 권장한다.⁵
- 교통표지판 지주 반경 5m 이내 가로수 식재를 금지하며, 가로수가 주요 건축물 등의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⁵
-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 가로수의 경우,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높이가 낮은 수종을 설치한다.
- 가로수 설치 시, 가로등 및 지주형 시설물과의 적정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보행안전구역의 가로수는 지면으로부터 2.5m까지 가지치기를 한다.⁶

수목보호대

- 수목보호대의 디자인은 보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과도한 형태나 장식적 요소는 지양한다.
- 기본프레임은 사각을 권장하며, 경우에 따라 원형을 설치, 다만, 다각형 형태는 지양한다.
- 빗물 투수와 하부 청소가 용이한 구조를 적용한다.
- 보호덮개의 높이는 지면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하며, 체결볼트의 돌출을 지양한다.
- 재료는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가급적 친환경 자재를 권장한다.



좌) 화려한 패턴 및 색채 지양, 우) 보도와 조화로운 색채 및 재질 적용

5 '보행친화도시 만들기' 가로설계 관리 매뉴얼의 기본방향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미국 시애틀 Bell Street Park. 단차 없는 보차도 분리와 보행자 중심의 유기적인 시설을 계획 등으로 거리를 활성화시킨 사례,
출처 : <http://www.svrdesign.com>



미국 샌프란시스코 Parklets Project. 도심내의 비어있는 주차공간에 보행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 및 시설물공간을 조성하는 가로 활성화 프로젝트,
출처 : <http://www.aucklanddesignmanual.co.nz>, <https://groundplaysf.org>, <https://www.intersticearchitects.com>



미국 St. Louis Clayton. 인식성과 가독성이 좋으면서도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한 가로 안내시설물, 출처 : <https://kikuobata.com>

기타

-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공간은 폐쇄적인 담장 대신 식재 등으로 개방감을 확보한다. 
- 지역의 특성을 문화적 콘텐츠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 보행전용 거리 등 특성에 맞는 보도로 조성한다. 
-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CCTV 등을 설치한다.
- 횡단보도 대기공간 주변 등 적재적소에 잠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여름철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 등 쾌적한 공간을 확보한다. 



좌) 시설물구역과 보행안전구역이 잘 정비된 가로 사례, 우) 횡단보도 주변에 차양시설 및 공공벤치 설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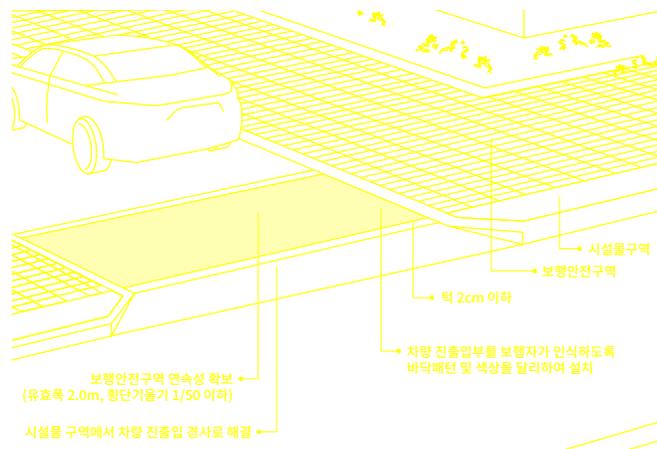
2.3 가이드라인 > 보도 > 차량진출입구역

기본지침

- 보행자와 상충되는 차량진출입구역은 보행안전구역이 진행방향으로 평탄하게 연속될 수 있도록 보행자의 영역을 최대한 확보한다.
- 공공보도에서 차량이 통과할 때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차량통행에 따른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 차량진출입구역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구역의 최소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보도면은 높이 변화 없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설치

- 자동차가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진출입구역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를 해야 한다.⁷
- 보행안전구역은 보행자의 진행방향으로 단절 없이 연속되게 설치한다.
- 특히 진행방향의 횡단경사는 1/50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 진입 확보를 위한 경사 발생 시 적어도 보행 유효폭 2.0m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식재대, 시설물 구역, 공개공지 등)에서 차량통과용 경사로를 확보한다.
- 차량진출입부의 보차도 경계구간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권장한다.
- 차량의 진출입이 발생하는 사실을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 설치한다.⁷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좌) 차량진출입 방향을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선형 패턴 적용, 우) 고원식 횡단보도가 동반된 차량진출입구역 사례

고원식 횡단보도

- 교차로 진입부에서 자동차의 감속유도를 위한 시설로,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시설이다.
- 보도면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함으로써 보행동선에 경사로를 만들 필요가 없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 및 쾌적성 향상을 확보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관련 노면표시를 하도록 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의 윗면 평탄부는 차량의 길이를 고려하여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⁸
- 횡단보도부와 보도와의 높이 차는 2cm 이하를 권장한다.⁸
- 보도와 차도의 단차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 시각장애인 등이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보도로 진입하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와의 경계에 볼라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매뉴얼

2.3 가이드라인 > 보도 > 보차도 분리

기본지침

- 보도와 차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명확히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차도 분리 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도로 폭, 간선도로 여부, 보행자 및 자동차 교통량, 주택지·상업지 등 주변여건 및 공공시설 유무, 사유지의 높이, 도로의 중·횡단 기울기 및 배수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보차도 분리 유형

- 보차도 분리 유형은 연석과 보도의 높이 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⁹
- 횡단보도 진출입 경사를 최소화하고 보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형2 또는 유형3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 기존도로의 개·보수 시에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보도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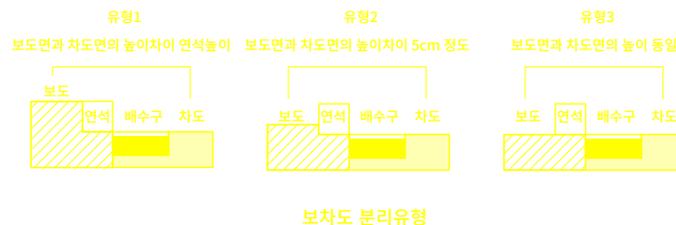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으로, 보도면이 차도면 높이보다 높고 연석높이와 같은 구조이다.
- 자동차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적합하며, 보도면과 차도면의 단차가 커서 횡단보도 진출입부의 턱낮추기 경사부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식수대 등으로 보차도가 충분히 분리되지 못한 경우에 보행자가 차도로 쉽게 진입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유형2

- 보도면이 연석보다는 낮고, 차도면보다는 약간 높은 구조이다.
- 횡단보도나 차량 진출입부에 완만한 경사 처리가 가능하며, 높이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도면을 차도면보다 5cm 정도 높게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횡단보도 진입부 등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유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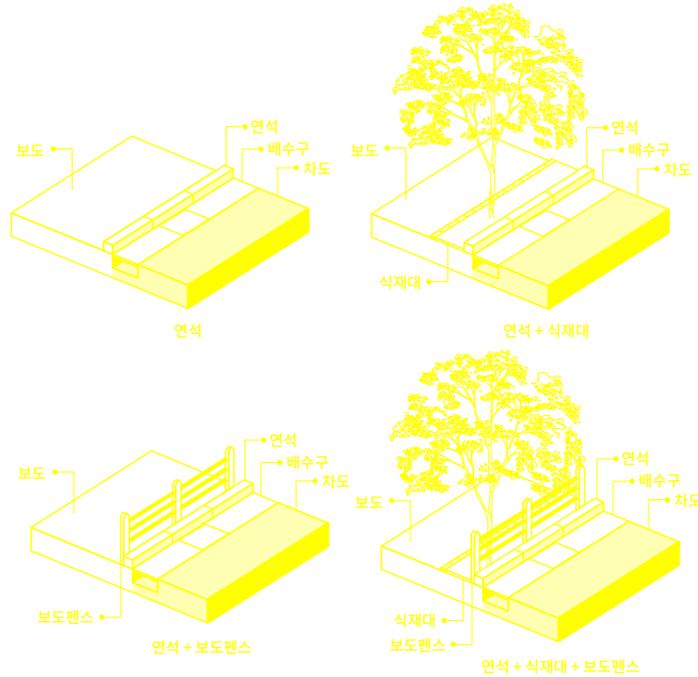
- 보도면이 연석보다 낮고 차도면과는 동일한 높이를 갖는 구조이다.
- 자동차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적합하며, 횡단보도나 차량 진출입부에 경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탄한 보도면을 유지할 수 있다. 단, 배수처리에 주의해야 하며, 횡단보도 진입부 등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9 국토해양부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매뉴얼

보차도 경계부분

- 보도와 차도는 연석, 보도펜스, 식재대, 바닥마감재의 질감 및 색상의 휘도차이 또는 이들을 혼합 사용하여 경계를 구분하여 보행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보도를 차도보다 높게 계획한다.
- 보차도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15cm 이하(법적치수 25cm 이하)를 권장하며, 가능한 낮게 설치하도록 한다.¹⁰
- 연석의 색상은 보도 포장재의 색상과 다르게 하여 식별하기 쉽도록 한다.
- 차량통행량이 많고 차량 속도가 빠른 도로에서는 연석과 함께 가드레일과 식재대를 병행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횡단보도와 차도의 교차지점에서도 보도의 연속성은 유지되도록 한다.
- 단지내 도로,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도로에서는 보차도의 교차 시 보도의 높이 유지가 차도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보차도 경계부 처리방법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3 가이드라인 > 보도 > 횡단보도

기본지침

-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육교나 지하도보다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행거리가 짧은 교차로로 계획하도록 한다.
- 노인, 장애인,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 어린이 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의 높이가 연속되도록 계획한다.
- 자동차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차도면의 높이에 맞추며, 보행자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보도면의 높이에 맞추도록 한다.

설치기준

구성

-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표시 및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¹¹
-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표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횡단보도표지판에는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¹¹
-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과 달리 집중 조명등을 설치하며, 조도는 500 lux 이상으로 한다.

위치

- 횡단보도는 육교나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100m 또는 200m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¹¹

시설물

- 도로 폭이 넓고 횡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횡단보도에서는 잔여 횡단시간을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 및 횡단보도 상에는 가급적 배수구 및 맨홀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바닥

- 교통약자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에는 인접 보도와 같거나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시각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한다.

진입부 턱 낮추기

- 보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진입부는 전체 턱 낮춤을 원칙으로 한다.
-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의 구조는 1.2m이상의 보행수평부(보행안전구역 유효폭), 기울기 1/18 이하의 경사부, 1.2m이상의 대기수평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기수평부의 폭은 횡단보도의 폭과 같도록 한다.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단차가 1cm이하(법적치수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안 된다.¹² 가급적 수직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보도의 보행수평부(보행안전구역 유효폭)를 1.2m이상 확보하지 못하는 좁은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면 전체를 턱 낮추기 하도록 권장한다.
- 보도 전체를 턱 낮추기 할 수 없거나, 유효폭이 2.0m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이 0.9m이상인 부분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¹²

점자블록

-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폭의 4/5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¹²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¹²
-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의 중앙에 설치하는 점형블록은 90cm정도의 폭만큼, 연석에서 30cm정도 떨어뜨려서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중앙에 돌기가 있는 포장마감으로 처리된 에스코트 존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좌) 횡단보도 진입부의 전체 턱 낮춤 사례 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에스코트 존 설치 사례(일본 도쿄)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2.3 가이드라인 > 보도 > 자전거도로

기본지침

- 자전거도로는 보행안전구역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교통 및 이용 특성, 지역 및 현장 여건,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된다.¹³
- 자전거도로는 보행안전구역과 별도로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를 우선 권장하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차로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축소할 수 있다.¹³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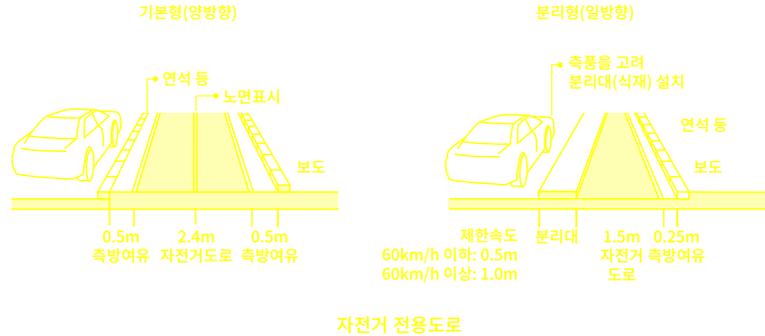
그림11. 자전거도로의 종류, 출처: <http://bike.chosun.com>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¹³
-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양방향을 기본으로 하며 폭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도시지역 : 양방향 2.4m (일방향 1.5m)
 - 지방지역 : 양방향 3.0m (일방향 1.5m)
 - 공원, 하천둔치 : 양방향 3.0m (일방향 1.5m)

¹³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 전용도로의 측면에는 가급적 0.5m 이상의 측방 여유폭을 확보한다.
-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며, 차량이 자전거 사용자에게 미치는 측풍을 고려하여 제한속도에 따라 분리대 폭을 확보한다.¹⁴
 - 60km/h이하 : 0.5m 이상
 - 60km/h초과 : 1.0m 이상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¹⁴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도시지역, 지방지역 및 강변, 하천 등 설치장소에 따라 설치유형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측면에는 가급적 0.25m 이상의 측방 여유폭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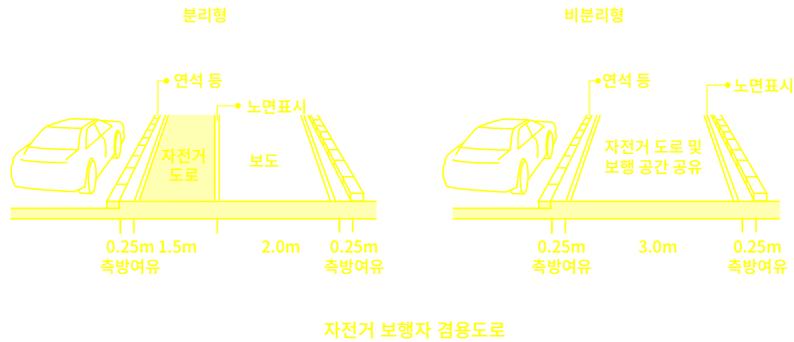
분리형

- 전체 공간은 겸용하되, 보도에 노면표시 또는 마감재 설치 등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로를 시각적으로 분리한 형태이다.
- 분리형의 폭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리형의 도시지역 : 자전거도로 1.5m(일방향) + 보도 2.0m = 합계 3.5m
 - 분리형의 강변 등 : 자전거도로 2.4m(양방향) + 보도 1.5m = 합계 3.9m
- 분리형으로 설치할 경우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¹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비분리형

- 자전거와 보행자가 분리시설 없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보도를 의미한다.
- 비분리형의 폭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비분리형의 도시지역과 강변 등 : 3.0m(자전거와 보행자 공존)
-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 전용차로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¹⁵
- 자전거 전용차로의 폭은 1.5m 이상을 확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 까지 설치할 수 있다.¹⁵
- 도시지역에서 1.5m 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측대를 일부 포함하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계할 수 있다.
- 차량이 자전거 사용자에게 미치는 측풍을 고려하여 분리공간을 자전거 전용차로와 차도 사이에 확보해야 하며, 제한속도에 따라 분리공간의 폭을 확보한다.¹⁵
 - 50km/h초과 ~ 60km/h이하 : 0.5m이상
 - 50km/h이하 : 0.2m이상
- 제한속도 60km/h 를 초과하는 도로에서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다.¹⁵
- 분리공간은 백색 복선(실선 또는 점선) 또는 단선으로 표시하며, 차선과 차선의 중앙까지의 폭으로 설치한다.

¹⁵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 전용차로는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과 공유되는 구간의 처리가 중요하다.
- 자전거 전용차로의 측면에는 가급적 0.25m 이상의 측방 여유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포장 및 배수

-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포장을 하도록 한다. ^{SC}
-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배수기준을 적용하며,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1.5%~2.0%로 하며, 적절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측구, 집수정, 맨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¹⁶
- 우천 시 등을 고려한 투수성 포장재를 적극 활용하며, 다설 지역에서는 20cm 이상의 비동결 방지층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이면도로, 시·종점 등 상층구간에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암적색으로 포장한다. ¹⁶
-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사용자의 즐거움을 위해 노면의 재질, 공원, 하천, 주변 가로수나 상점 등 경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권장한다.

16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와의 교차구간

-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평면 교차할 경우, 교차각은 90°이상으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25m 이상 구간은 시야의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¹⁷⁾
- 교차점으로부터 25m 이상 구간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기울기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방 3.0m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의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¹⁷⁾
-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자전거도로의 양측 가장자리에 가로 30cm, 세로 30cm의 야광 백색점선을 설치하도록 한다.



좌) 미국 포틀랜드 SW Moody Ave. 보도와의 강한 배색 사용을 통해 자전거도로 시인성 강화,
우)노면에 컬러와 픽토그램을 적용한 자전거 전용차로, 출처: www.trnt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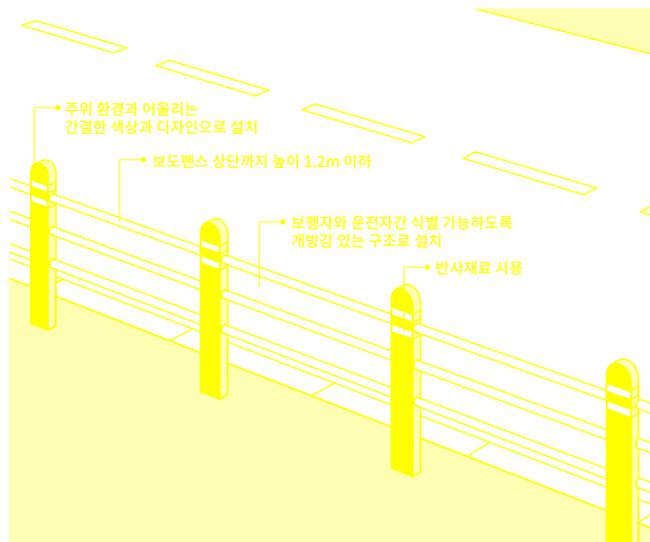
2.3 가이드라인 > 교통시설물 > 보도펜스

기본지침

- 보도펜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¹⁸
- 보도펜스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차도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도로의 유지·관리 및 배수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¹⁸

구조 및 형태

- 보도면에서 보도펜스 상단까지의 높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사용자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1.1m 내외로 한다. 단, 너무 높은 보도펜스는 보행자에게 압박감을 주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1.2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도펜스는 개방감을 갖도록 디자인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 어린이가 상호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보도펜스의 부재 간 틈새는 어린이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간격으로 디자인한다.
- 지주는 도로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주의 깊이는 사용제품의 성능시험에 적용한 길이를 그대로 적용한다.
- 기타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주변 환경에 조화로운 간결한 디자인과 색상,
출처: <https://design.gg.go.kr>



출처: <https://www.architonic.com>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2.3 가이드라인 > 교통시설물 > 블라드

기본지침

- 블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최소화하여 설치한다.¹⁹

설치 위치

-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고원식 횡단보도 보도 경계구간, 차량 진출입구 보도 경계구간 등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 보차공존도로,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는 블라드를 설치하도록 한다.
- 자동차가 보도로 불법 진입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장소 또는 일시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
- 보도에 블라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크기나 위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조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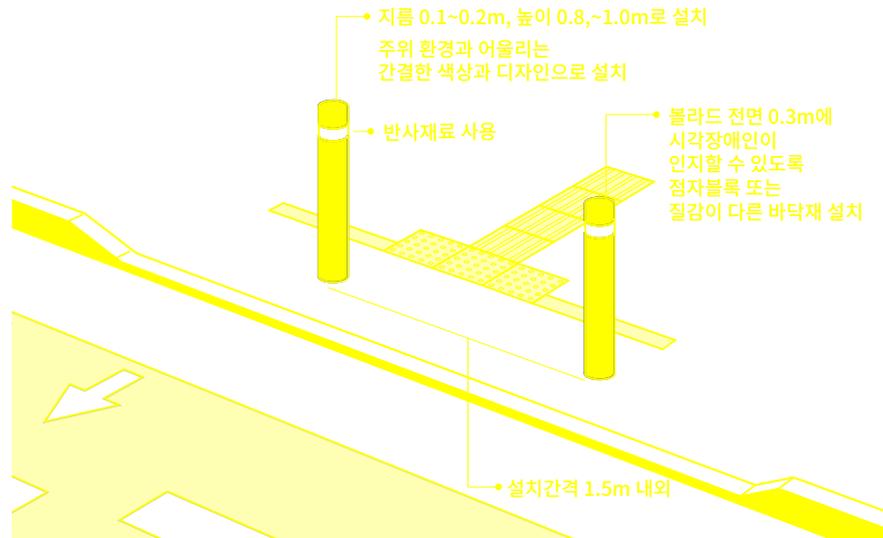
- 블라드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0.8m ~ 1.0m 내외로 하고, 지름은 0.1m ~ 0.2m 내외로 한다.¹⁹
- 블라드의 설치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¹⁹
- 블라드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 블라드가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¹⁹
- 블라드는 고정식과 가동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가동식 블라드의 경우 보행전용지구, 자동차 없는 거리 등 운용 시 필요에 따라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구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재질 및 색채

- 보행자나 자전거 사용자 등이 부딪히더라도 충격을 흡수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돌 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¹⁹

¹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외부 재질이 석재, 나무, 철재와 같은 딱딱한 소재는 보행자가 부딪힐 경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모서리가 부드러운 모양으로 디자인하며 가급적 탄성을 가진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SC}
-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주간 및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²⁰



주변 환경에 조화로운 간결한 디자인과 색상(해외사례), 출처 : <https://www.architonic.com>



주변 환경에 조화로운 간결한 디자인과 색상(국내사례), 출처 : <https://design.gg.go.kr>

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2.3 가이드라인 > 교통시설물 > 버스·택시 승차대

기본지침

- 버스·택시 승차대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버스 및 택시를 기다리는 부담이 적은 장소로 조성하도록 한다.
- 버스·택시 승차대는 도로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주·야간 모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한다.
- 버스·택시 승차대는 주변 여건, 가로 여건 및 교통상황, 보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 설치하고, 승차대 설치로 인해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버스 승차대는 반드시 쉼터(앉아 쉬는 것 포함)를 포함하도록 하고, 버스 승차대 주변에는 시야 차폐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에 주의한다.
- 태양광 발전설비 및 스마트 스크린 시스템을 도입한 버스 승차대 설치를 권장한다. SC
- 버스는 노인이나 휠체어 사용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권장하며, 전기버스와 같은 친환경적 교통수단의 활용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SC

버스 승차대

구조 및 형태

- 버스 승차대는 유모차, 휠체어의 진출입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한다.²¹
- 버스 승차대에는 일반인 대기공간과 휠체어 대기공간을 구분하며, 휠체어 대기공간 위치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유모차,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승차 대기공간은 벤치를 설치하지 않으며,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 버스 승차대는 통로를 1.2m 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내부에 유모차,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1.5m ×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대기의자는 바닥에서 0.4m~0.45m 높이로 설치하며, 차가운 금속 재질은 지양하고 모서리는 가급적 둥글게 마감처리 한다. 대기의자 주변에는 보조 손잡이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버스 승차대는 우천 시 대비 지붕이 있는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승차대의 상부 높이는 2.5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 야간에 버스운전자가 정류소 대기자를 보지 못해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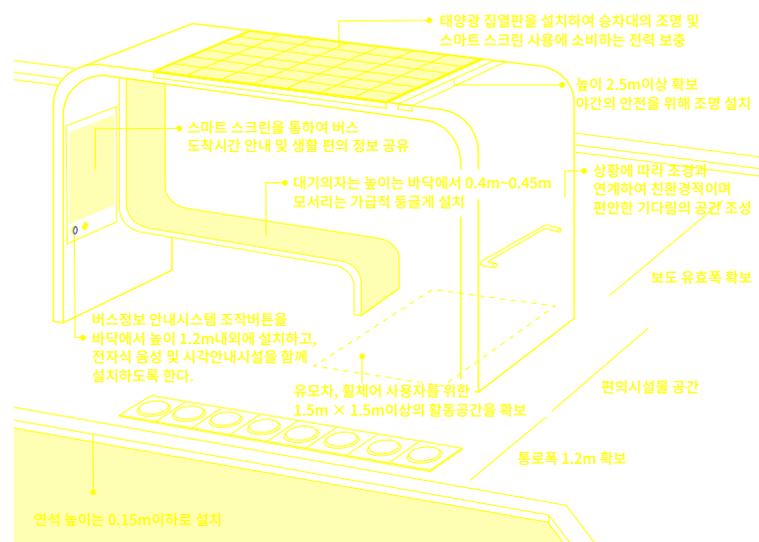
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연석 및 점자블록

-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는 15cm 이하로 한다.²²
- 버스가 정류소에 인접하여 정차할 수 있도록 승차대의 연석은 곡선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에 경고블록을 사용하여 대기공간의 경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며, 승강장의 보도 폭이 넓은 때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함께 설치하고, 보도폭이 좁은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²²

안내시설

- 행선지, 시각표 등 버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은 휠체어 사용자 및 어린이 등도 읽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 1.5m 내외에 설치하도록 한다.²²
-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및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버튼을 바닥에서 높이 1.2m 내외에 설치하도록 하고,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²²
- 안내시설은 정보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사용하며(고딕체 등), 영어 등 다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설치한다. 
- 정보안내시설의 화면은 강한 햇빛 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렵지 않도록 주변에 차양 등을 설치한다.
- 버스에 탑승한 사람이 정류소의 명칭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방향으로도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좌) 싱가포르 Jurong Smart 버스정류장. 차도와 보도 간 경고블록 사용, 문화공간 기능의 버스정류장 계획, 출처: citigreen.com
 우)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협업한 버스정류장 쉼터 녹화사업. 지붕 및 벽면, 펜스 등에 공기정화식을 식재

택시 승차대

- 거리 중에 활용빈도가 높고 대중교통과 환승되거나 주요시설이 집중되는 곳을 선정하여 안전한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고, 설치위치를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한다.
- 택시 승차대는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이용자, 짐을 끌고 가는 사람 등의 원활한 택시 이용을 위해 부분 경사로를 설치한다.
- 부분경사로는 택시 승차대 내에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 이하로 설치한다.
- 야간에도 사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며, 야간에도 운전자가 충분히 식별 가능하도록 주변보다 높은 조도를 확보한다.

2.3 가이드라인 > 교통시설물 > 신호기

기본지침

- 횡단보도에는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며, 신호기의 설치로 인해 보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다른 가로시설물과 통합한 위치에 설치하되 식별이 잘 되도록 한다.
- 장애인의 신체조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조작버튼의 설치 높이를 결정하며, 시각, 청각 등 복수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되는 구간에는 보행자 조작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음향 신호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해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²³
-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조작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m ~ 1.2m 이내로 한다.²³
-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도록 한다.²³
- 잔여시간 표시기는 숫자와 기호로 표시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며, 횡단 잔여시간과 횡단 대기시간을 함께 표시한다.
- 음향신호기의 음량은 소음이 되지 않고, 일정 범위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크기가 되도록 한다.
- 음향신호기의 소리는 불쾌함을 주지 않는 듣기 좋은 신호음이 되도록 하며, 통일된 신호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보행자조작 교통 신호기

- 보행우선구역 안의 교통 신호기에는 보행자가 조작하여 녹색신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한다.²⁴
- 교통 신호기는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하며, 적절한 음량과 듣기 좋은 소리가 되도록 설치한다.²⁴
- 교통 신호기의 녹색신호 시간은 노인, 장애인 등이 횡당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 횡단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급적 잔여시간 표시기능과 대기시간 표시기능을 겸한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어린이, 휠체어 이용자 등의 용이한 조작을 위해 바닥에서 1.2m 내외의 높이에 설치한다.



2016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Art work를 활용한 횡단보도 사례와 보행자조작 교통 신호기, 출처: www.dezeen.com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2.3 가이드라인 > 공급시설물 > 맨홀

구조 및 형태

- 맨홀의 표면 마감재는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보도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마감하도록 권장한다. **SC**
- 보도에 설치하는 맨홀은 단차가 없도록 하여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들이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용 지시가 맨홀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보도의 패턴과 동일하게 표현한 맨홀 디자인
 좌) 서울시 강남대로, 출처: <http://www.korea.kr>,
 우) 덴마크, 출처: <https://www.design.gg.go.kr>



간결한 프레임을 적용한 맨홀 및 배수구 디자인

2.3 가이드라인 > 공급시설물 > 배전함

구조 및 형태

- 보행자 및 자전거 사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설치 가능한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를 결정하며, 다른 가로시설물과 통합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색상은 원색이나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는 색상으로 디자인하도록 권장한다. SC
- 시설물의 하부는 가급적 불필요한 받침대나 펜스 등은 설치하지 않는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시설물의 모서리는 보행자나 자전거 사용자가 충돌하여도 큰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둥글게 마감하도록 권장한다.
- 보행공간인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공개공지 또는 식재대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SC



시설물 구역에 맞춰 심플한 형태로 설치된 배전함 사례

2.3 가이드라인 > 편의시설물 > 음수대

기본지침

- 음수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가로나 공원 등 공공공간에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 음수대의 높이나 구조는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지팡이 사용자 등 모든 사람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배려한다.

구조 및 형태

- 키가 작은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높낮이가 다른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음수대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1.5m x 1.5m 이상 확보한다.²⁵
- 음수대 분출구의 높이는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가 마시기 쉽도록 바닥면에서 0.7~0.8m의 높이로 한다.²⁵
- 휠체어 사용자가 급수전에 전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수대 하부높이는 0.65m 이상, 깊이는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 벽면 매입형인 경우에는 전면 접근할 수 있도록 좌우 유효폭을 0.9m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음수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자동감지식 음수대를 설치하는 경우 수동식을 병행하도록 권장한다.²⁵
- 기타 세부 설치 기준은 5.3 관광지 가이드라인 중 음수대 기준을 적용한다.



좌)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제질 및 형태의 적용, 우) 다양한 사용자 및 동반한 애완동물까지 고려한 디자인

²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2.3 가이드라인 > 편의시설물 > 공공벤치

기본지침

- 벤치는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시선의 은폐와 차단이 생기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벤치의 배치는 독립된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만큼 이격시킨다.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한다.

설치 위치

- 공공벤치는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보도나 산책을 하는 사람이 많은 보도 등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곳에 200m ~ 400m 간격으로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
- 보도 상에 설치하는 벤치는 보행안전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벤치를 설치할 때에는 가급적 식재나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그늘을 제공하도록 하며, 친환경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벤치와 연계하여 소공원, 수변 공간, 미술품, 전시물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구조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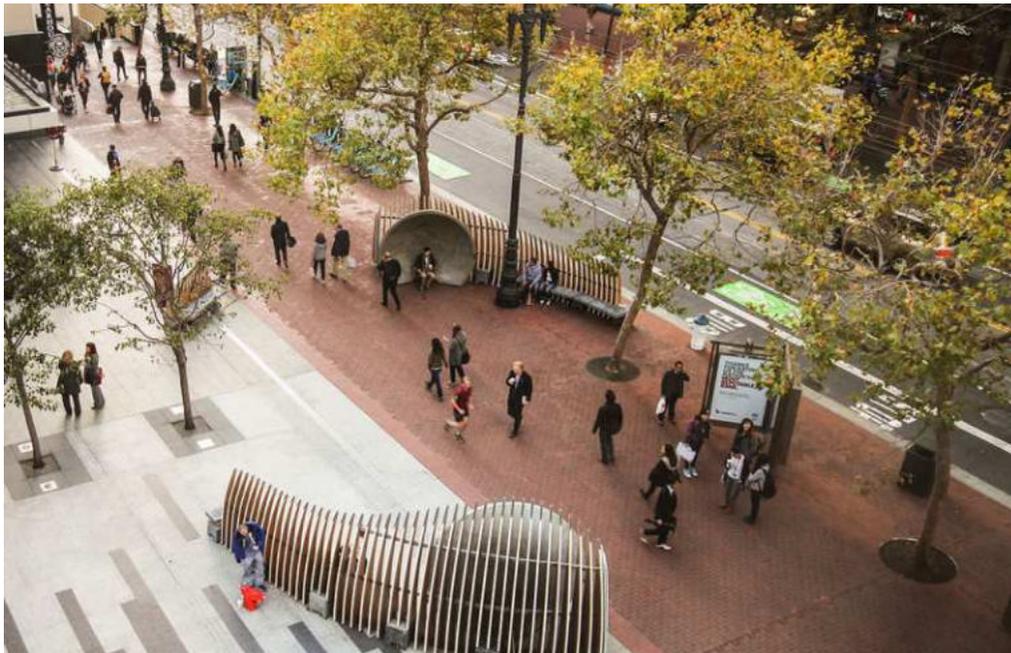
- 휠체어 사용자가 옆에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벤치의 상부에는 가급적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노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벤치는 가급적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설치하도록 한다.
- 벤치 높이는 0.4~0.45m가 적당하며, 특히 발이 닿는 위치가 평탄하고 주변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설치한다.
- 벤치의 모서리 부분은 모두 둥글게 처리한다.
- 기타 세부 설치 기준은 3.3 공원 가이드라인 중 공공벤치 기준을 적용한다.



좌)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안전하게 디자인한 벤치, 우) 지붕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활용성을 높인 벤치



미국 시카고 Riverwalk.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계획 및 다양한 형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출처 : <http://www.architecture.org>



미국 샌프란시스코 Market Street. 보행구역에 설치된 웰터형 벤치, 출처 : <https://gehlpeop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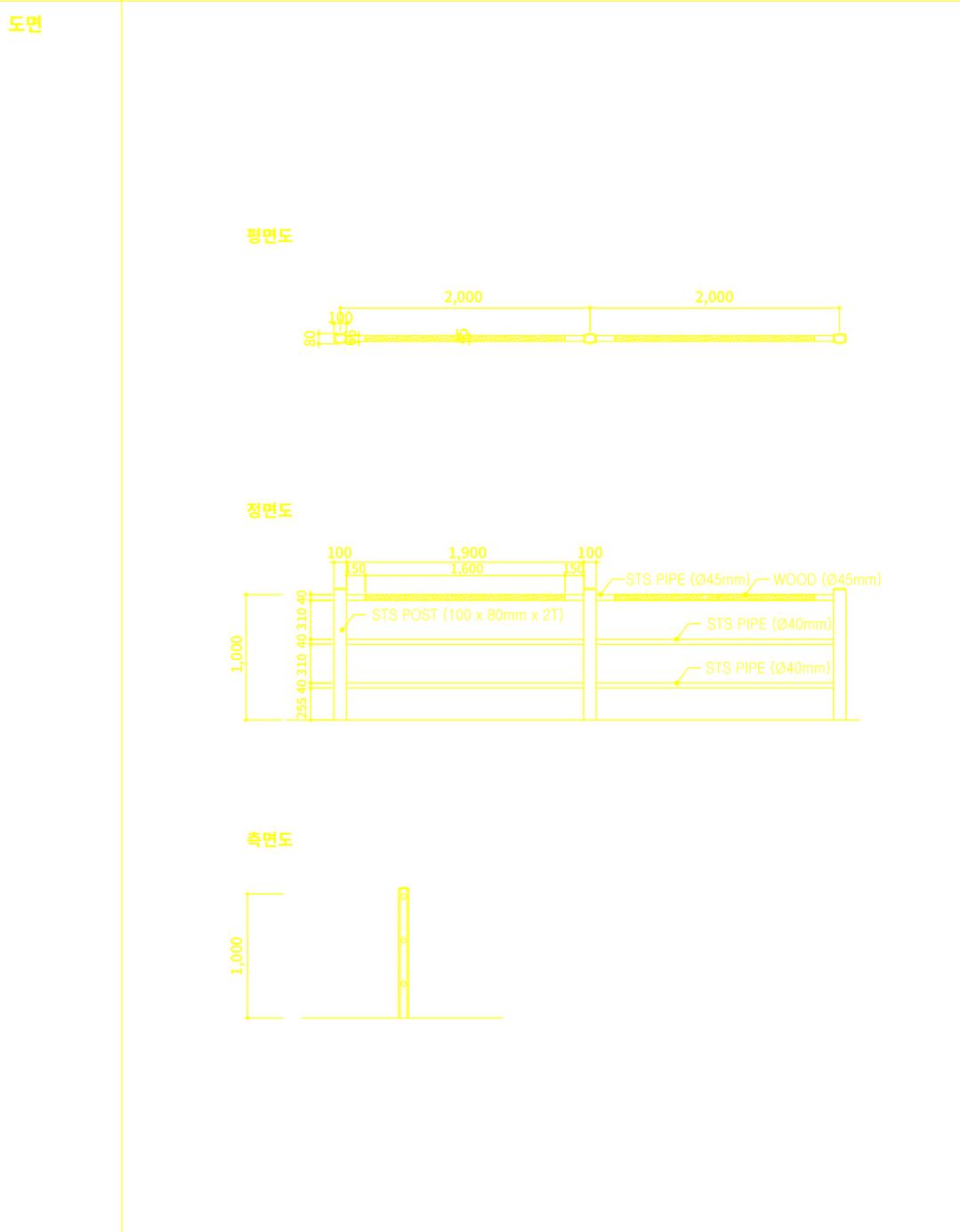
2.4 가이드라인 적용안 > 보도펜스

1) 권장 지침

세부내용																									
디자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시야 확보와 개방성을 유도할 수 있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본질적 기능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 또는 장식적 요소는 지양한다. • 보도면에서 보도펜스 상단까지의 높이는 0.9 ~ 1.1m로 한다. • 벤치나 식재대 등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 설치를 지양한다. • 연결 하드웨어의 노출을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정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적용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금지 사례</th> <th style="width: 50%;">권장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과도한 형태 / 유광 재질 적용</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 / 손잡이 목재 사용</p> </td> </tr> </tbody> </table>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과도한 형태 / 유광 재질 적용</p>	 <p>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 / 손잡이 목재 사용</p>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과도한 형태 / 유광 재질 적용</p>	 <p>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 / 손잡이 목재 사용</p>																								
권장 C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금속재를 사용하며, 유광 재질의 사용을 지양한다. • 목재는 손잡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내구성을 고려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휘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가공하도록 한다. • 목재 적용부분은 오일스테인으로 마감하고, 장기간 사용 시 하자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페인트 도장은 금지한다. • 유채색의 적용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금속재 사용 시, 적용 색채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콜그레이 (1,1,1,54 CMYK) 또는 웜그레이 (0,12,19,63 CMYK) 계열의 웨이드를 권장한다. 또한, 내구성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가공을 권장한다. • 화려한 그래픽 요소의 설치 지양한다. (제작업체, 관리주체 등의 표식 지양)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권장 색상</th> <th style="width: 50%;">권장 재료 및 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으로 신체에 무해한 자재 사용 • 심미적으로 자연환경에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 권장재료: Steel Plate, Stainless Steel, 알루미늄 합금주물 등 금속류, 우드(손잡이) </td> </tr> </tbody> </table>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으로 신체에 무해한 자재 사용 • 심미적으로 자연환경에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 권장재료: Steel Plate, Stainless Steel, 알루미늄 합금주물 등 금속류, 우드(손잡이)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으로 신체에 무해한 자재 사용 • 심미적으로 자연환경에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 권장재료: Steel Plate, Stainless Steel, 알루미늄 합금주물 등 금속류, 우드(손잡이)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설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시, 볼트의 노출을 최대한 지양하며, 가급적 지면 밑으로 매립 설치하도록 한다. 																								

2) 권장 예시 도면

항목	세부내용
사이즈	W2000* D80* H1050
색상	Dark Warm Gray (0,10,15,48, CMYK)
재료	STS, WOOD(손잡이면)



2.4 가이드라인 적용안 > 맨홀

1) 권장 지침

세부내용																								
디자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질적 기능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 또는 장식적 요소는 지양하고, 가급적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주변과 동일한 보도 포장 재료 및 패턴, 색채로 마감한다. •보도에 설치하는 맨홀은 단차가 없도록 하며,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도록 틈새가 발생하지 않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등이 맨홀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금지 사례</th> <th>권장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  <p>보도와 이질적인 재질, 색채 사용</p> </td> <td>  <p>보도와 동일한 재질 및 디자인 적용</p> </td> </tr> </tbody> </table>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보도와 이질적인 재질, 색채 사용</p>	 <p>보도와 동일한 재질 및 디자인 적용</p>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보도와 이질적인 재질, 색채 사용</p>	 <p>보도와 동일한 재질 및 디자인 적용</p>																							
권장 C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금속재를 사용한다. •주변과 동일한 보도 포장 재료 및 패턴, 색채로 마감하도록 권장한다. •장기간 사용 시 하자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페인트 도장은 금지한다.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우수, 오수 등 기능 표기)를 제외한 화려한 그래픽 요소의 설치 지양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권장 색상</th> <th>권장 재료 및 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보도와 동일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보도와 동일한 재료 및 패턴 권장 •권장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뚜껑: 주변 바닥재와 동일 재료 </td> </tr> </tbody> </table>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보도와 동일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보도와 동일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보도와 동일한 재료 및 패턴 권장 •권장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뚜껑: 주변 바닥재와 동일 재료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설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 시 볼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틈새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권장 예시 도면

항목	세부내용
사이즈	원형 Ø648, 사각형 648 x 648mm (기능별 규격에 따를 것)
색상	주변 보도색상에 따름
재료	뚜껑: 주변 포장재와 동일 재료
도면	

2.4 가이드라인 적용안 > 볼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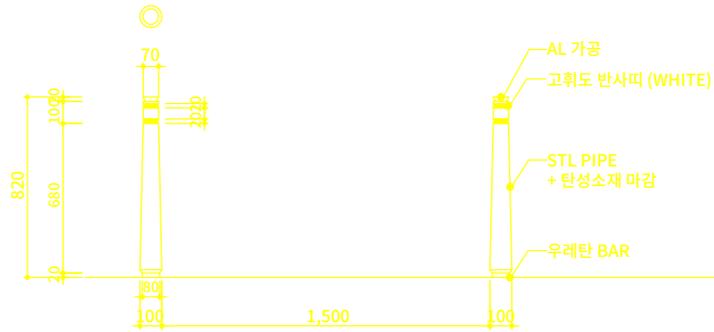
1) 권장 지침

세부내용																													
디자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질적 기능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 또는 장식적 요소는 지양하고, 가급적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0.8~1.0m 내외로 하고, 지름은 0.1~0.2m 내외로 하되 규격은 가급적 최소화 한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20~30mm의 반사도료, 반사띠 등을 2줄 이내로 적용한다. 반사띠는 시설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도록 한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도록 한다. •상부에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곡면형 또는 경사형 디자인을 적용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금지 사례</th> <th style="width: 50%;">권장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과도한 형태 및 색채/ 유색띠 / 유광재질 / 기단부 마감 노출 등</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적절한 규격의 디자인 / 반사띠 적용 등</p> </td> </tr> </tbody> </table>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과도한 형태 및 색채/ 유색띠 / 유광재질 / 기단부 마감 노출 등</p>	 <p>적절한 규격의 디자인 / 반사띠 적용 등</p>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과도한 형태 및 색채/ 유색띠 / 유광재질 / 기단부 마감 노출 등</p>	 <p>적절한 규격의 디자인 / 반사띠 적용 등</p>																												
권장 C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와의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유광 재질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을 적용한다. •유채색의 적용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적용 색채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쿨그레이 (1,1,1,54 CMYK) 또는 웜그레이 (0,12,19,63 CMYK) 계열의 웨이드를 권장한다. 또한, 금속재 사용시 내구성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가공을 권장한다. •반사도료 도는 반사띠는 흰색(은색)을 권장한다. •화려한 그래픽 요소의 설치는 지양한다. (제작업체, 관리주체 등의 표식 지양)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권장 색상</th> <th style="width: 50%;">권장 재료 및 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d style="background-color: #999999;"></td> <td style="background-color: #666666;"></td> <td style="background-color: #333333;"></td> </tr>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적으로 신체에 무해한 자재 사용 •심미적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권장 재료: 고인장 실리콘 STI, 고휘도 반사지, STI (분체도장), AI (우레탄코팅), 고무BAR 등 </td> </tr> </tbody> </table>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d style="background-color: #999999;"></td> <td style="background-color: #666666;"></td> <td style="background-color: #333333;"></td> </tr>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적으로 신체에 무해한 자재 사용 •심미적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권장 재료: 고인장 실리콘 STI, 고휘도 반사지, STI (분체도장), AI (우레탄코팅), 고무BAR 등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d style="background-color: #999999;"></td> <td style="background-color: #666666;"></td> <td style="background-color: #333333;"></td> </tr>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적으로 신체에 무해한 자재 사용 •심미적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권장 재료: 고인장 실리콘 STI, 고휘도 반사지, STI (분체도장), AI (우레탄코팅), 고무BAR 등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설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 시, 볼트의 노출을 최대한 지양하며, 가급적 지면 밑으로 매립 설치하도록 한다. 																												

2) 권장 예시 도면

항목	세부내용
사이즈	Ø70~100 * H820
색상	Dark Warm Gray (0,10,15,48, CMYK), 반사띠 White
재료	STL Pipe, 우레탄 Bar, AL, 반사시트

도면



3. 공원

3.1 공원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개요

앞 장에서 도출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방향과 7원칙을 반영하여, 실제 순천시의 공원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시 활용 가능한 세부 지침들을 정립한다.

공원 가이드라인의 경우, 공원의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대표적 공간들을 선정하며, 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원 이용을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하는데 필요한 접근공간, 공원 내의 각 시설을 연결하는 이동공간, 공원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공간 및 시설물, 공원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정보매체 등으로 분류한다.

사용자가 건축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공간, 이동공간, 서비스공간, 시설물, 공공정보매체의 배치는 적재적소에 유기적으로 배치되고, 사용자 동선은 연속성을 갖도록 하며, 심미적이고 쾌적하며 안전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료들을 적용한다.

대상 공간 및 세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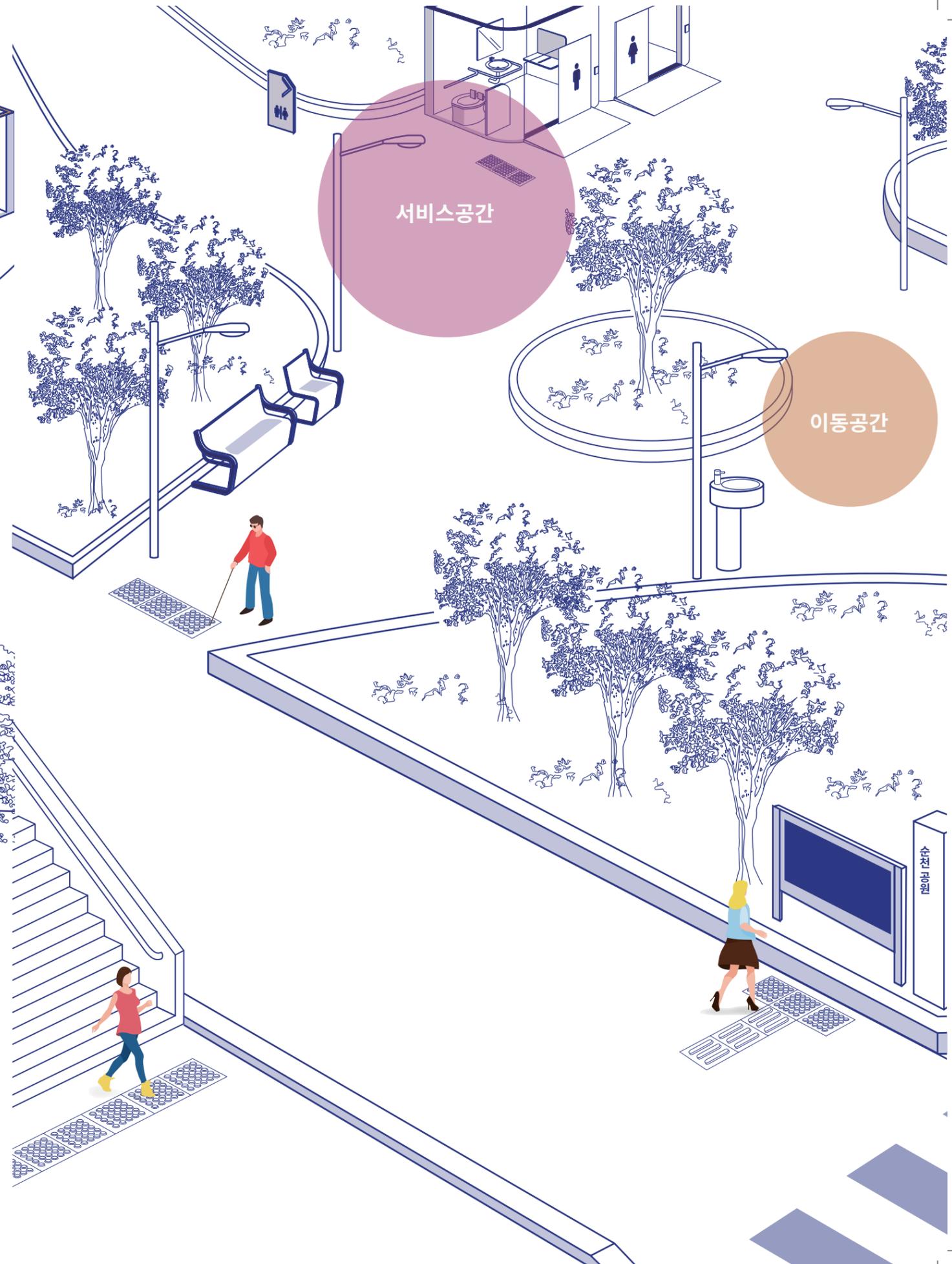
접근공간	이동공간	서비스공간	편의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접근로	보행로	화장실	음수대	안내시설물
안내시설		놀이터	공공벤치	
주차공간		휴게시설	휴지통	



서비스공간

화장실, 놀이터, 휴게시설

- 장애인 전용 화장실 대신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공원 내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필요한 설비와 여유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며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 하며, 장애아동 및 일반 어린이, 유아가 함께 놀 수 있도록 가급적 놀이시설을 통합 시설로 설치한다.
- 휴게시설은 체력소모가 심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하여 보호자와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시설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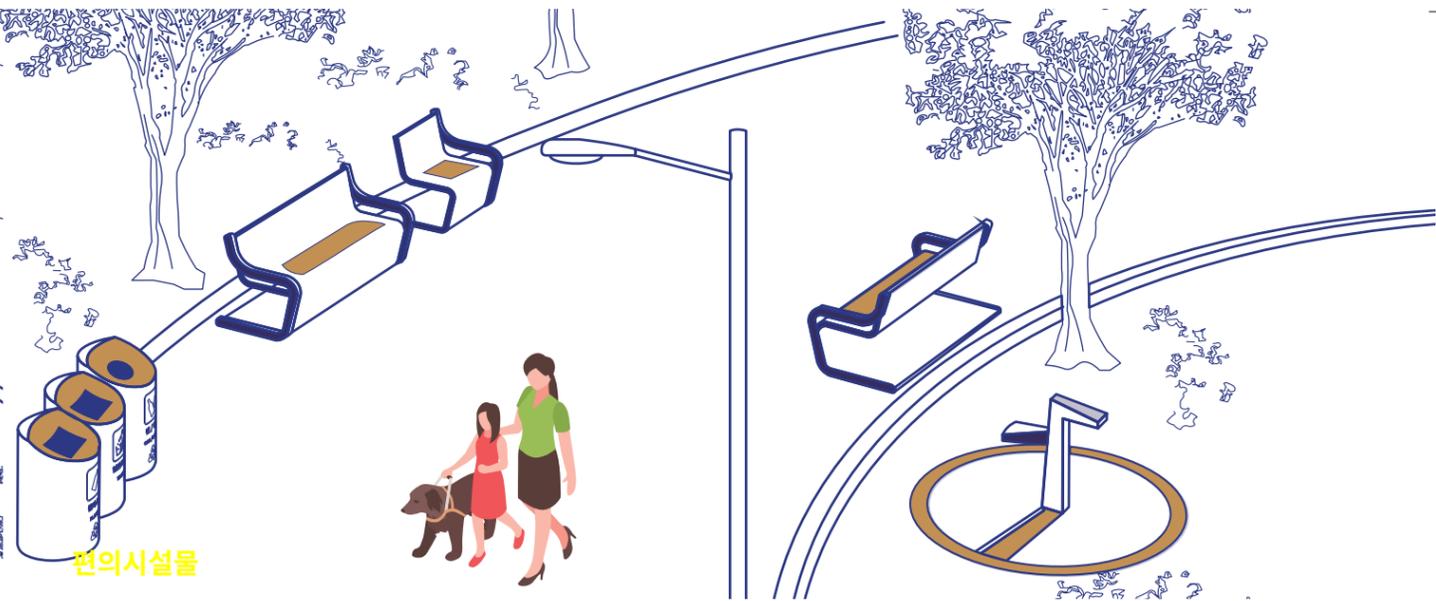
이동공간



이동공간

보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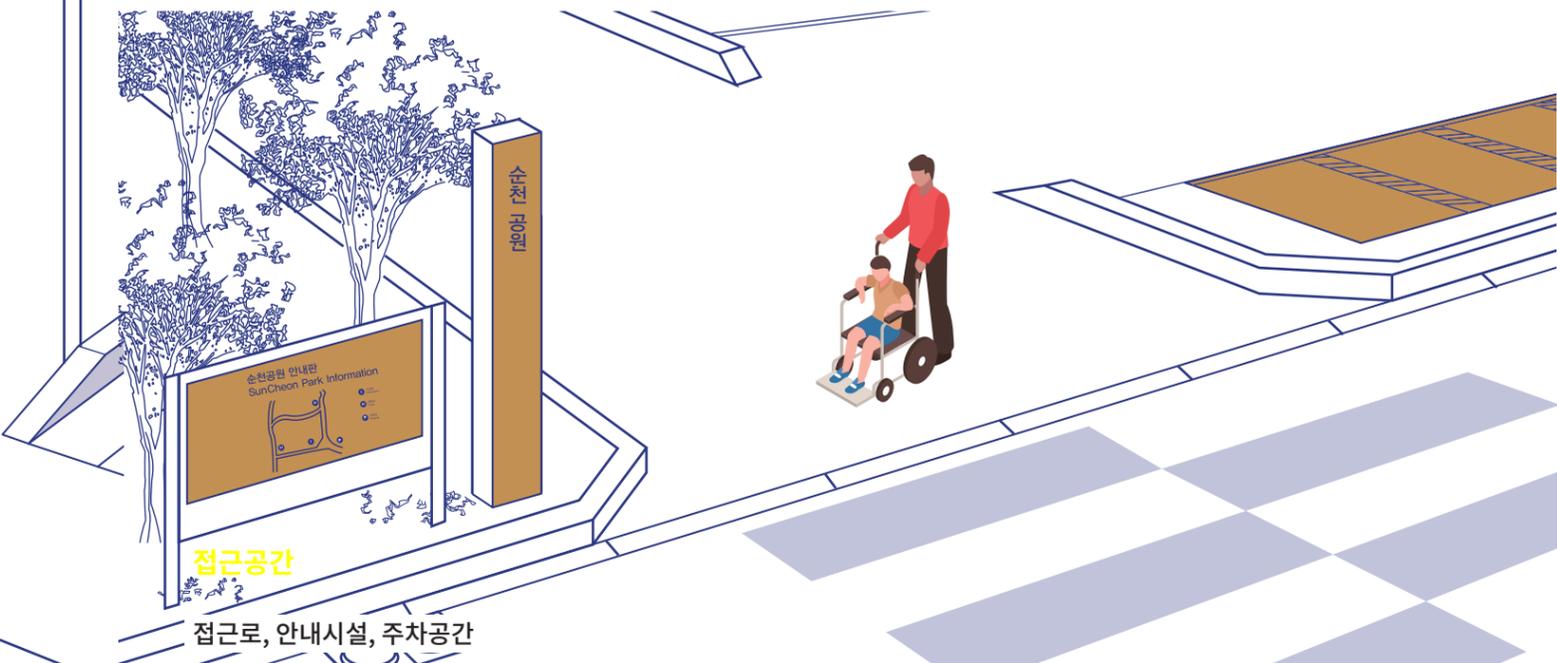
- 모든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한 주요 보행로는 공원 내 주요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연속된 보행로 구조로 계획하여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공원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 안의 보도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보행로의 바닥마감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표면에 요철이 없도록 마감하고, 마감재의 틈새에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편의시설물

공공벤치, 음수대, 휴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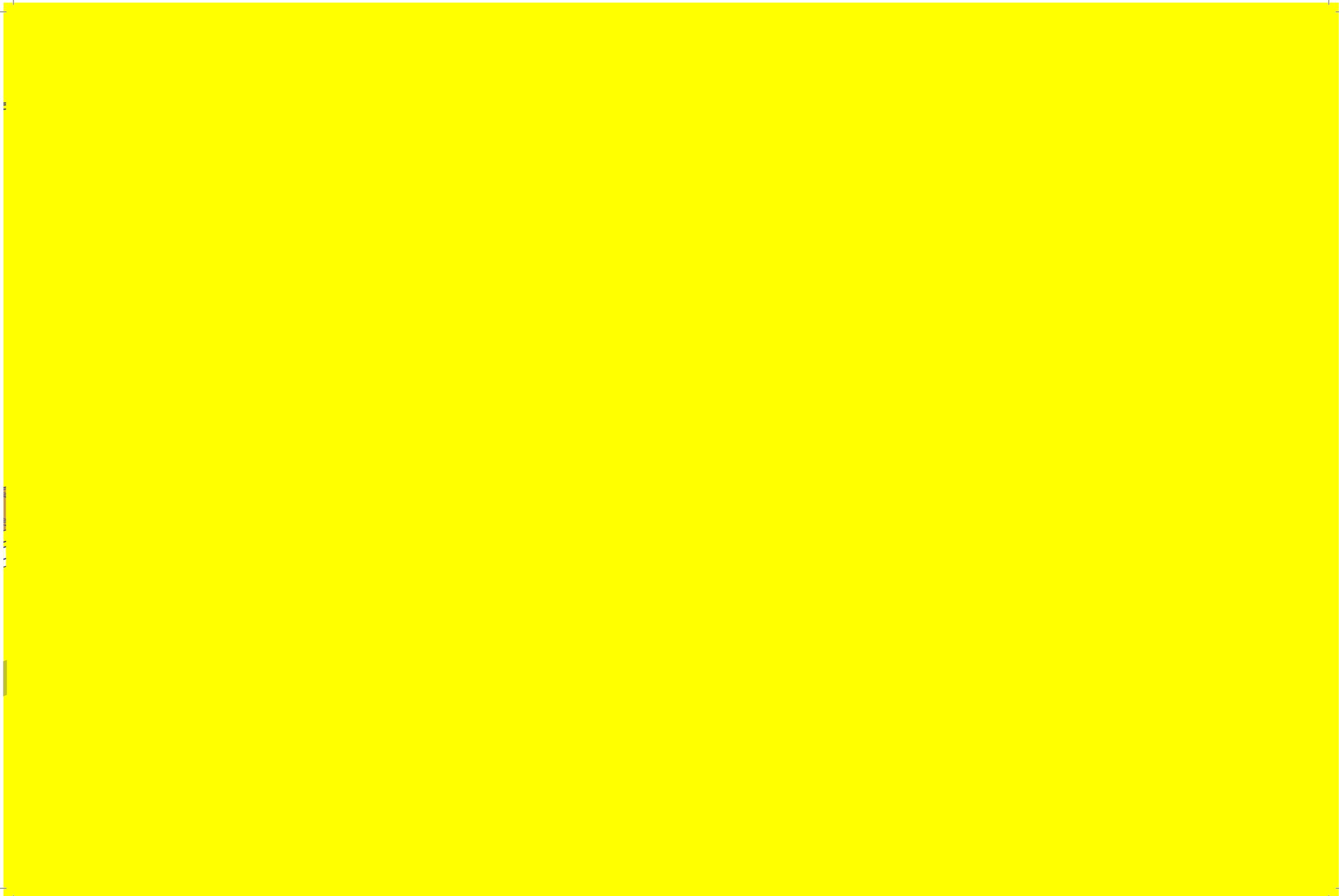
- 벤치는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시선의 은폐와 차단이 생기지 않는 장소에 설치,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노인 등이 산책 중 손쉽게 접근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50~10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음수대의 높이나 구조는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 지팡이 사용자 등도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배려하며,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관리되도록 한다.
- 휴지통은 보행로의 일정 거리마다 설치하고, 통행이나 사용자가 많은 장소나 머무는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접근공간

접근로, 안내시설, 주차공간

- 접근로는 인근의 대중교통 시설, 주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가급적 최단거리로 보행동선을 연결하여 공원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하기 쉬운 곳에 공원입구 위치를 지정한다.
- 공원의 관리사무소, 주출입구 등에는 공원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소 또는 인근 지역의 현황 등을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원 내·외부의 편의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하여 설치하며,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이용가능한 가족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3.3 가이드라인 > 접근공간 > 접근로

기본지침

- 인근의 대중교통 시설, 주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가급적 최단거리로 보행동선을 연결하여 공원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하기 쉬운 곳에 공원입구 위치를 지정한다.
-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어린이, 유모차,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²⁶
- 공원 주출입구는 계단이나 급경사를 피하여 평탄하게 계획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단 외에 완만한 경사로 및 승강기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안내사인 등을 설치한다.

구조

-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의 출입구는 각각 분리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한다.
- 공원 주출입구의 보행접근로 유효폭은 2.0m 이상, 기타 출입구는 1.5m 이상 확보하며(법적치수 1.2m 이상), 공원의 규모나 사용자 수 등에 따라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²⁶
- 공원 접근로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상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cm 이하(법적치수 2cm 이하)로 하며,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가 손쉽게 오를 수 있도록 모서리 처리를 한다.²⁶
- 자동차의 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을 고려해 유효폭 1.5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한다.²⁶
-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볼라드 전후에 유모차나 휠체어의 활동공간을 1.5m 이상의 수평부분(보도 포함)을 확보한다.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²⁶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마감 및 재료

- 공원 입구가 시작되는 보행 접근로의 바닥마감재는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보도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단, 무분별한 점자블록의 설치 시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sc}
- 바닥마감은 우천 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표면에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하며, 바닥마감재의 이음새 틈에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²⁷
- 보행 접근로는 공원 내 보행로와 일체감을 주어 별도의 안내표지 없이도 연속성이 유지되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조성 및 유도

- 공원 주출입구 근처에는 공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와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판을 병기한다. ^{sc}
- 시각장애인이 충돌, 추락 또는 가로수의 가지 등에 찰릴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접근제한, 방향유도 등을 할 수 있는 난간, 보호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낮은 볼라드나 화분 등 보행장애 요소는 제거한다.
- 적절한 조도를 갖춘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우범화되지 않도록 한다.
- 주변 보도와의 경계부에는 담장이나 보도용 방호울타리보다는 녹지와 휴게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sc}

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출입구

- 공원은 노인, 임산부, 유아, 장애인 등이 즐겨 방문하는 곳이므로 출입구는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모든 이용자의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
- 공원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주출입구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원 이용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공원 주출입구는 매표시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 가까운 곳을 설치하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접근로로 계획한다.
-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²⁸
- 주출입구는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광장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와 수평접근을 원칙으로 한다.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가이드라인 > 접근공간 > 안내시설

매표시설

기본지침

- 공원의 관리사무소, 주출입구 등에는 공원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소 또는 인근 지역의 현황 등을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원 내·외부의 편의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 공원 이용정보를 언어나 음성안내기기, 휠체어, 유모차 등 편의장비를 대여 받을 수 있는 가이드센터 역할을 병행한다. **SC**
- 어린이,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표소 또는 매표기를 최소 1개소 이상 확보하며,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²⁹

구조 및 마감

- 매표소와 매표기의 전면에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접근하고 회전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1.5m x 1.5m 이상 확보한다.
- 매표소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의 높이로 한다.²⁹
- 매표소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m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²⁹
-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발권 취출구 등은 휠체어사용자 등의 손이 도달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7~1.2m(법적치수 0.4~1.2m)의 높이로 한다.²⁹
- 매표소 및 매표기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한다.²⁹
- 매표소와 매표기의 상부에는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매표소와 매표기에는 가방을 놓을 수 있는 선반, 우산이나 지팡이 걸이대 등을 설치한다.

유도 및 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공원 출입구에서 매표소와 매표기 전면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매표기에는 점자표기와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를 병기한다. **SC**

²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관리사무소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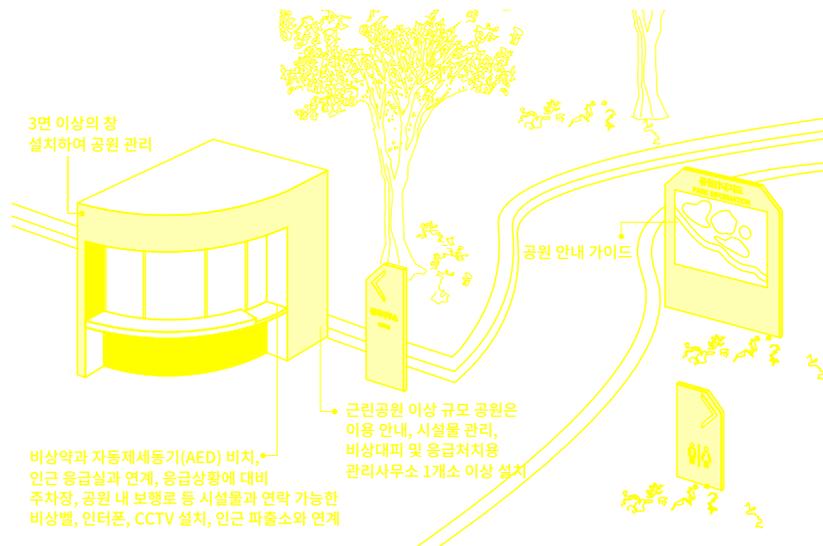
- 주출입구 인근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는 종합안내소, 장애인 등의 이용 안내, 공원 내 감시 및 시설물관리, 비상시 대피 및 응급처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 근린공원 이상의 공원에는 관리사무소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감시기능과 안전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한다.

구조

- 근린공원 이상의 공원에는 관리사무소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감시기능과 안전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한다.
- 관리사무소는 3면 이상의 벽면에 창을 설치하여 공원 내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에너지 절감을 위해 벽면 녹화 등을 권장한다.

안전

- 관리사무소 내부에는 비상구급약과 자동제세동기(AED) 등을 비치하여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근 병원 응급실과 연계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공원 내 보행로,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과 연락이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CCTV 등을 설치하며, 인근 파출소와도 연결되도록 한다.



3.3 가이드라인 > 접근공간 > 주차공간

기본지침

- 주차장출입구는 보행자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공원 보행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 공원 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²⁹
- 주차구역은 공원 주출입구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주차구역에서 공원의 보행로 및 주출입구까지 차량과 교행하지 않는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한다.
- 차량 이동통로, 주차공간, 보행 영역의 패턴을 구분하여 인지성을 확보한다.
- 공원 내 주차장 설치 불가로 인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접근로에 대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함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공원의 보행로와 차량과의 교행 없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최단거리 위치에 설치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공원 내 보행로까지는 단차없이 수평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수직 및 사선주차인 경우 폭 3.5m, 길이 5.0m로 차량주차공간 2.3m과 휠체어 활동공간 1.2m를 색면, 빗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평행주차인 경우 폭 2.0m 길이 6.0m로 설치한다.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폭 3.3m, 길이 5.0m로 할 수 있다. ³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카스토퍼의 경우 길게 설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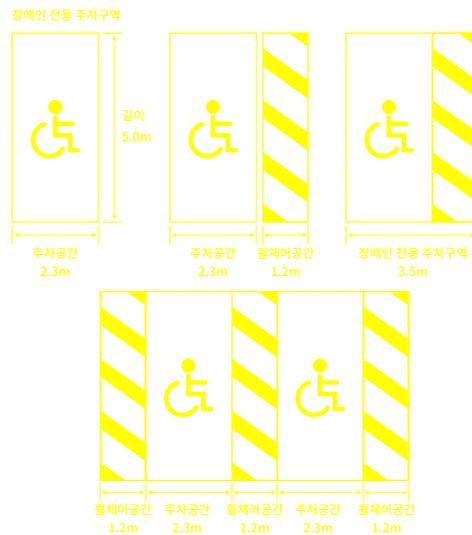
유아동반 가족 전용 주차장

- 유아동반 가족 전용 주차장은 유모차를 이용하는 여성 및 남성, 일시적 부상 등으로 지팡이 등을 이용해야 하는 보행 불편자, 임신으로 인해 여유 있는 활동공간이 필요한 임산부 등이

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용 가능한 주차장으로 2.3m의 차량 주차공간 외에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추가로 설치한 주차장이다. ^{SC}

- 유아동반 가족 전용 주차장의 경우, 차량과의 교행구간 존재 시 보행자 우선의 계획으로 보행통로를 설치한다.
- 유아동반 가족 전용 주차장은 폭 3.3m, 길이 5.0m로 차량 주차공간 2.3m와 유모차 등의 이동 및 승하차 공간 1.0m를 색면, 빗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별도로 유모차 이용가능 유아의 연령, 이용가능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허가증이 없는 차량의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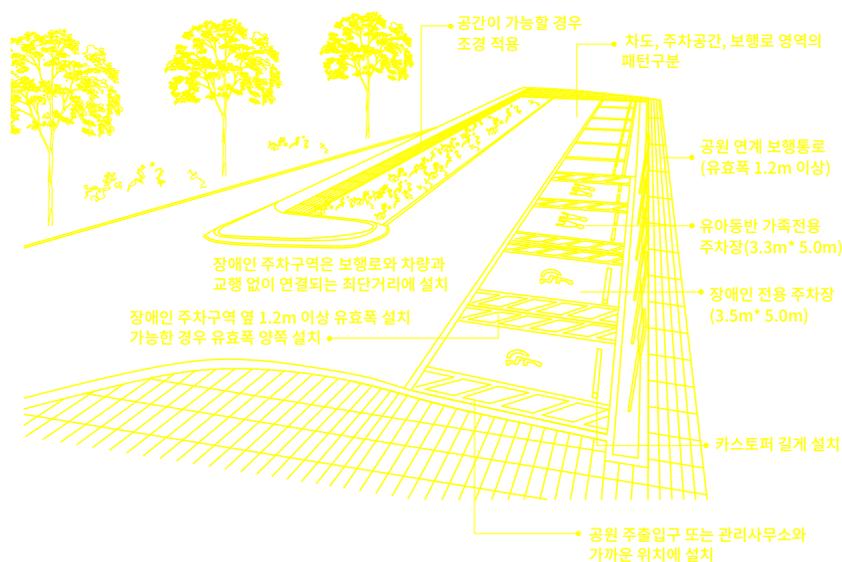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가족 전용 주차장 설치사례

조성 및 유도

- 장애인이 전용 주차구역 및 유아동반 가족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공원으로 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표지판과 위치 안내판을 설치하고 노면표지를 명확히 한다. **sc**
- 대규모 옥외주차장에는 수관폭이 넓은 수종을 이용한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 야외에 설치된 주차장은 야간의 식별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원 개장 시간 동안에는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한다.
- 공원의 주차장은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재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태양광 카스토퍼를 활용하여 야간에 조명 또는 알림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sc**



3.3 가이드라인 > 이동공간 > 보행로

기본지침

- 모든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한 주요 보행로는 공원 내 주요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연속된 보행로 구조로 계획하여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공원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 안의 보도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 등이通行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SC}
- 공원 내 보행로는 자동차 및 자전거 동선과 교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비스 차량의通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 가능한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 이용에 제한을 두도록 한다.
- 도로 또는 대중교통시설과 연결되는 공원 내 보행로에는 바닥 마감재의 색상, 질감 등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

- 공원 내 보행로는 유효폭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 높이 2.5m 이내(법적치수 2.1m 이내)에는 가로수 등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³¹
- 공원 내 보행로는 원칙적으로 단차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cm 이하(법적치수 2cm 이하)로 할 수 있고,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가 손쉽게 오를 수 있도록 모서리 처리를 하도록 한다. ³¹
- 보행로의 횡단 기울기는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1/100이하의 기울기로 한다.

재료 및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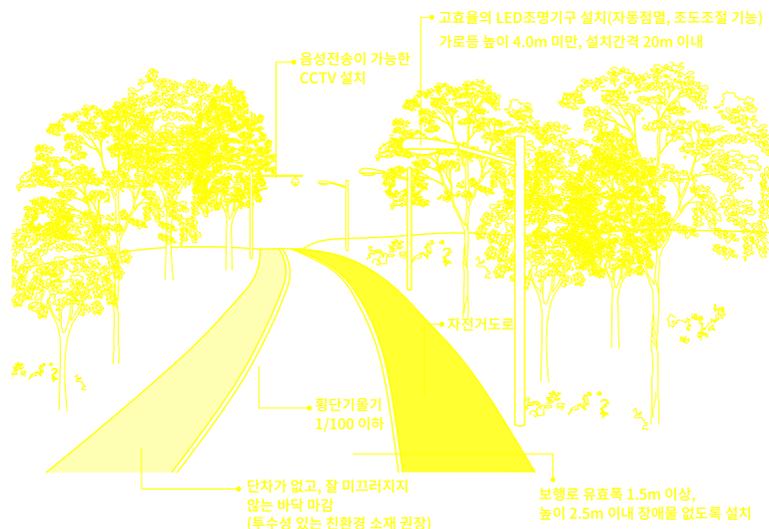
- 보행로의 바닥마감은 우천 시 등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표면에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³¹
- 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바닥 마감재의 틈새에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재 자체의 요철이 없는 평탄한 마감면의 재질로 설치한다. ³¹
- 보행로의 포장은 투수성 블록이나 잔디 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적극 사용하며, 개보수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보행로가 차도와 접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 등을 변화시켜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주의환기 또는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로가 차도와 접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 등을 변화시켜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주의환기 또는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조성 및 유도

- 보행로 주변 시설물을 최소화 및 통합화하고 지나치게 장식적인 조형물의 설치를 지양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 보행로 주변에는 적절한 간격마다 화초, 휴게공간, 가로등,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적절한 조도를 확보하고,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sc
- 체험형 놀이공간 등과 같은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코스를 지정 및 보행 유도레일 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용자가 쉽게 보행로를 통해 공원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sc
- 보행로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보행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높이는 4.0m 미만으로 하며, 설치간격은 20m 이내에 조도 15~30lux 이상(바닥 위 85cm 측정값 : KS조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권장한다.
- 보행로의 조명은 고효율의 LED조명기구를 설치하며, 자동점멸이나 조도조절기능이 있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 시각장애인의 연속성 있는 보행을 위해 전자식 신호장치나 보행로 양 옆에 보행 유도 및 경고용 띠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 방지턱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재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계단

- 지형 상 부득이하게 높은 단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또는 위험함이 없는 구조와 형태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의 병행 설치를 권장한다.
- 계단의 유효폭은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³²
-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길이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³²
- 계단의 디딤판 너비는 0.3m 이상(법적치수 0.28m 이상), 첩면 높이는 0.16m 이하(법적치수 0.18m 이하)를 권장하며,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 너비와 첩면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³²
- 바닥마감은 우천 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³² 야간에도 디딤판, 첩면, 계단코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조명 등을 설치하거나 마감재의 색상, 재질 등을 달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0.3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한다.³²
- 손잡이는 가급적 양측면에 2단 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의 폭이 3.0m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 손잡이의 양끝 지점에서는 수평손잡이를 0.3m이상 연장하여 설치하며, 문자정보와 함께 점자표기를 부착하도록 한다.³²

경사로

- 지형 상 공원 내 보행로에 단차가 발생할 경우 완만한 경사로를 활용하며, 계단과 병행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경사로의 유효폭은 최소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 확보하며, 가급적 보행로와 동일한 폭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³²
- 경사로의 종단 기울기는 1/20 이하(법적치수 1/18 이하)의 완만한 경사를 권장하며, 지형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12 이하로 할 수 있다.³²
- 경사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해야 한다.³²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 x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 1.2m x 1.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³²

3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전거 도로

- 공원규모에 따라 별도의 자전거 출입구 및 자전거도로를 계획하는 경우 보행로와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부득이하게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교차할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구간에 과속방지턱, 충돌방지 바닥 및 입식 안내표지, 교차지점 바닥마감재의 질감 및 색상 변화 등을 통해 보행자 우선의 계획이 되도록 한다.
- 보행자 도로에도 자전거 교행에 대한 입식 안내표지 및 바닥마감재의 변화를 주어 주의 및 경고표시를 한다.



싱가포르 Enabling Village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보행공간 계획 사례

3.3 가이드라인 > 서비스공간 > 화장실

기본지침

- 공원 내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고 쉽게 눈에 띄는 개방적인 위치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 대신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공원 내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필요한 설비와 여유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화장실 내외부에서 유모차와 휠체어의 이동, 접근, 회전이 자유로워야 한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용자에 따라 행하는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원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으로 계획하며,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자재와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한다. ^{SC}
- 원활한 공기순환으로 습기와 악취를 제거하거나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여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이 되도록 한다.
-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수유나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으며, 임산부 등이 휴식할 수 있는 수유실을 공원 내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SC}

위치 및 접근

- 공원 주출입구의 안내표지판 등에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 유도하는 표시를 한다.
- 화장실 진입로와 출입구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한다.
- 화장실에 이르는 접근로에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³⁴
- 화장실에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화장실 출입구는 자연채광이나 인공조명 등으로 충분한 밝기를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재료 및 마감

-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³⁴

3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오염에 강하고, 자국이나 흠집이 쉽게 생기지 않는 내마모성 재료를 사용한다.
-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작은 재료를 사용하고, 파손 시 개보수가 용이하며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마감재를 활용한다.
- 청결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색채의 마감재를 선정하며, 실내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색채계획으로 한다. ^{SC}
- 마감재는 친환경적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적극 사용하며, 외벽에는 식재나 벽면녹화, 고효율 LED조명기구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SC}

다목적 화장실

- 공원에 설치하는 다목적 화장실은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며,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비 등의 위치에 따라 왼손잡이용과 오른손잡이용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다목적 화장실에는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나 영유아 거치대, 잠시 누워서 쉴 수 있는 접이식 간이침대, 어린이용 대변기, 오스트메이트 등의 부대설비를 공원에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일반 화장실

- 장애인용 대변기 부스를 남자 및 여자용으로 각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³⁵
-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남녀화장실 모두 영유아 거치대,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³⁵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한 가족 화장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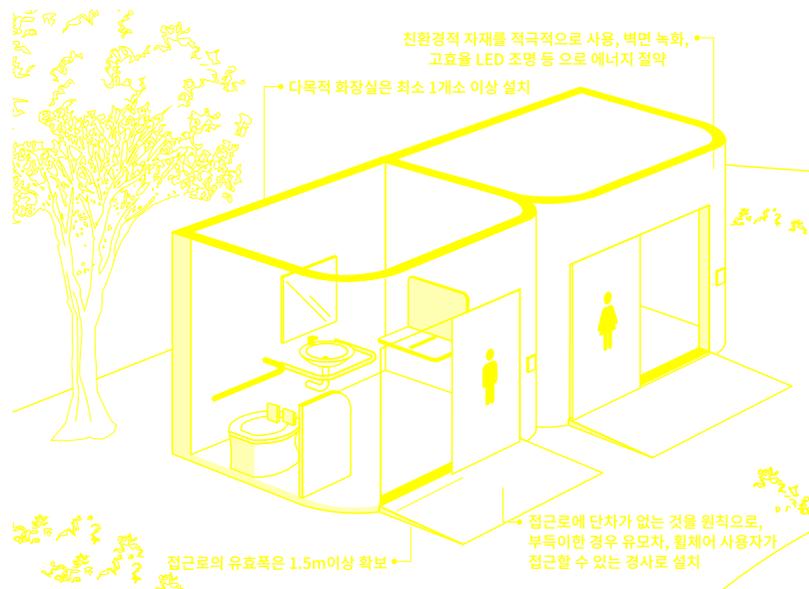
3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방법 및 안전

- 화장실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개방적인 위치에 설치하며, 24시간 방법 및 경보시스템을 채택하여 비상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한다.
- 관리사무소 등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 등을 다목적 화장실과 남녀 화장실 내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한다.
- 다목적 화장실과 장애인용 대변기 부스에는 비상호출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가급적 모든 단위부스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화장실 주변은 항상 밝게 유지하고 화장실 내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를 게시한다.
- 비상시 피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의 설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외관 및 디자인

- 공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과도한 외관 디자인 및 원색적이고 과도한 색채사용은 지양하며, 개방감 있고 청결한 이미지를 주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실내는 편안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주며 실내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계획한다.
- 벽면에 유리블럭 등을 사용하거나 천창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하며, 악취 제거 등을 위한 환기는 자연환기만으로도 원활한 공기순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 주간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적절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고 눈부심이 없는 부드러운 조명기구를 채택하도록 한다.



3.3 가이드라인 > 서비스공간 > 놀이터

기본지침

- 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며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 한다.
- 장애아동 및 일반 어린이, 유아가 함께 놀 수 있도록 가급적 놀이시설을 통합 시설로 설치하고, 불가능한 경우 보행안전구역과 가까운 놀이터 일부공간에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SC**
- 놀이공간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감각 등에 자극을 주는 안전한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SC**
-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에 보호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강한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함께 설치한다. **SC**
-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운동공간을 고려한다.
- 놀이 후 식수공급과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음수대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 기타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대와 치유를 돕는 공간을 제공한다.





좌) 싱가포르 City Square Mall의 야외 놀이공간. 휠체어 사용자도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우) 영국 The Green Circle Garden. 휠체어 사용자, 노인이 정원을 직접 가꾸고 손질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출처 : <https://www.greencirclegarden.com>



호주 City Botanic Garden의 놀이공간. 휠체어 사용자도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출처 : <https://www.playlsi.com>

3.3 가이드라인 > 서비스공간 > 휴게시설

기본지침

- 체력소모가 심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하여 보호자와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통합이용시설로 계획한다.
- 공원 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나 보행로 주변 등에 적절한 간격마다 잠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SC}
- 휴게공간은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안정감을 주도록 하며, 휠체어 사용자 및 노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 휴게시설에는 벤치, 탁자 등을 적절히 설치하며, 자동판매기, 음수대 등을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 가족 등 여럿이 이용하는 경우나 혼자 이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다양한 크기의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SC}
-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보행로에 인접한 경우 보행로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휴게시설은 공원 테마에 어울리며 주변과 잘 조화되는 재질과 형태로 디자인한다.

구조 및 마감

- 휴게시설에 이르는 통로는 단차없이 수평하게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³⁶
- 휴게시설에 이르는 통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³⁶
- 휴게시설에 이르는 통로는 우천시 등에도 바닥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³⁶
- 휴게공간에는 휴게의자 설치공간 외에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1.5m x 1.5m 이상(법적치수 1.4m x 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³⁶

3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설

야외탁자

- 어린이나 노인, 휠체어 사용자 등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높이나 형상 등이 다른 다양한 야외탁자의 설치를 고려한다. ^{SC}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야외탁자는 상부면 높이를 0.7m 정도로 하며,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을 확보한다.³⁷
- 야외탁자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야외탁자를 복수 설치할 경우, 탁자 상호간의 간격은 휠체어의 통행을 고려해 2.2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휴게의자

- 휴게의자의 높이는 0.4~0.45m가 적당하며, 발이 닿는 위치가 평탄하고 주변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설치한다.
- 휴게의자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휴게의자는 가급적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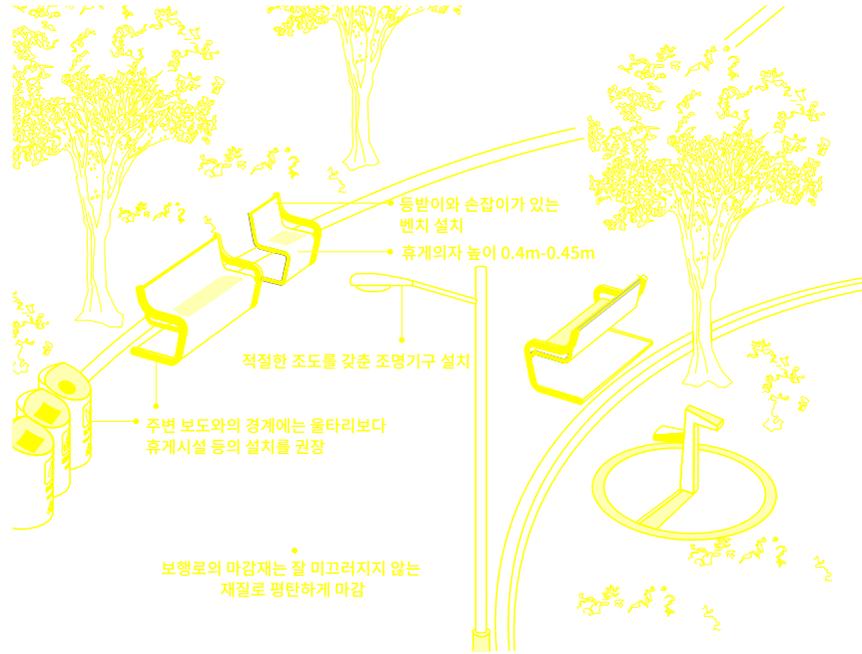
조성

- 휠체어 사용자나 어린이도 쉽게 접근하여 관찰하거나 만질 수 있는 자연공간을 적극 조성한다. ^{SC}
- 휴게시설은 수변공간, 미술품, 전시물 등의 주변 여건과 잘 연계되도록 한다. ^{SC}
- 휴게시설은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며,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높이 0.5~0.7m 정도의 수목을 식재한다.
- 수목은 사계절에 걸쳐 계절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선택한다.
- 야간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명을 확보하도록 한다.



싱가포르 Mapletree Business City II 야외 공원.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휴게공간을 조성, 출처: <https://www.shmadesigns.com>

3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가이드라인 > 편의시설물 > 음수대

기본지침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를 공원 내 1개소 이상 설치한다.³⁸
- 음수대의 높이나 구조는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 지팡이 사용자 등도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배려한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 식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므로,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관리되도록 한다.
-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설치되는 음수대는 발을 씻을 수 있는 수전을 별도로 설치하며,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SC}

형태 및 구조

- 키가 작은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높낮이가 다른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SC}
- 음수대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1.5m x 1.5m이상 확보한다.³⁸
- 음수대 분출구의 높이는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가 마시기 쉽도록 바닥면에서 0.7~0.8m의 높이로 한다.³⁸
- 휠체어 사용자가 급수전에 전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수대 하부높이는 0.65m이상, 깊이는 0.45m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 벽면 매입형인 경우에는 전면 접근할 수 있도록 좌우 유효폭을 0.9m이상 확보한다.
- 음수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자동감지식 음수대를 설치하는 경우 수동식을 병행하도록 권장한다.³⁸

3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가이드라인 > 편의시설물 > 공공벤치

기본지침

- 벤치는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시선의 은폐와 차단이 생기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공원 내 벤치는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노인 등이 산책 중에 손쉽게 접근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50~10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벤치와 연계하여 소공원, 수변공간, 미술품, 전시물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벤치는 4인 이용을 기준으로 하며, 2인용과 1인용을 적절히 혼합하여 설치한다.
- 벤치의 배치는 독립된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만큼 이격시킨다.

구조 및 형태

- 벤치는 손잡이 및 등받이가 있는 구조로 하며, 휠체어 사용자 등이 옆에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단단히 고정된 손잡이가 없으면 이용하기 힘든 노인, 장애인 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공원 내 보행로에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벤치에 앉은 사람의 발이 보행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보행로에서 0.6m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 벤치 높이는 0.4~0.45m가 적당하며, 특히 발이 닿는 위치가 평탄하고 주변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설치한다.
- 벤치 공간의 상부에는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벤치의 모서리 부분은 모두 둥글게 처리한다.

조성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한다.
- 벤치를 설치할 때에는 식재나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그늘을 제공하도록 하며, 친환경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3 가이드라인 > 편의시설물 > 휴지통

기본지침

- 휴지통은 보행로의 일정 거리마다 설치하고, 통행이나 사용자가 많은 장소나 머무는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휴지통은 보행자의 이동상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공원 내 설치하는 휴지통은 휠체어사용자, 어린이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형태로 설치한다.
- 사용자가 많은 장소에는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용 휴지통을 설치하며, 그 외 장소에는 일반쓰레기 겸용의 간이용 휴지통을 설치한다.
- 분리수거용 휴지통은 색, 그림, 외국어 등을 활용하여 휴지통의 용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SC
- 쓰레기 수거방법을 감안하여 공원 내 청소 및 관리동선은 공원 사용자의 휴식 및 보행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좌)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재질 및 형태의 적용, 우) 다양한 사용자 및 동반한 애완동물까지 고려한 디자인

3.3 가이드라인 > 공공정보매체 > 안내시설물

기본지침

- 공원의 안내시설물(안내판 및 유도사인 등)은 다양한 사용자의 이해력, 인지능력과 소통능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시설물은 정확한 정보표시 및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간결하고 심미성이 있는 직관적인 디자인이어야 한다. ^{SC}
- 각각의 안내시설물은 목적별로 체계적이고 통일감을 주도록 하며, 연속으로 설치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SC}
- 안내시설물은 설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한 위치에 적절한 개수를 설치하도록 하며, 보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크기로 설치한다.
- 안내시설물은 성인은 물론 키가 작은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 가능한 위치에 표기내용을 알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며, 외국인이나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통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다국어, 점자, 음성 등을 적극 활용한다.
- 안내표지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하며, 알아보기 쉬운 명료한 서체와 크기, 색상을 사용한다. ^{SC}

안내판

위치

- 안내판은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 및 사용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안내판은 인근의 대중교통 시설, 주차장, 공원 입구, 보행로의 분기점, 주요시설 주변 등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한다.

구조

- 각종 안내판이나 유도사인은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을 고려하여 안내판 전면에 1.5m x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성인은 물론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바닥면으로부터 안내판의 중앙까지의 높이는 1.35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 보행로나 통로의 상부에 유도사인 등의 안내판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판 하단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2.5m 이상(법적치수 2.1m) 되도록 설치한다. 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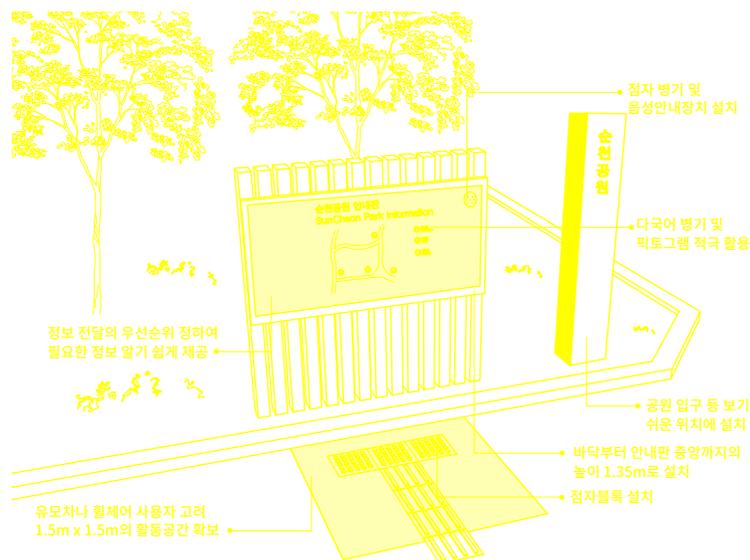
3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태 및 내용

- 안내판에는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로 병기하며,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 등을 설치하여 필요한 안내정보를 적절히 전달하도록 한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게시판, 문자정보 모니터 등을 설치하여 필요한 안내정보를 적절히 전달하도록 한다.
- 안내판에는 야간에도 문자 등 안내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조도를 확보한 고효율의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종합안내도

- 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는 종합안내도에는 유모차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배치나 경로를 표시한다. 
- 종합안내도는 공원 입구, 보행로의 분기점, 주차장, 주요시설 주변 등에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한다.
- 종합안내도에는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표기하며, 현재 위치의 방향과 안내판의 설치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 종합안내도에는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위치,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 응급 상황 발생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외부 보행로에서 안내시설까지 점자블록을 연속하여 설치한다.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은 공원 입구나 주요 시설 인근에 설치하며,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배치, 경로 등을 점자·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한다.⁴⁰
- 공원 종합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 병기 및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한다.⁴⁰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정보전달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1.2m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며, 부득이 내용이 많아 곤란한 경우에는 1.0~1.5m의 범위로 할 수 있다.⁴⁰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의 전면 0.3m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휠체어의 접근이나 이동을 위한 1.5m x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화장실 등 한정된 공간을 인지하기 위한 안내판은 촉지도식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타

- 공원 내 지형상 가파른 경사로 등이 조성되어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나 자전거, 애완견 동반 출입 등이 제한되는 공간은 입구에서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 인터넷이 가능한 무인정보검색대(무인키오스크)를 관리사무소 또는 공원 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좌) 영국 Bristol Legible City의 정보안내 시스템. 가독성이 좋은 서체와 도시 정체성을 표현하는 색상을 사용,
출처: <https://www.bristollegiblecity.info>

우) 서울 반포 한강공원의 안내게시판.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간결한 형태와 디자인

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가이드라인 적용안 > 휴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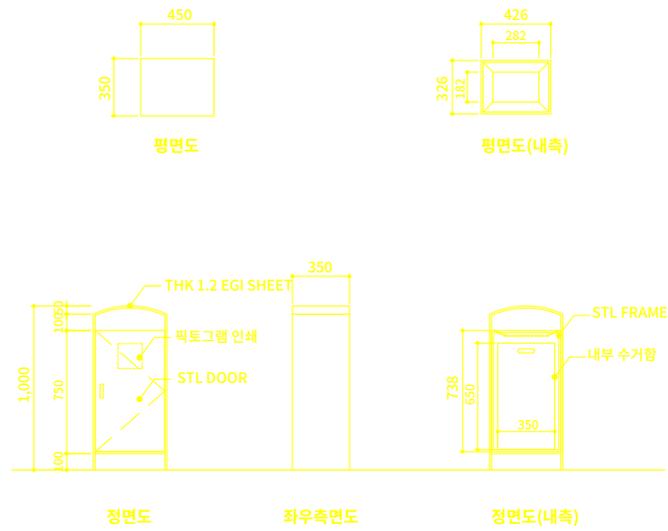
1) 권장 지침

세부내용																									
디자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질적 기능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 또는 장식적 요소는 지양하고, 가급적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쓰레기의 수거 및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휴지통 내 수분 배출이 원활하도록 디자인한다. • 빗물 유입이나 쓰레기 투척 등의 방지를 위해 투입구가 상부로 향하지 않게 디자인한다. • 상부에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곡면형 디자인을 권장한다. • 연결 하드웨어의 노출을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정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금지 사례</th> <th style="width: 50%;">권장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과도한 색채 및 그래픽 적용 / 상부로 개방된 투입구</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단순하고 심플한 색채 및 디자인 / 상부 곡면형 디자인/ 픽토그램 적용</p> </td> </tr> </tbody> </table>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과도한 색채 및 그래픽 적용 / 상부로 개방된 투입구</p>	 <p>단순하고 심플한 색채 및 디자인 / 상부 곡면형 디자인/ 픽토그램 적용</p>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과도한 색채 및 그래픽 적용 / 상부로 개방된 투입구</p>	 <p>단순하고 심플한 색채 및 디자인 / 상부 곡면형 디자인/ 픽토그램 적용</p>																								
권장 C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재의 사용을 권장하며, 기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경우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 유광 재질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을 적용한다. • 유채색의 적용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적용 색채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쿨그레이 (1,1,1,54 CMYK) 또는 웜그레이 (0,12,19,63 CMYK) 계열의 웨이드를 권장한다. 또한, 금속재 사용시 내구성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가공을 권장한다. • 화려한 그래픽 요소의 설치는 지양한다. (제작업체, 관리주체 등의 표식 지양) • 분리수거 등의 기능 표식을 위해 픽토그램 적용을 권장하며, 그래픽 요소는 UV실크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시트지 등을 컷팅하여 부착하는 것은 지양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권장 색상</th> <th style="width: 50%;">권장 재료 및 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패턴 권장 • 권장 재료: 스틸(PIPE, PLATE, 형강), 스테인레스(PLATE), 목재(HARDWOOD) 등 </td> </tr> </tbody> </table>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패턴 권장 • 권장 재료: 스틸(PIPE, PLATE, 형강), 스테인레스(PLATE), 목재(HARDWOOD) 등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패턴 권장 • 권장 재료: 스틸(PIPE, PLATE, 형강), 스테인레스(PLATE), 목재(HARDWOOD) 등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설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시 볼트의 노출을 최대한 지양한다. 																								

2) 권장 예시 도면

항목	세부내용
사이즈	W450* D350* H1000
색상	Dark Cool Gray (1,1,1,54, CMYK / 1,0,2,34 CMYK)
재료	STS Frame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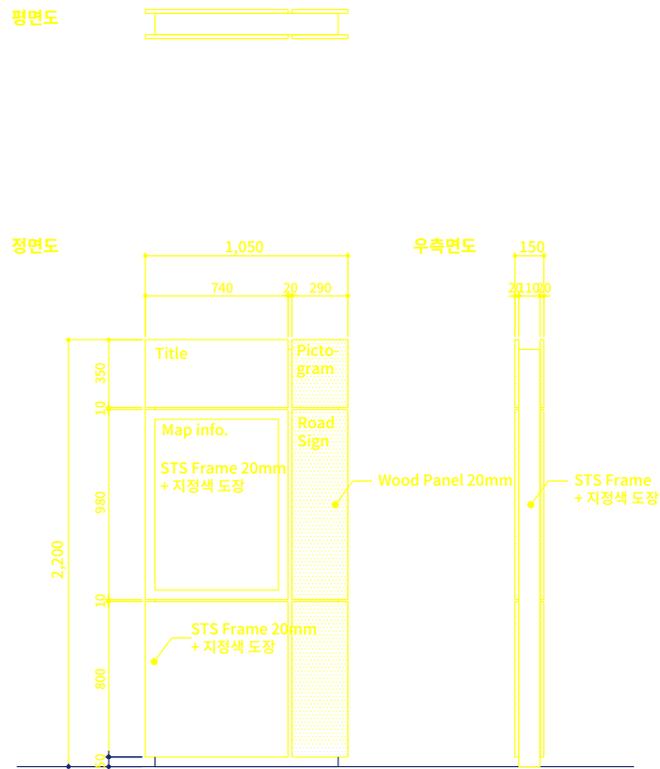
3.4 가이드라인 적용안 > 안내시설물

1) 권장 지침

세부내용																									
디자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질적 기능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 또는 장식적 요소는 지양하고, 가급적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성인은 물론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바닥면으로부터 안내판의 중앙까지의 높이는 1.35m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외국인, 시각/청각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다국어, 점자, 음성 등을 적극 활용하고, 명료한 서체 및 크기를 사용한다. •연결 하드웨어의 노출을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정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금지 사례</th> <th>권장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  <p>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장식 및 색채 사용</p> </td> <td>  <p>간결하고 심플한 색채 및 디자인 / 주변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형태</p> </td> </tr> </tbody> </table>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장식 및 색채 사용</p>	 <p>간결하고 심플한 색채 및 디자인 / 주변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형태</p>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장식 및 색채 사용</p>	 <p>간결하고 심플한 색채 및 디자인 / 주변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형태</p>																								
권장 C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재의 사용을 권장하며, 기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경우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유광 재질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을 적용한다. •색상은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적용 색채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쿨그레이 (1,1,1,54 CMYK) 또는 웜그레이 (0,12,19,63 CMYK) 계열의 웨이드를 권장한다. 또한, 금속재 사용시 내구성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가공을 권장한다. •화려한 그래픽 요소의 설치는 지양한다. (제작업체, 관리주체 등의 표식 지양) 																								
	<table border="1"> <thead> <tr> <th>권장 색상</th> <th>권장 재료 및 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패턴 권장 •권장 재료: 스테인레스(PLATE), 목재(HARDWOOD) 등 </td> </tr> </tbody> </table>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패턴 권장 •권장 재료: 스테인레스(PLATE), 목재(HARDWOOD) 등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패턴 권장 •권장 재료: 스테인레스(PLATE), 목재(HARDWOOD) 등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설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 시 볼트의 노출을 최대한 지양하며, 가급적 지면 밑으로 매립 설치한다. •경사면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면이더라도 위쪽 면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한다. 																								

2) 권장 예시 도면

항목	세부내용
사이즈	W1050* D150* H2200
색상	Dark Warm Gray (0,10,15,48, CMYK) + Wood
재료	STS Frame, Hard Wood
도면	



* 자세한 안내도에 들어가는 정보 글씨의 크기, 폰트 등에 대한 내용은 4.3 가이드라인 > 공공정보매체 > 시각정보 내용 참조

4. 공공건축물

4.1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개요

앞 장에서 도출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방향과 7원칙을 반영하여, 실제 순천시의 공공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시 활용 가능한 세부 지침들을 정립한다.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의 경우, 공공건축물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대표적 공간들을 선정하며, 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건축물의 외부로부터 실내로 이동하기 위하여 접근하게 되는 접근공간, 건축물 내에서 이동하는데 자연스럽게 거치게 되는 이동공간, 공간 사용 중 편의를 제공하는 위생공간, 공용시설, 공공정보매체 항목으로 분류한다.

공용시설물의 배치는 적재적소에 유기적으로 배치되고, 사용자의 동선은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특히, 이동공간의 경우, 원활한 이동 및 연계 동선 확보를 기본으로 하며,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과의 연계관계를 잘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단순한 이동공간을 넘어 공간의 편리함과 효율성, 그리고 심미적이며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을 통하여 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을 목표로 한다.

대상 공간 및 세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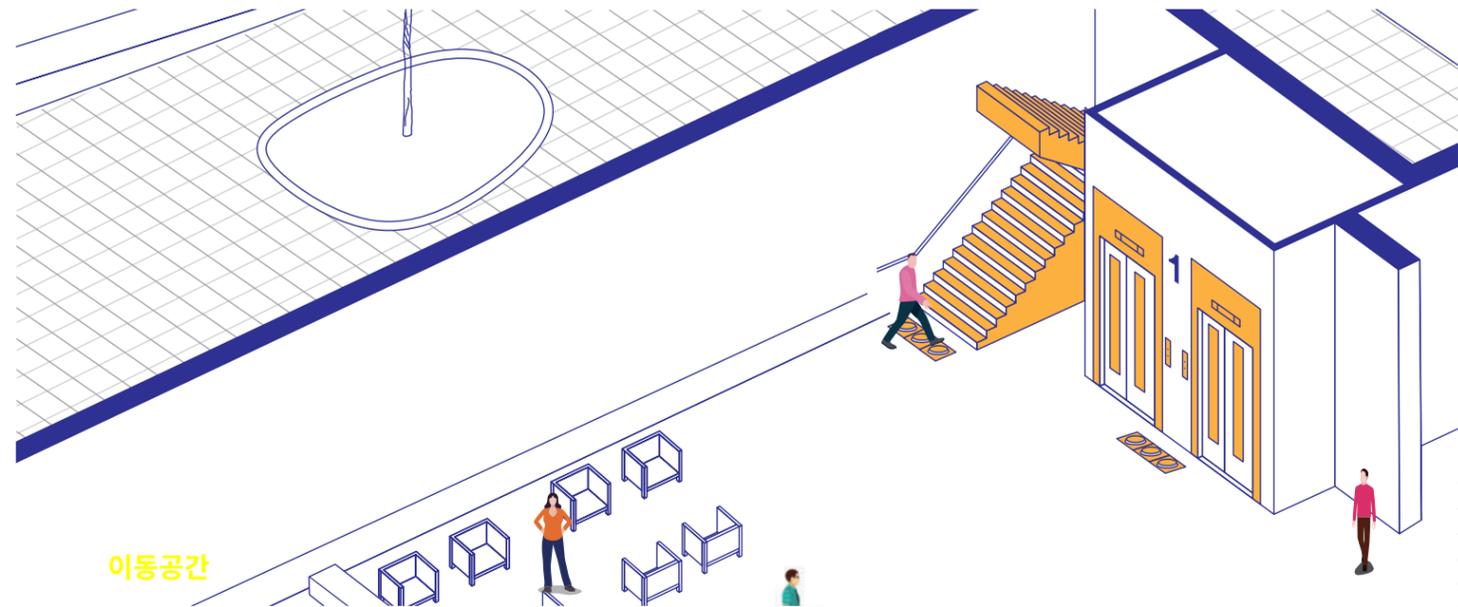
접근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	공용시설	공공정보매체
로비	복도	화장실	자전거보관소	시각정보
주차공간	엘리베이터	수유실	인포메이션센터	촉각, 청각, 후각 정보
건물출입구	계단 보행접근로	샤워실		안내시설물



접근공간

건물출입구, 주차공간, 로비

- 건물출입구는 도로와 주차공간에서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계단이나 경사로,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여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차공간은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적합하게 확보하고,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건물 주출입구와 가까운곳에 설치하여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로비는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과 같은 로비 안의 시설물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구조로 공간을 구성한다.



이동공간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보행접근로

- 복도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게 여유 있는 폭을 확보하고, 목적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누구나 이용하기 좋은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수직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보행접근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경사 또는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근공간

공용



이동공간



위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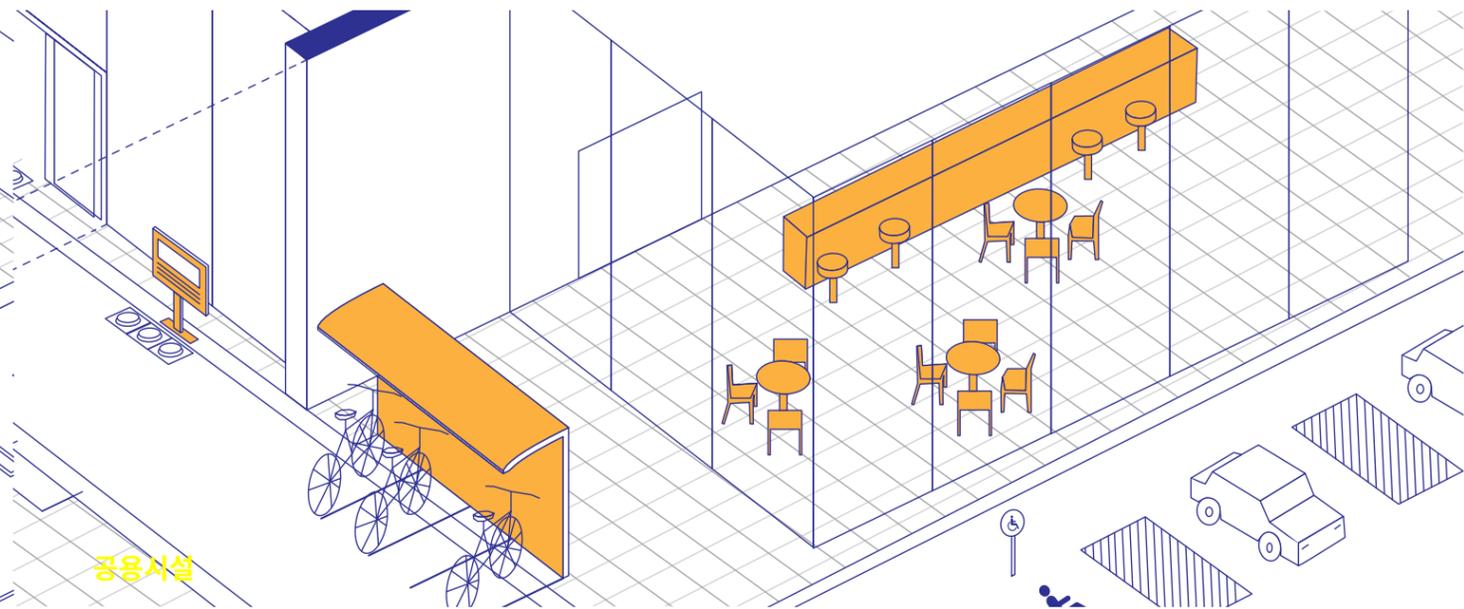
용시설



위생공간

화장실, 수유실, 샤워실

- 화장실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및 동반자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이용패턴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수유실은 유모차는 물론 휠체어 사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임산부나 영유아 보호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샤워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의 재료, 단차, 손잡이, 부착물 등에 대한 안전을 특별히 신경써서 설치해야 한다.



공용시설

자전거보관소, 인포메이션 센터

- 자전거보관소는 출입구나 건물관리사무소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며, 보행자 동선과 구분하여 자전거 도로와 건물을 연결지어 설치한다.
- 인포메이션 센터는 공공건축물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용시설이므로 개방적이며 청결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4.3 가이드라인 > 접근공간 > 로비

기본지침

- 로비는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과 같은 로비 안의 시설물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구조로 공간을 구성한다.
- 로비에 진입했을 때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안내데스크 및 시설 종합안내판을 설치한다.
- 안내데스크, 작업대, 음수대, 공중전화 등의 로비 편의시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높이 및 구조로 설치한다.
- 방문객이 목적인 공간에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시각정보 및 청각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며,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외국어 병기와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시설

안내데스크

- 안내데스크는 성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안내데스크는 이용자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한 재료를 사용하고, 몸을 지지하기 쉬운 구조로 하거나 손잡이를 설치한다.
- 안내데스크의 직원과 시설 이용자의 눈높이가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 안내데스크 및 작업대의 전면에는 유모차를 둘 수 있는 공간과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⁴¹
- 안내데스크의 높이는 0.7~0.9m의 범위 안에서 설치⁴¹하며, 휠체어 사용자나 어린이,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0.7m 높이에 별도의 선반을 설치한다. 특히, 하단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걸리지 않도록 바닥면에서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 안내데스크에 지팡이나 우산을 걸 수 있는 걸이대 또는 홈을 설치하고 가방이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4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휠체어 사용자도 편하게 접근 가능한 인포메이션 데스크의 형태, 출처: <https://www.pentagram.com>

음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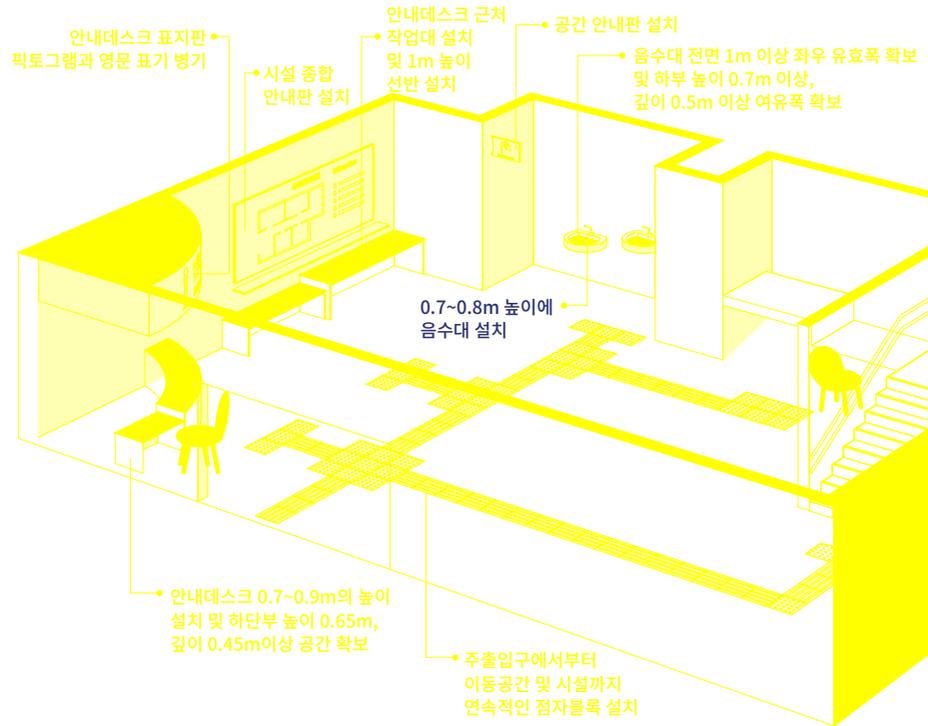
- 음수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사용자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음수대가 벽에 매입된 구조일 경우 전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1.0m 이상의 좌우 유효폭을 확보한다.
- 음수대 분출구의 높이는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가 마시기 쉽도록 고려하여 바닥면에서부터 0.7~0.8m로 한다.
- 음수대 하부에 높이 0.7m 이상, 깊이 0.5m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휠체어를 탄 이용자가 전면접근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 음수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의 조작기 중 공간의 규모와 성격에 적절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감지식의 음수대를 설치할 경우 수동식의 음수대도 병행하여 설치한다.



좌) 어린이 및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한 낮은 높이의 음수대 병행 설치, 출처: <https://www.elkay.com>
 우) 물병에 손쉽게 물을 보충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적용한 음수대, 출처: <https://www.murdockmfg.com>

유도 및 안내

-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의 안내표시를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며, 안내데스크 및 종합안내판 등의 주요 정보 공유 공간은 출입문 측면 또는 전면에 배치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설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 호출기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 안내데스크와 종합안내판에서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한다.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을 설치하고,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에서 1.0~1.2m 이내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한다.⁴²
- 외국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어를 병기하고,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 가이드라인 > 접근공간 > 주차공간

기본지침

-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적합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건물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에도 임산부, 노약자, 유아동반자들이 보다 더 쉽게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일반 주차구역보다 여유 있는 폭을 가진 주차공간을 별도로 설치한다.
- 주차장에서 건물 주출입구로 이동 시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닥에 단차가 없고 차도와 분리된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한다.
- 야간에도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의 조명을 설치한다.
-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경로와 위치에 대한 안내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 사각지대가 없도록 충분한 수의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 등을 설치해 범죄 및 재해에 대한 방비를 한다.

출입구 및 위치

주차장 출입구

- 주차장 출입구는 주변의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이 때 출입구를 보행접근로와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차장 출입구의 안내 사인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면서도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높이와 위치에 설치한다.
- 차량의 진출입 시 충분히 좌우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주차장 위치

-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설계를 권장하지만, 외부에 주차장이 설치되었을 경우 건물의 전면부 및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 사이공간에 위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는 편의를 위한 특수한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승강기의 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규격 및 바닥마감

규격

- 시설의 목적에 따라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일반주차구역은 대형차나 승합차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폭 2.5m, 길이 5.0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노약자 등을 배려한 특수한 주차구역은 보다 편리한 통행과 승하차를 위해 폭 3.0m, 길이 5.0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 때 사용자들에게 쾌적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의 측면에서부터 최소 폭 0.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바닥 마감

-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⁴³
- 주차구역 및 보행통로의 바닥은 승하차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차가 없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12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바닥 재질은 비가 올 경우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가 되어있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기울기는 1/50 이하로 설치한다.
- 가급적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투수성 포장재를 적극 활용한다.

장애인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는 편의를 위한 특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 출입구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여유있는 규모로 배치하고 유도 및 안내표시를 적절히 설치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⁴³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⁴³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어느 때나 주차가 가능하도록 2면 이상의 복수로 연속 설치해야 하며, 법적 규정비 100%를 초과하여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카스토퍼는 긴 형태로 설치한다.

4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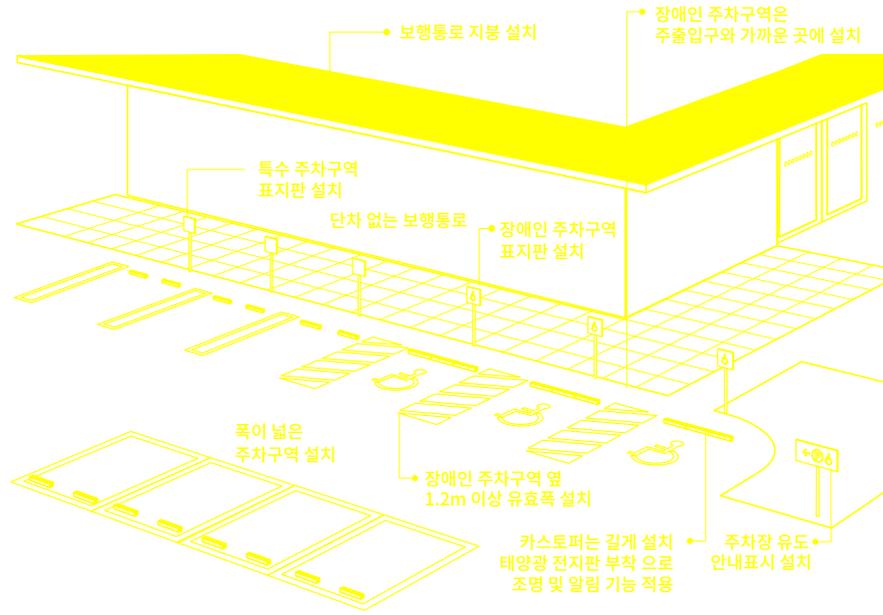
보행안전통로

- 이용자가 차로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 주출입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차량의 동선과 최대한 분리되는 위치에 유효폭 1.2m 이상의 연속적인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한다.
- 보행안전통로는 단차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20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유도 및 안내

- 도로 및 주차장 출입구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위치에, 필요한 주차구역의 위치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표시판을 설치한다.
- 장애인 주차구역 및 편의를 위한 특수한 주차구역에는, 주차구역의 표지판 및 유도표시에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의 경우, 가로 1.3m, 세로 1.5m,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의 경우, 가로 50cm, 세로 58cm 규격으로 표현한다.⁴⁴
- 보행안전통로의 좌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0.3m 이상의 유도존을 설치한다. 이 때 유도존은 보도와 차도 사이에 턱을 설치하거나 바닥의 질감 및 색상의 변화를 통해 표현한다.
- 상황에 따라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을 설치하거나 음성, 음향 및 시각정보를 통해 자동차의 출입을 알려주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다.
- 야간에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의 조명을 설치한다. 이 때 조명은 가급적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이 좋은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야외 주차장의 경우, 태양광 전지판을 삽입한 조명을 활용한다. 
- 태양광 카스토퍼를 활용하여 야간에 조명 또는 알림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좌) 조경과 함께 연계한 장애인 주차공간, 출처: <http://www.udconsultants.com>

우) 유모차 및 아동이 편하게 이용가능한 폭이 넓은 패밀리형 주차구역, 출처: <https://www.says.com>

4.3 가이드라인 > 접근공간 > 건물출입구

기본지침

- 건물출입구는 도로와 주차공간에서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계단이나 경사로,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여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장애인, 노인, 어린이, 유모차,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모든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위치

- 시설을 처음 방문한 이용자도 도로, 대지출입구, 주차구역에서 출입구를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 출입구 내부로 진입했을 때 안내데스크,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등 건물 내부 시설을 빠르게 인지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출입공간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⁴⁵
- 부득이하게 높이차가 발생할 경우, 계단을 설치하고 기울기 1/15이하의 경사로를 계단 근처에 배치하여 경사로 이용자들의 동선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 출입구 전면공간에는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시설의 목적과 크기에 적합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비, 눈, 햇볕 등 다양한 기상상황에서도 사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상부에는 차양시설을 설치한다.
- 바닥표면은 장애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⁴⁵
- 출입구 주변에는 노인의 보행보조기,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등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며, 우산거치대, 안내판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의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출입구를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조명은 가급적 에너지 효율이 좋은 친환경 LED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4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출입구가 차로 혹은 주차장과 인접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경계부분에 안전펜스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방풍실이 있을 경우 이용할 때 양쪽의 문이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없도록, 내부에 자동문이 감지하지 못하는 공간을 1.2m 이상으로 여유롭게 확보한다.



Library of Birmingham의 누구나 접근이 편리한 건물출입구,
출처: <https://www.mecanoo.n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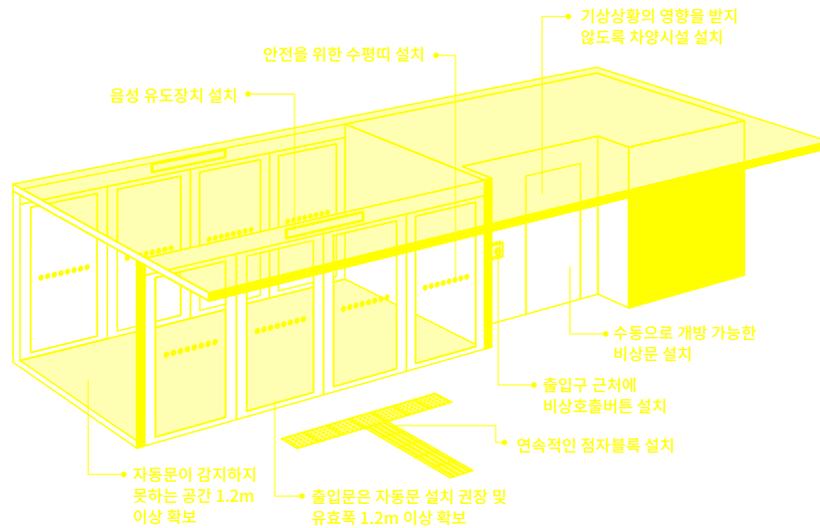
출입문

- 출입문은 다양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형태의 문을 설치한다. 미닫이형 자동문 설치를 권장하되, 공간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동문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자동문을 설치한다.
- 출입문은 통과 유효폭을 0.9m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⁴⁶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⁴⁶
- 출입문이 자동문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비상시를 대비하여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문을 병설하고, 자동문 옆에 비상호출 버튼을 설치한다.
- 수동형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 대형으로 할 수 있다.⁴⁶
- 문이 유리일 경우, 어린이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히거나 끼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에서 1.5m 높이에 폭 10cm 이상의 수평띠를 부착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바닥에서 0.5 ~ 0.7m 높이에 안전센서를 설치한다. 또한 부딪혔을 경우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비산을 방지한다.
- 어린이가 창밖을 보다가 자동문에 손이 끼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 끼임 방지 혹은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4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도 및 안내

- 출입구 주변에 노인,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건물의 종합정보안내판을 설치한다.
- 안내판은 유모차 및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반경 1.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점형블록과 음성안내, 점자표시 및 문자안내를 병행하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배려한다.
- 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⁴⁷
- 안내판은 누구나 인지하기 쉬운 크기와 색상을 고려한 문자를 사용하고 외국인의 방문을 고려하여 외국어 병기 및 픽토그램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4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 가이드라인 > 이동공간 > 복도

기본지침

- 복도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게 여유 있는 폭을 확보하고, 목적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구조물들이 가능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복잡하지 않고 되도록 단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동선으로 복도를 계획한다.

유효폭 및 보행장애물

유효폭

-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⁴⁸
- 통행량이 많은 복도는 휠체어가 상호 교행할 수 있도록 2.0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바닥

-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⁴⁸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⁴⁸

보행장애물

- 복도의 벽면에는 돌출물이나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없도록 한다.
-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 에서 2.1m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m 이하로 할 수 있다.⁴⁸
-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 에서 2.1m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m 이하로 할 수 있다.⁴⁸
-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0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⁴⁸

4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화기는 가능한 벽 매입식으로 설치하고, 의자, 자동판매기 등이 복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동시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 에서 0.35m 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⁴⁹

유도 및 안내

-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 표시판을 적절한 위치와 높이에 맞추어 연속적으로 설치하며,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병기나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 점자블록, 바닥패턴, 손잡이, 벽면의 요철, 음향신호, 소리, 냄새, 빛 등 복수로 정보를 제공하여 목적지까지 유도하도록 한다.
- 통로의 과도한 유도블록 설치에 이용자 수가 절대다수인 비시각장애인의 일상적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만 설치하도록 한다.
- 계단 시작과 끝 지점, 장애인용 승강기 조작기, 화장실 표지판의 0.3m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손잡이

설치 원칙

- 손잡이는 보행자의 균형유지, 보행보조, 추락방지 등 안전을 위한 설치기구로 진행방향, 위치, 형태 설치방법을 정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장애인 등 다양한 신체조건에 편의를 배려하여, 2단 손잡이 설치를 권장한다.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5.0cm에 설치하며, 2단 손잡이의 경우 상단 손잡이의 높이는 0.85m 내외, 하단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⁴⁹
- 보행자의 균형유지, 추락방지를 위한 기구로 체중을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한다.
- 손잡이는 연속적으로 설치하며, 방화문과 같은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한 설비기구, 설비 점검 문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에게 손잡이는 위치, 보행방향,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필요한 위치마다 손잡이 위에 점자로 정보를 표시한다.

4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태, 마감

-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온도 변화에도 변형이 없는 내구성, 내식성이 우수하며 촉감이 따뜻하고 미끄럽지 않은 마감으로 정한다.
- 손잡이의 시작과 끝이 옷자락에 걸리지 않도록 아래 또는 벽면 방향으로 굽혀진 형태를 권장한다.

재료 및 마감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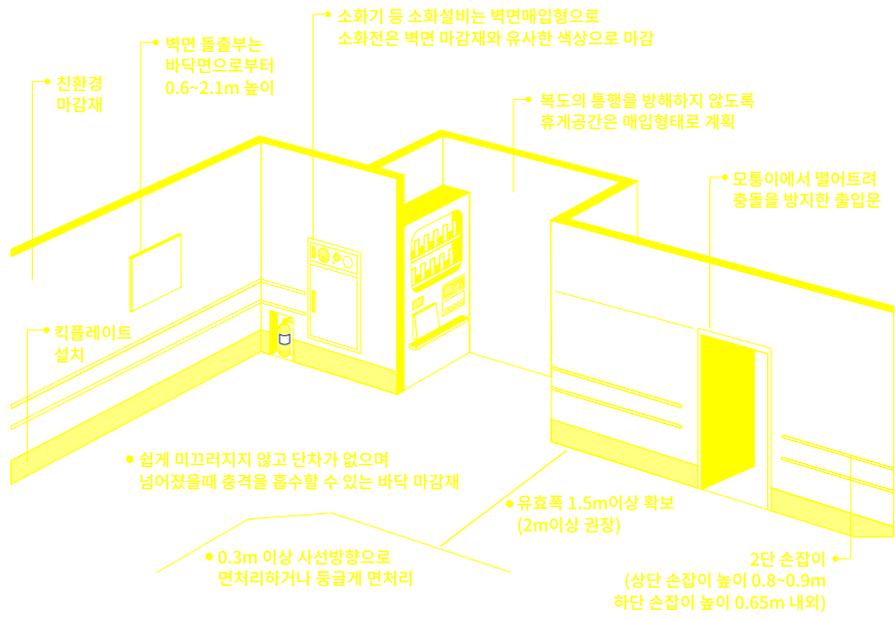
- 바닥 마감재는 잘 미끄러지지 않고 충격 흡수성이 있으며 울림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 카펫을 적용할 경우, 지팡이, 휠체어, 유도차 동반자의 통행을 위하여 모는 길지 않은 것을 권장한다.
-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보행장애인을 배려하여, 바닥마감재의 작은 이음새 틈이나 미세한 턱을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 복도 폭이 큰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쉬운 바닥 마감재와 시각 장애인이 걷기 쉬운 바닥 마감재를 구분하여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 단차로 보이거나 시야를 어지럽게 하는 패턴의 바닥 마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벽

- 가능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한다. 
- 마감재는 쉽게 오염되지 않고 촉감이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 층별로 벽 마감재의 재료나 색상을 다르게 하여 사용자가 위치를 쉽게 인지할수 있도록 한다.

기타

- 유효폭이 충분한 복도의 경우, 간이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공간 사용자의 피로감을 덜어 주도록 한다.
- 어둡거나 긴 중복도형과 같은 무미건조한 형태를 지양하고, 트인 형태 및 밝고 편안한 분위기의 복도 공간을 제공한다.
- 공간의 목적에 따라, 복도에 적절한 색을 적용하여 타 공간들을 분리하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좌) 손잡이와 조명을 함께 활용하고, 바닥형 안내사인으로 방향 유도
 우) 손잡이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한 복도, 출처: Building for Everyone



돌출물 없고 충분한 유효폭의 복도, 간이 휴식공간 제공으로 공간의 활성화 도모,
 출처: <https://www.glamox.com>

4.3 가이드라인 > 이동공간 > 엘리베이터

기본지침

- 엘리베이터는 층간이동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한다.
-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하기 좋은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입구 주변 공간과 엘리베이터의 내부공간은 건축물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엘리베이터 조작설비는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외국인 등,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승강기의 도착 여부, 이동 방향, 현재 층, 정지 층 등에 관한 운행정보를 제공한다.

위치

설치 위치

-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⁵⁰
-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수직 이동수단과 근접하게 설치하여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가깝고 인지하기 쉬우며,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활동공간

-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⁵⁰하여야 하며, 이용객 수가 많은 시설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엘리베이터를 출입하는 입구 주변의 활동공간은 복도 등의 통로 유효 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 노약자, 임산부 등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앉아있을 수 있도록, 의자 등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출입문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m 이상⁵⁰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의 반응속도를 배려하여, 문이 닫히는 속도를 열리는 속도보다 느리게 적용한다.
-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사람이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되열림장치를 설치한다.⁵¹
-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야 한다.⁵¹
- 감지기식 개폐 장치의 감지 높이 범위는 바닥 면에서 0.3m~1.4m 높이 이하로 한다.

엘리베이터 내부

-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m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⁵¹

이용자 조작설비

형태, 기능

- 호출버튼, 조작반, 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⁵¹
-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⁵¹
-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⁵¹
- 세로형의 조작설비 배열은 아래에서부터 개폐 버튼(왼쪽 열림, 오른쪽 닫힘 버튼), 층수버튼, 비상호출 및 통화용 버튼, 정보 판(층수, 방향 표시)의 순서로 점자를 좌측에 표기해야 한다. 층수 버튼은 낮은 층수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표기한다.
- 가로형 조작설비 배열은 상단 좌측부터 비상호출 및 통화용 버튼, 정보판, 개폐 버튼(왼쪽에 열림, 오른쪽에 닫힘)의 순서로 배열하며 하단에 층수 버튼을 배열한다. 점자의 경우, 층수 버튼은 상단에, 나머지 버튼은 좌측에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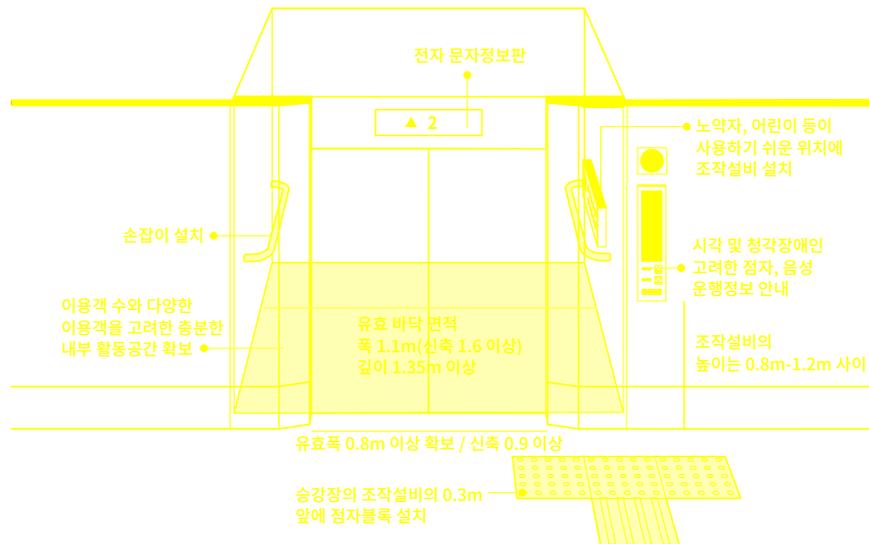
5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설비

-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m 이상 0.9m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⁵²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적용한다.
- 엘리베이터의 출입구, 승강장, 조작설비의 조도는 저시력 등을 배려하여 조명의 밝기를 최하 150lx로 한다.

유도 및 안내

- 모든 층의 승강장에 엘리베이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음향신호 장치를 설치하며,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정보판 및 음성 신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내부의 층수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과 함께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해야 한다.
- 층별로 출입문의 위치가 다르다면 음성으로 출입문의 방향을 안내해야 한다. 층수 버튼을 두 번 눌러 층수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 음성안내가 나와야 한다.
- 승강장의 조작설비의 0.3m 앞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다르게 한다.⁵²



5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 가이드라인 > 이동공간 > 계단

기본지침

- 계단은 휠체어 사용자 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이 도보로 수직 이동을 하는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 구조와 위치로 설치한다.
- 비상시에도 안전한 피난 동선으로 활용되도록 설치한다.
-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⁵³하며, 가능한 2단 손잡이 설치를 권장한다.
-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으로 일정한 진행 방향과 규칙적인 방향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각장애인이 실족하기 쉬운 나선형 계단은 지양한다.

형태 및 구조

계단 참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 피난계단은 0.9m 이상으로 할 수 있다.⁵³
- 계단 참을 기준으로 상하 계단수를 동일하게 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머리가 상부층의 계단 하부에 부딪히지 않도록 2.1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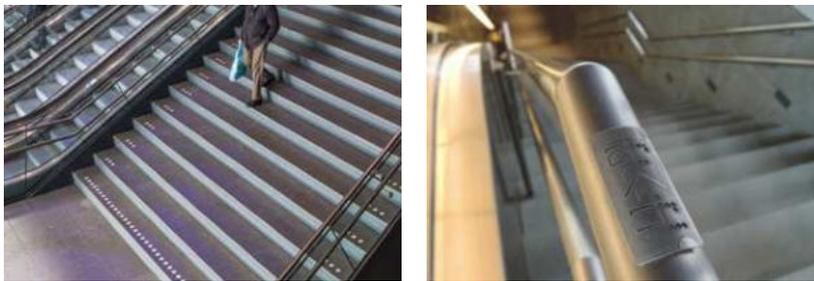
디딤판, 철평면, 계단코

- 계단에는 철평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⁵³
-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철평면의 높이는 0.18m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평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⁵³
- 디딤판 끝부분은 발끝이나 목발이 걸리지 않도록 철평면 기울기를 디딤판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며, 계단코는 3.0cm 이상 돌출하지 않는다.
- 계단 코, 철평면, 디딤판은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마감재의 색, 명도 차이, 채도 차이, 질감 차이, 조명의 밝기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디딤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계단 코에는 줄눈을 적용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해야 한다.

5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도 및 안내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는 계단 폭만큼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색상 등을 달리해야 한다.⁵⁴
-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⁵⁴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 및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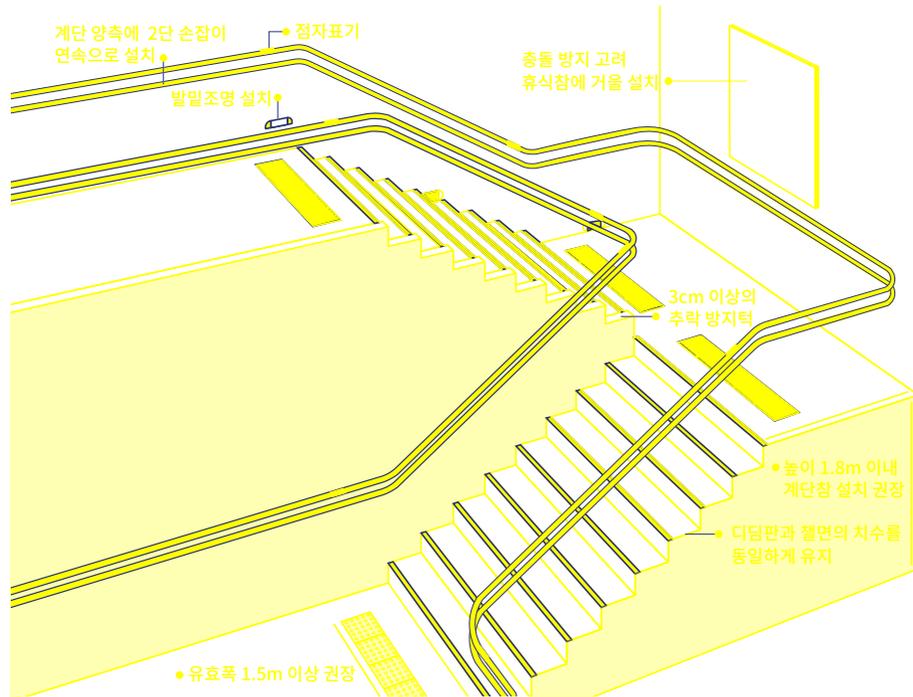
좌) 시각장애인을 위한 계단 디딤판에 점형 처리, 출처: <https://www.mecanoo.nl>

우) 손잡이에 손잡이와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의 점자표지판 부착, 출처: <https://www.citi.io>

기타

- 조도는 150lx 이상을 확보하고, 천정형, 하부형, 비상용 조명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외벽면에 위치한 계단은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창을 설치하여 자연광을 활용한다. 
- 건축물의 평면상 가능한 경우, 계단을 외부 경관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지루하고 어두운 이동이 아닌 시야가 열린공간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즐거운 연계공간이 되도록 한다.
- 손잡이, 점자 표시판 등의 노인 및 장애인을 배려한 편의 설치물은 건축물의 디자인을 고려하여 색과 재질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5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좌) 자연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계단, 출처: Building for Everyone

우) 계단 공간을 외부와 연계시켜 공간의 가치 및 활용성 증대, 출처: <https://www.archilovers.com>



좌) 건축물의 디자인 컨셉에 맞추어 적용한 점자블록 및 손잡이 색 및 재질 적용, 출처: <https://www.archdaily.com>

우) 벽과 조화를 이루는 매입형 손잡이 적용과 계단과 동일한 재질 적용, 출처: <https://www.archdaily.com>

4.3 가이드라인 > 이동공간 > 보행접근로

기본지침

- 보행접근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경사 또는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만한 기울기의 경사로를 설치하고 손잡이와 점자블록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보행자의 동선과 차량의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보행자가 차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접근로를 설치할 때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의 폭, 단차, 마감재, 구조 등에 대해 유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대피 통로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의 조명을 설치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친환경 LED 조명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한다. 

유효 폭 및 활동공간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⁵⁵으로 하며, 가능할 경우, 최소 2명이 원활하게 교차하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효폭을 2.5m 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보행접근로의 유효폭 이내에는 이용객의 이동을 방해하는 보행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보행접근로에서 높이 2.5m 이내에는 가로수의 가지와 같은 상부돌출물이 없도록 한다.
- 모든 보행접근로와 차도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보행접근로와 차도가 교차하는 경우,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우선시하여 설계한다.
- 보행접근로에 인접하여 차도가 있는 경우에는 연석을 설치한다. 연석의 높이는 6cm 이상 15cm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⁵⁵

5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울기

-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⁵⁶
-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⁵⁶

재료 및 마감

-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⁵⁶
- 블록처럼 이음새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음새의 줄눈 간격이 0.5cm 이하로 적용하고, 높이가 평탄하도록 시공한다.
- 보행접근로를 가로지르는 배수로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덮개의 틈이 2.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보행접근로의 높이와 평탄하게 설치한다.
-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이용자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재료를 적용한다.
- 우천 시 참수나 물이 고이는 것에 대비하여, 투수블록과 같은 투수성이 있는 친환경적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 보행접근로에는 지나친 패턴이나 색채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는 재료와 색상을 기반으로 디자인 한다. 특히, 건축물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재료를 권장한다. 

유도 및 안내

점자블록

-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보행접근로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이 때 부지 경계부분과 교차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은 꺾이지 않도록 직선으로 설치한다.
- 보행접근로의 양측 가장자리에는 색상이나 재질을 이용한 경고용 바닥재를 0.3m 이상으로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과 약시자를 위해 황색의 점자블록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심미성을 고려하여 점자블록 대신 바닥포장재의 질감 차이 등 다른 방식을 활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충분히 쉽게 인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질로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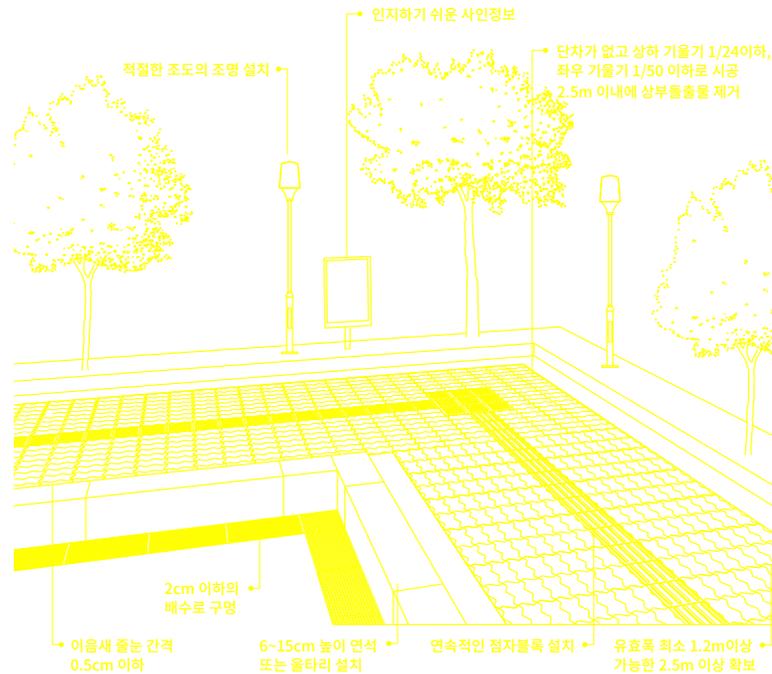
5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변 바닥 마감재를 고려한 점자블록 설치

안내

- 시설명칭이나 간판 등의 안내표시는 찾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문자의 크기, 색, 배치, 높이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건물 내 이동설비를 진입부에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2차 경로 안내를 표시한다.
- 보행접근로에 설치된 외부 안내사인의 경우, 건축물을 고려하여 잘 어우러지는 색 및 재질을 적용,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휠체어 이용자도 편하게 이동 가능한 계단 경 접근로

좌) 미국 시카고의 River Walk, 출처: <http://www.archdaily.com>

우) 프랑스 ClementGuillaume, 출처: <http://www.archdaily.com>



좌) 건축물과 연계성을 높이도록 유사한 색 및 재질의 보행바닥재 설치, 출처: <http://www.gettyimage.com>

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턱없이 마감, 출처: <http://www.gettyimage.com>



좌) 보행 접근로에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주요 안내정보 설치, 출처: <https://www.pentagram.com>

우) 보행 접근로에 주간 및 야간에 모두 인지가 쉬운 지주형 안내사인 설치, 출처: <https://www.pentagram.com>

4.3. 가이드라인 > 위생공간 > 화장실

기본지침

- 화장실은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 동시에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동작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인간행태를 잘 이해한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
-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및 동반자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이용패턴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일반화장실에도 영유아 동반자나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며, 어린이용 대, 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⁵⁷
- 폐쇄된 공간을 사용하는 특성상, 이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이 필요하며, 위험사항을 대비하여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한다.
-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습기와 악취를 제거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여 항상 쾌적한 공간을 유지한다. 가능한 경우,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한다. **SC**
- 기능적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문화적 욕구까지 충족될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SC**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설치해야 한다.

위치 및 접근

위치

- 화장실은 인지가 쉽고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 장애인이나 가족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과의 통합적 배치를 고려하고, 주출입층 외에도 각 층마다 설치하여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보한다.

접근통로

- 접근통로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 또는 유모차 동반자와 같은 부피가 있는 기구와 동행하는 사용자들을 배려하여 화장실의 유효폭의 경우 단차가 없고 1.5m 이상을 확보⁵⁸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존 건축물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1/18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⁵⁸

5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구

- 남녀가 서로 마주치지 않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의 위치와 방향을 설정한다.
- 화장실의 출입문은 설치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자동문으로 설치한다. 이때 문으로 인한 단차는 생기지 않도록 하며, 출입문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한다.

유도 및 안내

- 멀리서도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화장실 출입구의 색 또는 마감재등을 달리하여, 남녀화장실 및 다목적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이도록 한다.
- 외국인을 포함한 누구나 인식하기 쉬운 픽토그램을 설치한다.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녀 구분 표시를 적용한다.
-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⁵⁸
- 시각 장애인의 사용이 많은 건물의 경우, 화장실의 내부를 안내하는 촉지도식 안내표지 또는 음성유도장치 등을 설치한다.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출입문 없는 입구, 누구나 인지하기 쉬운 사인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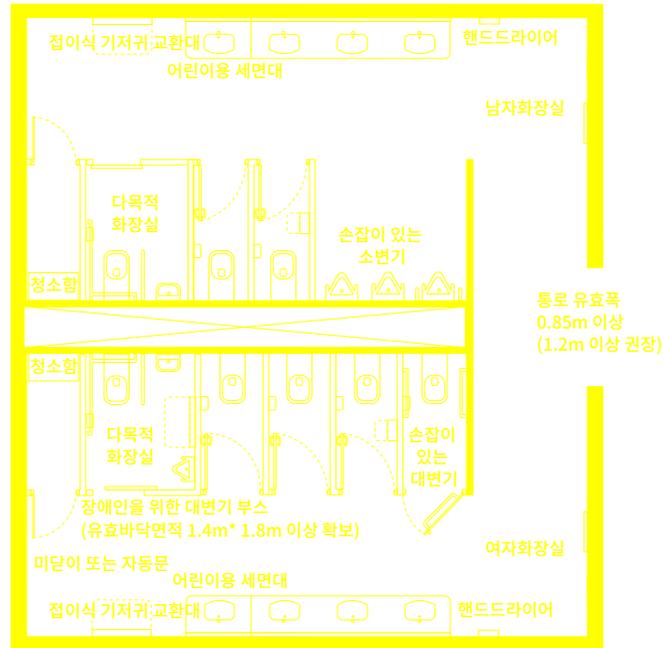
재료 및 마감

-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⁵⁸
- 오염에 강하고 자국이나 흠집이 쉽게 생기지 않는 내마모성 재료를 사용한다.
-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으며 파손 시 개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청결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색채 및 마감재를 적용하며, 화장실 디자인이 전체 건축물 실내와도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장실 필수 위생기기 리스트⁵⁹

위생기기	설치시 참고 사항
대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변기는 비데 기능이 있는 양변기 설치 •다목적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최소 1.4m×1.4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 적이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되도록 설치) •대변기 손잡이의 경우, 수평 및 수직 손잡이 1개소이상 설치 •어린이 전용 양변기 설치
소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변기의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소변기는 출입구에 가까운곳에 설치 및 후면 공간확보
세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구에서 가까운곳에 설치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 설치(상단높이 0.85m, 하부공간 확보)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이 편리한 제품으로 설치, 자동급수가 아닌 경우에는 냉온수 구분을 위하여 색상과 접자 병기 •어린이가 사용가능한 높이의 세면대 설치
기저귀교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동반자를 위해 기저귀 교환 또는 옷을 갈아 입힐 수 있는 접이식 기저귀 교환대를 보호자의 손이 편하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핸드드라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도 사용가능한 높이의 핸드드라이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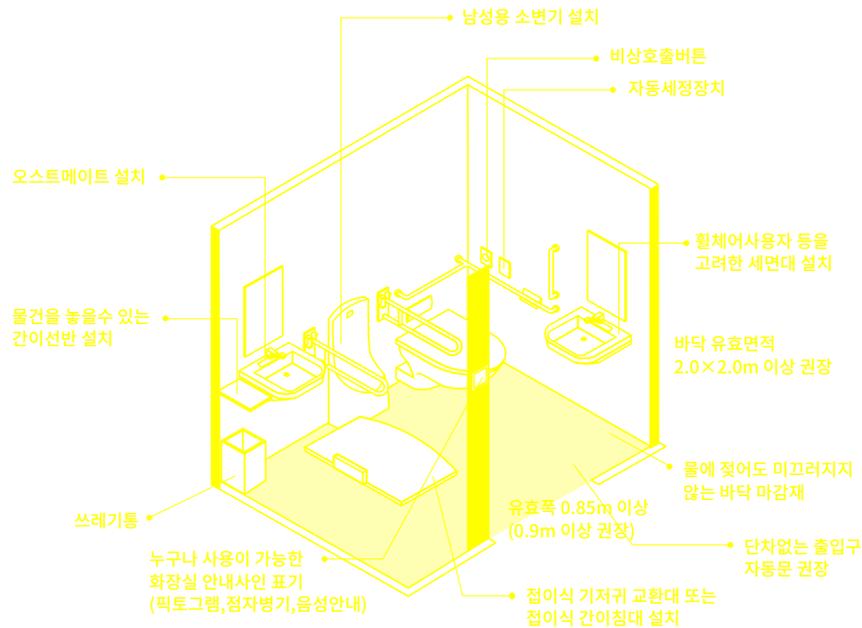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한 화장실 예시
다목적 화장실 세부내용의 경우, 다음 페이지 다목적 화장실 이미지 참고

59 경기도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재구성

다목적화장실

- 남녀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기 보다는 다목적 화장실을 각 층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가급적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비의 위치에 따라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다목적 화장실의 크기는 2.0m×2.0m 이상을 권장한다. 다양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위부스 내에 비대형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의 위생기구를 기본으로, 손잡이, 간이의자, 영유아 거치대, 기저귀 교환대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편의 설비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 화장실로 연결되는 통로와 출입구의 유효폭은 0.85m 이상(법적치수 0.8m 이상⁶⁰)으로 하며, 가급적 0.9m 이상을 권장한다. 출입문의 경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을 권장한다.
-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외에는 사용을 삼가하라는 안내표시를 입구에 설치한다.



6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 가이드라인 > 위생공간 > 수유실

기본지침

- 수유실은 남녀가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모유를 주는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수유실은 유모차는 물론 휠체어 사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임산부나 영유아 보호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위치 및 출입

위치

- 수유실은 로비나 고객민원실과 같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소 근처에 설치하여 유모차 및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접근로

- 접근로는 유모차와 휠체어의 안전한 통행을 고려하여, 단차나 기울기가 없도록 하며, 최소 유효 폭을 1.5m로 확보한다.

출입문

- 통로나 로비에서 수유실 내부의 모습이 직접 보이지 않는 위치에 출입구를 배치한다.
- 휠체어와 유모차의 편리한 출입을 위하여, 개폐가 쉬운 미닫이문이나 자동문을 사용하고, 출입문의 유효 폭을 여유 있게 확보한다.

재료 및 마감

-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지 않고,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오염에 강하고, 자국이나 흠집이 쉽게 생기지 않는 내마모성 재료를 사용한다.
-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색채 및 마감재를 적용하며, 가능한 친환경 마감재와 가구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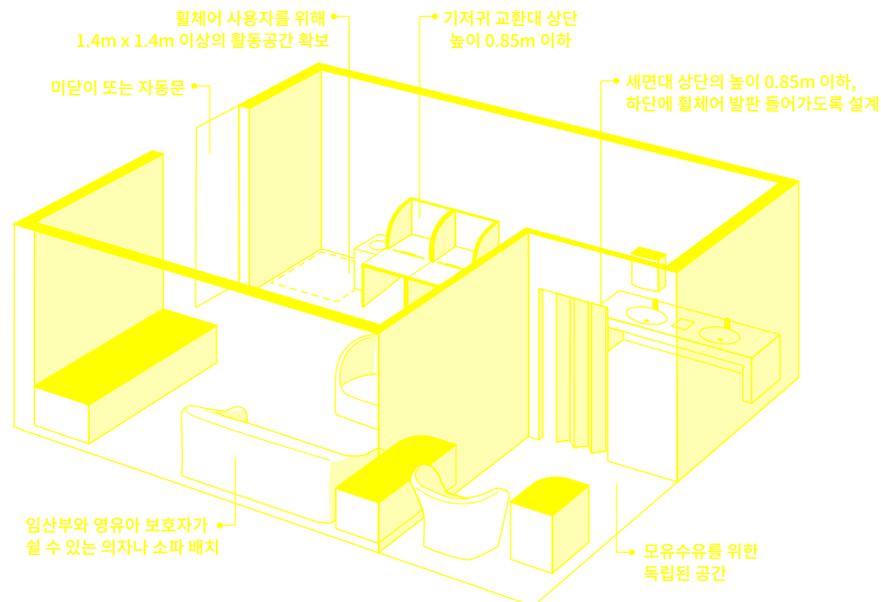
구조 및 설비

구조

- 남성도 기저귀 교환 등을 위해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수유실 내부에서도 독립된 공간을 구축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커튼을 활용하여 수유 공간을 별도로 분리한다.
- 수유실 내부의 출입문 주변에 유모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m, 세로 1.4m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⁶¹
-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85m 이하로 정하며,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한다.

편의설비

- 수유실에는 분유를 위한 온수기, 전기 포트 등의 설비를 갖추고, 분유통 소독을 위한 소독기와 개수대, 기저귀 전용 휴지통을 비치한다.
- 수유를 위한 아기 침대 또는 영유아 거치대 등을 설치한다.
- 수유 공간과 분리된 휴게공간에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임산부 등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편안한 의자나 소파 등을 비치한다.



6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 가이드라인 > 위생공간 > 샤워실

기본지침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샤워실(샤워부스), 탈의실(탈의부스), 욕실의 형태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의 재료, 단차, 손잡이, 부착물 등에 대한 안전을 특별히 신경써서 설치해야 한다.
- 샤워실은 노약자,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이 쉬운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출입문

- 샤워실, 탈의실, 욕실의 접근 통로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을 위해 유효 폭을 1.5m 이상으로 하며, 문을 열어도 내부의 모습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를 배치한다.
-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수지제 등의 안전한 유리를 사용한다.

바닥

- 샤워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⁶²
- 샤워실에 안전하게 출입하도록 탈의실과 바닥의 단차가 없도록 한다.
-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⁶²
-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⁶²

기타설비

-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광감지, 누름, 레버식 등 사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하며, 냉온수를 구분할 수 있는 색상 및 점자를 표기한다.
- 자동 온도조절 또는 냉온수의 범위를 고정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샤워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샤워부스는 적어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유효 바닥면적의 법적 치수 0.9m x 0.9m 또는 0.75m x 1.3m 이상으로 하며,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1.5m x 1.5m 이상의 크기를 권장한다.
- 편의를 고려해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 면으로부터 0.4m~0.45m 이내의 높이로 설치하며, 샤워기 주변에 이동할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용 벨을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설치한다.
-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이 샤워기를 자신의 신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형 샤워 수전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높이에 샤워기 걸이를 설치한다.

탈의실

- 여러 명이 사용하는 탈의실의 출입구와 복도의 유효 폭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1.2m 이상을 확보하여 가구 및 설비를 배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탈의실의 수납공간은 바닥 면으로부터 0.4m~1.2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며,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탈의 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x1.5m 이상의 크기를 권장한다.
- 탈의실 내에 비치하는 벤치나 의자는 노약자를 배려한 0.4m의 높이로 한다.
-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동할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 탈의실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화장실 설치를 권장한다.



좌) 노약자 및 장애인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손잡이 설치 및 휠체어 유효폭 준수, 출처: <https://www.ceplukan.com>
우) 비상사태에 이용 가능한 알람시스템 설치, 출처: <https://www.ceplukan.com>

4.3 가이드라인 > 공용시설 > 자전거보관소

기본지침

- 자전거보관소는 자전거의 주차 및 보관을 위한 시설물로, 자전거의 도난 예방을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거나 잠금장치가 설치된 시설물이다.
- 자전거보관소가 보도 위에 설치되는 경우, 충분한 보도 유효폭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전거보관소는 출입구나 건물관리사무소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며, 보행자 동선과 구분하여 자전거 도로와 건물을 연결지어 설치한다.

구조 및 재료

- 자전거보관소의 본질적 기능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 또는 장식적 요소는 지양하며, 단순하고 간결하게 형태로 디자인한다.
- 내구성이 좋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를 적용한다.

설치

- 자전거보관소의 자전거 설치대수는 자전거 통행량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특수한 형태 및 크기의 자전거 보관을 위한 거치대를 일부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보관소가 지하층 등에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기울기는 30°이하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이용 안내문, 위치 안내도, 공기 주입기 등을 함께 설치한다.



단순한 형태와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적용한 자전거보관소
 좌) 프랑스 리옹의 자전거보관소, 출처: <https://www.design.gg.go.kr>
 우) 영국의 자전거보관소, 출처: <https://www.design.gg.go.kr>

4.3 가이드라인 > 공용시설 > 인포메이션센터

기본지침

- 인포메이션센터는 공공건축물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용시설이므로 개방적이며 인간친화적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다국어 병기와 픽토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식별하기 쉬운 사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므로, 혼잡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크기 및 형태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공통 설비

- 인포메이션센터의 주 출입구 문은 원활한 이동을 위해 자동문 설치를 권장한다.
-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방문을 고려하여 높이가 낮은 안내데스크, 작업대, 의자등을 비치하도록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등을 설치하며, 필기구를 비치하여 원활한 소통을 유도한다.



장애인 및 노인을 배려한 높이의 안내데스크,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

공공안내소

- 내국인과 외국인 방문객에게 해당 지역이나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시설로 지역의 정보제공과 휴식, 홍보, 기념품 판매 등의 역할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다국어 정보표기 및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편리한 사인정보를 구축하고,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인적 대응을 갖추도록 권장한다.

- 지역 안내 책자나 관광 안내지도 책자 등은, 가독성이 좋은 서체나 색상 및 외국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민원 행정창구

- 민원 행정창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창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접수대, 대기 공간, 사무공간 등을 다양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위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민원데스크는 누구나 앉아서 서류를 기재하거나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구조를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높이가 다른 책상을 나란히 배치한다.



휠체어 사용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창구 데스크 하부 구조

- 비치 용품은 출입구 근처, 안내실 등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한다.

대상시설	의무 비치용품	권장 비치용품
지방 자치단체	점자업무 안내책자(사·군청),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 전송기, 보청기	점자업무 안내책자, 편의시설 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 포함)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 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보청기	편의시설 안내지도

공공청사의 비치용품 종류

민원 대기공간

- 민원 대기공간에는 민원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함께 유모차나 휠체어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곳에 확보한다.
- 대기 후 민원데스크로 가는 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순서표 발매기, 자동민원출력기, 음수대 등 주된 이용 높이는 노약자,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등을 배려해 0.4m~1.2m에 설치한다.

4.3. 가이드라인 > 공공정보매체 > 시각정보

기본지침

- 시각정보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간의 환경과도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 시각정보는 비상 상황에서 인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하며, 이를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 시각기능이 저하된 이용자를 배려한 색채 및 조명을 적용하여,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편리하게 습득하도록 한다.
-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편리한 시각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sc

색

- 약시자도 쉽게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색의 명도나 채도에 주의하여 사용한다.
- 순천시의 환경에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sc
- 배경색은 가능한 원색을 지양하고 저채도의 색을 사용,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디자인 한다. sc
- 문자는 배경색과 반대 계열에 있는 색 또는 명도차가 큰 색을 적용, 색의 대비차를 크게 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 세 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할 경우 밝은 색, 중간 색, 어두운 색을 조합하여 명도의 차이가 있도록 한다.
- 어두운 배경의 밝은 글자가 노인 혹은 글자를 식별하는데에 보다 용이하므로, 이에 유의하여 색을 사용한다.



색의 명도 및 대비차에 따른 차이, 좌>권장, 우>지양

문자

서체

- 원거리에서 식별해야 하는 문자를 사용할 때는 충분히 굵은 글씨를 사용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고딕 계열의 단순하고 식별성이 좋은 서체의 사용을 지향하고, 복잡하고 장식적인 서체의 사용을 지양한다. 특히, 기울임꼴, 지나치게 가는 글꼴, 장식이 많은 글꼴이거나 다른 특이한 글꼴은 지양한다.
- 숫자를 표기해야 할 때는 오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체의 사용에 주의한다.
- 글자의 자간, 문단의 행간을 충분히 주어서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다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해야 하는 경우, 최소화된 서체수를 사용 한다.

	권장서체	기타 사용 가능한 서체
한글	윤고딕	고딕, 산돌고딕, Noto Sans
로마자	Helvetica	Gil Sans, Universe, Noto Sans
기타문자	MS UI고딕, 黒体	고딕계열

권장 서체

글자크기 및 간격

- 문자가 사용되는 성격, 표지판의 크기, 색상, 시인거리, 주변 환경에 따라 적합한 글자크기를 사용하여 충분한 가독성을 확보한다.
- 1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읽기 가능한 문자의 높이는 한글 높이 10mm 이상으로 한다.⁶³
- 개별 문자 사이의 간격은 문자 높이의 최소 10%, 최대 35%로 하되 시지각적 간격을 고려한다. 문장 내 줄 간격은 문자 높이의 최소 135% 및 최대 170%로 설치한다.⁶³
- 한글표기가 영문 및 다른 외국어보다 우선적으로 인식되도록, 영문 및 다른 외국어의 높이는 한글 높이의 70% 내외의 크기로 사용한다.⁶³
- 문자의 두께는 문자 높이의 10~15% 정도를 적용한다.⁶³
- 한글표기가 영문 및 다른 외국어보다 우선적으로 인식 되도록 영문 및 다른 외국어의 높이는 한글높이의 70% 내외의 크기로 사용한다.⁶³

6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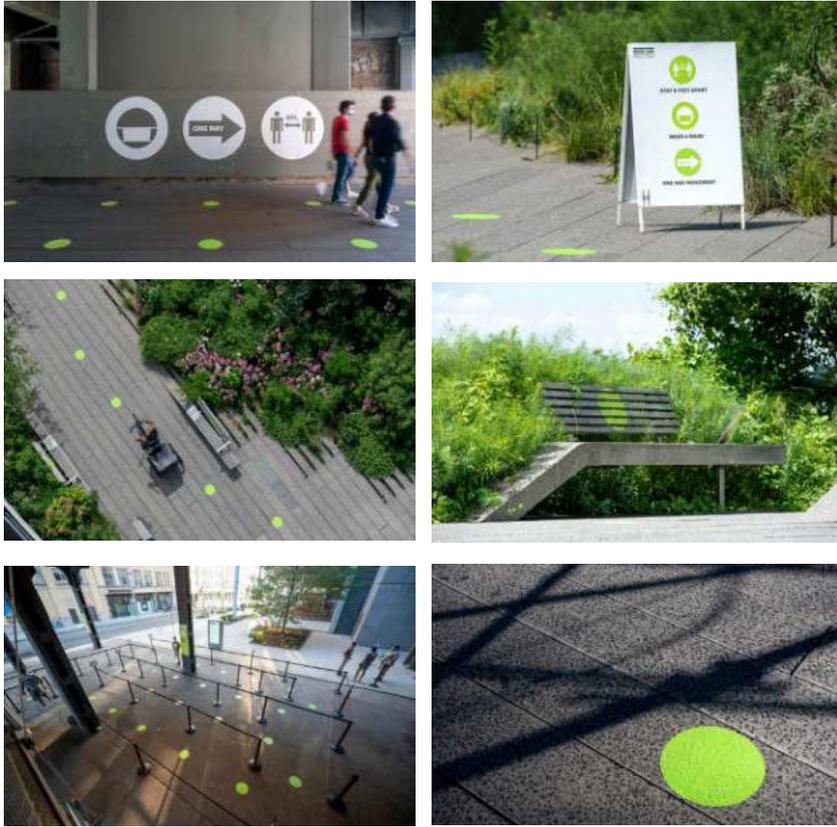
뉴욕의 Penn Station의 사인시스템은 가독성 높은 서체 및 직관적으로 인지 가능한 사이즈 및 색채를 적용

픽토그램

- 픽토그램은 눈에 잘 띄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을 사용한다.
- 순천의 특색이 담겨있는 동시에 국제적 접근성을 고려한 순천시 특화 픽토그램을 개발한다.  다만, 순천시 픽토그램이 부재할 경우, ISO / KS규격을 사용한다.
- 복수의 픽토그램을 병행 표기할 경우, 배경크기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 픽토그램 적용시 배경색과 반대 계열에 있는 색 또는 명도차가 큰 색을 적용, 색의 대비차를 크게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보행자를 위한 New York City's Wayfinding system 프로젝트의 일환인 픽토그램
명쾌한 정보전달 동시에 뉴욕의 경쾌하고 즐거운 이미지 부여한 디자인, 출처: <https://www.pentagram.com>



COVID-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일환으로 공원내 새로운 픽토그램을 적용한 뉴욕 High line Park, 출처: <https://www.pentagram.com>

4.3. 가이드라인 > 공공정보매체 > 촉각·청각·후각정보

기본지침

- 촉각, 청각, 후각 정보를 지원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약시자 등 시각을 통해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용자들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비상 상황에서 인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신 IT 기반 기술을 적극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편리함을 도모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로 시스템 갱신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며, 공유가 필요한 타 공공정보매체와도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한다. 

촉각정보

- 안내판, 버튼 및 손잡이에는 점자표기를 병행하여 시각장애인을 배려한다.
- 공공공간에서 필요한 장소의 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는 등의 촉각 정보를 통해 이용자가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점자표기는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에 준하여 표기한다.



이태리 우피치 미술관의 'Uffizi by touch'의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공간 정보 및 작품 정보 안내판,
출처: 좌) <https://www.visituffizi.org>, 우) <http://www.visittuscany.com>

청각정보

- 공공건축물 내부 주요시설의 위치나 공간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정보나 위치 방향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간에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음성 정보가 겹쳐 들려 이용자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음성안내의 음량 및 음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설치 장소별로 통일성 있는 소리로 구성한다.

후각정보

구역에 따라 적절한 향을 내는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동일 장소를 여러번 방문하였을 때 후각정보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4.3. 가이드라인 > 정보매체 > 안내시설물

기본지침

- 안내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다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하여 복수의 방식을 사용하고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등, 이용자의 오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안내시설물은 목적에 맞는 직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건축물 외부 및 내부 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형태, 재료, 색감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안내시설물은 반드시 필요한 공간에 적절한 개수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안내시설물은 누구나 인지하기 쉬운 장소와 높이에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표지의 분류

안내표지

- 안내표지는 건물의 출입구에 위치하며, 시설의 위치와 공간의 형태, 이용자의 현재 위치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 이용자의 동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다른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목적지가 다양할 수 있는 공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시설 내부 공간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 안내표지를 중점적으로 배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목적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수의 건물이나 많은 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주출입구 근처에 종합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각 건물 혹은 층별로 상세안내도를 배치하여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건물 및 층별 입구에 층별 안내를 배치하여 공간에 대한 정보 제공, 출처: <https://www.pentagram.com>

유도표지

- 유도표지는 주요시설 및 목적지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해 주도록 한다.
- 이동 중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지시해주는 화살표와 목적지명 등의 꼭 필요한 정보만을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한다.
- 유도하는 공간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에 배치하되, 이용자들의 통행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배치한다.
- 표기해야 하는 정보량이 많을 경우, 주요 이동공간(출입구, 비상구 등)과 주요 매개공간(계단,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주요시설을 우선적으로 안내한다.



공항 및 기차역의 직관적이고 간결한 유도표지

위치표지

- 위치표지는 이용자가 이동 및 편의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주요 시설 및 장소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한다.
-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이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한다.
- 눈에 쉽게 띄지만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고 잘 어우러지는 형태로 설치한다.
- 표기해야 하는 정보량이 많은 경우, 주요시설 외에 경로를 구성하는 주요 공간을 우선적으로 표기한다.



주요 시설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위치표지

규제표지

- 규제표지는 이용자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이다.
- 직관적이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한다.



정보전달이 직관적이고 간결한 규제표지

설치방법

천장행거형

- 천장행거형은 이동공간의 천장부에 매달아 설치하는 방식으로 유도표지나 위치표지등에 주로 이용된다.
- 이동하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통행자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정보를 표기할 때 6.0m 이상의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거리에 따라 문자나 기호의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한다.
- 설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시안 위치에서 양각이 낮은 이용자도 다른 사용자에 의해 시야가 차단되지 않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한다.
- 바닥면에서 표지 하단까지의 높이는 건물 내부일 경우 2.1m 이상, 외부일 경우 2.5m 이상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진행방향에 2개 이상의 안내시설물을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안내시설물끼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내부 조명을 활용하여 가시성을 높인 천장행거형 안내시설물

벽부착형

- 벽부착형은 벽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표지에 사용한다.
- 3.0m 이하의 근거리에서 표기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시야가 낮은 이용자들을 위하여 상단 높이를 2.0m 정도로 설치한다.
- 촉각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안내시설물은 서서 손이 닿는 범위 안에 표기내용이 위치하도록 한다.



가독성 좋은 서체 및 크기를 적용하여 인지가 쉽게 한 벽부착형 안내시설물, 출처: <https://www.pentagram.com>

자립형

- 자립형은 구조물 없이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형태이다.
- 표기 내용이 눈에 띄면서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배경색 및 재료를 사용한다.



건축물 내부의 환경과 어우러지는 자립형 안내시설물 디자인,
출처: 좌) <https://www.pentagram.com>, 우) <https://www.mecanoo.nl>

돌출형

- 돌출형은 좁은 통로에 있는 시설의 입구 등을 표시해주기 위하여 벽면의 위쪽에 돌출되도록 시공되는 설치방법이다.
- 이용자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닥에서 하단까지의 높이가 건물 내부의 경우 2.1m 이상, 외부의 경우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배경색과 강한 대비를 두어 명확한 정보 전달

바닥형

- 바닥형은 점자블록이나 피난 유도등 등 바닥의 색 또는 라인을 이용하여 유도 또는 경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치방법이다.
- 이등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표기내용이 마모되지 않도록 재질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좌) 점자블록과 안내사인을 동시에 적용한 바닥형 안내사인
 우) 주변환경을 배려하여 이질적 색 적용을 지양하고, 질감차를 적용한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의 위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표시한다.
- 일반안내도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안내도에 점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 바닥면으로부터 1.0~1.2m의 범위 안에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있도록 설치한다.
- 과도한 정보의 제공은 지양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한다.
- 한정된 공간을 인지시키기 위해 촉지도식 안내판을 화장실 등의 공간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시각장애이용 음성안내장치를 병행 설치한다.



좌) 간결하면서 인지가 쉬운 픽토그램 적용, 출처: <https://www.pentagram.com>
 우) 바닥형 사인을 통하여 공간 활용 강화, 출처: <https://www.pentagram.com>

4.4 가이드라인 적용안 > 자전거보관대

1) 권장 지침

세부내용																								
디자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보관소의 본질적 기능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 또는 장식적 요소는 지양하며,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주변의 환경과 조화롭게 디자인한다. 시야를 차단하는 케노피 설치를 지양하여 개방감있게 디자인한다.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사선 설치가 가능한 형태를 권장한다. 연결하드웨어의 노출을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금지 사례</th> <th>권장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  <p>과도한 케노피 구조 및 그래픽 사용</p> </td> <td>  <p>기능에 충실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형태</p> </td> </tr> </tbody> </table>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과도한 케노피 구조 및 그래픽 사용</p>	 <p>기능에 충실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형태</p>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과도한 케노피 구조 및 그래픽 사용</p>	 <p>기능에 충실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형태</p>																							
권장 C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구성이 좋고 유지관리에 용이하며, 친환경적인 재료를 적용한다. (예: 금속재) 유채색 및 고광택 재질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색과 무광 재질을 권장한다. 적용색채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클그레이 (1,1,1,54 CMYK) 또는 월그레이 (0,12,19,63CMYK) 계열의 웨이드를 권장한다. 또한, 내구성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가공을 권장한다. 화려한 그래픽 요소의 설치는 지양한다.(제작업체, 관리주체 등의 표식 지양) 그래픽 요소가 필요시에는 UV실크인쇄를 권장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권장 색상</th> <th>권장 재료 및 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미적으로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권장 재료: 구조용 파이프, 스테인레스 파이프 권장 마감: 분체도장 </td> </tr> </tbody> </table>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미적으로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권장 재료: 구조용 파이프, 스테인레스 파이프 권장 마감: 분체도장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설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보관대 하부 구조를 지면에 고정시에 볼트의 노출을 최대한 지양하고 가급적으로 지면안으로 매립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권장 예시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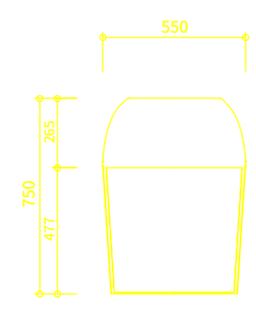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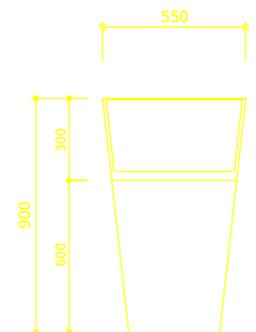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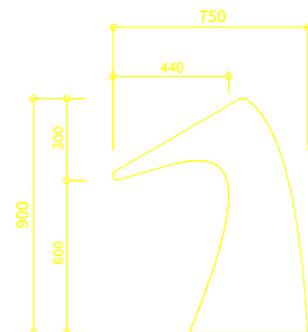
항목	세부내용
사이즈	원형 Ø675, 사각형 648 x 648mm (기능별 규격에 따른 것)
색상	Dark Warm Gray (0,10,15,48, CMYK)
재료	구조용 파이프 SD3566 27,2Ø, 스테인레스 파이프 STS304 31,8Ø
도면	<p>평면도</p> <p>정면도</p> <p>측면도</p> <p>구조용 파이프 Ø27.2/2.0T/분체도장 또는 스테인레스 파이프 Ø31.8/1.5T/STS304</p>

4.4 가이드라인 적용안 > 인포메이션 키오스크

1) 권장 지침

세부내용					
디자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용자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외국인을 배려하여 다국어를 적용하고, 픽토크램을 적극 활용한다. • 시각 외에도 청각, 촉각등의 오감 정보를 함께 적용한다. • 고령자나 아이도 조작하기 편리한 수준의 신기술을 적용한다. • 과도한 형태 및 장식적 요소를 지양하고, 필요한 기능만 적용하여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D700;">금지 사례</th> <th style="background-color: #FFD700;">권장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휠체어 이용자가 조작하기 힘든 디자인</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누구나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디자인 주변환경을 고려한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p> </td> </tr> </tbody> </table>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휠체어 이용자가 조작하기 힘든 디자인</p>	 <p>누구나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디자인 주변환경을 고려한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p>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휠체어 이용자가 조작하기 힘든 디자인</p>	 <p>누구나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디자인 주변환경을 고려한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p>				
권장 C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재의 사용을 권장하며, 기타재료를 사용할시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을 권장한다. •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로, 관리가 용이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적용색채는 건축물 내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하며, 최소한의 색을 사용한다. 또한, 내구성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가공을 권장한다. • 화려한 그래픽 요소 패턴의 적용을 지양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D700;">권장 색상</th> <th style="background-color: #FFD700;">권장 재료 및 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내부환경에 어우러지는 색 적용 • 유채색 또는 유광 마감을 지양한다.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 • 심미적으로 건축물 내부환경에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 권장 재료: 스테인레스 스틸(분체도장), 목재(HARDWOOD) 등 </td> </tr> </tbody> </table>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내부환경에 어우러지는 색 적용 • 유채색 또는 유광 마감을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 • 심미적으로 건축물 내부환경에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 권장 재료: 스테인레스 스틸(분체도장), 목재(HARDWOOD) 등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내부환경에 어우러지는 색 적용 • 유채색 또는 유광 마감을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 • 심미적으로 건축물 내부환경에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 권장 재료: 스테인레스 스틸(분체도장), 목재(HARDWOOD) 등 				
설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구조를 바닥에 고정 시, 볼트의 노출을 최대한 지양한다. 				

2) 권장 예시 도면

항목	세부내용
사이즈	W550* D750* H900
색상	건축물 내부환경에 어우러지는 색 적용 및 무광 마감
재료	건축물 내부환경에 어우러지는 재료 마감
도면	<p style="text-align: center;">평면도</p>  <p style="text-align: center;">정면도</p>  <p style="text-align: center;">측면도</p> 

5. 관광지

5.1 관광지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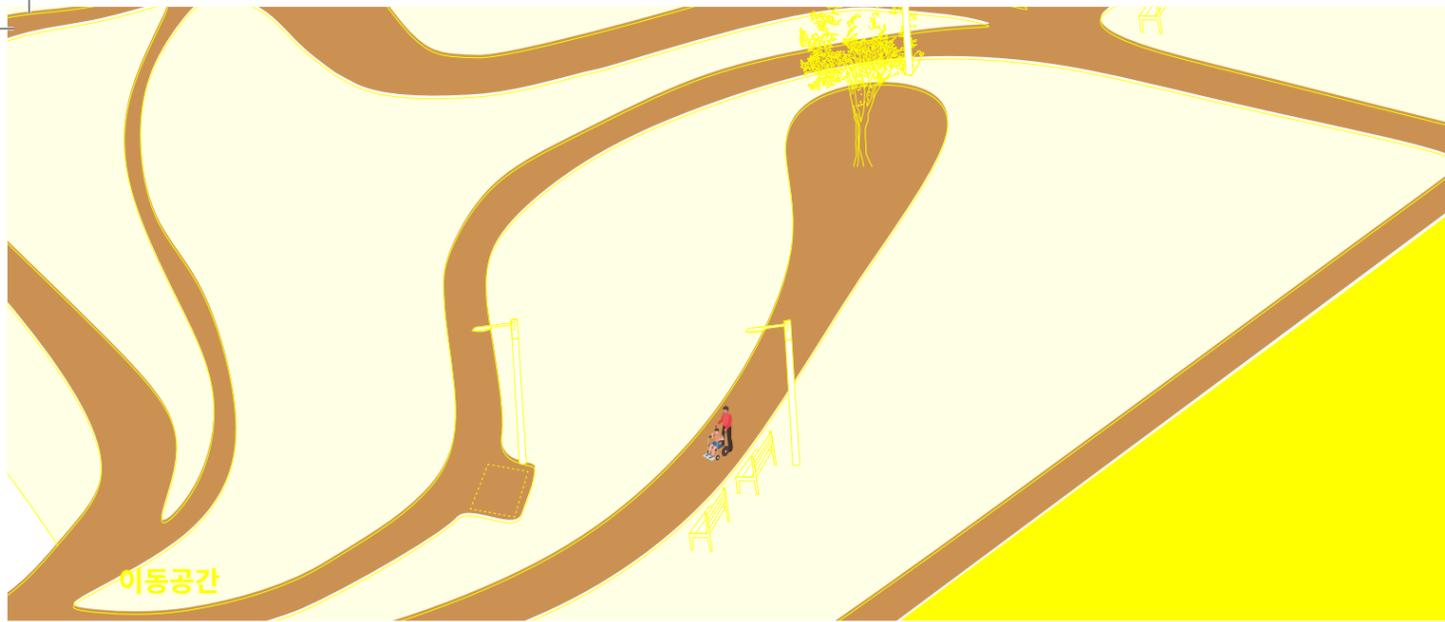
가이드라인 개요

앞 장에서 도출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방향과 7원칙을 반영하여, 실제 순천시의 관광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시 활용 가능한 세부 지침들을 정립한다.

관광지 가이드라인은 관광지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서로 관광지 이용을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하는데 필요한 접근공간, 관광지 내의 각 시설을 연결하는 이동공간, 관광지를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공간 및 시설물, 관광지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정보매체 등으로 분류한다.

순천시 관광지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설치 기준으로 활용하여,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기본 원칙 및 세부 사항들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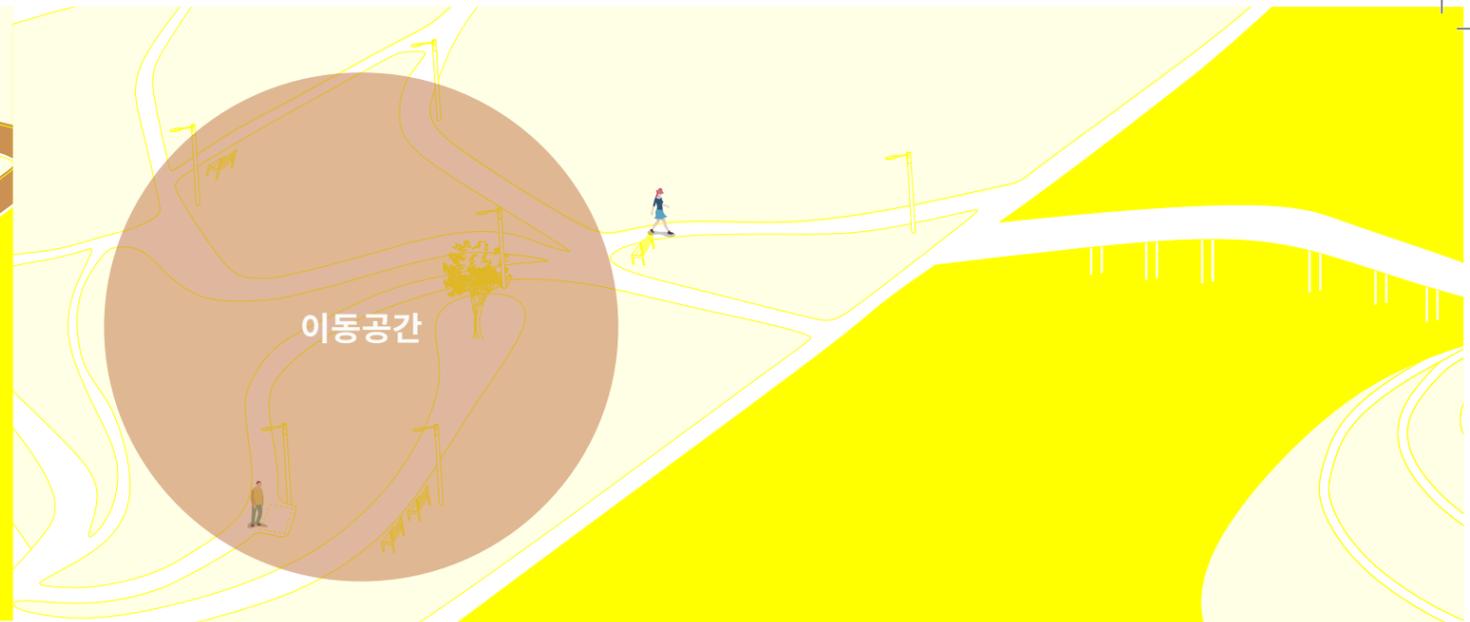
접근공간	이동공간	서비스공간	편의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사전정보제공	보행로	화장실	음수대	안내시설물
안내시설		광장	가로등	
매표소		방법 및 안전시설	공공벤치	
주차공간			휴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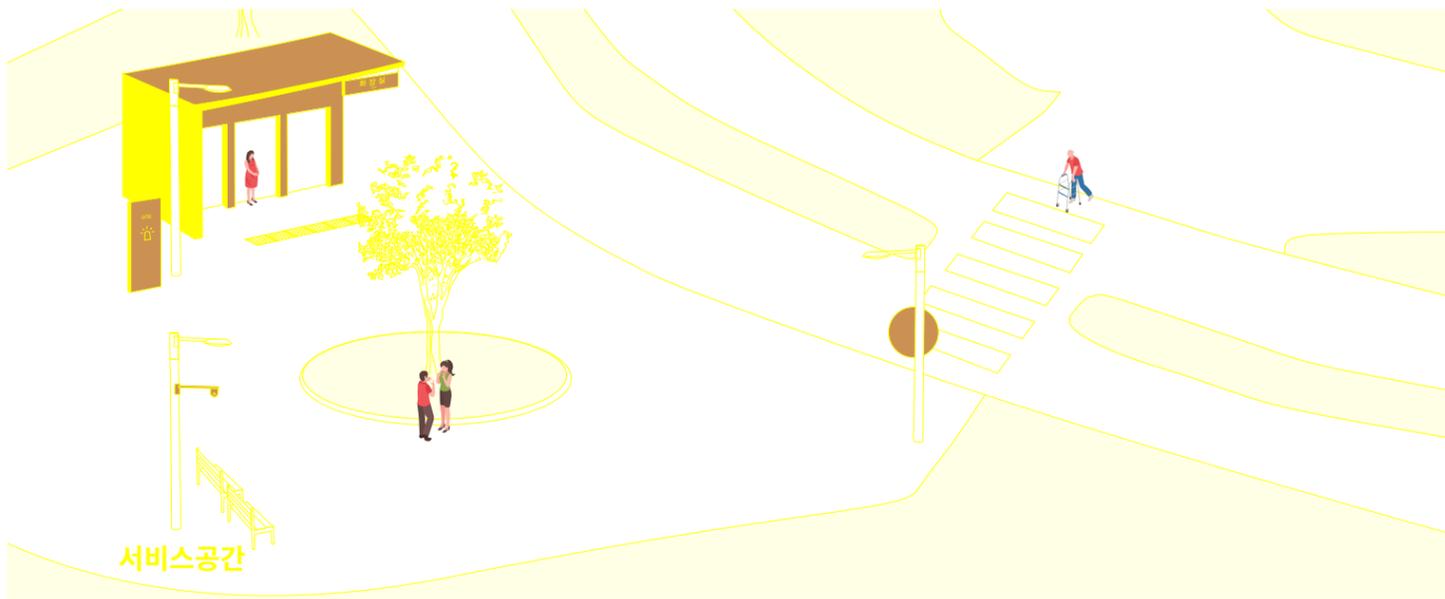
이동공간

보행로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며 단차 및 급경사를 지양한다. 또한 표면을 평탄화하여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한다.
- 복잡한 패턴의 적용을 지양하여 시시각적 혼돈을 최소화 한다. 또한 간결하고 단순화된 디자인을 통하여 길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 보행로의 마감재는 투수성이 좋으며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적용하고,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이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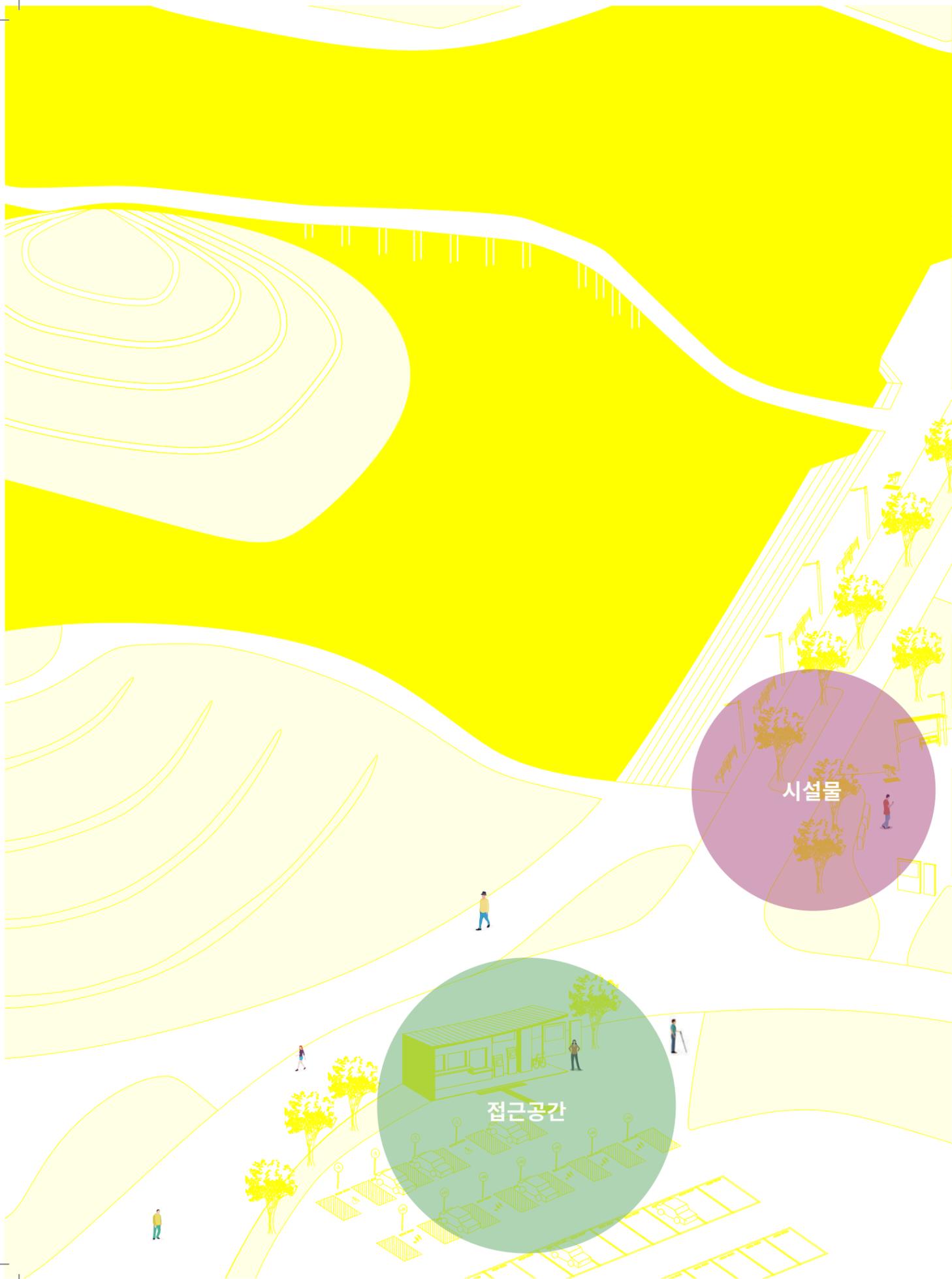
서비스공간

화장실, 방범 및 안전시설, 광장

- 화장실은 장애인 및 유모차 사용자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보행통로와 연계된 위치에 설치하며, 접근로는 단차를 없애며 불가피할 경우 경사로를 설치한다.
- 출입구, 인적 드문 공간, 사각지대에 비상벨, 반사경, 경광등 등을 설치하며, CCTV 같은 방범 및 안전시설은 쉽게 인지되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변과 차별화된 색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 광장의 경우,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공간의 유연성 및 가변성이 높은 공간으로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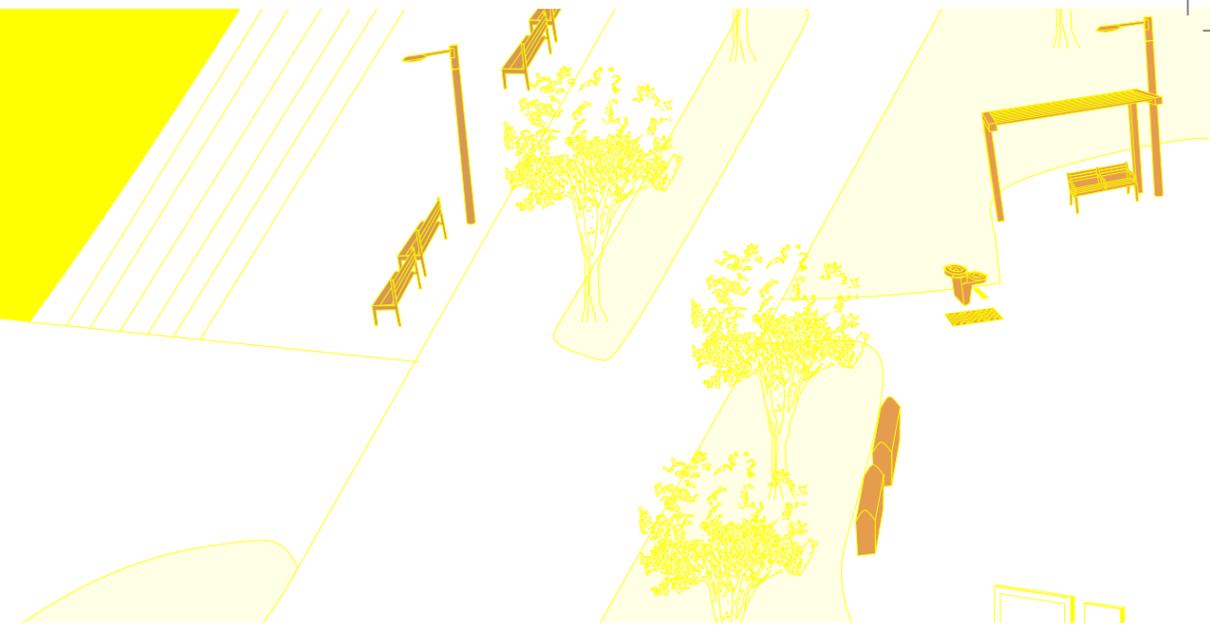
서비스공간



시설물

음수대, 가로등, 공공벤치, 휴지통

- 음수대의 경우, 이용자가 많은 공간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약자 및 외국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 디자인으로 조작이 용이하도록 한다.
- 가로등은 불필요한 장식 및 과장된 패턴, 상징물을 지양하며, 간결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벤치의 경우, 보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이용자의 통행 및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다.



접근공간

사전정보제공, 안내시설, 매표소, 주차공간

- 관광지 안내를 위한 안내시설을 주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하여 방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편의시설 및 장비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 매표소는 한글 및 다국어, 픽토그램을 병기한다. 픽토그램은 국제(국가) 표준규격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한다.
-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유모차 이용자 등을 배려한 가족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5.3 가이드라인 > 접근공간 > 사전정보제공

기본지침

- 공간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며, 휠체어 또는 유모차 접근 가능 경로 및 수유실등의 사용 편의 시설들에 대한 정보들을 안내한다.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린이, 지적 장애인, 외국인 등의 이해를 쉽도록 한다.
- 무료 WiFi , QR 코드 등을 배치하고 점자 혼용 및 음성안내 코드를 표기한다.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대학교 자연과학 아카데미
(The Academy of Natural Sciences of Drexel University) 층별 안내도,
출처: <https://ansp.org>

홈페이지

- 관광지의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방문전에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공식 웹사이트의 경우, 한국어 외에도 대표적인 외국어를 함께 적용하며, 관광지에 대한 개요와 대표 이미지는 물론 관광지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교통 정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외국인도 쉽게 관광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약자 및 저시력자, 색각 이상자 등의 이용을 위해 화면 낭독 서비스 제공을 권장하며, 낭독 서비스를 제공시 소리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배경음을 자동으로 재생하지 않는다.

안내 카탈로그

- 안내지도는 이용자 시점으로 현 위치에 따른 방향을 적용하며, 화장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및 층별 구조의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안내지도에는 점자를 병기하거나 점자 카탈로그를 별도로 구비한다.

키오스크

- 관광지의 지도 및 편의시설 등 주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관광지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 노인, 어린이등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기술을 적용하며, 키오스크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들을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관광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 주변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장식은 지양하며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노약자, 어린이 및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 외부에 설치 할 경우, 빗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로 마감한다.



COVID-19에 대응하여 벤쿠버 국제 공항에 설치된 생체 인식 지원 키오스크
휠체어 사용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높이 및 구조 적용, 출처: <https://www.airport-technology.com>

5.3 가이드라인 > 접근공간 > 안내시설

기본지침

- 관광지의 주출입구에 근접하게 설치하여 방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편의시설 및 장비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 관광지의 자연 및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SC
- 외국인이 다수 방문하는 장소이므로, 모든 정보에는 한글 및 다국어, 픽토그램을 병기한다. SC

구조

- 안내시설의 출입문 및 통로는 0.9m 이상을 확보하고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안내시설 진입 시 계단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사로를 설치한다.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 까지 완화할 수 있다.⁶⁴
- 안내시설의 출입구 유효거리는 1.2m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용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⁶⁴
- 안내시설 접수대 등은 휠체어 사용자 및 어린이를 고려하여 상판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0.7m-0.9m 높이로 설치하며 하부공간은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재료 및 마감

- 관광지 환경과 어우러지는 마감재 및 형태로 디자인하며, 마감재의 경우 친환경 재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SC



좌) 단차없는 출입구, 손잡이 제공, 쉽게 인지가능한 사인시스템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적용한 멜버른 관광안내소
우) 안내센터 외부에 자전거를 구비하여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6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3 가이드라인 > 접근공간 > 매표소

기본지침

- 매표소는 개방감있는 구조로 계획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
- 정보에는 한글 및 다국어, 픽토그램을 병기하며, 픽토그램은 국제(국가) 표준규격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한다. ⁶⁵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외국인을 고려하여 음성서비스를 지원하며, 필담용구를 비치한다.
- 보행가도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경사로를 설치한다.
- 자동발매기의 경우,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하여 적은 힘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

- 어린이 및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 및 동전투입구, 잔돈반환구 등은 0.4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한다.
- 날씨의 여부와 상관없이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지붕이 있는 형태를 지향하며, 상부높이는 2.5m 이상 확보한다.
- 매표소, 자동발매기 주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평탄한 곳에 설치하며, 바닥 마감은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한다.
- 매표소는 장애인, 어린이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2개소 이상 설치할 경우, 1개소는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낮은 매표소를 설치한다. ⁶⁵
-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⁶⁶
- 매표소, 자동발매기 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⁶⁶
- 매표소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로 하며,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⁶⁶
-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⁶⁶

6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재료 및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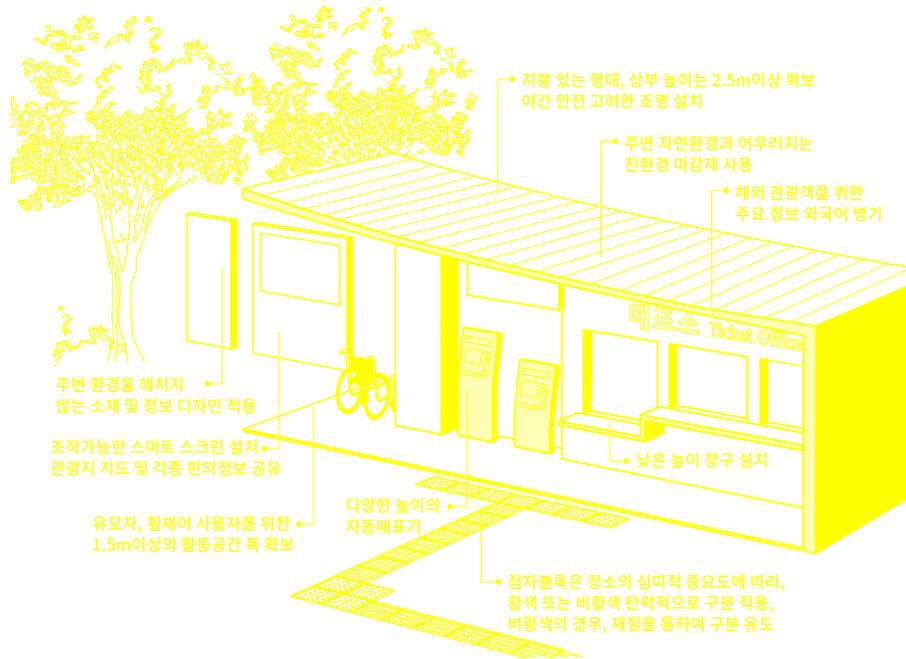
-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색상을 적용하고, 친환경 자재를 적극 사용한다. **SC**
-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관리가 용이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를 적용한다.

조성 및 유도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관광지 출입구에서 매표소 전면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점자블록은 황색 또는 비황색을 장소의 심미적 중요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기타

- 안내정보판에 손쉽게 조작가능한 스마트 스크린을 설치하여 관광지 지도 및 각종 편의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SC**



5.3 가이드라인 > 접근공간 > 주차공간

기본지침

- 관광지 주차장의 경우,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유모차 이용자 등을 배려한 유모차 이용 가족주차장을 함께 설치하도록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유모차 이용 가족주차장은 관광지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곳에 설치하며, 주차공간에서부터 관광지 출입구까지의 보행로를 확보한다.
- 주차공간은 국제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내외국인이 멀리서도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관광지 주출입구 및 엘리베이터와 근접한 곳에 위치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및 설치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비율 이상으로 설치한다.
-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0m 이상, 길이 6.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⁶⁷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⁶⁷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차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⁶⁷

유모차 이용 가족주차장

- 유모차 이용 가족주차장은 관광지 주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유모차의 승하차를 고려하여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바닥 단차를 없앤 보행 안전통로를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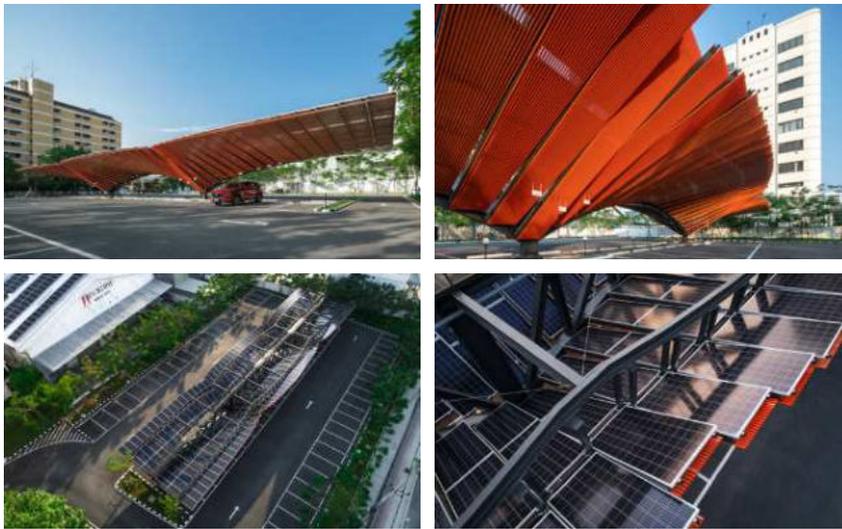
6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성 및 유도

-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 충분한 조도를 가지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최소화 하기 위한 CCTV 및 CCTV 설치 안내판을 적용하여, 24시간 감시하고 범죄를 예방하도록 한다.
- 주차장에서 관광지까지 연속하여 점자블록을 적용하며, 최단 경로로 설치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진출입 안내사인을 연속적으로 표시한다.
- 일정한 간격으로 양방향 통신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시 쉽게 인지 가능토록 한다.
- 주차장이 관광지와 떨어져 있는 경우, 소요시간 및 위치를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기타

- 주차장을 야외에 설치할 경우, 태양열 집열판을 부착한 지붕을 활용하여 우천시 편리하도록 하며 동시에 에너지 절감을 도모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태양열 집열판 지붕을 지양하고 특색있는 형태를 적용한 주차공간
우천시 지붕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을 도모, 출처: <https://www.archdaily.com>

5.3 가이드라인 > 이동공간 > 보행로

기본지침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며 단차 및 급경사를 지양한다. 또한, 표면을 평탄화하여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한다.
- 시시각각 혼란을 일으키는 복잡한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통하여 보행로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 자연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도 안정감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구조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⁶⁸
- 보도 등의 유효폭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 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⁶⁸
- 유효폭이 1.5m 미만인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 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⁶⁸
-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⁶⁸
- 보도 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⁶⁸
-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⁶⁸

재료 및 마감

- 보행로의 마감재는 투수성이 뛰어나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며, 시공시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 보행 장애물 및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은 마감재의 질감 및 색상을 구분하여 시인성을 높인다.

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맨홀 덮개는 보도포장 마감재와 동일마감재 또는 유사한 색상을 적용하여 연속성을 갖도록 한다.
- 점자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연속하여 설치하며, 실외에 설치할 경우 햇빛이나 불빛에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좌) 네덜란드 로테르담 루흐트진겔(The Luchtsingel) 공공보행자 전용다리, 출처: <http://www.cpdcre.kr>
우) 미국 Chicago Riverwalk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보행로

조성 및 유도

- 교차점, 입체 횡단시설, 계단시설 등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을 설치한다.
- 보행로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며, 만약 사각지대가 생길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 보행로의 요소들이 가시성을 제한하거나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장식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설치물은 지양한다.
- 노약자 및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단차를 없애고, 불가피할 경우 경사로를 마련하며, 경사면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⁶⁹
-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 지점, 횡단 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⁶⁹

69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5.3 가이드라인 > 서비스공간 > 화장실

기본지침

- 장애인 및 유모차 사용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보행통로와 연계된 위치에 설치하며, 접근로는 단차를 없애며 불가피할 경우 경사로를 설치한다.
- 화장실 외부에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화장실 픽토그램, 한글 및 다국어 병기, 장애인 점자를 표기한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 픽토그램은 국제(국가) 표준규격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한다.
-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한다.
-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⁷⁰
-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⁷⁰

재료 및 마감

-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바닥의 경우,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 내구성, 내습성, 내한성, 내연성을 고려하여 마감재를 선정한다.

다목적 화장실

- 다목적 화장실은 슬로우 다운식 미닫이 혹은 개폐버튼이 있는 자동문을 적용한다.
- 유아용 변기 및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다.
-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⁷⁰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⁷⁰

7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반 화장실

- 단위부스 중 한곳에는 어린이 전용 대변기를 설치한다. 만약 공간상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할시 일반 변기에 어린이 변기커버를 부착하고 단위부스 전면에 어린이 겸용 픽토그램을 표시한다.
- 여성과 동행하는 남아 어린이를 위하여 여성화장실에 남아용 소변기를 설치한다.
- 세면대를 2개 이상 설치 시 높이가 낮은 세면대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 일반 세면대에 미끄럼 방지 발판을 설치하여 어린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유아 동반자를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고 사용법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이동식 화장실

- 불필요한 장식은 지양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가 사용에 용이하도록 1.5mX1.5m 회전공간을 확보하며, 보도에서 별도의 턱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통풍 및 자연 채광이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 벽체 및 지붕은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마감하며, 내부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를 사용한다.



좌)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프랑스 몽마르트 간이 이동식 화장실, 출처: <https://www.design.gg.go.kr>
 우)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한 Portland Loo의 간이 이동식 화장실, 출처: <https://www.portlandloo.com>

방법 및 안전

- 우범화 방지를 위하여 화장실 내외부에는 상시조명을 설치하며, 화장실 내·외부 조도는 주변 조명보다 더욱 밝게 한다.
- 비상벨을 설치하며 외부에 비상벨과 연계된 경광등을 설치한다.
-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화재경보기 및 비상안내방송과 연계된 플래시라이트를 설치한다.

5.3 가이드라인 > 서비스공간 > 광장

기본지침

- 보행로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유연성 및 가변성 높은 공간으로 조성한다.

구조

- 주민의 휴식·오락·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다.⁷¹
-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단차를 최소화하고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설치한다.
- 광장 내 돌출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며, 특히 주기적인 가로수 관리를 통하여 가로수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한다.
- 광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을 적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재료 및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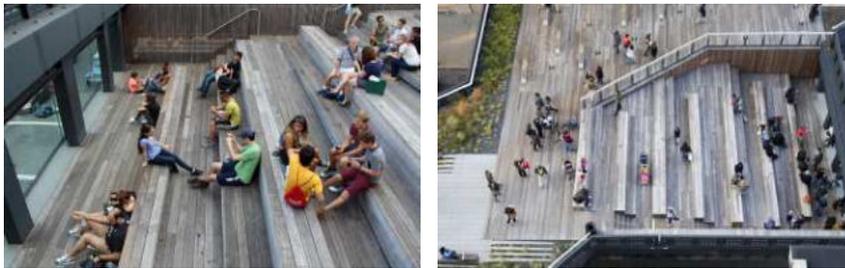
- 바닥마감은 우천 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표면에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하며, 바닥마감재의 이음새 틈에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⁷²
- 바닥마감은 복사열이 적어 여름철 도심 열섬 완화에 효과적이며, 투수성이 높은 포장재를 권장한다.
- 주변 자연을 적극 활용하고 관광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 및 마감재를 적용한다. 

7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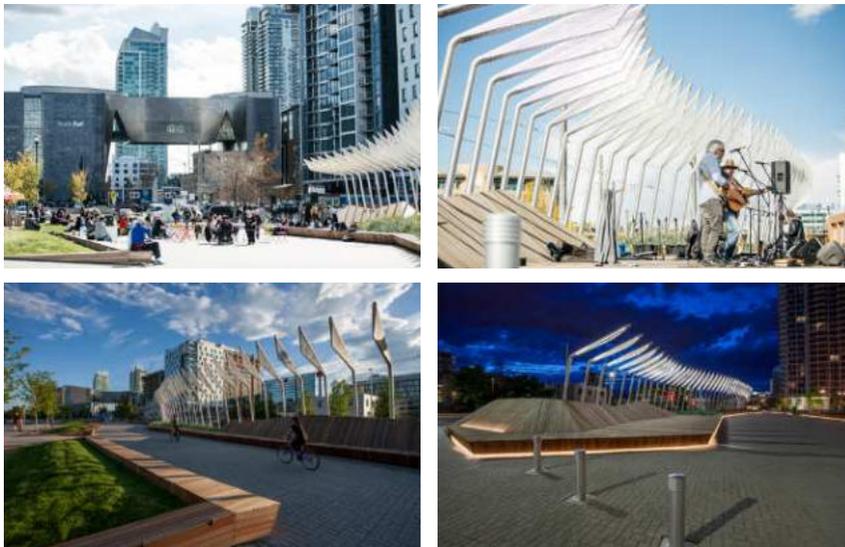
7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도 및 안전

- 대중교통 및 보행로와 연계하여 접근성이 높도록 하며, 광장 내 부대시설물 및 편의시설 등은 주요 보행로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범죄취약공간을 중심으로 비상벨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CCTV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CCTV 설치 안내판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기하여 CCTV 촬영 중임을 알린다.



기존 광장의 틀에서 벗어난 계단식 형태의 소규모 광장:
 뉴욕의 하이라인파크(Highline Park)의 보행로 중에 위치한 공간으로 때로는 공연이 열리기도 하며,
 평상시에는 방문객들이 모여 자유자재로 활용



캐나다 캘거리의 도로 한복판에 건축된 도심속 광장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구축,
 출처: <https://www.archdaily.com>

5.3 가이드라인 > 서비스공간 > 방법 및 안전시설

기본지침

- 출입구, 인적이 드문 공간, 사각지대에 비상벨, 반사경, 경광등 등을 설치한다.
-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 자연 감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 방법 및 안전시설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과 차별화된 색상을 적용하도록 한다.
- 안전 또는 경고표시를 위한 표지판에는 한글 및 다국어, 픽토그램을 병기한다. 픽토그램은 국제(국가) 표준규격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한다.

조성 및 유도

-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공간일 경우,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에 위치번호를 설치한다.
- 비상벨은 경광등, 음성지원시설 등과 통합 설치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CCTV

- 주요 이동경로 및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시설은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감시를 공지하는 CCTV 설치 안내판(한국어와 외국어로 병기)을 설치한다.
- 기능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며 무광택재료로 마감한다.

소화시설

- 인지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색으로 소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인다.
- 위급 시에 손쉽게 사용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장식은 배제하고 직관적으로 디자인한다.
- 주변환경에서 구조적으로 돌출되지 않으며, 보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안전반사경

- 사각지대에 안전반사경 설치를 통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3 가이드라인 > 편의시설물 > 음수대

기본지침

- 관광지 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도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음수대를 필수로 설치한다.
-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 이용자가 많은 공간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어린이 및 노약자, 외국인도 쉽게 조작이 용이한 직관적인 형태를 적용한다.
- 관광지 특성을 부여한 과도한 장식은 지양하며 부피면적을 최소화하여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SC}

구조

-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를 위하여 단차를 없애며, 음수대 전면에 1.5mX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음수대를 2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 높이가 낮은 음수대를 1대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음수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m 이상 0.8m 이하로 하여야 한다.⁷³
- 음수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⁷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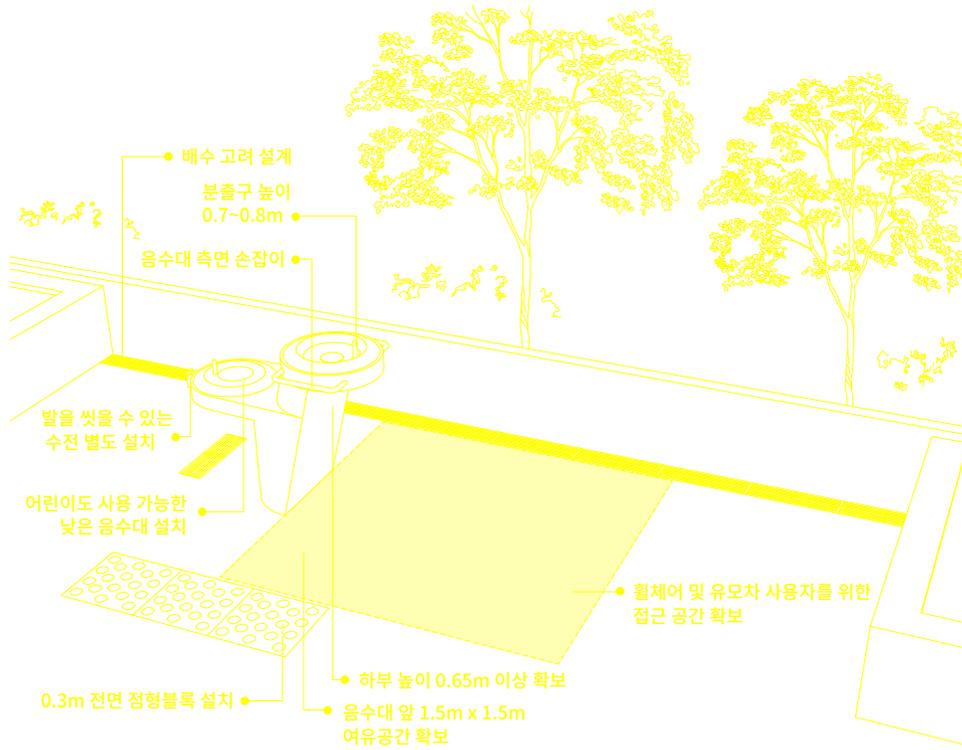
재료 및 마감

- 음수대 주변 바닥의 마감재는 미끄럼 방지 재료를 적용하며, 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음수대의 유지 및 보수를 고려하여 내부식성이 강하며 동파방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유도

- 음수대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7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좌)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간결한 형태의 음수대 디자인
 우) 물병에 물 보충을 위한 음수시설을 함께 구비한 음수대

5.3 가이드라인 > 편의시설물 > 가로등

기본지침

- 보행로에서 가로등간의 간격은 20m 이내로 설치하도록 한다.
- 가로등은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장된 패턴 및 상징물을 지양하며, 간결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구조

- 가로수 및 기타 시설물에 의해 조명이 가려지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을 확보한다.
- 가로등의 지주대가 지면에 고정되는 하부구조는 고정 장치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관광지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보행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4.0m 미만을 높이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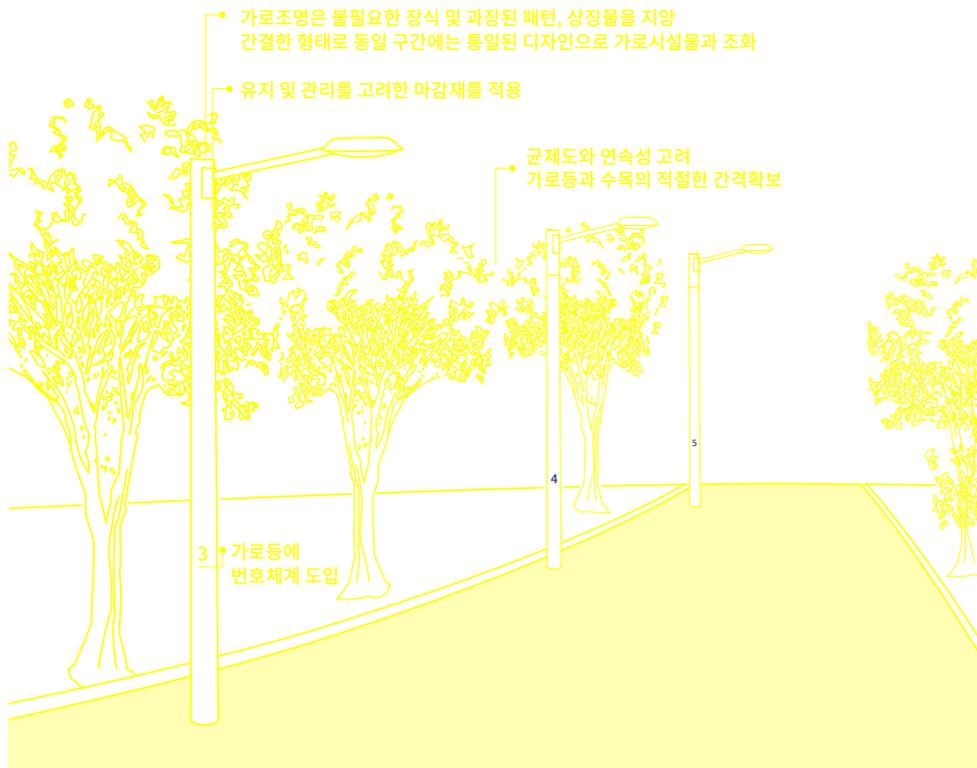
재료 및 마감

- 주변 환경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저채도, 저명도 색상을 권장한다.
- 야간운전자를 고려하여 고광택의 금속재질 사용을 지양하며, 유지 및 관리를 고려하여 마감재를 선정한다.
- 보행로 조명기구의 경우, 친환경 LED조명기구를 설치하며, 가능한 자동점멸이나 조도조절기능을 함께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SC}

관리 및 유도

- 가로등에 번호체계를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 및 이용자의 공간인지도를 증대한다.
-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⁷⁴

7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결한 디자인의 가로등 설치 사례, 출처 : <https://www.architonic.com>

5.3 가이드라인 > 편의시설물 > 공공벤치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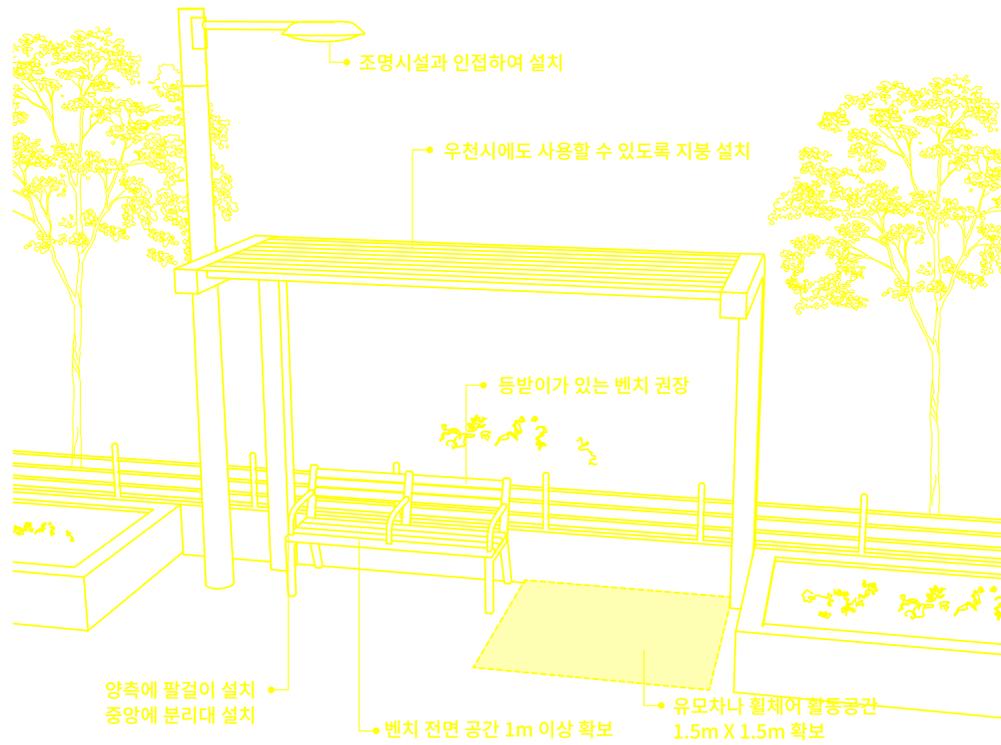
- 관광지 내 벤치의 경우, 보행 중 필요할 시 휴식할 수 있도록, 100m 이내마다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가급적 열린공간에 설치하며, 시선이 차단되거나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가급적 지양한다.
- 보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이용자의 통행 및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규모가 큰 관광지의 경우, 구역마다 필요한 기능에 따라 알맞은 형태로 디자인하되 톤앤매너(Tone and Manner)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관광지 전체의 통일성을 구축한다. SC
- 조명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구조

- 주변의 시야를 가리는 지붕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우천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일부 벤치 위의 지붕 설치를 권장한다.
- 주변의 수목과 연계하여 벤치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벤치 옆 공간에 유모차나 휠체어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 벤치는 4인용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공간에 따라 2인용 또는 1인용등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배치한다.
- 모서리 부분은 곡면 또는 사면 처리를 하여 날카로운 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관광지의 벤치가 노숙자에게 점유되지 않도록 벤치 가운데 분리대를 적용한다.
- 내구성 있는 마감재 활용을 권장하며 우천시 물이 고이지 않는 형태를 적용한다.

재료 및 마감

- 내구성 있으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부분의 경우 가급적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다. SC



공원에서 구역마다 필요한 기능에 따라 다른 형태의 벤치를 설치한 Highline Park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들을 준수하는 동시에, 획일적 디자인을 넘어 공간에 부합하는 형태로 디자인한 벤치들,
출처: <https://www.archdaily.com>

5.3 가이드라인 > 편의시설물 > 휴지통

기본지침

- 개방적 공간에 설치하되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한다.
- 휠체어 사용자, 노약자, 어린이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불필요한 장식을 지양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분리수거가 가능한 휴지통 설치를 권장한다.

구조

- 전면에 픽토그램을 표시하여 내·외국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금연구역에는 휴지통에 재떨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 외부공간에 설치시, 눈과 비의 침투를 방지하며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 쓰레기 투입, 수거,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동물의 접근이 어렵도록 디자인한다.
- 쓰레기 적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부디자인에 곡면 또는 사면 처리를 적용하여 쾌적성을 확보한다.

재료 및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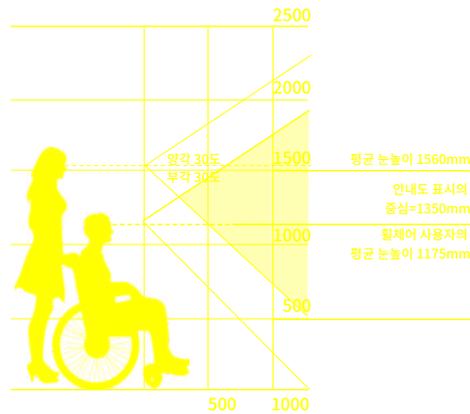
- 쓰레기로 인한 부식에 강하며, 내화성 재질 및 난연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 고명도 고채도의 색 사용이나, 고광택의 마감재는 지양한다.



5.3 가이드라인 > 공공정보매체 > 안내시설물

기본지침

- 어린이 및 노약자, 외국인도 쉽게 인지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며, 불필요한 장식은 지양하고 주변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 한글과 다국어, 픽토그램을 병기하며, 픽토그램의 경우, 국제 표준규격을 적용한다.
- 모든 안내시설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관광지의 장소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색채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되도록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는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권장한다. SC
- 구역별 통합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디자인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SC
- 서체의 크기에 따른 위계화로 가독성을 높이며, 저시력자 및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문자와 배경의 명도와 채도 차이를 주고, 장식이 많은 서체는 지양한다.
- 휠체어사용자의 평균 눈높이(1175mm)와 비장애인의 평균 눈높이(1560mm), 이 두 눈높이의 중심 위치(1350mm)를 고려하여 안내시설물을 설치한다.



안내 표지판의 높이 관련 이미지,

출처: 김인순, 유니버설디자인 안내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를 재구성

유도 사인

- 공간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할 경우 위치확인이 가능한 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한다.
- 화살표와 이동거리 등 주요 정보만을 표시하여 표지판의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변경관을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한다.

종합안내도

- 위치, 방위, 주요시설물, 이동거리 및 도보 소요시간, 건물, 교통 등을 시각화하여 사용자가 공간 인지를 편리하게 하도록 한다.
- 정보의 위계에 따라 문자 및 색채의 차이를 적용하여 인지를 용이하도록 한다.
- 종합안내시설물에는 시각적 표현수단 이외에도 점자와 음성안내를 제공하며, 전면 0.3m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미국 관광지 Hudson River Park의 가독성 있는 서체 및 관광지 환경에 어우러지는 색채 및 형태,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관광지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프로젝트, 출처: <https://www.pentagram.com>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점자 표기 외에 음성안내를 병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안내판의 중심선은 바닥으로부터 1.0m~1.2m 범위안에 설치한다.
- 안내판 전면 0.3m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를 고려하여 전면에 1.5m X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좌) 정릉에 설치된 문화재 종합안내판: 3차원임체(3D) 촉지, 음성안내, 점자안내, 국문·영문안내 등을 포함, 출처: <http://www.cha.go.kr>
우) 영국의 the Natural History Museum의 촉지도식 안내판, 출처: <https://www.culture24.org.uk>

5.4 가이드라인 적용안 > 공공벤치

1) 권장 지침

세부내용																								
디자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편리한 디자인을 지향한다. •안전한 디자인을 적용하며, 모서리의 경우 부드럽게 처리하여 접촉시에도 다침이 없도록 한다. •벤치의 본질적 기능에 부적합한 과도한 형태 또는 장식적 요소는 지양한다. •연결하드웨어의 노출을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정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주변의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적용한다. •하부 공간의 경우 개방된 구조의 디자인을 권장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금지 사례</th> <th>권장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  <p>불안정한 구조/하드웨어노출/이질적 색상</p> </td> <td>  <p>안정적 구조 및 신체접촉면 목재재료 사용</p> </td> </tr> </tbody> </table>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불안정한 구조/하드웨어노출/이질적 색상</p>	 <p>안정적 구조 및 신체접촉면 목재재료 사용</p>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불안정한 구조/하드웨어노출/이질적 색상</p>	 <p>안정적 구조 및 신체접촉면 목재재료 사용</p>																							
권장 C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등받이 앉음판 등은 목재재질을 사용한다. •유광 재질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을 적용한다.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를 적용한다. •유채색의 적용을 지양하고, 최소한 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목재적용부분은 오일스테인으로 마감하고, 장시간 사용 시 하자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페인트 도장은 금지한다. •금속재 사용시, 적용색채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컬러웨이 (1,1,1,54 CMYK) 또는 웜그레이 (0,12,19,63CMYK) 계열의 웨이드를 권장한다. 또한, 내구성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가공을 권장한다. •화려한 그래픽 요소의 설치는 지양한다.(제작업체, 관리주체 등의 표식 지양) 																							
	<table border="1"> <thead> <tr> <th>권장 색상</th> <th>권장 재료 및 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적으로 신체에 무해한 재료 사용 •심미적으로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권장 재료: 목재(Hard Wood), Stainless steel •권장 마감: 분체도장(프레임), 오일스테인(나무) </td> </tr> </tbody> </table>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td> <td>C 1%</td> <td>C 0%</td> <td>C 0%</td> </tr> <tr> <td>M 1%</td> <td>M 0%</td> <td>M 12%</td> <td>M 10%</td> </tr> <tr> <td>Y 1%</td> <td>Y 2%</td> <td>Y 19%</td> <td>Y 15%</td> </tr> <tr> <td>K 54%</td> <td>K 34%</td> <td>K 63%</td> <td>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적으로 신체에 무해한 재료 사용 •심미적으로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권장 재료: 목재(Hard Wood), Stainless steel •권장 마감: 분체도장(프레임), 오일스테인(나무) 			
CG1	CG2	WG1	WG2																					
C 1%	C 1%	C 0%	C 0%																					
M 1%	M 0%	M 12%	M 10%																					
Y 1%	Y 2%	Y 19%	Y 15%																					
K 54%	K 34%	K 63%	K 48%																					
설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치 다리를 지면에 고정 시, 볼트의 노출을 최대한 지양하며, 가급적으로 지면 안으로 매립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권장 예시 도면

항목	세부내용
사이즈	W1500* D428* H800
색상	Dark Warm Gray (0,10,15,48, CMYK), Wood
재료	Hard Wood, Stl-Plate, Stl-Pipe
도면	<p>The technical drawings inclu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면도 (Top View): Shows a bench with a total width of 1500mm and a seat height of 428mm. The seat is 1400mm wide with 50mm overhangs on both sides. It features an aluminum frame (AL-Casting, 진회색계열) and two layers of hard wood (Hard Wood, 목재보호도장 2회). 정면도 (Front View): Shows a total height of 800mm. The seat is 351.40mm high, and the legs are 410mm high. The frame is made of aluminum (AL-Casting, 진회색계열). 측면도 (Side View): Shows a seat depth of 610mm, with 184mm for the seat and 424mm for the backrest. The seat height is 351.40mm, and the leg height is 4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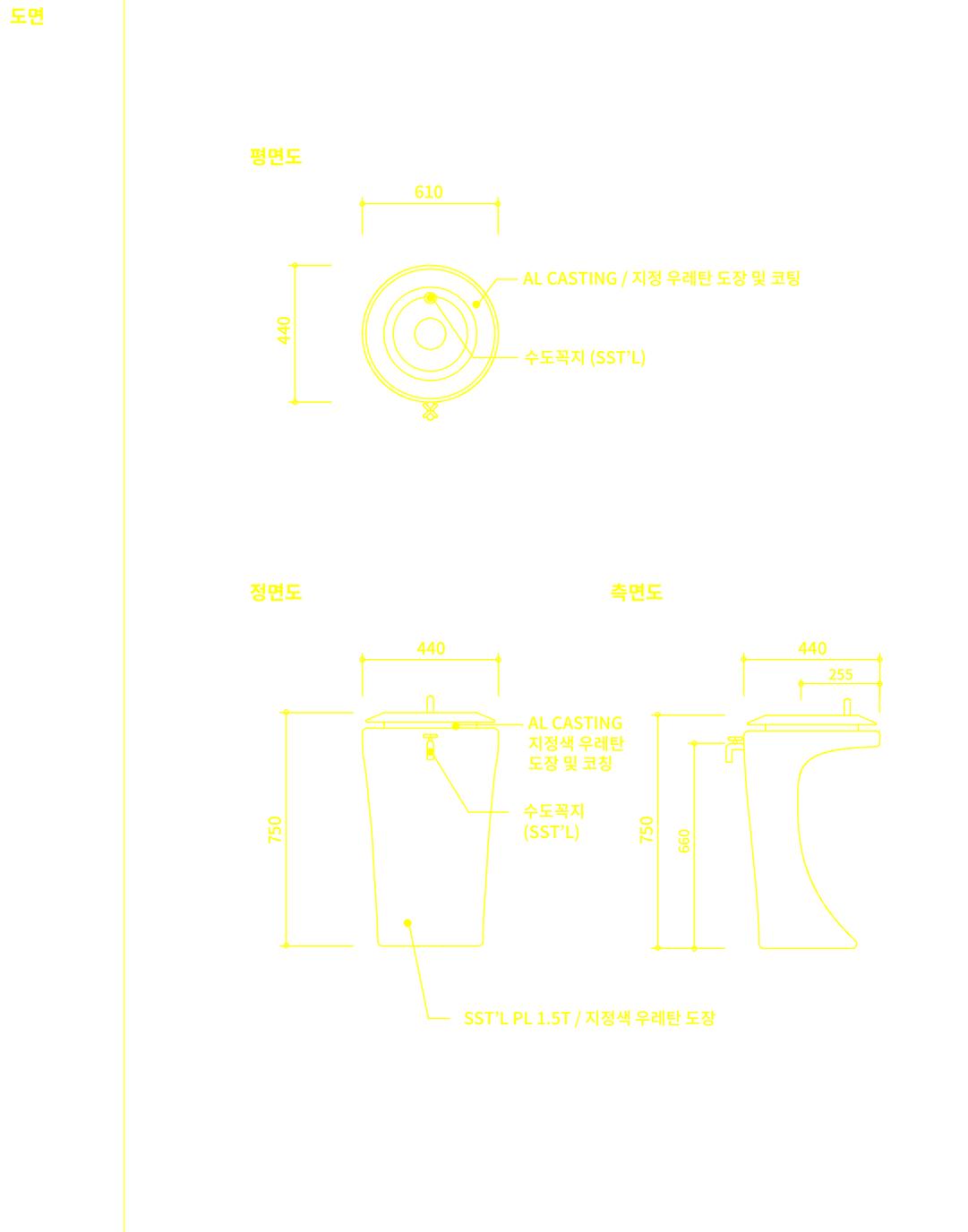
5.4 가이드라인 적용안 > 음수대

1) 권장 지침

세부내용																
디자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 음수부 각도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안전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특히, 모서리의 경우 부드럽게 처리하여 접촉시에도 다침이 없도록 한다. • 과도한 형태 또는 장식적 요소는 지양한다. • 연결하드웨어의 노출을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정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주변의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적용한다. • 배수처리 및 위생과 유지관리에 용이한 형태 및 구조를 적용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금지 사례</th> <th>권장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  <p>과도한 형태와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지 못한 디자인</p> </td> <td>  <p>최소한 형태적용 및 휠체어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디자인</p> </td> </tr> </tbody> </table>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과도한 형태와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지 못한 디자인</p>	 <p>최소한 형태적용 및 휠체어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디자인</p>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과도한 형태와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지 못한 디자인</p>	 <p>최소한 형태적용 및 휠체어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디자인</p>															
권장 C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성 및 내구성, 유지관리에 우수한 재료를 사용, 금속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동절기에 동파방지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한다. • 음수부(음수꼭지, 배수구등)을 제외한 부분에는 되도록 유광 재질을 지양한다. • 유채색의 적용을 지양하고, 최소한 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 금속재 사용시, 적용색채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쿨그레이 (1,1,1,54 CMYK) 또는 웜그레이 (0,12,19,63CMYK) 계열의 셰이드를 권장한다. 또한, 내구성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가공을 권장한다. • 화려한 그래픽 요소의 설치는 지양한다.(제작업체, 관리주체 등의 표식 지양) • 그래픽 요소가 필요시에는 UV실크인쇄를 권장한다.(시트지 부착 지양) 															
	<table border="1"> <thead> <tr> <th>권장 색상</th> <th>권장 재료 및 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C 1% M 1% Y 1% K 54%</td> <td>C 1% M 0% Y 2% K 34%</td> <td>C 0% M 12% Y 19% K 63%</td> <td>C 0% M 10% Y 15% K 48%</td> </tr> </tbody> </table>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으로 신체에 무해한 재료 사용 • 심미적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 권장 재료: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 권장 마감: 분체도장 </td> </tr> </tbody> </table>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C 1% M 1% Y 1% K 54%</td> <td>C 1% M 0% Y 2% K 34%</td> <td>C 0% M 12% Y 19% K 63%</td> <td>C 0% M 10% Y 15% 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M 1% Y 1% K 54%	C 1% M 0% Y 2% K 34%	C 0% M 12% Y 19% K 63%	C 0% M 10% Y 15% K 48%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C 1% M 1% Y 1% K 54%</td> <td>C 1% M 0% Y 2% K 34%</td> <td>C 0% M 12% Y 19% K 63%</td> <td>C 0% M 10% Y 15% 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M 1% Y 1% K 54%	C 1% M 0% Y 2% K 34%	C 0% M 12% Y 19% K 63%	C 0% M 10% Y 15%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으로 신체에 무해한 재료 사용 • 심미적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 권장 재료: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 권장 마감: 분체도장 			
CG1	CG2	WG1	WG2													
C 1% M 1% Y 1% K 54%	C 1% M 0% Y 2% K 34%	C 0% M 12% Y 19% K 63%	C 0% M 10% Y 15% K 48%													
설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수대 하부 구조를 지면에 고정 시, 볼트의 노출을 최대한 지양하며, 가급적으로 지면 안으로 매립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권장 예시 도면

항목	세부내용
사이즈	W610* D440* H750
색상	Dark Warm Gray (0,10,15,48, CMYK)
재료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5.4 가이드라인 적용안 > CCTV

1) 권장 지침

세부내용													
디자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기능만 적용하여 디자인 하며, 과도한 형태 또는 장식적 요소는 지양한다. 가능할시 가로등과 통합하여, 시설물을 줄임으로서 보행자의 편의를 배려한다. 연결하드웨어의 노출을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정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주변의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적용한다. 유지관리에 용이한 형태 및 구조를 적용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금지 사례</th> <th>권장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  <p>광택재질적용 / 통일되지 못한 색채적용</p> </td> <td>  <p>전체적으로 동일한 색채, 간결한 형태 적용</p> </td> </tr> </tbody> </table>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광택재질적용 / 통일되지 못한 색채적용</p>	 <p>전체적으로 동일한 색채, 간결한 형태 적용</p>								
금지 사례	권장 사례												
 <p>광택재질적용 / 통일되지 못한 색채적용</p>	 <p>전체적으로 동일한 색채, 간결한 형태 적용</p>												
권장 C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성 및 내구성, 유지관리에 우수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유채색의 적용을 지양하고, 최소한 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특히, 폴, 암, 본체에 동일한 색채를 적용한다. 단, 비상벨의 경우만 폴과 대비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금속재 사용시, 적용색채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쿨그레이 (1,1,1,54 CMYK) 또는 웜그레이 (0,12,19,63CMYK) 계열의 웨이드를 권장한다. 또한, 내구성을 위하여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가공을 권장한다. 관리를 위하여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표기를 제외한 화려한 그래픽 요소의 설치는 지양한다.(제작업체, 관리주체 등의 표식 지양) 그래픽 요소가 필요시에는 UV실크인쇄를 권장한다.(시트지 부착 지양) 												
	<table border="1"> <thead> <tr> <th>권장 색상</th> <th>권장 재료 및 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 M 1% Y 1% K 54%</td> <td>C 1% M 0% Y 2% K 34%</td> <td>C 0% M 12% Y 19% K 63%</td> <td>C 0% M 10% Y 15% K 48%</td> </tr> </tbody> </table>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적으로 신체에 무해한 자재 사용 심미적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권장 재료: 친환경혼합석재,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아연도강판 등 권장 마감: 분체도장 </td> </tr> </tbody> </table>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 M 1% Y 1% K 54%</td> <td>C 1% M 0% Y 2% K 34%</td> <td>C 0% M 12% Y 19% K 63%</td> <td>C 0% M 10% Y 15% 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M 1% Y 1% K 54%	C 1% M 0% Y 2% K 34%	C 0% M 12% Y 19% K 63%	C 0% M 10% Y 15%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적으로 신체에 무해한 자재 사용 심미적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권장 재료: 친환경혼합석재,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아연도강판 등 권장 마감: 분체도장
권장 색상	권장 재료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색상 권장 <table border="1"> <thead> <tr> <th>CG1</th> <th>CG2</th> <th>WG1</th> <th>WG2</th> </tr> </thead> <tbody> <tr> <td>C 1% M 1% Y 1% K 54%</td> <td>C 1% M 0% Y 2% K 34%</td> <td>C 0% M 12% Y 19% K 63%</td> <td>C 0% M 10% Y 15% K 48%</td> </tr> </tbody> </table>	CG1	CG2	WG1	WG2	C 1% M 1% Y 1% K 54%	C 1% M 0% Y 2% K 34%	C 0% M 12% Y 19% K 63%	C 0% M 10% Y 15% K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적으로 신체에 무해한 자재 사용 심미적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재료 및 마감 권장 권장 재료: 친환경혼합석재,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아연도강판 등 권장 마감: 분체도장 				
CG1	CG2	WG1	WG2										
C 1% M 1% Y 1% K 54%	C 1% M 0% Y 2% K 34%	C 0% M 12% Y 19% K 63%	C 0% M 10% Y 15% K 48%										
설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결부 지면에 고정 시, 볼트의 노출을 최대한 지양하며, 가급적으로 지면 안으로 매립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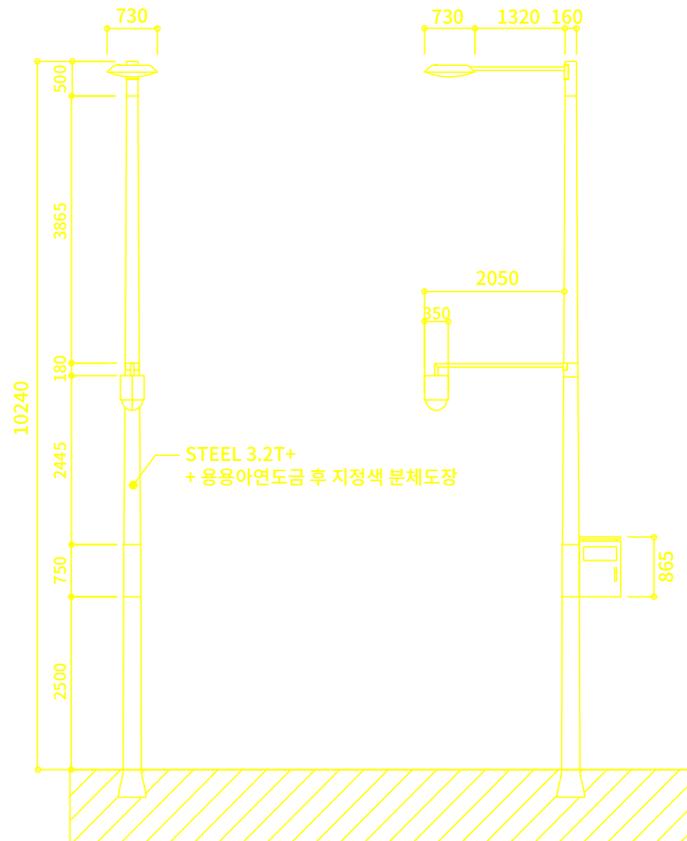
2) 권장 예시 도면

항목	세부내용
사이즈	W2050* D730* H10240
색상	Dark Warm Gray (0,10,15,48, CMYK)
재료	친환경혼합석재, STEEL, AL-DC, 분체도장

도면

정면도

측면도



Part 3.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실천 및 활성화 방향

I.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방안

1. 최근 지자체 조례 분석

- 1.1 현황분석
- 1.2 시사점

2. 순천시 기존 법제도 분석

- 2.1 조례 분석
- 2.2 종합 분석 및 방향 설정

3.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안)

- 3.1 개정 방향
- 3.2 조례 내용
- 3.3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4.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담조직 구성

- 4.1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도입의 배경
- 4.2 기존 지자체 도입 사례
- 4.3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모델 정립

5.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체계 도입과 인센티브

- 5.1 타 지자체 운영 실태 및 평가
- 5.2 순천시의 특이사항
- 5.3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활성화를 위한 과제
- 5.4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체계 개발

II.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계획

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략 방향

- 1.1 전략 방향 및 범위
- 2. 전략 방향별 추진과제
 - 2.1 유니버설디자인 기획, 제작 인력 교육
 - 2.2 주민참여형 유니버설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 2.3 순천 유니버설 관광 홍보 플랫폼 구축
 - 2.4 유니버설디자인 거버넌스 내실화

1. 최근 지자체 조례 분석

1.1 현황 분석

분석 요약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등 원론적 내용의 조례가 많음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7원칙(공평한 사용, 사용 상의 유연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인지 가능한 정보, 실수 용인성, 물리적 피로도 감소, 접근 용이한 크기 및 공간) 등 개념적 차원의 내용을 규율한 지자체 조례(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안양시, 서울 양천구)는 많으나 구체적인 업무 규정 및 시민 참여 방식 등과 관련된 조례 내용은 부족함

기존 법령 상의 근거를 명시하여 법제도 기반을 마련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방향성과 위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진흥책과 규제의 실효성을 기해야 함

유니버설디자인 조직의 전문화가 요구됨

서울시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화,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시재생과, 복지과 등 기존 업무와 중복되는 부서에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유기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어려움

순천의 관광,생태도시적 특성과 복잡한 도시발전 특성을 함께 반영한 UD 조례안 개발이 요구됨

순천은 중심지인 도심(시청 주변)과 농촌지역, 문화재 유관 지역(순천부읍성, 산업지역 등이 서로 상이한 패턴으로 발전한 도시임. 따라서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업무 체계를 정립해야 함. 또한 외부 방문객과 관광객이 많은 도시 특유의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유니버설 디자인 전략이 요구됨

구분	경상남도 (2019)	안양시 (2019)	광주광역시 (2019)	제주 특별자치도 (2019)	전라북도 (2019)	부산광역시 (2017)	경기화성시 (2017)	서울양천구 (2019)	서울마포구 (2018)
UD 기본원칙	○	○	○	○	×	×	×	○	○
UD 사업영역 제시	○	×	×	○	○	○	○	×	×
지자체장 권한/의무 제시	○	○	○	○	○	○	○	○	○
타 조례 관계성 제시	○	○	○	○	○	○	○	○	○
UD 전담조직	×	×	○	○	○	○	×	×	×
UD 위원회	○	○	○	○	○	○	○	○	○
시민참여형 평가/정책	○	×	×	○	○	○	×	×	×
UD 인증	×	×	×	○	×	×	×	×	×

경상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2019)

- 경상남도는 부산 인근의 동부(양산, 김해), 중부(창원, 남해, 함안 등), 서부(진주, 사천, 고성, 통영 등), 북부(거창, 밀양, 창녕, 함양 등) 등 넓게 분포해 있고, 지역별로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이질성이 강한 지자체임
- 도청 소재지인 창원과 양산, 김해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진주 혁신도시 등 신도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계획성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함
- 경상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이념(2조),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6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범사업, 가이드라인(7,8,9,10조),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경남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업무 대행(11조),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13조), 도민참여단에 대한 내용(14조), 교육 및 홍보(15조) 기능을 명시함
- 공공 시설 이외의 민간 시설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채택하는 경우, 기존 시설을 증, 개축 하는 경우 도지사에 의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12조)

광주광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2019)

-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의해 아시아문화의전당, 광주비엔날레 등 디자인 관련 인프라가 다양하게 포진해 있고 5대 문화권(문화전당교류권, 융합문화과학권, 아시아공동체문화권, 미래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임
- 전통 도심인 서구, 동구, 북구, 신도시화가 진행중이며 도농복합적 속성을 띄는 광산구, 남구 등의 공간 속성이 상이하어 표준화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어려운 곳 중 하나임
-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원칙(3조), 도시의 책무(5조), 기본계획 수립(7조),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와 기능(8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9조), 시범사업(10조), 관계기관 협력(11조)을 규정함
- 사업자의 책무로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채택되어야 하는 시설의 유형을 규정함

1)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의한 심의, 자문대상 시설

- 도시기반시설물(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공간시설물)
- 공공건축물
- 가로시설물(대중교통시설, 보행안전시설, 편의시설, 공급시설, 녹지시설, 안내시설)

2) 1호에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공 성격의 시설

3)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관리 예정인 공공시설

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보와 시민 안전, 편의 제공 위한 정보제공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2019)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생태적 정체성이 강한 지자체로 구도심인 제주시(도심 및 읍면동)와 부속도시인 서귀포시로 구성되어 있어 관내 지역이 넓고 문화권이 다양한 순천시와 비교적 유사한 환경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제주도는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속적 개발 관점과 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생태적 관점이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함(예 :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비자림로 개발 사업 등)
- 공영 관광지에 대한 관광약자의 접근성 강화(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사업), 관광약자접근성 안내 센터 설치 등 2018년부터 ‘유니버설 관광’ 정책을 포괄적으로 실천해 왔음
- 제주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는 기본원칙(3조), 적용범위(4조), 타 법령과의 관계(5조), 도민의 책무(6조), 사업자의 포괄적 책무(7조), 도지사의 책무(8조, 예산편성, 조직체계 확립, 실태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9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10조), 대학, 연구소 등 협력기관 지정(11조), 인재육성(12조), 민간시설물 정비 지원 및 사업 지원, 인증제 및 표창(13조),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22조) 등으로 구성됨
-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12조의 2)을 지정하여 특정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연간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구역은 보조금을 지급(24조)할 수 있음. 또 도민 참여단(23조의 2)과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23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효율적 유니버설 디자인 행정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둘 수 있고, 민간 위탁으로 운영 가능하게 규정함(22조)

전라북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2019)

- 전라북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는 적용범위(3조), 실행계획 수립(4조),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5조), 위원회 기능(6조), 회의 운영(7조), 위원수당(8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9조),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10조), 실태조사 실시(11조), 교육(12조), 사업 지원(13조), 타 법령과의 관계(14조)로 구성함
- 이미 설치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있음(7조). 별도의 유니버설 디자인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공공디자인진흥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센터(9조)의 경우 교육, 기술 컨설팅, 제도 연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민간,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

부산광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2017)

-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관광도시임에도 오래된 자연발생도시 특성으로 인한 비정형적 도로구조, 복잡한 가로망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운전문화 16위(35.9점, 100점 만점). 교통문화지수 6위(85.29점)로 교통 혼잡비용이 높은 도시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친화도시’(2019)를 표방하고, 장애인 보행 밀집지역 130곳에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무장애 보행길 선도사업장 사업, 구,군, 청사 등 공공기관 보행길 개선 등을 시행함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시의 책무(3조), 타 조례와의 관계(4조),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5조), 적용범위(6조), 가이드라인 수립(7조), 실태조사(8조),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9조),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가능(10조), 시범사업 시행(11조), 시민참여(12조), 관계기관 협력(13조), 교육 및 홍보(14조)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조례는 부산시 도시경관과를 소관으로 하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내용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심의할 수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법 104조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와 부산광역시의회 등의 동의 하에 진행할 수 있음. 국가의 보조금을 받거나 3억원 미만의 수탁과제는 별도의 민간위탁 심의 없이 시장이 시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경우 구청장, 군수(부산의 경우 기장군이 산하에 있음),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음

안양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2019)

- 안양시는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 중 하나로 안양권(안양, 의왕, 과천, 군포)의 중심 도시이기도 함. 한때 62만명까지 인구가 증가하였으나(2015년), 최근 56만명 규모(2020년 4월 기준)로 줄어들었음. 체감 인구 밀도는 9,625명(제곱킬로미터당)으로 높은 편임(서울 양천구 28000명, 부천 16000명). 크게 평촌신도시와 구도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양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는 기본원칙(3조), 시장 책무(4조), 시민 참여(5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6조), 기본계획(7조),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8조), 시범사업(9조), 관계기관협조(10조), 유지관리(11조), 포상(12조)으로 구성됨
-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가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며, 안양일번가 인근 보행자위주 도로 개선(10억원), 안양역-진흥육교 구간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안내체계 디자인 등이 진행됨

- 안양의 경우 2005년부터 공공미술 관련 축제가 열리는 등 디자인 마인드가 고취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구체성은 취약한 편임

화성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2017)

- 화성시는 83만 명 규모의 대도시로 동탄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경기도 내 인구증가율 1위를 보이고 있음(2001년 시 승격 시 28만명, 2015년 59만명, 2020년 83만명). 구 남양군이었던 농촌 지역에서부터 구 수원군에 해당하는 도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 이질성이 심한 지자체 중 하나임
- 화성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는 기본원칙(3조), 적용범위(4조), 타 법령과의 관계(5조), 시장의 책무(6조), 기본계획 수립(7조), 시범사업(8조),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9조), 관계기관 협조(10조) 등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음
- 화성시는 국내 최초(2008년)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선보인 지자체 중 하나로, 보훈회관, 자원봉사 센터 등 8개 시설이 초창기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채택해 지어졌으며,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음. 화성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또한 국내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다른 지자체의 내용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짐

용인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2017)

- 용인시는 인구 107만명 규모의 대도시 중 하나로 경기도에서 수원, 고양 다음가는 인구 3위 도시임(광역시를 제외하고는 4번째). 2000년대 초반에는 39만 명 규모의 인구가 최근 20년간 3배 가까이 증가(2000년 39만명, 2005년 69만명, 2015년 97만명, 2020년 107만명)하여 조직적인 도시 개발과 계획 수립이 절실함
- 용인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간혁신우수사례(2019)로 시상된 바 있으며, 직원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교육, 도로교통시설물, 근린공원,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유니버설디자인 일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함
-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기본원칙(3조), 시장 책무(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5조), 적용 범위(6조), 기본계획(7조),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8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운영(9조), 시범사업(10조), 관계기관협조(11조)로 구성됨
-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드물게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규정을 조례에 적시하였으며, 주무부서인 도시디자인과 차원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되 전문화 또한 고려한 법제도 마련 사례로 볼 수 있음
- 다만 유니버설디자인의 민간 시설 채택 시 시 차원의 지원,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규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함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2017)

- 진주시는 34만명 규모로 서부 경남 지역에서 비교적 큰 도시 중 하나에 속하며 대학이 많아 상대적으로 젊은 거주자가 많음. 진주시는 크게 구도심, 혁신도시, 도농복합지대로 구성되어 있음
- 진주시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명칭이 아닌 무장애도시라는 슬로건을 2012(2012.7 무장애도시선언)년부터 사용해 왔고, 2014년에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발표함
- 공공건축, 공원시설, 도로시설, 교통시설 및 기타 택지지구에 BF(배리어프리, 무장애)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민간건축의 경우 548개소(음식점 192개, 소매점 173개, 기타 183개)를 무장애 시설로 지정함
- 무장애도시조성 기본조례는 적용대상(3조), 시장의 책무(4조, 무장애시설 확충, 민간시설의 무장애 개선 인센티브 제공,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주거용 편의시설 지원 등), 계획수립(5조), 상징물(6조, 로고, 캐릭터 등), 무장애시설 인증(7조), 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8조, 편의시설설치촉진단, 장애체험 프로그램, 건축주 및 사업주 지원 프로그램 등), 실적평가(9조),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10조), 위원회구성(11조), 위원회직무, 임기, 해촉, 기능, 회의,수당(12,13,14,15,16,17조), 시상(18조)을 규정함
- 무장애도시 관련 위원회 활동은 도시 디자인 전반과 관련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성되며, 민관 협력 사업 차원의 읍면동 무장애위원회를 통해 각종 시설개선 활동 및 건의 활동이 진행됨
- 진주시의 경우 공공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반화 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소매점, 음식점, 학원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채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사례임
- 진주시는 BF 도시 조성 센터를 설치(초기 : 사회복지과)하여 타 분야 기본계획(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경관기본계획)과 연계한 무장애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함

목표 / 전략 / 세부사업		관련부서
전략 1 BF 센터 운영	세부사업 1. 무장애 도시 조성 TF팀 구성·운영	사회복지과
	세부사업 2. BF인증 매뉴얼 제작·보급	사회복지과
전략 2 BF 보행망 구축	세부사업 1. BF 보행망 주요 거점 계획 수립	도시과, 교통행정과
	세부사업 2. 시범사업(구역) 선정 및 시행	도시건설과, 균형개발과, 녹지공원과, 회계과
전략 3 BF 인증제 시행	세부사업 1. 민간 건축물 BF시설 확충	건축과
	세부사업 2. 공공시설물 BF 의무화	회계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세부사업 3. 인센티브 제공방안 및 제도적 근거 마련	사회복지과, 건축과, 도시과
전략 4 시범사업 모니터링	세부사업 1. 모니터링 단원 구성·운영	사회복지과
전략 5 BF 정보체계 구축	세부사업 1. BF 웹사이트 구축·운영	사회복지과
전략 6 시민인식 개선 및 교육	세부사업 1.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사회복지과
	세부사업 2. 관련종사자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과

(출처: 진주시)

1.2 시사점

요약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전담 업무의 명확화, 민간 시설주의 참여 인센티브 제고, 시민 공론화 방안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와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통해 조직화된 업무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이론적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방향성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적 확산은 이루어졌으나 정책화는 미비함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원칙, 정의 등 표면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조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의 원칙, 업무분장(예 : 전담부서, 민관협력방안), 평가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현실임

민간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채택을 위한 지원 방안 미흡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활용이 필수화되어 가고 있으나, 민간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요원한 상황임. 따라서 각종 민간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개보수공사, 컨설팅에 따르는 지자체 차원의 예산, 인력 지원 근거가 필요함

공공디자인위원회와의 관계설정 문제가 있음

유니버설디자인의 특성 상 공공시설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 상당수 내용이 유니버설디자인 영역과 겹치게 됨. 따라서 몇몇 지자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공공디자인 정책의 하부 영역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각종 시설, 제품 디자인의 사용성, 감성은 고려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시선을 고려한 이용 품질 개선은 미비할 수 있음

전담 업무에 대한 규정이 부족함

일부 지자체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잠재적 핵심 부서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조례 상 근거가 없음.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한 전담 업무 조직의 과업 영역과 예산 지원 체계, 장(長)의 임면체계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야 함

2. 순천시 기존 법제도 분석

2.1 조례 분석

내용 요약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위해 기존 법규를 검토함

최근 5개년 간 법제처 홈페이지 상에서 파악된 공간, 건축, 도시계획 관련 법규 중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과 상호 충돌, 보완될 수 있는 내용을 종합 분석함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상대적 입지 확보

도시공간과 관련된 지자체의 표준화된 조례 완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상대적 입지를 정하는 일이 중요함

기존 조례의 개정 요구사항을 검토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하여 해당 조례의 우선 집행 조항과 함께 기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분석, 대안을 제시함

타 조례로부터 참고할만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기회요소 검토

건축조례, 도시계획 조례 등은 오랫동안 운용되었고 지역사회 내 합의를 거쳐 개정과 수정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검증된 제도라는 장점이 있음. 또한 기능적 구체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제정 시 다양한 참고사항이 있음. 순천시의 기존 조례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기회요소와 필수 과제를 파악함

순천시 건축조례(순천시 조례1921호, 2018.개정)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 건축법에 근거를 둠
- 건축법 적용 완화 사항(3조), 리모델링 특례(4조), 기존 건축물 특례(5조), 건축위원회(6조~13조),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14조) 등이 규정되어 있음
- 건축법 4조에 따라 순천시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4조 1항(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 관련 분쟁 및 조례 제정 등과 관련된 사항)에 근거를 두고 운영함
-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우수건축물을 시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

개선사항 및 시사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안에 기존 건축법의 준용과 관련된 내용을 부가하여 법령 상의 관계성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건축기본계획의 관련 정책으로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순천시 조례1669호, 2016.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13475호),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개발 및 도시 관리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위상이 규정되어 있음(3조)
-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음(15조). 도시 미관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5조 1항)고 명시.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 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15조 5항) 또한 지구단위계획지역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암시적으로 특수한 공간 속성에 맞는 도시 계획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없음

개선사항 및 시사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유니버설디자인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건폐율, 용적률 완화(51조~61조)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 시설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순천시 조례1822호, 2017.12 일부 개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 시가지의 재활성화, 도시공간구조의 기능 재편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미래 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3조)
- 주민주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4조 2항),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과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4조 3항)
-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도시재생 주체로서 일반 주민 참여를 보장(5조 1항),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 시행 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 체결(5조 2항),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6조) 등의 규정이 명시됨
- 공동이용시설(7조)이 주된 대상임을 언급함
- 사용자 지향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사항이 많고, 독립 재단법인화되어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내용은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비와 지방비가 혼합되어 교부되는 도시재생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순천시가 별도로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직영 모델에 비해 훨씬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한국산업정책연구원, 2018).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별도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도시재생지원조례 본문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이 적용되는 도시재생 사업 대상 시설에 대한 언급은 부재함
- 순천시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청년창업챌린지숍, 청년문화기획협동조합, 빈집정리프로젝트, 도심여행협동조합 등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차원의 새뜰마을 사업 또한 진행한 바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의 연관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개선사항 및 시사점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에 고려되어야 할 도시 설계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조례에 없으나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제도, 시스템 완비 사항(주민참여제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은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협동조합 운영 및 사회적기업을 통한 민간 참여 활성화 등과 관련된 내용 또한 선도 혁신 요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남 순천시 조례 1921호, 2018. 10. 1 일부 개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공영자전거 등의 속성을 정의함(2조)
-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안전성 확보,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자전거 이용의 시민 참여와 협력,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3조)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함(5조)
- 공영자전거(12조)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관리,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함(12조 2항)
- 동 조례의 근거 중 하나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전거 안전 표지 설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육교, 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12조) 및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점자블록(12조 4항),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경사로 끝 부분이 계단의 가장 상부에 위치하는 철판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규정함
- 자전거 이용 시설,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포장 및 배수’(15조)의 경우 도로 별도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 색상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11조에 따라 1) 안전하고 편리한 장소, 2)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 의무화, CCTV 등 자전거 도난, 예방조치 등을 제시함

개선사항 및 시사점

교통 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 적용, 자전거는 여가, 레저, 운동 등 건강관리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적 측면이 존재함. 순천의 경우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 안전 기준의 강화가 필요함

순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1933호, 2018.10.31. 일부개정)

- 순천시 관광여건 조성 및 마이스산업 등 관광산업 육성, 지원하고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조례에 해당함
- 관광진흥기본계획(4조), 관광진흥협의회(5조),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14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18조) 관광안내소(21조)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광 공간의 설치 기준,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개선사항 및 시사점

관광 관련 시설 설치 시 안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조례,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사전검토 기준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순천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1782호, 2017. 09. 29)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 시공 및 사용 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제시함
- 공원, 공공건축물 및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동법 7조)하고 있고, 국가, 정부투자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함
- 시장이 사전점검을 위해 5명 이내의 시 공무원을 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건축주는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반 시 제재사항, 사전점검결과 미비 시 보완 사항 등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개선사항 및 시사점

부칙으로 사전점검 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기준 등을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미비 시 제재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1913호, 2018.7.3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
-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일부 내용(경사로, 타일 등)과 셉테드 관련 내용(경찰서와 연계된 비상 알림 장치)이 제시됨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게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설치
 5. 이동식 화장실을 제외한 공중화장실 등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 알림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선사항 및 시사점

안전상의 문제 이외에 의료 상의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도 ‘비상벨’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법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1858호, 2018.02.05.)

- 모자보건법 3조 및 10조 3에 따라 순천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
-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 시설 및 장소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 운영토록 권장할 수 있다(4조 1항)
 1. 순천시 본청 및 산하기관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
 3.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등 관련학교
 4.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5.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
 6.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7. 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임산부, 모유수유자 등이 장애인일 경우 필요한 공간 설계 및 구현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영유아의 경우 건강 및 위생 조건, 소음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별표, 규칙 등을 통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모유수유 및 착유 공간은 각종 공공건물, 학교, 사업장 등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유동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이 필요함

개선사항 및 시사점

모유수유 시설의 경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시설 완비 시 인센티브 부여(용적률, 건폐율 등), 각종 지원 사항 등을 조례로 명기할 필요가 있음.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기준 관련해서는 유니버설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조성 조례(1991호, 2019.4.18. 제정)

- 관광진흥법 47조의 3, 47조의 4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 기본이념(2조) 관련 내용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일부 반영함(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차별대우 받지 아니함, 관광약자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 향유)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5조). 1)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관광환경 조성 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등을 제시함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 (별표 1)의 관광 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9조, 같은법 시행령 11조 의 별표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 및 수단
 3. 관광진흥법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의 관광사업
 4.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조의 별표 2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별표 2 기준을 적용
- 관광약자 조례는 순천시의 특성 상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와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기본계획 작성 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과의 연계 요소를 명시하고, 시설 설치, 개선, 운영과 관련된 주무 부서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7조)는 기존의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신설 가능성이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등과 역할이 중복될 위험이 있음
 - 관광환경조성사업(13조)에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음

개선사항 및 시사점

관광약자 조례는 상위 법령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신설 시 핵심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설 설치 기준에 있어서도 참고할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1778호, 2017.09.29.)

-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따름(3조). 5년마다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함
- 공공디자인 심의기준(13조)에 따라 각 시설을 평가하게 되며, 일부 내용이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반영함
 - 1.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 2.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 쾌적하게 이용
 - 3.시의 역사,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
 - 4.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 관리가 쉬울 것

개선사항 및 시사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그 하부 내용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심미성, 사용편의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순천시 UD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변경이 요구됨

2.2 종합 분석 및 방향 설정

-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과 중복도(관련 업무의 유사도, 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가 높은 기존 순천 조례를 순위별로 나열하면 1) 공공디자인진흥조례, 2)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조성 지원 조례, 3)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5) 장애인 편의 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임
- 이들 조례는 기본목적 및 환경 구현 원칙에 있어서 일부 유니버설디자인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 약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 체계로 두고 있어 조문의 중복 및 상충 우려가 있음
-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조성 지원 조례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목적, 지원 방향, 민관 협력 방안 등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우선 순위 확보가 시급할 것임
- 유니버설디자인조례를 신설할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조례의 내용을 준용한다”는 조문을 명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같은 조례이면서도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의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조례로는 1) 건축조례, 2) 도시계획조례임. 이 경우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반영한 심의 기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도입하게 하는 것이 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됨
- 한편 1) 공중화장실, 2) 자전거, 3) 모유수유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개별 시설의 사용편의성, 접근성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설치 기준의 세부 지표들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 기준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별 시설 조례를 통할할 필요가 있음

1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등 타 조례와의 정합성 검토

2 주차장, 자전거, 공중화장실 등 개별 시설의 통합적 기준 설정

3 내용 중복도가 높은 조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우선 순위 조항 설정

4 유니버설디자인 업무 전문화, 효율화 방향 제시

유니버설디자인조례 제정 시 고려 사항

3.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3.1 제정 방향

유니버설디자인조례의 상위법 기준 완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관련된 법률과 ‘건축법’ 등 도시 정비 관련 법률과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연계 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등 전담 조직 근거 마련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용인시 등이 조례를 통해 제시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전담 조직으로 구체화하고, 정책연구, 컨설팅,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실무 작업,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함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와 민간 참여 인센티브 연계

유니버설디자인은 ISO/IEC Guide 71과 같은 지침이 있으나, 표준화된 자체 국제 규격은 없음. ISO는 ICT와 같은 인터랙티브 시스템에 한해 ‘사용자 중심 설계’ 원칙을 제시한 바 있음. 본 조례에서는 각 지자체의 배리어프리인증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사례 등을 참고하고, 이를 민간 참여 인센티브로 연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육성방향 제시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전문 기업의 수가 매우 적고, 순천 시내에도 일반 디자인, 도시재생 등의 사업과 겸업하는 사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을 육성하면서 지원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따라서 여러 기업을 한꺼번에 보육,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



3.2 조례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순천 시민이 공공시설과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 연령, 성별, 신체능력 등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제품, 건축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음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용
2. 모든 사람이 손쉽게 각종 인프라를 이용
3.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제품, 건축물, 서비스 이용 매뉴얼 제정
4.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탑재
5. 모든 사람이 적절한 공간을 향유

제3조(적용범위)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의 영역에 적용된다.

1.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별표' 각호의 검토사항, 순천시 경관조례 별표 1,2(심의, 자문대상) 검토사항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의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교통약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법' 제2조 3호 각목의 여객시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4.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
5.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방호울타리
6.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지정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내 보도와 도로 부속물
7.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 예정인 공공 시설물
8. 각종 정보매체 및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 정보서비스, 시설
9.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집행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3.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위한 방향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우선순위) 다른 조례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한 본 조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예산 편성 및 지원)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과 민간 시설 확산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물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증, 개축 및 신설과 용도변경
2.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및 교육
3.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사업
4. 유니버설디자인과 타 시책과의 연계 사업
5.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확대하기 위한 공론화 및 시민 여론 수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①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자문받을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정비 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민간 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연구,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민간 운영 위탁
 7.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 지정 및 평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업무를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시장은 관광약자 및 관광환경조성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기능을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유니버설디자인인증) ①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물, 도로, 공원 등 개별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이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축물 및 일반 건축물
 4. 소매점 및 음식점
 5. 이, 미용원
 6. 의, 병원

제9조(인증서 획득 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획득한 각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구매 또는 이용 촉진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획득한 기관과 관련된 정부를 수집, 관내 기업,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게 계약 심사 과정의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 ①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무 지원
- 2.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 3.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시설의 운영
- 4.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 5.민간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촉진에 관한 사업
- 6.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1조(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육성) ①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서비스, 건축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유관 사업자의 참여 및 협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산업 협동조합’은 시와 계약할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산하 기관 및 센터, 대학, 연구소, 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협의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론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3.3.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법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하나의 조항 안에 반영하는 개정안임

기존안	개정안
<p>제 2장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p> <p>제 4조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① 순천시장은 법 제 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순천시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 2장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p> <p>제 4조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① 순천시장은 법 제 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순천시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과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4. 공공디자인 진흥 및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존안	개정안
<p>제3장 순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p> <p>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2.법 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사항 3.제 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3장 순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p> <p>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법 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사항 3.제 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 및 유니버설디자인 보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대상을 포함한 조항을 명시함

기존안	개정안
<p>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①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 2억원 이상 2.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매체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3. 공공이미지 4. 공공디자인 정책 및 시책사업(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및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대상) ①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 2억원 이상 2.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매체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3. 공공이미지, 공공디자인 정책 및 시책사업(시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시설의 설치 후 시장과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인준하는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축물 및 일반 건축물 4. 소매점 및 음식점 5. 이, 미용원 6. 의, 병원

4.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담 조직 구성

4.1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도입의 배경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순천시에서 시행된 유니버설디자인 유관 사업은 총 38개 490억 원 규모였음
- 유관 부서는 회계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노인장애인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국가정원운영과, 순천만보존과 등에 산재해 있음
- 과업의 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교통과(19건)로 총 19억 원 규모의 횡단보도 관련 설비 도입을 진행 중임
- 도로과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사업 개념으로 시민로 UD 거리 구축 사업(16억원 규모)을 포함해 25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장함
-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분야는 도심지와 멀리 떨어진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180억원), 신대 유, 청소년 수영장 건립(130억원), 드라마 촬영장 실태 체험장 조성 사업(40억원) 등의 특정 거점 사업임
- 반면에 순천시의 다양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기획, 연구하는 사업 등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UD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임
- 순천시 실무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특화 지식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각종 공공 시설, 민간 시설의 UD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전문가 조직이 절실함
-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9.7%(122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전문가들의 폭넓고 깊은 참여’를 강조했고, 28.3%(87명) 가량이 시민 의견 수렴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에 전문화된 정책 수립, 집행 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시 차원의 독립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별도의 예산 지출이 예상되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인건비 부담을 낮춰 효율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음

도시과	유니버설디자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기본계획,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기획 •시범사업 진행, 제도 구축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 각 부서별 UD 관련 업무 지원 •순천형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을 위한 홍보, 교육(인재양성)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기획 및 평가 결과 산출, 분석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실무 지원

4.2 기존 지자체 도입 사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 서울시는 2018년부터 민간위탁을 기획하고 초기 단계 예산(2019년)으로 13 억원의 투입액을 기획, 2020~2022년 3개년 동안 매년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발표함
- 센터장 1명, 과장 1명, 연구원 3명으로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센터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충원 가능하도록 인사 기준을 설정함
- 센터는 약 330제곱미터 규모의 물리적 공간 안에 사무공간(60제곱미터), 교육실(150제곱미터, 50인 수용), 홍보 및 전시실(120제곱미터)로 구성함
- 법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닌 다양한 이용자의 행태와 특성을 고려한 공간, 건축물 조성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에 따라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적용 가능한 UD가 절실함”을 강조



(출처: 서울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

- 충청남도는 산하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원장 휘하에 정책사업지원단과 충남공공디자인센터를 두고 각 지역별 디자인컨설팅(충남도 15개 시군, 출자, 출연기관 시행 공공사업 자문), 건축, 조경, 도시 및 농촌계획과 시각디자인 지원, 경관디자인 정책연구,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등을 총괄함
- 2009년 2월 ‘충남 공공디자인 클리닉’으로 시작해 같은 해 충남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형태로 개소함
- 충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충남 디자인 인증제(우수시설물) 등을 운영하며 충청남도 건축도시과와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가 협업하는 모델로 구성됨
-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72건의 디자인 컨설팅 수행(공공건축 31건, 공공공간 31건, 공공시설 7건, 공공매체 3건)

- 2019년까지 충청남도 내에서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은 총 115건으로 그 중 행정, 의료, 문화, 노유자 시설 등이 37건임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목표, 설계 및 시공방식, 유지관리방안, 예산 등의 합리적 수립을 유도함



충남 공공디자인 센터의 자문절차 (출처: 충남연구원)

- 센터장 포함 박사급(공학, 디자인학) 인력 4명이 상주하며, 건축, 조경, 도시 및 농촌계획,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분야 30명의 자문위원(대학교수급)이 각종 컨설팅, 사전검토 등을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함
- 순천시가 직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하게 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임

4.3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모델 정립

도시재생지원센터 모델 참고

- 순천시는 2018년 재단법인 순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유사 조직 및 기능 흡수,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함
- 시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할 경우 사업 추진의 신뢰성과 공공성 확보,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이점이 있고, 협업 부서 참여 유도 역시 가능하지만 전문 인력 채용의 한계,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 논란 또한 제기될 수 있음
- 반면에 재단 형태의 지원센터 운영은 자율적, 독립적 민간협력이 강화될 수 있고, 수입구조 다변화, 인력 전문성 확보 등의 이점이 있음. 하지만 초기 조직 구축과 인력 확보 문제, 출연금 확보 문제 등의 어려움이 존재함

민간 위탁 모델 검토

- 특정 분야 사무를 전부 위탁하는 완전위탁, 주무부서가 지정하는 일부 실무에 한해 위탁하는 반위탁(1), UD 연구 및 홍보, 기술 컨설팅 관련된 내용만 위탁하는 반위탁 (2),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반위탁(3)으로 구분 가능함
- 순천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완전위탁과 반위탁(1)의 중간항에 놓인 조직으로 볼 수 있음.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뉴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외부 센터가 해당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기획 및 자원배분 작업,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 조직 등을 통할하는 형식임
- 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38개 사업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재단법인이 출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또는 공공디자인조례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도시과 업무 일부를 위임받거나 지원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임
- 이외의 도로과, 교통과, 노인장애인과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와 자문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지원할 수 있음

	완전위탁	반위탁 1 (주무부서 지정, UD센터)	반위탁 2 (UD연구, 홍보 기술 관련 사업만 위탁)	반위탁 3 (인력 위탁 안)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부서의 업무 중복 및 비효율적 예산 집행 논란의 해소 • 디자인 특화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효과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위탁시 장점과 유사 • 도시과, 도로과, 노인장애인과 등 여러 부서 중 UD 컨트롤타워를 1개 조직으로 지정한 후 UD 센터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홍보 및 연구 관련 사업만 위탁하는 방향 • 행정 업무 전담 조직이 아닌 싱크탱크 형태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 인력만 임용 후 특정 업무를 지정, 위임 •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전문성을 중심으로 위탁 기관 선정할 경우 지역 이해도 등의 이슈 발생 가능 • 법적, 제도적 권한, 공공성 문제 등이 해결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간 이질성이 심한 경우 업무 조정의 적절성 논란 대두 (예: 노인장애인과 관련 UD 업무를 도로과에서 맡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업무의 효과적인 분배, 부담 명분 감소 • 조례 지정을 통한 근거 확보 명분이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이 많은 기관의 지적 자산을 활용하기에는 부적합 • 시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임

5.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체계 도입과 인센티브 제공

5.1 타 지자체의 운영실태 및 평가

진주시 무장애인증제도

- 진주시, 서울시 등이 무장애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편의증진법 15조에 입각해서 탄력적으로 인증 지표를 개발, 운용하고 있음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안내시설 등의 내용은 대동소이한 편임. 서울시의 경우 위급 상황을 대비한 비상전화 등의 설치가 인증지표로 제시됨
- 진주시는 노인장애인과 차원에서 무장애인증을 심사하며 11개의 시설에 우수인증을 교부, 무장애 힐링 산책로, 전동 휠체어 충전소 등을 운영함

평가항목		평가기준
주출입구 접근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입구부터 건물 출입구까지 장애인이 이동가능한 주접근로 설치 •주접근로는 유효 폭 1.5m 이상 확보 •주접근로는 단차 없이 기울기 1/18이하로 설치 •주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는 명확히 분리하여 설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수구 덮개 등의 구멍은 한 방향으로 1cm이하로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는 폭 3.3m 길이 5m 이상하며 휠체어활동공간을 표시함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주차구역에서부터 건물출입구까지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는 보행안전통로 설치 •주차장입구부터 장애인주차구역의 위치는 안내하는 설비 설치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출입구는 높이차이 없이 설치하거나 경사로 설치 시 기울기 1/12 이하로 설치하며 손잡이는 높이 0.85m 내외, 지름 3.2~3.8cm, 양끝 수평부분(길이 30cm이상)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함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출입구 외 모든 출입구 높이차이 없이 설치
출입구(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 폭 0.9m 이상, 단차 없이 설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출입문의 자동문설치
복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 폭 1.5m 이상 설치
승강기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유효 공간(폭 1.6m이상, 길이 1.35m 이상)이 확보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승강기 설치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화장실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화장실은 남·여를 구분하여 설치 •장애인화장실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 •대변기 수평손잡이는 상하회전형으로 설치 •대변기 세정장치는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위치와 구조로 설치 •소변기 손잡이는 일반화장실 내 1개소 이상 설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2m 이상 설치 •장애인화장실의 출입문은 자동문 설치 •장애인화장실의 대변기는 광감지식 세정장치와 등받이 설치 •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세면대 설치 •비상 호출벨 설치
안내데스크 또는 접수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데스크 또는 접수대 등은 휠체어사용자의 사용을 위하여 상단 높이는 0.7~0.9m, 하부공간은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을 확보함
유도 및 안내설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출입구 또는 건물 출입구에 점자를 포함하며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위한 기능(촉지도, 음성 등)을 포함한 안내판 설치 •안내판 등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안내표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음성유도장치 설치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서비스 직원 배치

진주시 무장애인증 평가 영역 및 지표 (출처: 진주시 2019)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 서울관광재단(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 내 6개 관광 특구를 포함한 시가지 전역을 “서울 관광 접근성 편의 시설 개선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출입구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화장실 개선 공사, 장애인 객실 개선 등을 지원함
- 과거에는 서울시가 장애인관광, 무장애관광 등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제공에 주력했으나 최근에는 ‘접근 가능한 관광’ 또는 ‘유니버설 관광’ 등으로 차원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사업목적	•관광 편의시설 접근성을 개선하여 관광 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대상시설	•서울 시내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쇼핑시설, 편의점 등 관광객 이용시설 50개 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공사: 출입구 경사로, 이동시 경사로, 자동문, 화장실, 객실 개선 •공사비: 1개소 당 최대 1천만원(자부담 2% 조건) •공사 후 ‘서울관광재단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 업소’로 지정 •서울관광재단 및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연계 관광시설로 홍보

서울관광재단 유니버설 관광 시설 인증 사업 개요

- 수혜 희망자가 1차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체크리스트에 자기 기입 식으로 내용을 작성해 서울관광재단 측에 송부한 후, 전문가의 현장 평가(1차 평가), 인증 여부가 모호할 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인증하고, 통과한 시설에는 인증서를 발급함. 약 300여 시설에 인증서가 교부됨
- 인증 평가 결과 지표 총합이 70점을 초과할 경우 부여하는 방식임
-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단차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위생시설(장애인 전용 화장실),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 시설(객실, 침실, 접수대, 매표소 등)로 구분함

식음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인증 : 접근로 주출입 단차, 출입문 유효폭 •위생인증 : 화장실의 접근 •주차인증 : 보행접근을 위한 경계석 단차 극복
판매시설	•주출입구 단차와 경사, 출입문 유효폭, 활동공간
숙박시설	•객실, 화장실 설비 및 활동공간, 비상 벨

업종별 유니버설관광시설 인증 평가 지표 (서울관광재단)

401레스토랑 명동점				
1	주소	서울시 중구 중무로2가 7-1, 8층	전화번호	02-773-0401
	조사일시	2019. 11. 13.	조사원	정기훈, 강인욱
필수지표	무단차 접근	단차없고 접근로 유효폭 적합		
	주출입구 접근	단차없고 주출입구 유효폭 적합		
	내부공간	입식 테이블 적합		
선택지표	장애인 화장실	없음		
	장애인 주차장	없음		
인증결과	적합(80점)			
현장사진				

서울 유니버설관광 인증 평가 결과 (401 레스토랑 명동점)



유니버설관광인증마크 (서울관광재단)

- 서울 유니버설 관광 인증을 위한 평가지는 해당 현장에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시설을 기준으로 한 1) 필수지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 집단의 이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절실한 2) 선택지표로 구성. 조사 결과지에는 조사원 및 일시 등을 반드시 명기하게 되어 있음
- 서울관광재단 백서(2019)에 따르면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은 신축 공공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배리어프리(BF) 인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민간 시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됨
- 또한 배리어프리인증의 경우 각 시설마다 기준이 항목별로 상이하여 일률적인 정량 지표 제공이 어려움. 또한 가중치 없이 필수와 선택으로 시설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임. 따라서 상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지표의 재구성이 요구됨
- 여행자들의 경우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유니버설 관광 인증에서는 장애인용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은 선택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5.2 순천시의 특이 사항

순천 관내 무장애 시설의 문제점

- 순천의 경우 2012년 전남도 조례에 기반한 ‘무장애 시설 의무화’ 조치 이래 무장애여행코스가 지속적으로 홍보되어 왔고, 순천만습지-순천만자연생태관-순천드라마 촬영장 등의 열린관광지 형태 장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계속 소개되고 있음
- 하지만 장애인인권포럼(2019)은 순천만습지공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 관광공사 지정 ‘열린관광지’ 4곳과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 등 일반관광지 4곳(총 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 편의성이 떨어지거나”(열린관광지용 팸플릿 부재), “휠체어 이동이 가장 힘든 지역”이라고 평가하였음
- 노인관광객이 많은 낙안읍성은 주요 이동로가 흙길로 되어 있고, 자갈이 많이 섞여 있어 노인, 장애인 혼자 여행하기 어려운 곳으로 드러났고, 낙안읍성 내 휠체어 역시 모두 수동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름. 본 연구진이 3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가로공간의 UD 수준이 취약하다는 응답이 52.1%(120명), 관광지 UD가 취약하다는 응답이 14.7%(45명)에 달했음
- 최근 들어 전통 휠체어 대여소, 습지 스마트 화장실화, 저상매표소, 유니버설디자인 정원 등의 도입을 통해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내용임
-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순천 향동, 순천부읍성 일대 등은 지속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대상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순천시 무장애 맵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9)

장애인 관점의 순천만 관광 코스 불편 사례

(순천만 PRT) “휠체어 장애인은 PRT를 이용하여 문학관역에서 내리더라도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요금은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받는다. 순천만 PRT는 순천 시민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주면서도 이용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할인을 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 야속한 일이다.”

(순천 문학관) “다른 교통편으로 어렵게 들고 돌아서 순천문학관을 방문할 수 있었다. 문학관은 주인공들의 생각을 재현해 놓은 형태의 초가집으로 꾸며진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다. 문인들이 실제 태어난 곳은 아니며 모두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들이다. 그리고 작가들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등 전시물은 모두 건물 내부에 비치되어 있었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는 없었다. 휠체어를 탄 필자는 건물의 외관만 둘러보고 돌아서야 했다. 여기서도 장애인은 또다시 차별을 받는다.”

(출처: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 순천만 스카이큐브(PRT) 및 문학관의 경우 교통약자 접근을 위한 시설 조건을 완비(휠체어 입장 가능한 경사로, 매립형 리프트 등)하지는 못하고 있음
- 순천의 관광코스는 타 지역에 비해 지리적 분포가 넓기 때문에 각 공간 별로 소외된 사용자가 없도록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요구되며, 공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조사팀 등을 가동할 필요가 있음
- 무장애 관광 코스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화장실, 주출입구, 계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함
- 건축, 서비스 디자인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미비, 화장실의 높은 단차 등 불편한 이용자 경험이 언급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절실함



순천 문학관(BF인증시설)의 불편 사례 (출처: 소셜포커스, 2020)

5.3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활성화를 위한 과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의 의무화 및 민간 시설 확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BF) 인증을 민간 시설까지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김명연 의원, 황주홍 의원)에서 발의된 바 있음
- 과거 BF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화재 및 유적 내 부대 시설에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구축 여부를 평가받도록 명문화
- 문화재 시설 내 (단차, 동선 등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화장실, 턱 높기로 인해 이용하기 힘든 매표 시설,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침수되기 쉬운 장애인 주차 시설 등이 핵심 개선 대상으로 지목됨
- 민간 시설주의 경우 공간의 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공정성 논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수수료의 명확한 근거 설정, 인증체계의 공정성 등이 절실함

BF 인증 규제 강화 흐름

- 2012.12 전라남도에서 공공건축물의 BF 인증 의무화 조례 제정
- 2015.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서 ‘전체 공공 건축물’ BF 인증 의무화(공원, 도로, 교통시설, 여객시설 등은 의무대상 미포함)
- 2019.10. 도시공원의 BF 인증 취득을 의무화. 민간건축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은 인증 의무 대상.
- 2019.10 통과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은 인증의무시설이 예비인증도 반드시 취득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5년->10년 연장하는 등 내용 구체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수수료의 현실화 및 규모별 차등 적용

- 2018년 이전의 BF 인증 수수료는 면적에 관계없이 예비 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으로 적시되어 있어 소규모 시설주의 비용 부담이 컸음
- 2018년 8월 개정된 BF 인증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면적에 따라 본인증과 예비 인증 수수료 폭이 조정되어 소규모 시설주의 어려움이 완화됨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수수료의 경우 BF 인증 수수료 체계와 유사하게 면적 별로 차등 구간을 설정하되,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급할 시에는 인증수수료를 초과해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확산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구분		300㎡미만 (제1구간)	300㎡~1,000㎡ (제2구간)	1,000㎡~3,000㎡ (제3구간)	3,000㎡~10,000㎡ (제4구간)	10,000㎡이상 (제5구간)
본인증	기존수수료	4,03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변경 후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인증	기존수수료	2,06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변경 후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3,000	3,090,000

*(기존) 단일체계 수수료: 예비인증 206만 원 / 본인증 403만 원

*(변경) 5구간으로 구분하여 면적별 차등 적용(0.5 - 1.5)

※ 제5구간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 1년간은 1.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시행 1년 후 1.5로 상향 적용

2018년 개정된 BF 인증 수수료 체계 (출처: 연합뉴스, 2018)

인증 심사 규제의 현실적 적용

- 가령 도시공원과 같은 외부공간의 경우 예비인증 단계에서 설계를, 본인증 단계에서 시공을 검토받게 됨. 예비인증과 본인증 심사 과정에서 각각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현실적인 시정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비인증 단계에서 오류 발생 시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본인증은 재시공의 문제가 있음
- 본인증 단계에서 시공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감독, 감리, 시공 관계자의 인증체계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임
- 건축, 도시계획 종사자들의 UD 이해도가 낮은 만큼 간결하고 방향성이 분명한 규제 적용이 요구됨
- 본인증 과정에서 재시공을 요구하는 절차의 경우에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장애인 관련 시설 설치 시 혜택 부여

- 장애인 화장실 설치 면적의 건폐율, 용적률 산정 제외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2017)
-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승강기설치면적을 건폐율,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됨

BF 인증 교부 대상에 대한 제재 문제

- 관련 인증을 취득한 후 시설주의 운영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지자체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함
-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개발을 통해 기존 BF 인증 대상에 대한 장기간 추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SNS나 각종 커뮤니티 상 리뷰 등을 참고 자료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규제 체계의 표준화

- 일반 건축물의 경우 보건복지부(장애인 등의 편의 지원법), 도로 및 교통의 경우 국토교통부(교통약자지원법)가 전담하고 있어 사안에 따른 규제 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함

유니버설디자인 인증만의 차별화가 필요

- BF인증의 경우 대형 건축주들은 인센티브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상당수 있음. 다른 인증을 취득해도 혜택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들어 소규모 시설은 인증 수수료를 경감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 해결 노력이 모색되고 있음
- UD 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건축인증, 장수명주택인증 등과 같이 건축 기준완화, 세제 혜택의 이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번호	인증제도	법적 근거	혜택
1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6조	•건축기준완화(9~3%), 용적률 등 •세제혜택 : 에너지효율등급과 동시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15~5%), 재산세(10%~3%)
2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7조	•건축기준완화(9~3%), 용적률
3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7조	•건축기준완화(15~11%), 용적률
4	장수명주택인증	주택법 38조	•건축기준완화(100분의 115미만 범위), 용적률, 건폐율

타 인증 체계의 법적 근거와 혜택

5.4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체계 개발

기존 BF 인증의 내용적 문제점

평가 방식의 문제

- 기존의 BF 인증은 특정항목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도 다른 항목에서 배점을 많이 받으면 최종합산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 또는 최우수등급까지 받을 수 있어 잠재적인 문제가 있음(연합뉴스, 2019)
- BF 인증은 94개 항목에 근거해 각 부문의 점수를 합산(총점 288점). 100점 환산 점수가 70점을 넘으면 인증, 80점을 넘으면 우수등급, 90점을 넘으면 최우수등급임
- BF 인증 교부시설임에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비 등이 미비할 수 있음
- 절대평가 위주의 정량적 평가는 실제 사용자의 관심사나 경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설비나 장치 보유 여부로만 평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애매한 배점 기준

- BF 인증 통과를 위한 채점표 항목은 2~3개로 나뉘어져 있고,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면 3점, 그 다음이 2.4점, 최저 기준만 만족시키면 2.1점을 부과하는 방식임(SBS, 2019)
-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옆에 있어야 하는 손잡이가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일 경우 '최우수', 세면대가 대변기 사용에 방해되지 않을 경우 '최우수'라는 식으로 자의적 평가 지표 를 구성함

기존 BF 인증의 맹점 관련 사례

"장애인 이용불편한데 BF인증 받으면 뭐하나"...신축건물도 허술 (연합뉴스, 2019.04.20)

“수원시가 건립한 수원컨벤션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연구원으로부터 2017년 8월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주어지는 BF예비인증 우수등급을 받았다. 현재 본인증을 받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장애인 등 보행 약자에 대한 장벽을 없앤 BF 예비인증 시설인데도 장애인이 실제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종태씨가 개관 이후인 지난 1일 수원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해보니 BF 인증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큰 장벽이 많았다.

지상 1층 주 출입구 출입문은 여닫이 6개가 설치됐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터치식 자동문이 한 곳도 없었다. 외부 열린마당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바닥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았고, 남녀장애인 화장실 세면대의 경우 가로막이 설치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세면대에 접근하는 데 불편을 줬다. 이처럼 장애인 이용에 불편을 주는 시설이 어떻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BF 인증은 내부·위생·안내시설 등 7개 항목에서 평가를 받아 288점 만점에 100점 환산점수가 70점 이상은 일반 등급, 80점 이상은 우수등급, 90점 이상은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다.

특정항목에서 점수를 적게 받아도 다른 항목에서 배점을 많이 받으면 최종 합산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 또는 최우수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BF 인증제의 맹점이라고 박종태씨는 지적한다.“

기존 BF 인증 대비 인증 평가 절차의 개선

평가 점수와 실제 시설의 서비스 품질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함께 취득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시설주가 약 2년에 걸쳐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컨설팅 기관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시공 전에 각 시설의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미비 사항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에서 예비인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은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이후 시공계를 시에 제출하여 공사에 착수해야 함

본인증 단계에서는 현장심사를 거쳐 요건을 검토하고, 경미한 미비점 또는 지역의 한계성(예 : 도시재생지역)으로 인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쳐 본인증서 교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시설주가 약 2년에 걸쳐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시민디자인참여단이 본인증 단계에 참여하여 각 시설의 이용 경험을 진솔하게 함으로써 기계적 정량 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함
-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평가와 시민디자인참여단의 평가내용을 합하여 본인증서 교부 여부를 정하도록 조정함



순천형 예비인증 및 본인증 절차 개선 방향

가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체계

가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지표

영역	항목	내용	적합	부적합	최종의견
보행공간	폭	보행로는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2.0m)이상을 확보			
	유효높이	장애물이 없는 유효 높이를 확보(2.1m)			
	단차	보행 이동 동선 상에 단차가 없음(0cm)			
	기울기	진행방향으로 종횡단 기울기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음			
		진행방향으로 횡단기울기가 발생하는 구간이 없음			
		진행방향으로 종단기울기가 발생하는 구간이 없음			
	마감	마감재 포장 이음새 틈이 없이 잘 시공됨. 보행안전구역은 마감재 명도, 질감 등으로 구분			
배수	보행안전구역 내 배수구 덮개 틈새로 인해 불편이 야기되지 않음				
차량 진입구	대지 내 주차장 진입구	차량진입구역을 알기 쉽게 재료나 마감 처리			
	보행안전구역 내 경사가 없음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진입부는 턱낮춤으로 설계가 되어 있음			
		횡단거리가 긴 횡단보도는 차도와 같은 높이의 교통섬 조성			
대지 내 공지	건축물 전면부	건축물 전면부가 보행로와 연속적이고 평탄하게 설계			
	공개공지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보행로 단차가 적정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안전 구역이 구분됨			
	겸용도로	보행자와 자전거 상충이 없도록 노면표시, 안전표지, 마감재 등 설계			
	이용 편의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비 구축			
시설물 구역	공통	보형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이 설정됨			
		보도 녹지대는 보행안전 구역을 침범치 않음			
	안내시설	길찾기 정보는 알맞은 위치에 쉽게 표기됨			
	우회정보	급경사로, 계단 등 이용하기 어려운 동선에는 우회정보 안내 제공			
	버스 정류장	휠체어, 유모차 사용자를 위한 시설 완비 다양한 언어와 이용자 수준을고려한 정보 제공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정류장 위치			

공원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체계

공원공간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지표

영역	항목	내용	적합	부적합	최종의견
보행공간	접근로	대중교통, 근린시설과의 단거리 동선이 확보			
		공원 입구 위치를 알기 쉬움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를 위한 평탄한 접근로 구성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			
		바닥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점자 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			
		별도의 보형장애물이 없음			
주출입구	출입구	출입구 유효폭, 마감재, 형태 등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게 설계			
		공원 편의시설과 산책로 정보의 알기 쉬운 제공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평탄한 출입구			
진입공간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알기 쉽게 안내 및 유도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 통로			
이동공간	산책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완비			
		보행안전구역의 바닥재질, 색상 등에 차이를 둠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고, 공원 시설과 연결			
위생공간	화장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이 1개소 이상 구비			
		이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설비가 있는 대변기 부스 설치됨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			
편의공간	편의시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출입구 편리함			
		음성 안내, 휠체어, 유모차 등을 위한 장비 지원			
		다국어 안내 시스템 완비			
		방문자 센터, 매점 등 누구나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안내시설	안내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림, 서체 등을 잘 활용			
		안내 정보가 사용자에 맞춤형된 우회정보, 다국어 지원 가능			
안내 정보 위치가 적정함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체계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지표 1

영역	항목	내용	적합	부적합	최종의견
접근공간	대지 출입구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움			
		인접도로와 보행접근로 경계 부위가 단차없이 마감			
		시설 안내 표지판을 인식하기 쉬움			
	보행 접근로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마감			
		보행 접근로는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구분됨			
		중단 기울기와 횡단 기울기가 적정함			
		주요 보행 접근로는 휠체어, 유모차 등 2명 이상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계			
		패턴, 색채, 재질 등이 포착하기 쉬움			
		보행 접근로를 가로지르는 배수구가 없음			
		보행 접근로 인근에 위험시설(공장 등)이 없음			
진입공간	주출입구	인지하기 쉬운 위치			
		보행접근로-주출입구 연결 부위는 계단, 경사도가 없음			
		접근, 이동이 편리한 자동문이 완비되어 있음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1.5m 이상이 확보되어 있음			
	로비	접수대, 안내데스크는 다양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편리함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등에 접근하기 쉬움			
이동공간	복도	휠체어, 유모차가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유효폭 1.5m 이상 확보			
		소화기, 안내사인 등 벽면 및 천장에 보행에 지장 주는 장애물이 없음			
		각 실의 출입문 주변이나 특정 공간은 바닥마감재 패턴 차별화			
		복도는 방향 전환이 적고 간결하며 동선이 분명함			
		점자블록, 바닥패턴, 손잡이, 요청, 음성, 신호 복수정보제공			
	계단	경사도에 인접하여 계단이 병행 설치되어 있음			
		계단의 형태는 직선 또는 꺾임형으로 되어 있음			
		계단 측면에는 2단 손잡이가 연속적으로 설치됨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발,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철퍽면 설치			
		디딤판, 철퍽면, 계단코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포장재 차별화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지표 2

영역	항목	내용	적합	부적합	최종의견
이동공간	엘리베이터	저층 건물일지라도 층 규모와 관계없이 엘리베이터 설치			
		승강 로비는 주출입구에 인지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			
		조작 설비는 누구나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음			
		승강 로비, 승강기 내부에 층별 안내를 제공하고 있음			
		비상 시 연락 방법 등과 관련된 안내가 되어 있음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이 다른 사용자와 함께 이용하기 쉬움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끝 부분을 인지하기 쉬운 색상, 재료 등으로 설치			
		에스컬레이터 양 끝 부분에는 진입 가능 여부 표시, 음성안내 등으로 시각장애인 배려			
		가까운 거리에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지원			
	방재, 피난시설	재난 시 도로, 공지 등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 안내하고 있음			
		피난구의 위치가 각 공간에서 접근하기 쉬우며, 방화 및 방연 구역이 적절히 설치됨			
	위생공간	화장실	자연채광과 자연 환기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음		
청결한 느낌의 마감재 사용과 실내 전체의 조화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 설치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					
대변기 부스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5m 이상, 깊이 2m 이상을 확보. 출입문 유효폭은 1.3m 이상					
다목적 화장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1.0m 이상을 확보, 자동문			
		유효바닥면적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을 확보			
		휠체어 이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표지 설치			
		비상벨을 구비하여 위급 사항(구급, 화재 등) 알림이 가능			
		비데, 세변기, 소변기 등과 안전손잡이, 영유아거치대, 기저귀 교환대를 구비			
		시각장애인도 접근 가능하도록 여유있는 동선 설계			

일반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체계

일반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지표 1

영역	항목	내용	적합	부적합	최종의견
접근공간	대지 출입구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움			
		인접도로와 보행접근로 경계 부위가 단차없이 마감			
		시설 안내 표지판을 인식하기 쉬움			
	보행 접근로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마감			
		보행 접근로는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구분됨			
		중단 기울기와 횡단 기울기가 적정함			
		주요 보행 접근로는 휠체어, 유모차 등 2명 이상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계			
		패턴, 색채, 재질 등이 포착하기 쉬움			
		보행 접근로를 가로지르는 배수로가 없음			
		보행 접근로 인근에 위험시설(공장 등)이 없음			
진입공간	주출입구	인지하기 쉬운 위치			
		보행접근로-주출입구 연결 부위는 계단, 경사로가 없음			
		접근, 이동이 편리한 자동문이 완비되어 있음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1.5m 이상이 확보되어 있음			
	로비	접수대, 안내데스크는 다양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편리함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등에 접근하기 쉬움			
이동공간	복도	휠체어, 유모차가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유효폭 1.5m 이상 확보			
		소화기, 안내사인 등 벽면 및 천장에 보행에 지장 주는 장애물이 없음			
		각 실의 출입문 주변이나 특정 공간은 바닥마감재 패턴 차별화			
		복도는 방향 전환이 적고 간결하며 동선이 분명함			
		점자블록, 바닥패턴, 손잡이, 요청, 음성, 신호 복수정보제공			
	계단	경사도에 인접하여 계단이 병행 설치되어 있음			
		계단의 형태는 직선 또는 꺾임형으로 되어 있음			
		계단 측면에는 2단 손잡이가 연속적으로 설치됨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발,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철퍽면 설치			
		디딤판, 철퍽면, 계단코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포장재 차별화			

일반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지표 2

영역	항목	내용	적합	부적합	최종의견
이동공간	엘리베이터	저층 건물일지라도 층 규모와 관계없이 엘리베이터 설치			
		승강 로비는 주출입구에 인지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			
		조작 설비는 누구나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음			
		승강 로비, 승강기 내부에 층별 안내를 제공하고 있음			
		비상 시 연락 방법 등과 관련된 안내가 되어 있음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이 다른 사용자와 함께 이용하기 쉬움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끝 부분을 인지하기 쉬운 색상, 재료 등으로 설치			
		에스컬레이터 양 끝 부분에는 진입 가능 여부 표시, 음성안내 등으로 시각장애인 배려			
		가까운 거리에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지원			
	방재, 피난시설	재난 시 도로, 공지 등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 안내하고 있음			
		피난구의 위치가 각 공간에서 접근하기 쉬우며, 방화 및 방연 구역이 적절히 설치됨			
	위생공간	화장실	자연채광과 자연 환기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음		
청결한 느낌의 마감재 사용과 실내 전체의 조화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 설치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					
대변기 부스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5m 이상, 깊이 2m 이상을 확보. 출입문 유효폭은 1.3m 이상					
다목적 화장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1.0m 이상을 확보, 자동문			
		유효바닥면적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을 확보			
		휠체어 이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표지 설치			
		비상벨을 구비하여 위급 사항(구급, 화재 등) 알림이 가능			
		비데, 세변기, 소변기 등과 안전손잡이, 영유아거치대, 기저귀 교환대를 구비			
		시각장애인도 접근 가능하도록 여유있는 동선 설계			

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략 방향

1.1. 전략 방향 및 함의

유니버설디자인 기획, 제작 인력 교육

유니버설디자인은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법률 등 융복합적 속성이 강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의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표준 교육과정이 부족하여 현장 지향형 지식의 배양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대학, 성인교육, 기업교육 차원에서 순천형 UD 교육 기반 구현이 절실함

주민참여형 UD 네트워크 구축

도농복합적 속성이 강하고 다양한 권역별로 나뉘어 저 있는 순천 특성상 지역 차별성을 고려한 UD 정책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절실함. 따라서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전략 등과의 효과적 연계가 요구됨

순천형 유니버설 관광 홍보 플랫폼 구축

전국 규모의 순천형 유니버설 관광 홍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연계한 UD 홍보 콘텐츠를 구축해야 함

유니버설디자인 거버넌스 내실화

다양한 부서의 기능과 분야가 연계되어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속성을 감안해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관련 사무 및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일선 부서의 실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거버넌스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구분	전략방향	전략적 함의
인재육성	유니버설디자인 기획, 제작인력 교육 미래선도형 융복합 교육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버설 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완비 대학(원) 이외의 성인교육 기반 UD 지식공유체제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법률 등 다학제 교육
주민참여	주민참여형 UD 네트워크 구축 현장 수요 기반의 UD 실행 체계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차원의 UD 커뮤니티 조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프로그램과의 연계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시민참여단
홍보소통	순천형 유니버설 관광 홍보 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채널 기반 UD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튜브, SNS 등을 기반으로 한 순천형 유니버설관광 콘텐츠 홍보 정원박람회 등 세계적 이벤트와 연계한 유니버설 관광 콘텐츠 홍보
전략정책	유니버설디자인 거버넌스 내실화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중심의 거버넌스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UD 정책 수립 및 실행 전담기관과 일선부서 협업 대규모 자문단(교수, 산업전문가) 연계를 통한 UD 정책의 과학화, 합리화 디자인 기획, 제작사 등을 UD 산업 종사자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전략 방향

2. 전략방향 별 추진 과제

2.1. 유니버설디자인 기획, 제작 인력 교육

추진과제 1 : 유니버설디자인 멘토링 프로그램 구축

추진 배경

‘모두가 편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제작, 기획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건축, 조경, 일반 디자인 등 타 분야 종사자 또한 UD에 대한 지적 이해를 갖춰야 함

필요성

2019년부터 일반 공공 건축물 이외에 민간 시설주가 짓는 공공 시설에 대해서도 BF 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다양한 공간에 대한 이해, 접근성 강화 전략에 대한 숙지가 요구됨

개요

순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관심있는 전공 대학(원)생, 건축, 도시계획 및 디자인 분야 종사자 등이 UD 컨설턴트와 직접 소통을 가능케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함

세부과제(안)

유니버설 디자인 멘토링 프로그램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입문자와 순천시가 위촉한 (가칭)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자문단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매칭을 통해 자유로운 상담과 지식 공유가 가능한 환경 구현
- 유니버설디자인 멘토-멘티 간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Networking Day 정례화
- UD 컨설턴트는 1) 디자인, 2) 건축, 3) 서비스 기획의 3개 분야로 구성하여 각 부문별로 현장에서 소요되는 실무 지식에 대해 자유롭게 공유
- 멘토-멘티 간의 관심사 및 현장 수요가 일치할 경우 취업 연계 등으로도 지원하여 고용 생태계 증진에 기여

추진과제 2 :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연수생 프로그램 지원

추진 배경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실내(외) 건축에 대한 기술적 이해 못지않게 공공성,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현장 소통 능력 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학 이외의 현장에서 체험 기반의 능력 습득이 요구됨

필요성

실제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등에서 인턴, 파견직, 계약직 등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스킬셋(skillset)을 함양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관련 분야 창업을 고민하는 인재에게 효과적으로 진로를 안내해야 함

개요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진출 희망 인재가 전남, 광주, 서울 등의 지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획, 제작을 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 제작사, 연구소(컨설팅) 등의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세부과제(안)

유니버설 디자인 산업 연수생 프로그램 지원

- 순천 관내에 거주하는 UD 분야 진출 희망 인재가 산업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전남, 광주, 서울 소재 전문 기업의 인턴, 계약직 취업을 지원
- 산업 연수 현장은 디자인 기획사, 제작사, 컨설팅회사, 연구소 등으로 다변화하여 지원할 수 있음
- UD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인재가 사전에 주요 기관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

추진과제 3 : 순천형 서비스디자인 스킴 구축

추진 배경

유니버설디자인은 물리적인 공간과 제품뿐만 아니라 정보전달체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차별없는 접근과 이용을 권장하는 분야임. 특히 공공 서비스와 콘텐츠 전달 체계의 접근성 강화가 UD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함

필요성

순천만, 순천부읍성 등 무장애인증 받은 공간들 중 몇몇 장소는 실제 장애인, 노약자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포착되었으며, 이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에 접근하기 전에 경험하는 보행로, 안내표지, 안내소 등 다양한 형태의 장소와 서비스를 분석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순천시민,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도시 인프라를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 전략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절실함

- * 서비스디자인은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키는 분야

개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홍익대 디자인학부 등 물리적 공간-제품 디자인과 비가시적 서비스 디자인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기관과 순천시의 협업을 바탕으로 관내 수요자의 지식 습득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촉진함

세부과제(안)**순천형 서비스디자인 스쿨 구축**

-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 정착을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 구현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의 개선 또한 절실함
- 영국의 경우 엔진(engine), 라이브워크(Livework) 등의 서비스디자인 컨설턴시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주도해 왔으며, 콘월 주의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인프라 개선, Design of The Time(2007) 등의 프로젝트를 주도함
- Design of The Time 프로젝트는 교육, 교통, 에너지, 고령화 등 기존 디자인 영역에 서 잘 다루지 않았던 사회문제해결(societal problem solving) 디자인의 효시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음
- 국내 서비스디자인 교육과정은 정착된 서울대 디자인학부, 홍익대 디자인학부, 국민대 디자인학부 등과 순천시의 협업을 통해 관내 각종 공공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주민참여형 플랫폼으로 승화

추진과제 4 : 다학제 기반의 순천 유니버설 디자인 워킹그룹 구축**추진 배경**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도시 디자인 문제와 사회 현안에 대해 융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건축, 디자인, 정책(경제, 사회학, 도시계획학), 인문학 등 제 분야 전문가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해결 방향을 모색함

필요성

유니버설디자인은 당국, 공급자(시설주, 건설업체, 디자인업체, 인테리어 업체), 사용자(시민, 여행객) 등 다중이해관계자(multiple stakeholder)의 경험을 고려해 구현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학제적 지식 공유와 정책 아이디어 토의가 절실함

개요

순천시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유니버설디자인자문위원회와 건축(도시), 디자인, 정책, 인문학 분야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순천의 공간, 서비스 디자인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함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다이브(Design Dive)라는 서비스디자인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10년 후 나타날게 될 변화(2010년 기준)를 구상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론으로 시나리오를 전개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가동함

세부과제(안)**다학제 기반의 순천형 유니버설 디자인 워킹 그룹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건축, 디자인, 정책, 인문학) 전문 연구자, 기획자 등을 워킹그룹으로 결성,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
- 유니버설 디자인 워킹그룹 참여자는 순천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각 시설의 인증 및 사용자 경험 평가 등에 기여
- 워킹그룹 참여자에게는 소규모 실험용 과제를 통한 협업 등 지원

추진과제 5 : 유니버설 디자인 아카데미

추진 배경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입문자와 일반 시민들을 위한 건축, 디자인, 기획 등의 강의를 통해 순천 내 각 커뮤니티의 UD 마인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필요성

관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의 UD 정책 참여와 협조를 위하여 개방형 아카데미 형태로 개설해야 함

개요

순천시 경관위원(건축, 디자인 분야), 디자인 컨설턴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UD 시설 건축주 중 창업, 사업 경험자 등을 초청해 경험을 공유하고자 함

세부과제(안)

유니버설디자인 아카데미

-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입문자, 진로 탐색 또는 취업 희망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UD 제 분야의 이론과 현장 사례를 알기 쉬운 강의로 공유
-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일반에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추진과제 6 : AI 및 빅데이터 기반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구축

추진 배경

스마트 도시가 중요한 도시의 트렌드가 됨에 따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각종 정보기술을 활용한 UD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

필요성

공공정보매체, ICT 인프라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적용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 사용성평가, 디자인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할 필요

개요

순천시 내 공공 ICT 인프라(정보매체, 표지판 등)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UD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

세부과제(안)

AI 및 빅데이터 기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구축

-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도시의 확산 추세에 따라 도시의 ICT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 공공정보매체의 UX 디자인, 민간 ICT 도시 서비스의 효용 평가와 관련된 내용 등을 교육
- AI,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시스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2.2. 주민참여형 유니버설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추진과제 1 : 사회문제해결형 디자인을 위한 시민회의 운영

추진 배경

시민들의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가로 등 이용경험과 의견을 폭넓고 깊게 취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소통 창구를 개발해야 함

필요성

유니버설디자인을 사회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재조명하고, 도시 경관의 안전성, 유용성, 쾌적성을 배양하는 정책과 함께 순천 시내의 다양한 현안을 시민과 함께 디자인적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공론화 기구를 결성해야 함

개요

순천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사회문제해결형 디자인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하고 UD 인증 평가 및 각종 시설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는 한편, 정책제안 창구로 활용함

세부과제(안)

사회문제해결형 디자인을 위한 시민회의 운영

- 순천시민들의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가로 등의 이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의 경우 정책제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 구성
- 순천 시내의 다양한 현안들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시민 주도로 풀어 갈 수 있는 방향을 적극 타진, 상향식 정책 수립과 실행의 창구로 활용
- 각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평가, 사후 평가 과정에 시민참여단 구성원이 참가하여 전문가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장려
- 영국의 엔진, 미국의 IDEO 등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어 도출 기법, 공유 기법을 공론화절차에 활용해 각 인프라의 프로토타입(prototype) 차원까지 구체화된 대안 모색

추진과제 2 : 유니버설디자인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 구축

추진 배경

순천에 정착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주민이 직접 UD 관련 아이디어를 제기하고 읍,면,동 공무원이 구체적인 행정 조치로 응답하는 체제를 구현함

필요성

BF 인증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공간,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낙후 공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UD 관련 현안을 회부하도록 안내, 장려할 필요성이

대두됨

개요

순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제기된 각종 인프라 개선 제안 중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행정 조치를 지원함

세부과제(안)

유니버설디자인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 구축

- 순천에는 이미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가동 중이며 주민 총회를 통해 주요 시설 개선 등을 의결하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신청된 관련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추진과제 3 : 읍면동 주민자치회 내 UD 전담 인원 양성

추진 배경

각 지역의 자치단위인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참여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구축함

필요성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창구이며, 커뮤니티 내 영향력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유니버설디자인 마인드가 순천시의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개요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를 포함시키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분과에 UD 부문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

세부과제(안)

읍면동 주민자치회 내 UD 전담인원 양성

-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현안을 도출하는 데 가장 밀접한 채널로 기능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 사전 교육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를 포함시키는 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분과에 UD 부문을 추가하고, 현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추진과제 4 : 유니버설디자인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

추진 배경

마을공동체 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UD 소그룹 결성을 지원함

필요성

지역 자생 조직 차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내고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현하는 소그룹을 육성,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개요

각 읍면동 별로 유니버설디자인 기획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5~10인 이상의 단체를 발굴하고 UD 기반 공동체 활성화, 마을가꾸기 트랙으로 나누어 지원함

세부과제(안)

유니버설디자인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

- 각 읍면동 별로 유니버설 디자인 기획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5~10인 이상의 자생단체에서 공모를 받아 1) UD 기반 공동체 활성화, 2) 마을가꾸기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1개 단체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지역의 역량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학습공동체, 대안학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커뮤니티 인프라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

추진과제 5 : 시니어특화제품 기획, 디자인(제작) 지원 사업

추진 배경

시니어 시장의 확대는 유니버설디자인 분야의 기회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필요성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제품 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해 전문 스타트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지원. 민간 차원의 기획력 및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흥 사업

개요

순천시 소재(또는 순천시민을 참여시킨) 벤처가 시니어 특화제품을 기획, 제작할 경우 전문가 컨설팅 및 금융 등을 지원

세부과제(안)

시니어특화제품 기획, 제작 지원사업

- 시니어를 겨냥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기기 등을 기획, 제작하는 순천 소재(또는 순천 시민이 참여하는) 스타트업을 지원
- 컨설팅 지원 및 금융 지원을 통한 초기 성장 환경 조성

추진과제 6 : 유니버설디자인 공동주택 및 요양시설 테스트베드사업

추진 배경

공공시설, 상업시설 이외에 공동주택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상호의존성이 높은 일상 공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정착시킬 필요성 대두

필요성

순천의 경우 케어안심주택, 치매지원센터 등 시니어 계층을 겨냥한 거주, 관리 시설 등의 정책이 기획되고 있으나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공간 구현 측면에서는 미진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개요

순천시 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반영된 공동주택과 요양시설(치매지원센터, 케어팜 등)을 직접 기획하고 시공 과정에서 UD 주요 항목을 반영

세부과제(안)

유니버설디자인 공동주택 및 요양시설 테스트베드 사업

- 순천시 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시니어 특화 공동 주택과 요양시설을 각각 1개소씩 선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지원하는 방식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가 정착된 이후 가장 우수한 시설을 테스트베드화하는 방안, 신규 건축하는 방안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

2.3. 순천형 유니버설관광 홍보 플랫폼 구축

추진과제 1 : 유튜브 기반의 순천형 유니버설관광 콘텐츠 공급

추진 배경

2030 세대를 넘어 전 세대로 사용자층이 확장된 플랫폼인 유튜브를 이용해 순천만, 순천부읍성, 선암사 등과 같은 자연관광, 역사문화관광 지역의 유니버설 관광 스토리텔링을 적극 개발

필요성

각종 언론과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바리어프리 인증 관광명소의 문제점, 순천시내 주요 관광 장소의 미비점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선제적인 방식으로 유니버설 관광 콘텐츠를 홍보할 필요

개요

유튜브를 통해 순천 내 주요 장소별 유니버설 관광 코스를 여정 지도(journey map) 방식으로 홍보하고, 보다 편리하게 전 계층의 관광객이 순천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세부과제(안)

유튜브 기반의 순천형 유니버설관광 콘텐츠 공급

- 순천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관내 각 지역, 장소별 유니버설 관광 콘텐츠 유포
-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유튜버, BJ)와의 협업을 통해 순천의 주요 관광지 인지도 제고
-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관련 콘텐츠를 One Source Multi-Use 방식으로 가공, 유포

추진과제 2 : 순천형 유니버설 관광 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배경

순천을 유니버설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폭넓은 이용자층을 겨냥한 사용자 경험 조사 및 데이터 관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됨

필요성

순천시민들의 주요 장소별 경험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의 경험과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 설계를 위해 SNS(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각종 커뮤니티)의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추적 조사와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개요

순천형 유니버설 관광 콘텐츠를 기획, 구현하기 위한 마케팅 조사 플랫폼의 일환으로 효율적으로 실시간 오피니언 마이닝이 가능한 플랫폼 개발

세부과제(안)

순천형 유니버설관광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실시간 SNS 자료 수집과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마이닝 기능 구현
- 데이터 시각화 및 리포팅을 위한 기반 SW 조성
- 순천 관내, 인근 지역(전남 동부권) 연계 관광 스토리텔링 발굴을 위한 조사시스템구축

추진과제 3 : 기본 문화 향수권 제고를 위한 유니버설관광 바우처 지급

추진 배경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 관광 약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순천의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필요성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관광 접근성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관광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해야 함

개요

소득증빙서류상 연 소득 금액이 3,360만원 미만인 노동자이면서 관광약자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유니버설관광 바우처를 지급. 첫째 500명 지원 규모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함

세부과제(안)

기본문화향수권 제고를 위한 유니버설관광 바우처 지급

- 순천시와 관내 거주 노동자가 함께 시내 여행상품 온라인 물 적립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여가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
- 서울시 유니버설관광바우처의 경우 참여 노동자(인당 연간 15만원, 서울시 25만원)의 할당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순천은 시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관광공사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모델(인당 총 40만원 규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개인 20만원)

추진과제 4 : 유니버설 관광 박람회의 시행 및 정례화

추진 배경

순천은 배리어프리 관광과 열린관광이 가능한 지역으로 평판이 높은 도시임. 따라서 포용력 있는 유니버설 관광 트렌드를 선도해 가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제정원박람회 등과 연계한 유니버설관광박람회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필요성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순천의 위상에 걸맞는 유니버설 관광 인프라 재정비, 지속적인 시설 고도화 차원에서 유니버설 관광 박람회를 개최하고, 관내 전략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

개요

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하여 큰 규모의 순천 유치 행사 시 유니버설 관광 박람회를 겸하여 개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장착된 시설과 제품, 서비스 등을 선보일 기회를 마련함

세부과제(안)

유니버설 관광 박람회의 시행 및 정례화

- 순천을 전국적 규모의 유니버설 관광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시키고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UD 관광박람회 개최
- 준비 과정에서 순천의 도시 인프라를 국제적 UD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정원, 음성 등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과 함께 홍보

2.4. 유니버설디자인 거버넌스 내실화

추진과제 1 :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의 업무 정립

추진 배경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특화성이 강한 업무에 대해서 순천시는 관내 재단법인의 형태로 분리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은 실무 부서와 유연한 협력을 통해 업무 시너지를 내고 있음.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의 경우에도 별도의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절실함

필요성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컨설팅 및 사업발굴, 교육과 홍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 대두. 유니버설디자인 산업화를 위한 각종 민관 협력 사업의 창의적 기획이 요구됨

개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순천 내) 모니터링 및 평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실무 전담, 전시 및 선도사업 발굴,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기획 및 홍보 전략 수립과 실행

세부과제(안)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업무 정립

- 순천시 경관계획과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설계
- 각종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 민간 단체의 컨설팅과 사업 발굴
- 국제적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 공공 재단법인 또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추진과제 2 : 시설주 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배경

기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그 대상이 공공건축물과 인프라에 한정되어 있어 카페, 식당, 숙박업소 등 민간 시설의 채택률이 낮은 편임. 따라서 민간 차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요구됨

필요성

관광도시 순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상업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수용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용적률, 건폐율, 세제 혜택 등을 명시화

개요

시세 감면 조례를 통한 세제혜택, 용적률 및 건폐율 계산 시 장애인전용화장실 등의 제외 허용, 인증수수료 및 개축비 지원

세부과제(안)

시설주 재정지원 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형태로 기존 시설 및 주택 개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공공 건축 이외의 민간 건축물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장려
- 용적률, 건폐율의 현실적 완화, 시세조례 개정을 통한 세제 혜택 부과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수수료 지원 및 개축 비용 지원

추진과제 3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교육센터

추진 배경

다양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시설을 직접 순천시민이 사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개념의 체험교육센터를 구축

필요성

본 연구진의 설문조사 결과 29.5%(226명)의 응답자가 대중교통제품(앱 개발, 정류장 사인 등)의 UD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시민들의 UD 의식 개선을 위해서도 실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39.8%(297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예비 UD 경험을 촉진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절실함

개요

유니버설디자인 주택체험, 휠체어 체험, 일상용품 체험 등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도시 내 경험 속성에 대해 이해하고 순천시민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공간 구축

세부과제(안)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교육센터

- 유니버설디자인을 채택한 (공동, 단독)주택, 휠체어 착용 체험, UD 제품(대중교통, 일상용품, 의료용품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형태의 공간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과 함께 이론강의, 아카데미 등이 가능한 실습 공간 구축

추진과제 4 : 유니버설디자인 학교 지원 네트워크

추진 배경

장애, 연령, 체격, 능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프라의 비전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순천 관내에서도 초, 중등학교를 위주로 유니버설디자인 시설의 실제 경험이 가능하도록 집중 투자 및 지원

필요성

안전과 환경 쾌적성에 가장 민감한 10대가 밀집되어 있는 초,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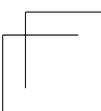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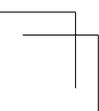
개요

각 공간별 출입문, 계단, 교내식당, 사무공간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고 학생들과 함께 참여형 아이디어를 도출

세부과제(안)

유니버설디자인 학교 지원 네트워크

- 학교 내 공간별 이용경험에 대한 교사-학생의 지속적 소통을 통한 평가, 모니터링
- 참여형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학교 공간의 개선 방향을 공유
- ‘안전한 학교, 쾌적한 학교’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10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순천시의 정책적 상(象)을 정착



참고자료

국내 문헌 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8
- 경기도 디자인 총괄추진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11
- 경기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경기도, 2020
- 경상남도,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경상남도, 2019
- 고영준,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방법과 사례, 이담Books, 2011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광주광역시, 2019
- 국토해양부,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 매뉴얼, 국토해양부, 2008
- 국토교통부,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
- 김인순 외, 유니버설디자인 안내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재)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 김태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유명산 자연휴양림 개선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2017
- 나카가와 사토시, 유니버설디자인,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디자인 로커스, 2006
- 나카가와 사토시, 유니버설디자인 메뉴얼,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디자인 로커스, 2005
- 대전광역시, 2025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대전광역시, 2017
- 류상오 외,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개선 방향 연구, (재)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 문화재청,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문화재청, 2012
- 문화재청,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문화재청, 2010
- 문화재청, 민속마을 공공디자인 개발 연구, 문화재청, 2011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17
- 미호시 아키히로 외, 공생의 유니버설디자인, 미세움, 2017
-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9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부산광역시, 2017
- 서울관광재단, 2019 유니버설관광 인증제 백서, 서울관광재단, 2020
- 서울디자인재단, G밸리 가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디자인재단, 2019
- 서울특별시, 201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서울특별시, 2016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7
- 서울특별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7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2019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디자인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9
- 서정원 외,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국립산림과학원, 2015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가이드라인, 진한M&B, 2016
- 소셜포커스, 장애인 차별하는 순천만 스카이크브, 소셜포커스, 2020
- 순천시, 순천시 건축조례, 순천시, 2018
- 순천시, 순천시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 순천시, 2017
- 순천시,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순천시, 2018
- 순천시,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순천시, 2018
- 순천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순천시, 2016

순천시, 순천시 도시계획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2017

순천시,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순천시, 2018

순천시,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2018

순천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순천시, 2018

순천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순천시, 2018

순천시,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 환경 조례 조성 조례, 순천시, 2019

순천시, 순천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순천시, 2017

아르스 편집부, 친환경 공공디자인: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 그리고, 문화공간이야기, 아르스, 2016

안양시,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안양시, 2019

연합뉴스, 장애인 이용 불편한데 BF 인증 받으면 뭐하나, 신축건물도 허술, 2019.4.20

요시히코 아와우치, 유니버설디자인: 베리어 프리에의 질문, 선인출판사, 2005

용인시,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용인시, 2017

이근, 해외도시디자인 트렌드리포트 2015, (재)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소, 2015

전라남도, 2015~2035 전남 시군 장래인구추계, 전라남도, 2017

전라북도,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라북도, 20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2019

조영진 외,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 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진주시, 진주시 무장애도시조성조례, 진주시, 2017

최응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한국학술정보, 2006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사전검토제). 충남공공디자인센터, 2020

프랑크 만쿠조, 전진영 외5인 공역, 광장, 생각의 나무, 2009

한국관광공사, 한국 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한국관광공사, 2009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도시 세종 디자인 사전 1,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

화성시, 화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화성시, 2017

해외 문헌 자료

Center for Universal Design, Environments and Products for All People. Raleigh: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Center for Universal Design, 1997

Jorgen Aarhaug, Universal Design as a Way of Thinking About Mobility: Challenges, Solutions and Collaborations. Towards User- Centric Transport in Europe, 2019

Sally S. Scott, Joan M. Mcguire, & Stan F. Shaw, Universal Design for Instruction: A New Paradigm for Adult Instruction in Postsecondary Education.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4(6), 2003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참고자료

인터넷 사이트

- <https://www.airport-technology.com>
- <https://www.ansp.org>
- <https://www.architecture.org>
- <https://www.architonic.com>
- <https://www.aucklanddesignmanual.co.nz>
- <https://www.bristollegiblecity.info>
- <https://www.cha.go.kr>
- <https://www.citigreen.com>
- <https://www.cpdcre.kr>
- <https://www.cpted.kr>
- <https://www.design.gg.go.kr>
- <https://www.dezeen.com>
- <https://www.flickr.com>
- <https://www.gehlpeople.com>
- <https://www.greencirclegarden.com>
- <https://www.groundplaysf.org>
- <https://www.intersticearchitects.com>
- <https://www.kikuobata.com>
- <https://www.kostat.go.kr>
- <https://www.law.go.kr>
- <https://www.mecanoo.nl>
- <https://www.mois.go.kr>
- <https://www.molit.go.kr>
- <https://www.pentagram.com>
- <https://www.playlsi.com>
- <https://www.portlandloo.com>
- <https://www.projects.ncsu.edu>
- <https://www.seoul-design.or.kr>
- <https://www.shmadesigns.com>
- <https://www.suncheon.go.kr>
- <https://www.svrdesign.com>
- <https://www.theguardian.com>
- <https://www.thehighline.org>
- <https://www.universaldesign.ie>
- <https://www.universaldesign.com>
- <https://www.visituffizi.org>
- <https://www.visituscany.com>

가이드라인 Index

가로 64 - 101

공공벤치	94
맨홀	91
배전함	92
버스·택시 승차대	86
보도펜스	83
보차도 분리	74
보행안전구역	65
볼라드	84
신호기	89
음수대	93
자전거도로	78
차량진출입구역	72
횡단보도	76

공원 102 - 133

공공벤치	125
놀이터	119
보행로	111
음수대	124
안내시설물	127
안내시설	106
접근로	103
주차공간	108
화장실	116
휴게시설	121
휴지통	126

공공건축물 134 - 185

건물출입구	142
계단	152
로비	135
보행접근로	155
복도	145
수유실	163
시각정보	170
샤워실	165
안내시설물	176
엘리베이터	149
인포메이션센터	168
자전거보관소	167
주차공간	138
촉각·청각·후각정보	174
화장실	159

관광지 186 - 215

가로등	203
공공벤치	205
광장	198
매표소	190
방법 및 안전시설	200
보행로	194
사전정보제공	187
안내시설	189
안내시설물	208
음수대	201
주차공간	192
화장실	196
휴지통	207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Suncheon Universal Design Master Plan

참여연구진

총괄 권영걸 前 서울대 교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장성연 조교수
공동연구원 천영준 박사
참여연구원 김유완 연구원
양준후 연구원
원하연 연구원
송현지 연구원
보조연구원 명소연 연구원
디자인·편집 문해원 연구원

(주)BE:A Company

책임연구원 이현영 대표
참여연구원 황혜원 실장
김세연 차장
권지혜 대리

발행처 순천시 도시과

발행일 2020. 9. 2.

순천시 도시과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BE:A Company